

저자 김홍제  
국역 오준호  
해제 오준호

국  
역

金  
方

(二)



ISBN 978-89-5970-597-9(PDF)  
ISBN 978-89-5970-611-2(세트)

# Table of Contents

## 원문·국역

일금방 권2 一金方卷之二	1.1
외형편 外形篇	1.1.1
소변 小便	1.1.1.1
대변 大便	1.1.1.2
이질 瘀	1.1.1.3
머리 頭	1.1.1.4
얼굴 面	1.1.1.5
눈 眼	1.1.1.6
귀 耳	1.1.1.7
코 鼻	1.1.1.8
입과 혀 口舌	1.1.1.9
치아 牙齒	1.1.1.10
인후 咽喉	1.1.1.11
목 頸項	1.1.1.12

등 背	1.1.1.13
가슴 胸	1.1.1.14
배 腹	1.1.1.15
허리 腰	1.1.1.16
옆구리 脇	1.1.1.17
피부 皮	1.1.1.18
근 筋	1.1.1.19
팔 手	1.1.1.20
다리 足	1.1.1.21
머리카락 毛髮	1.1.1.22
전음 前陰	1.1.1.23
후음 後陰	1.1.1.24

##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 一金方卷之二

### 일금방 권2



## 外形篇 외형편



## † 小便 소변

小便原委。[靈樞曰，水穀者，常并居胃中，成糟糠而俱下于大腸，而成下焦滲而俱下，濟泌別汁，循下焦而滲入膀胱焉。] ○內經註曰，水液自廻腸，泌別汁，滲入膀胱之中，胞氣化之，而爲尿以泄出也。] ○難經註曰，水穀自小腸盛受，於闌門以分別也。其水則滲灌入於膀胱上口而爲溲便也。詳此三說，則小便卽泌別之水液，滲入膀胱以出者也。內經曰，膀胱者，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且水者，氣之子，氣者，水之母，氣行則水行，氣滯則水滯。或謂小便純由泌別，不由運化，蓋不明此理故也。（東垣）]

소변의 원인과 경위.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수곡(水穀)은 항상 위(胃) 안에 함께 있다가, 대변이 될 찌꺼기는 모두 대장(大腸)으로 내려가고, 소변이 될 진액은 하초(下焦)로 스며들어 모두 내려간 뒤 분별된다. 이렇게 하초를 따라 방광(膀胱)으로 스며든다."] ○《내경(內經)》의 주석에서 말하였다. "수액(水液)이 회장(廻腸)에서 분별되고 방광 안으로 스며들면, 포기(胞氣)가 이를 변화시켜 소변이 되어 배출된다." ○《난경(難經)》의 주석에서 말하였다. "수곡(水穀)이 소장(小腸)에 가득 차면 난문(闌門)에서 나뉜다. 이 가운데 물은 방광 윗입구로 스며들어 소변이 된다." 이 3가지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변은 곧 분별된 수액이 방광으로 스며들어간 뒤 나온 것이다. 《내경》에서 말하였다. "방광은 진액(津液)을 저장하는 곳으로, 기(氣)의 작용을 거치면 소변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물은 기(氣)의 자식이고 기는 물의 어미이

므로, 기가 흐르면 물이 흐르고 기가 정체되면 물도 정체된다. 혹자는 소변이 순전히 분별된 것일 뿐 운화(運化)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이 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원(東垣)》) ]

脬爲尿器。 [ 膀胱雖曰津液之府，至於受盛津液，則又有脬而居膀胱之中焉。故內經曰，脬移熱於膀胱。靈樞曰，膀胱之脬，薄以濡。類纂曰，胱肪者，脬之室也。夫脬之居於膀胱也。有上口而無下口，津液既盛於脬，無由自出，必因乎氣化而後，能漸漬浸潤於胞外，積於脬下之空處，遂爲尿以出於前陰也。若曰，脬下無空處而貯，則人尿急時，至廁安能卽出乎。夫惟積滿脬下之空處而不可再容，故急急則至廁卽出也。 ( 東垣 ) ○如渴而小便不通者，熱在上焦氣分，宜清肺散。如不渴而不通者，熱在下焦血分，宜滋腎丸。 ( 東垣 ) ]

방광이 소변을 담는 기관이 됨. [ 방광(膀胱)은 진액(津液)을 저장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액을 받아 저장하는 것은 방광 안에 있는 포(脬)이다. 그래서 《내경(內經)》에서는 "포(脬)의 열이 방광으로 옮겨진다."라고 하였고, 《영추(靈樞)》에서는 "방광의 포(脬)는 얇고 부드럽다."라고 하였으며, 《유찬(類纂)》에서는 "방광은 포(脬)의 방이다."라고 하였다. 포(脬)는 방광 안에 있는데, 위쪽에는 입구가 있지만 아래쪽에는 입구가 없다. 그래서 진액이 이미 포(脬)에 가득 차도 스스로 나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氣)의 작용을 통한 뒤에야 점차 포(脬) 밖으로 스며나와 포(脬) 아래의 빈 공간에 쌓인 뒤 소변이 되어 요도를 통해 나오게 된다. 만약 포(脬) 아래에 빈 공간이 없어 저장할 수 없다면, 사람이 소변이 급할 때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바로 소변을 볼 수 있겠는가? 오직 포(脬) 아래의 빈 공간에 소변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때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바로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이다. (《동원(東垣)》) ○ 갈증이 있으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열이 상초(上焦)의 기(氣) 부분에 있는 것이니, 청폐산(淸肺散)을 써야 한다. 갈증이 없으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열이 하초(下焦)의 혈(血) 부분에 있는 것이니, 자신환(滋腎丸)을 써야 한다. (《동원》) ]

有人小便點滴不出，亦不必十分大急，乃腎氣不能行於膀胱也。補其腎，則小便自出矣，不必視爲根本之病，而急欲出之也。用八味地黃湯。 [熟地黃一兩，山茱萸四錢，茯苓、澤瀉、肉桂、牡丹皮、車前子、山藥各一錢]，水煎服。

[ (末治) ]

어떤 사람에게 소변이 방울방울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신기(腎氣)가 방광(膀胱)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腎)을 보하면 소변이 저절로 나올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인 병으로 여겨 소변을 급히 배출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1냥, 산수유(山茱萸) 4돈, 복령(茯苓) · 택사(澤瀉) · 육계(肉桂) · 모단피(牡丹皮) · 차전자(車前子) · 산약(山藥)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말치(末治)〉) ]

府治甚多，我舉其一二症，取以爲法，餘可以推廣也。如人病小便不通，大便甚結者，是也。小便不通，乃膀胱之病，膀胱之氣化，不行小便，即不能出也。小便閉塞，治膀胱之經而已矣。治法全不在治膀胱也。方用運水至奇丹<sup>1</sup>。 [人蔘、蓮子、茯苓、車前子、王不留行各三錢，白果二十介，甘草一錢，肉桂三分]，水煎服。一劑即如注也。 [ (府治) ]

육부(六腑)의 치료법은 매우 많지만, 내가 다루는 한두 가지 증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머지는 이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변이 통하지 않고 대변이 매우 굳은 경우가 이것이다. 소변이 통하지 않는 것은 방광(膀胱)의 병이다. 방광이 심포락(心包絡)의 기(氣)를 받지 못하면 소변을 움직이지 못한다.<sup>2</sup> 곧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변이 막혔을 때는 방광의 경(經)을 치료하면 될 뿐이다. 그러나 치료법은 방광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데 있지 않다. 처방은 통수지기단(通水至奇丹)을 사용한다. [ 인삼(人蔘) · 연자(蓮子) · 복령(茯苓) · 차전자(車前子) · 왕불류행(王不留行) 각 3돈(錢), 백과(白果) 20개, 감초(甘草) 1돈(錢), 육계(肉桂) 3푼(分).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곧 소변이 쏟아져 나온다.

[ (〈부치(腑治)〉) ]

人有小便之時，忽然昏眩而倒者，亦陰陽之氣脫也。 [ ( 方見精門 ) ]

어떤 사람이 소변을 볼 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여 쓰러지는 증상은 음양의 기(氣)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 ( 치료법은 <정문(精門)>에 있다 ) ]

<sup>3</sup> 關格者，乃上焦有關，一層關住，而飲食不能下。下焦有關，一層關住，而下不能出。此乃氣之鬱塞，一時偶得，上吐下閉，不能盡命，而死矣。此等症，五臟六腑，原未嘗有損，偶然觸怒，肝氣沖於胃口之間，腎氣不得上行，肺氣不得下行，以成此症。若言胃病，而胃實未病，若言脾病，而脾實亦無病也。法當以開鬱爲主。方用和解至聖丹。 [ 白芍藥三錢，柴胡、茯苓、白芥子、天花粉、鬱金、蘇子、荊芥各一錢，甘草五分 ]，水煎服。 [ ( 開治 ) ]

관격(關格)이란 다음과 같다. 상초(上焦)에 '관(關)'이 있으면 한 겹 막혀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하초(下焦)에 '관(關)'이 있으면 한 겹 막혀 아래로 배출되지 못한다. 이는 기(氣)가 울체되어 막힌 것으로, 일시적으로 우연히 생겨 위로 토하고 아래는 막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손상은 본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분노 때문에 간기(肝氣)가 위(胃) 입구 공간을 치받은 데다 신기(腎氣)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肺氣)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여 생긴다. 위(胃)의 병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위(胃)가 병들지 않았고, 비(脾)의 병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비(脾)도 병들지 않았다. 치료법은 막하고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처방으로는 화해지성단(和解至聖丹)을 사용한다. [ 백작약(白芍藥) 3돈 (錢), 시호(柴胡) · 복령(茯苓) · 백개자(白芥子) · 천화분(天花粉) · 올금(鬱金) · 소자(蘇子) · 형개(荊芥) 각 1돈(錢), 감초(甘草) 5푼(分).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개치(開治)〉) ]

### 淸肺散 청폐산

- [ 治渴而小便不通。猪苓通草各一錢半，赤茯苓澤瀉燈心車前子各一錢，萹蓄木通瞿麥各七分，琥珀五分。右剉作一貼，空心水煎服。 ( 東垣 ) 鍼經渠穴，先虎後龍。 ]
- [ 갈증이 나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저령(猪苓) · 통초(通草) 각 1돈 5푼, 적복령(赤茯苓) · 택사(澤瀉) · 등심(燈心) · 차전자(車前子) 각 1돈, 편축(萹蓄) · 목통(木通) · 구맥(瞿麥) 각 7푼, 호박(琥珀) 5푼. 이 약재를 잘게 썰어 1첩으로 만든다. 빈속에 물에 달여 복용한다. (《동원(東垣)》) 경거 ]

혈(經渠穴)에 침을 놓은 뒤 먼저 사법을 썼다가 보법을 쓴다. ]

滋腎丸。 자신환(滋腎丸).

- [ 治不渴而小便閉。黃柏、知母并酒洗焙，各一兩，肉桂半錢。右爲末，水丸梧子大。空心白湯下百丸。 ( 東垣 ) 鍼然谷穴，先虎後龍。 ( 滋腎丸，一名泄腎丸。 ) ]
- [ 갈증이 나지 않으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황백(黃柏)·지모(知母) ( 2가지 모두 술로 씻어 말린다 ) 각 1냥, 육계(肉桂) 반 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물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빈속에 끓인 물로 100알씩 복용한다. ( 《동원(東垣)》 ) 연곡혈(然谷穴)에 침을 놓은 뒤 먼저 사법을 썼다가 보법을 쓴다. ( 자신환(滋腎丸)으로, 설신환(泄腎丸)이라고도 한다. ) ]

關格。 [ 內經，人迎一盛，病在足少陽，一盛而躁，病在手少陽，二盛，病在足太陽，二盛而躁，病在手太陽，三盛，病在足陽明，三盛而躁，病在手陽明。一盛，人迎大於氣口一倍也。四倍則陽盛已極，故格則吐逆而食不得入。 ○又，氣口一盛，病在足厥陰，一盛而躁，病在手厥陰，二盛，病在足少陰，二盛而躁，病在手少陰，三盛，病在足太陰，三盛而躁，病在手太陰。四盛則陰盛已極，故關則不得小便。若人迎氣口俱盛四倍已上，則盛極衰至，必死。 ( 甲乙 ) ]

관격(關格).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인영(人迎)이 기구(氣口)보다 1배 더 크면 병이 족소양경(足少陽經)에 있고, 1배 더 크면서 조급하면 수소양경(手少陽經)에 있다. 2배 더 크면 병이 족태양경(足太陽經)에 있고, 2배 더 크면서 조급하면 수태양경(手太陽經)에 있다. 3배 더 크면 병이 족양명경(足陽明經)에 있고, 3배 더 크면서 조급하면 수양명경(手陽明經)에 있다." '1배 더 크다'는 것은 인영맥(人迎脈)이 기구맥(氣口脈)보다 1배 더 크게 뛴다는 뜻이다. 4배가 되면 양(陽)이 이미 극에 달한 것이므로 격(格)이 발생하여 구역질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 말하였다. "기구(氣口)가 인영(人迎)보다 1배 더 크면 병이 족궐음경(足厥陰經)에 있고, 1배 더 크면서 조급하면 수궐음경(手厥陰經)에 있다. 2배 더 크면 족소음경(足少陰經)에 있고, 2배 더 크면서 조급하면 수소음경(手少陰經)에 있다. 3배 더 크면 족태음경(足太陰經)에 있고, 3배 더 크면서 조급하면 수태음경(手太陰經)에 있다." 4배가 되면 음(陰)이 이미 극에 달한 것이므로 관(關)이 발생하여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인영(人迎)이나 기구(氣口)가 모두 4배 이상으로 크면, 왕성한 것은 지나치게 왕성하고 쇠약한 것은 지나치게 쇠약한 경우이니 반드시 죽게 된다. (《갑을(甲乙)》) ]

### 加味理中湯 가미이중탕

- [ 治上下關格不通。乾薑炮當歸各五錢，人蔘、白朮各三錢，白茯苓、甘草各一錢。水煎連服。 (歷驗) ]
- [ 위아래로 관격(關格)이 생겨 통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건강(乾薑) (볶는다) · 당귀(當歸) 각 5돈(錢), 인삼(人蔘) · 백출(白朮) 각 3돈(錢), 백복령(白茯苓) ]

苓) · 감초(甘草) 각 1돈(錢). 이 약재를 물에 달여 연달아 복용한다. ( 경험한 처방 ) ]

難治不治症。 [ 嘔噦而小便不通者，難治。中滿鼓脹病，小便不通者，亦難治。

(回春) ○老人氣虛 (一作短) 小便不通，爲下焦血氣乾者，死。 (正傳)

○關格不通，不得尿，頭無汗者可治，有汗者死。 ○頭汗，內外關格，小便不通，此爲陽脫，不治。 (得效) ○凡關格見頭汗者，死。 (入門) 傷寒、熱病及風濕，狂言直視遺尿者，死。 (入門) ]

치료하기 어려운 병증. [ 구토하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배가 그득하여 복처럼 부푼 병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역시 치료하기 어렵다. (《회춘(回春)》) ○ 노인의 기(氣)가 허하고 (어떤 곳에는 '숨이 짧고'라고 하였다.) 소변이 통하지 않는 것은 하초(下焦)의 혈기(血氣)가 말랐기 때문이니 죽는다. (《정전(正傳)》) ○ 관격(關格)으로 막혀 소변을 보지 못할 때 머리에 땀이 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있으나 땀이 나면 죽는다.

○ 머리에 땀이 나고 안팎으로 관격(關格)이 생겨 소변이 통하지 않는 것은 양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므로 치료할 수 없다. (《득효(得效)》) ○ 무릇 관격(關格)이 있을 때 머리에 땀이 보이면 죽는다. (《입문(入門)》) ○ 상한(傷寒)이나 열병이나 풍습(風濕)으로 헛소리를 하고 눈을 골추뜨며 소변을 지리는 경우는 죽는다. (《입문(入門)》) ]

### 脫關散 탈관산

- [ 屢用屢驗，心有所得。昔者僑停於洪原，有一婦人爲關格命濱也。馳人質

方於余，臆度靜思，必先多用其入門寶鑑中良劑遺方。無有喜而來，以若椎魯。更從穿合摘變，似必無補於楚叫之急，終難不免於榔榆之嘲。故敢忌致罪於先聖筌蹄，抑以自心探頤索微之理。遂教之曰，素謂關者，古人限界而立關也。而今五里十里之置堠也。急往握斧，從某至某，當堠立處，斫得一片而歸，燒存性爲細末，順汲急灘水一椀調均，以送下則效之遲速，自病家從堠之遠近來許得痊云云。而送之後，自愧以朝三暮四之辯，豈念及三春敷榮於霜雪之餘哉。却置忘域矣。不日聞果一切寓於順安。積巖村，又有一男子患照右例見效。茲豈非誤中眞機關要識之句歟。蓋關格者，陰盛拒陽，陽盛拒陰。小便閉而無出曰關，水鬱<sup>4</sup>逆而不入曰格。甚熱甚寒之氣相閉不能洞開也。以此取物，堠本關也。況以衆人均道理而中立，上以受風熱火，下以襲寒濕燥，陰陽之氣相得，浹洽貫通，則想焉有癃閉拒逆之理哉。茲以推類贅治。然使後之學者屢中後，庶無疑訝於此哉。易曰，近取諸身，遠取諸物。理其然哉。（經驗） ○合谷太衝穴最要穴也。】

- [ 자주 사용하고 효과를 거두며 알게 된 방법. 예전에 흉원에 머물 때, 한 부인이 관격(關格)으로 위독한 상황이었다. 급히 사람을 보내 나에게 방법을 물어왔는데, 곰곰히 생각하고는 먼저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에 있는 좋은 처방을 많이 써 보았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없어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듯했다. 다시 여러 처방을 조합하더라도 급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듯했고 결국 비웃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감히 선현들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죄를 무릅쓰고 스스로 미묘한 이치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관(關)'이란 본래 옛 사람들이 경계를 정하여 세운 관문으로 지금은 5리나 10리마다 세워둔 이정표이지요. 급히 가서 도끼

를 들고 어떤 곳에서 어떤 곳까지 가다가 이정표를 만나면 이정표 나무 조각 하나를 베어 돌아오세요. 이것을 성질이 남도록 불에 태운 다음 가루로 만들고, 세차게 흐르는 물 한 그릇에 타서 잘 섞은 뒤 복용시키세요. 효과의 빠르고 늦음은 환자 집에서 이정표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를 것이나 모두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치료법을 보내고 난 뒤 나는 스스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논리로 속인 것 같아 부끄러웠다. 어찌 서리와 눈이 남은 때에 봄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을 생각하겠는가? 그렇게 그 일을 잊기로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모든 증상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적암촌에 있을 때도 한 남자가 위와 같은 병증을 앓았으나 효과를 보았다. 이것이 어찌 '잘못 속에서 참된 인체의 요체를 깨달은 격'이 아니겠는가? 대개 관격(關格)이란, 음기가 성하여 양기를 거부하거나 양기가 성하여 음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소변이 막혀 나오지 않는 것을 '관(關)'이라 하고, 마신 물이 역류하여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격(格)'이라 한다. 매우 뜨겁거나 매우 찬 기운이 서로 막혀 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를 토대로 사물을 살펴보건대, 이정표는 본래 관문이다. 하물며 여려 사람에 의해 일정한 거리마다 세워진 뒤 위로는 바람과 열기를 받고 아래로는 한숨과 건조함을 겪어 음양의 기운이 서로 만나 두루 뚫어 소통시키니, 어찌 소변이 막히고 음양이 서로 거부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로써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치료법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후학들은 여러 번 사용한 후에야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역경(易經)》에서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한다."고 하였으니, 이치가 그러하다.

(《경험(經驗)》) ○ 합곡(合谷)과 태충(太衝)이 가장 중요한 혈자리이다.]

1. 運水至奇丹 ☞ 通水至奇丹 ※《석실비록》 ←
2. 《석실비록》의 내용을 근거로 번역하였다. "기화란 무엇인가. 심포락(心包絡)의 기(氣)이다. 반드시 심포락의 기(氣)가 하행해서 방광이 이를 얻어야 소변이 나갈 수 있다. 氣化者何。心包絡之氣也。膀胱必得心包絡之氣下行，而水路能出。" ←
3. 關格 : 關隔 ※《석실비록》 ←
4. 水醬 : 水漿 ※문맥 ←

## † 大便 대변

大便原委。 [ 難經曰，大腸小腸會爲闌門。蓋胃中水穀腐熟，自胃下口傳入於小腸上口，自小腸下口泌別清濁，水液入膀胱爲溲尿，滓穢入大腸爲大便。由闌門而分別，關闌分隔，故名爲闌門也。 ○內經曰，大腸者，傳導之官，化物出焉。註曰，化物謂大便也。 ]

대변이 만들어지는 과정. [《난경(難經)》에서 말하였다. "대장(大腸)과 소장(小腸)이 만나는 곳을 난문(闌門)이라 한다." 대개 위(胃) 속의 수곡(水穀)이 부숙(腐熟)되면 위(胃)의 아래쪽 입구에서 소장의 위쪽 입구로 이동해 들어가고, 소장의 아래쪽 입구에서 청탁(淸濁)이 분별된 뒤 수액(水液)은 방광(膀胱)으로 들어가 소변이 되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들어가 대변이 된다. 난문에서 나누는 것이 마치 관문에서 난간으로 출입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하여 난문이라 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대장은 전해주는 기관이다. 소화된 음식이 나온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소화된 음식'은 대변을 말한다." ]

大便病因。 [ 犯賊風虛邪者，陽受之。食飲不節，起居不時者，陰受之。陽受之則入六腑，陰受之則入五臟。入六腑則身熱，不時臥，上爲喘呼。入五臟則膩滿閉塞，下爲飧泄。久爲腸癖。 (腸癖謂痢疾) (內經) ○春傷於風，夏必飧泄。 ○春傷於風，邪氣留連，乃爲洞泄。 ○久風入中，則爲腸風飧泄。 ○清氣在下則爲飧泄。 ○濕勝則濡泄。註曰，濕勝則內攻於脾胃，脾胃受濕則水穀不分，故大腸傳導而注瀉也。 (內經) ○倉廩不藏者，是門戶不要也。註曰，大腸之門戶不得斂也。 (內經) 大腸有寒則多鰲溏，有熱則便腸垢。 (仲

景) ○腸垢者，腸間積汁垢膩也，亦曰滯下，言濕火滯於腸中，故謂之滯下。

(入門) 痢因有二。一則暑月煩湯，恣飲生冷也，二則夜臥失被，風濕外侵。二者皆令水穀不化，鬱而生熱，熱與濕合。傷氣分則爲白痢，傷血分則爲赤痢，氣血俱傷則爲赤白痢也。(丹心) ○古人云，無積不成痢。皆由暑月多食生冷，不能剋化，飲食積滯而成痢也。(類聚)]

대변병의 원인. [적풍(賊風)과 허사(虛邪) 같은 외감(外感)은 양(陽)의 부분에서 받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생활에 절도가 없는 것과 같은 내상(內傷)은 음(陰)의 부분에서 받는다. 양의 부분에서 받는다는 것은 육부(六腑)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음의 부분에서 받는다는 것은 오장(五臟)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육부로 들어가면 몸에서 열이 나고 제때에 잠자리에 들지 못하며 위로는 숨이 차다. 오장으로 들어가면 배가 불러 올라 막히고 아래는 소화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며, 오래되면 장벽이 된다. (장벽은 이질을 말한다) (《내경(內經)》) ○봄에 풍(風)에 상하면 여름에 반드시 손설(飧泄)을 앓는다. ○봄에 풍(風)에 상하면 사기(邪氣)가 머물러 동설(洞泄)이 된다. ○오래된 풍(風)이 속으로 들어가면 장풍(腸風)이나 손설(飧泄)이 된다. ○청기(淸氣)가 아래에 있으면 손설(飧泄)이 된다. ○습(濕)이 지나치면 유설(濡泄)을 앓는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습(濕)이 성하면 안으로 비위(脾胃)를 공격하고, 비위(脾胃)가 습(濕)을 받으면 수곡(水穀)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장(大腸)이 전해주고 나서 설사하게 된다." (《내경(內經)》) 또한, "창고가 저장하지 못하는 것은 문짝이 닫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대장(大腸)의 문짝이 수렴되지 못한 것이다." (《내경(內經)》) 대장(大腸)에 한(寒)이 있으면 오리뚱처럼 변이 무르고, 열이 있으

면 장구(腸垢)가 생긴다. (《중경(仲景)》) 장구(腸垢)란 장(腸) 사이에 쌓인 진액과 때를 말한다. 체하(滯下)라고도 하는데, 습(濕)과 화(火)가 장(腸) 속에 체류하므로 체하라고 부른다. (《입문(入門)》) 이질의 원인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더운 여름에 너무 더워 차가운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이고, 둘째는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지 않아 풍습(風濕)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이다. 이 2가지 원인으로 인해 수곡이 소화되지 않고 울체되어 열(熱)이 생긴 다음 열과 습(濕)이 합해진다. 그것이 기분(氣分)을 상하면 백리(白痢)가 되고, 혈분(血分)을 상하면 적리(赤痢)가 되며, 기혈을 모두 손상시키면 적백리(赤白痢)가 된다. (《단심(丹心)》) 고인(古人)이 말하였다. "적(積)이 없으면 이질이 생기지 않는다." 모두 더운 여름에 날것이나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고 이를 소화시키지 못하여 음식이 적체되어 이질이 되는 것이다. (《유취(類聚)》) ]

大便秘結者，人以爲大腸燥甚，誰知是肺氣燥乎。肺燥則清肅之氣，不能下行於大腸，而腎經之水，僅足以自顧，又何能旁流，以潤溪澗哉。方用潤燥至神湯。  
 [熟地黃、元蔘各三兩，升麻二錢半，火麻子一錢，牛乳一椀，水二鍾]，煎六分。將牛乳一椀，同調服之。一劑不解，二劑必大便矣。[(府治)]

변비(便秘)의 경우, 사람들이 대장(大腸)이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폐(肺)가 건조한 탓인 줄 누가 알겠는가? 폐가 건조하면 맑은 기운이 대장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신장의 물은 제 몸도 가누기 어려우니 어찌 옆으로 흘러 시냇물을 적시겠는가? 윤조지신탕(潤燥至神湯)을 쓴다. [숙지황(熟地黃)·현삼(玄蔘) 각 3냥, 승마(升麻) 2돈 반, 화마자(火麻子) 1돈. 이 약재를 우유(牛

乳) 1사발, 물 2종지에 넣고 ] 6할이 되도록 달인다. 이것을 우유 1사발과 섞어 함께 복용한다. 1제(劑)를 써서 풀리지 않더라도 2제(劑)를 쓰면 반드시 대변을 본다. [ (〈부치(府治)〉) ]

大便不通，亦多實症，天師之方，治虛症之方也。我以此方，治實症者，真奇方也。方用 [ 熟地黃、當歸尾各一兩，大黃五錢，升麻五分，清蜜半甌 ]，水煎服。蓋 [ 大黃者，泄利之藥，當歸尾，潤燥之劑 ]，仍以爲君，則雖泄而不十分過猛，不致亡陰之弊。 [ (末治) ]

대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실증(實症)도 많은데, 천사(天師)의 처방은 허증(虛症)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내가 이 처방으로 실증을 치료하였으니 진정 기이한 처방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숙지황(熟地黃) · 당귀미(當歸尾) 각 1냥, 대황(大黃) 5돈, 승마(升麻) 5푼, 청밀(清蜜) 반 사발.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대개 [ 대황은 설사시키는 약재이고, 당귀미는 윤조(潤燥)하는 약재인데 ], 당귀미를 군약(君藥)으로 삼으면 비록 설사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아 음기(陰氣)를 잃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 (〈말치(末治)〉) ]

凡久病之後，或大便一月不通，不必性急。上<sup>1</sup>補其眞陰，便陰足以生血，血足以潤腸，大便自通。不可視爲退本之病<sup>2</sup>，而速求其愈也。方用 [ 熟地黃、元蔴、當歸各一兩，川芎五錢，火麻子仁、大黃各一錢，桃仁十箇，紅花三分，蜜半甌 ]，水煎服。 [ (末治) ]

무릇 오래 병을 앓은 후에 혹 대변이 1달 동안 통하지 않더라도 성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진음(眞陰)만 보충하면 음기(陰氣)가 충족되어 혈(血)을 생성하고, 혈이 충족되면 장(腸)을 윤활하게 하여 대변이 저절로 통할 것이다. 이를 근본의 병으로 여겨 서둘러 치료하려 하지 말라.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속지황(熟地黃) · 현삼(玄蔴) · 당귀(當歸) 각 1냥, 천궁(川芎) 5돈, 화마인(火麻仁) · 대황(大黃) 각 1돈, 도인(桃仁) 10개, 흥화(紅花) 3푼, 꿀 반 사발.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말치(末治)〉) ]

脾經之病，如水瀉，乃脾氣不溫。血痢，乃過於燥熱，而成此症也。水瀉，用分水神丹，[ 白朮一兩，車前子五錢 ]，二味水煎服之，立效。[ ( 正治 ) ]

비경(脾經)이 병들어 만약 물설사를 한다면 비기(脾氣)가 따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혈리(血痢)는 조열(燥熱)이 지나쳐서 생긴 증상이다. 물설사에는 분수신단(分水神丹)을 사용한다. [ 백출(白朮) 1냥, 차전자(車前子) 5돈. ] 이 2가지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하면 즉시 효과가 있다. [ (〈정치(正治)〉) ]

水瀉者，人見其如潮而來，如瀑而下，皆曰急宜止之，以免亡陰之症，當以栗角、烏梅之類，急止之。其論則甚是，而治則非也。水瀉雖不比痢疾之斷不可止，然而水瀉之中，亦有不可劇止之病。如疼痛於腸中，後重於門口，皆是有火而瀉，不比虛寒之直瀉，當用通因之法而治之。方用 [ 車前子一兩，人蔘、白芍藥各三錢，檳榔、甘草各一錢 ]，水煎服。[ ( 通治 ) ]

수사(水瀉)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설사가 마치 조수(潮水)와 같아 오고 폭포처럼 쏟아지므로 모두 급히 멈추게 해서 음기(陰氣)를 모두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속각(栗角) · 오매(烏梅) 등으로 급히 설사를

그치게 한다. 이 주장은 매우 옳지만, 치료법은 옳지 않다. 수사(水瀉)는 이질(痢疾)처럼 반드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중에 강제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되는 병도 있다. 예를 들어 장(腸) 속에 통증이 있고 항문에 후중감(後重感)이 있는 경우는 모두 화(火)가 있어 설사하는 것으로, 허한(虛寒)으로 생긴 단순한 설사와는 다르다. 이때는 통인(通因)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한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차전자(車前子) 1냥, 인삼(人蔘) · 백작약(白芍藥) 각 3돈, 빈랑(檳榔) · 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통치(通治)〉) ]

陽症之火瀉也。完穀不化，飲食下咽即出，一日或瀉十餘次，或瀉數十次，或晝夜數百次，人以謂<sup>3</sup>熱也。然而熱之生也何故。此乃腎中之水，衰不能制火，使胃土關門不守，於上下所以直進，而直出也。論其熱之急迫奔騰，似乎宜治其標。然治其標，則不能使火之驟降，必須急補腎中之水，使火有可居之地，而後不至於上騰矣。方用 [ 熟地黃、白芍藥各三兩，車前子、山茱萸、甘草、茯苓各一兩，肉桂三分 ]。水煎服。 [ ( 陽治 ) ]

양증(陽症)의 화사(火瀉). 설사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나오고, 음식(飲食)이 목구멍으로 내려가자마자 나오며, 하루에 10여 차례 또는 수십 차례 혹은 밤낮으로 수백 차례 설사를 한다. 사람들은 이를 열(熱)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신(腎) 중의 수(水)가 쇠약해져 화(火)를 제어하지 못하여 위(胃)의 토(土)가 관문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상하로 곧바로 들어가고 곧바로 나오는 것이다. 열의 급박하고 격렬함을 따지면 표증(標證)을 치료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표증을 치료하면 화(火)를 갑자기 끌어

내릴 수 없다. 반드시 급히 신(腎) 속의 수(水)를 보충하여 화(火)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 후에야 위로 치솟지 않을 것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숙지황(熟地黃) · 백작약(白芍藥) 각 3냥, 차전자(車前子) · 산수유(山茱萸) · 감초(甘草) · 백복령(白茯苓) 각 1냥, 육계(肉桂)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양치(陽治)〉) ]

**火瀉<sup>4</sup> 者**, 火挾邪勢, 將膀胱脾中水穀, 盡驅而出, 必欲無留一絲而後快。腹必大痛, 手不可按, 完穀不化, 飲食下喉卽出, 捷如奔馬。若稍稍遲延, 必死亡頃刻。蓋其病, 得之夏秋之暑熱, 一遇涼風。便起波濤, 乘風拍浪, 蕩日掀天, 直趨海口而下。若不急用大劑治之, 而尙王道之遲遲, 鮮不敗乃事矣。當用 [ 人蔘二兩, 大黃一兩, 黃連、車前子各五錢, 甘草一錢 ], 水煎服。 [ ( 霸治 ) ]

대사(大瀉)란, 화(火)가 사기(邪氣)의 기세를 타고 방광(膀胱)과 비(脾)의 수곡(水穀)을 모두 몰아내어 조금도 남김없게 하고야 말려는 것이다. 반드시 배가 매우 아파 손을 가져다 댈 수도 없으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설사에 섞여 나오고, 음식이 목구멍을 통과하자마자 마치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설사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으면 반드시 순식간에 죽게 된다. 대개 이 병은 여름이나 가을의 더운 날씨에 서늘한 바람을 쏘이어서 생긴다. 곧, 파도가 일다가 바람을 타고 물결이 치면 해를 훔들고 하늘을 들어올리듯 하다가 곧장 바다 어귀로 향해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만약 급히 강력한 처방으로 치료하지 않고 왕도(王道)의 느긋함을 승상한다면 패하지 않는 일이 드물 것이다. 다음

처방을 사용해야 한다. [ 인삼(人蔘) 2냥, 대황(大黃) 1냥, 황련(黃連) · 차전자(車前子) 각 5돈, 감초(甘草)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패치(霸治)〉) ]

天師之言，乃火瀉也，未言寒瀉，予補之。寒瀉之症，以一日或數十行，或數行<sup>5</sup>，腹亦有痛者，以完穀不化，下喉即出，亦死亡頃刻，亦多在夏秋之間。然則將何以辨之乎。予辨之<sup>6</sup>，火熱<sup>7</sup>者，口必渴，舌必燥甚，則生刺也，苔必黃灰黑色，腹必痛，而手不可按也。若寒瀉者，口不渴，即渴而亦不十分喜飲水，舌苔必自滑，而不燥，腹痛喜手按，不按則苦是也。然則治法，豈相同乎哉。法當急用補氣之藥，以生其胃氣，佐以分消之品。方用 [ 白朮三兩，人蔘、茯苓各一兩，澤瀉、猪苓各三錢，肉桂二錢，附子一錢 ]，水煎服。 [ ( 霸治 ) ]

대사(大瀉)에는 화사(火瀉)와 한사(寒瀉)가 있다.<sup>8</sup> 천사(天師)의 말씀은 화사(火瀉)에 관한 것이었고, 한사(寒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보충한다. 한사의 증상은, 하루에 수십 차례 또는 수백 차례 설사를 하며, 배에도 통증이 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설사에 섞여 나오고, 음식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자마자 설사를 하며,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나는 열(熱)과 통증으로 구분할 뿐이다. 화사(火瀉)는 다음과 같다. 반드시 입이 마르고, 혀가 매우 건조하면 혀바늘이 돋으며, 설태(舌苔)는 반드시 황색이나 회색이나 흑색이고, 반드시 배가 아픈데 손을 가져다 대어 누를 수 없다. 한사(寒瀉)는 다음과 같다. 입이 마르지 않고, 갈증이 나더라도 물을 매우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으며, 혀의 설태가 반드시 윤택하여 건조하지 않고, 배가 아프

지만 손으로 만져주길 좋아하고 만지지 않으면 괴로워한다. 그렇다면 치료법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치법은 마땅히 기(氣)를 보충하는 약을 급히 사용하여 위기(胃氣)를 살리고, 분소(分消)하는 약재로 도와야 한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백출(白朮) 3냥, 인삼(人蔘) · 복령(茯苓) 각 1냥, 택사(澤瀉) · 저령(猪苓) 각 3돈, 육계(肉桂) 2돈, 부자(附子)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패치(霸治)〉) ]

大瀉之後，自多亡陰，宜以補陰之藥治之矣。然而以補陰藥急治，反足增其水勢，法當以溫藥補之。方用補陰止瀉丹。 [ 熟地黃、人蔘、白朮、薏苡仁各五兩，山藥、山茱萸各四兩，肉桂、肉果、五味子、吳茱萸各一兩，各爲末，蜜丸梧子大。每日晚飯前，吞五錢，旬日即捷。 (緩治) ]

대사(大瀉)를 앓은 뒤에는 음(陰)이 많이 소실되므로, 음을 보충하는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음을 보충하는 약으로 급히 치료하면 오히려 수세(水勢)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보해주어야 옳다. 처방으로 보음지사단(補陰止瀉丹)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 인삼(人蔘) · 백출(白朮) · 익이인(薏苡仁) 각 5냥, 산약(山藥) · 산수유(山茱萸) 각 4냥, 육계(肉桂) · 육두구(肉豆蔻) · 오미자(五味子) · 오수유(吳茱萸) 각 1냥. 이 약재를 각각 가루 내어 꿀(蜜)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로 환약을 만든다. 매일 저녁 식사 전에 5돈씩 삼킨다. 열흘 만에 낫는다. (〈완치(緩治)〉) ]

大瀉之後，必多亡陰。亡陰既多，則元陽亦脫。若不急爲收止，則陰絕陽亡，可立待矣。法當用止塞之品，或疑邪未盡去，如何止住其水。萬一邪居中州，則腹心之患，不可不慮。其言則是，其理則非。吾言大瀉者，乃純是下清水，言利下

也<sup>9</sup>，非利無止法<sup>10</sup>，豈瀉水亦無止法乎。故人患水瀉者，急宜止遏。方用分水神丹。 [ 白朮五錢，茯苓三錢，車前子、五味子、山棗仁各一錢，吳茱萸五分 ]，水煎服。 [ (收治) ]

대사(大瀉)를 앓은 뒤에는 반드시 음(陰)을 많이 잃게 된다. 음을 많이 잃으면 원양(元陽)도 사라진다. 만약 급히 수습하여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음이 끊어지고 양이 사라져 곧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설사를 그치게 하는 약재를 사용해야 옳지만, 사기(邪氣)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설사를 그치게 하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사기가 중주(中州)에 있다면 배와 가슴에 생길 우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옳지만 그 이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대사(大瀉)란 설사로 순수하게 맑은 물이 나오는 물설사를 말하고, 하리(下利)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리를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물설사도 그치게 해서는 안되겠는가. 그러므로 물설사로 고통받는 사람은 급히 그치게 해야 한다. 방법으로는 분수신단(分水神丹)을 사용한다. [ 백출(白朮) 5돈, 복령(茯苓) 3돈, 차전자(車前子) · 오미자(五味子) · 산조인(山棗仁) 각 1돈, 오수유(吳茱萸)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수치(收治)〉) ]

大瀉之症，往往用止瀉之藥，至數兩者，亦一時權宜之計，不可執之爲經久之法。大瀉，瀉之始能止瀉，止瀉若過於酸收，則大腸細少矣。下不能出，又返而上故，止瀉之藥，止可用一時而止之，不可經久用之也。 ○大瀉方用 [ 白朮茯

芩各一兩，猪苓澤瀉各三錢，肉桂五分]。一劑即止矣。 ○更有腎經作瀉，五更時痛，下七八次者，亦用八味地黃湯一料，煎湯二碗與之。當日即減太半，二服愈，四服全愈。 [ (重治) ]

대사(大瀉)에는 흔히 설사를 멈추는 약을 수 냥(兩)까지 사용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임시방편일 뿐이며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사(大瀉)에 수삽(收瀉)하는 방법을 써야 비로소 설사를 멈출 수 있지만, 설사를 멈출 때 지나치게 신맛이 나는 약재로 수삽시키면 대장(大腸)이 가늘어지고 작아진다. 아래로 배출되지 못하면 다시 위로 되돌아가므로, 설사를 멈추는 약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멈추게 해야 할 뿐이며 오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대사(大瀉)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 백출(白朮) · 복령(茯苓) 각 1냥(兩), 저령(猪苓) · 택사(澤瀉) 각 3돈(錢), 육계(肉桂) 5푼(分). ] 1제(劑)를 쓰면 곧 멈춘다. ○ 또한 신경(腎經)으로 인해 나타나는 설사가 있으니, 오경(五更)이 되면 배가 아프고 7 - 8회 설사한다.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 1료(料)를 탕으로 달여 2그릇 준다. 첫날 설사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2번째 복용하면 더 나아지며, 4번째 복용하면 완전히 낫는다. [ (〈중치(重治)〉) ]

瀉症，乃水瀉也。寒瀉易治，火瀉難醫。有往往日夜瀉至數百次者，傾腸而出，完穀不化，糞門腫疼。瀉下氣<sup>11</sup>火之熱，此亦於百人中一病也。然無方救之，必致立亡。我今酌定一方，名截瀉湯。 [ 薏苡仁、白芍藥各二兩，車前子、山藥各一兩，白茯苓五錢，人蔘、黃連各三錢，甘草二錢，肉桂三分]。水煎服。一劑而瀉減半，再劑而瀉止，真神方也。愈後用六君子湯調治之。 [ (內傷) ]

사증(瀉症)은 곧 물설사를 말한다. 한(寒)으로 인한 설사는 치료하기 쉽지만, 화(火)로 인한 설사는 치료하기 어렵다. 때로는 하루 밤낮으로 수백 번씩 설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腸)을 쏟아내 듯 나오고 곡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나오며 항문이 붓고 아프다. 불의 열기처럼 설사를 하는데, 이 또한 백 명 중 한 명 꼴로 앓는 병이다. 그러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면 반드시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제 내가 처방 하나를 만들고 절사탕(截瀉湯)이라고 이름 붙였다. [ 의이인(薏苡仁) · 백작약(白芍藥) 각 2냥, 차전자(車前子) · 산약(山藥) 각 1냥, 백복령(白茯苓) 5돈, 인삼(人蔘) · 황련(黃連) 각 3돈, 감초(甘草) 2돈, 육계(肉桂)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설사가 반으로 줄고, 2제(劑)를 쓰면 설사가 멎으니 진실로 신묘한 처방이다. 병이 나은 후에는 육군자탕(六君子湯)으로 조리한다. [ (《내상(內傷)》) ]

1. 上 止 ※《석실비록》 ←
2. 退本之病 根本之病 ※《석실비록》 ←
3. 謂 爲 ※《석실비록》 ←
4. 火瀉 大瀉 ※《석실비록》 ←
5. 數行 數百行 ※《석실비록》 ←
6. 予辨之 予辨之熱與痛耳 ※《석실비록》 ←
7. 火熱 火瀉 ※문맥상 ←

8. 이해를 돋기 위해 역자가 추가하였다. "大瀉有火瀉, 有寒瀉" ※《석실비록》 ←

9. 言利下也 『 非言下利也 ※《석실비록》 ←

10. 非利無止法 『 利無止法 ※《석실비록》 ←

11. 氣 『 如 ※《석실비록》 ←

## † 痘 이질

脾經之病，血痢，乃過於燥熱，而成此症也。血痢不同，有腹痛不腹痛之分。腹痛者，火熱也，方用神丹。〔當歸尾、白芍藥各一兩，黃連、枳角各三錢，蘿蔔子、木香各二錢，甘草一錢〕，水煎服。不痛者，乃寒邪也，方用靈丹。〔白芍藥、當歸各三錢，蘿蔔子、枳殼、檳榔、甘草各一錢〕，水煎服。〔（正治）〕

비경(脾經)의 병 가운데 혈리(血痢)는 조열(燥熱)이 지나쳐서 생긴 병증이다. 혈리에는 복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있다. 복통이 있는 경우는 화열(火熱)이니, 신단(神丹)을 사용한다. [당귀미(當歸尾)·백작약(白芍藥) 각 1냥, 황련(黃連)·지각(枳殼) 각 3돈, 나복자(蘿蔔子)·목향(木香) 각 2돈, 감초(甘草)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통증이 없는 경우는 한사(寒邪)이니, 영단(靈丹)을 사용한다. [백작약(白芍藥)·당귀(當歸) 각 3돈, 나복자(蘿蔔子)·지각(枳殼)·빈랑(檳榔)·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정치(正治)〉）]

血痢者，乃肝木來剋脾土也。雖因脾土之濕，又加暑熱暗侵，蒼果內傷所致。然恐<sup>1</sup>反因肝木太旺無制，凌脾土而然也。故方用〔當歸、白芍藥〕，〔各三錢<sup>2</sup>〕，煎服。各用三錢太多，各減一錢，則不爲過猛烈矣。病去不傷本。病本<sup>3</sup>盡去，可以再進，亦不以和之道<sup>4</sup>也。何言之當也。〔（正治）〕

혈리(血痢)는 간목(肝木)이 비토(脾土)를 겁박하여 생긴다. 비록 비토의 습(濕)이 바탕이 되지만, 여기에 서열(暑熱)이 은밀히 침입하거나 채소나 과일로 내상(內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끝내 지나치게 왕성하여 거칠 것이 없어진 간목이 비토를 겁박하여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 당귀(當歸) · 백작약(白芍藥)을 쓴다 ]. [ 수종(水腫)은 토(土)가 수(水)를 억제하지 못하여 생긴다. 견우(牽牛) · 감수(甘遂)<sup>5</sup> 각 3돈(錢)을 ] 달여 복용한다. 각 3돈 용량이 너무 많으면 각 1돈씩 줄인다. 그러면 지나치게 맹렬하지 않을 것이다. 병은 제거되지만 근본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병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면 다시 약을 쓸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중화(中和)의 도(道)를 잃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마땅한 말이다. [ (〈정치(正治)〉) ]

內傷勞倦與中氣虛寒之人，脾不攝血，往往脾濕下乘，而成血痢。每以理中湯加[木香、肉桂]，補中益氣湯加[熟地黃、乾薑炒黑]治之。但火邪之血色，必鮮紅，脈必洪緩，口必消渴而喜飲冷，小便必熱瀦而赤濁。內傷之血色，不鮮而紫黯，或微紅淡白，脈必微細而遲，或浮瀦而空，口不渴雖渴而喜飲熱湯，小便不便不瀦不赤<sup>6</sup>，即赤而不熱不濁，可辨矣。[ (正治) ]

과로하여 내상(內傷)이 생기거나 중기(中氣)가 허한(虛寒)한 사람은 비(脾)가 혈(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종종 비습(脾濕)이 아래로 흘러내려 혈리(血痢)가 된다. 매번 이중탕(理中湯)에 [ 목향(木香) · 육계(肉桂) ] 를 더하여 치료하거나,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 숙지황(熟地黃) · 건강(乾薑) (복아 검게 만든다) ] 을 더하여 치료한다. 그러나 화사(火邪)가 원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혈색(血色)은 반드시 선홍색이고, 맥(脈)은 반드시 흥(洪) · 완

(緩)하며, 입에서 갈증이 심해 찬 것 마시기를 좋아하고, 소변은 반드시 작열감이 있고 시원하지 않으며 붉고 탁하다. 내상(內傷)이 원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혈색(血色)은 선명하지 않으면서 자색을 띠며 어둡거나 약간 붉고 담백(淡白)하며, 맥(脈)은 반드시 미(微) · 세(細)하면서 지(遲)하거나 부(浮) · 삽(澀)하면서 공허하며, 입에서 갈증이 나지 않고 갈증이 나더라도 뜨거운 것 마시기를 좋아하며, 소변은 시원하지 않고 붉지 않으며 붉더라도 열이 없고 탁하지 않다. 이로써 양자를 구분할 수 있다. [ (〈정치(正治)〉) ]

凡人夏秋感熱之氣，患瘡便血，一日之間或至百餘次不止者，危急也。苟用涼藥以止血，利藥以攻邪氣，俱非善法。我有神方，可以救急援危，又不傷氣損血，瘡則止，身亦健矣。方用援絕神丹。 [ 當歸、白芍藥各二兩，滑石三錢，枳角、檳榔、甘草各二錢，蘿蓄子研、廣木香各一錢 ]。水煎服。一劑輕，二劑止，三劑全愈矣。 [ (四卷) ]

무릇 사람이 여름과 가을에 열사(熱邪)를 받아서, 이질을 앓아 피 섞인 대변을 보고 하루 사이에 혹 백여 차례 이상 멈추지 않고 이질을 쏟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다. 만약 차가운 성질의 약재로 혈(血)을 멈추려 하거나, 설사시키는 약재로 사기(邪氣)를 공격하려 하는 것은 모두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내게 신묘한 처방이 있는데, 위급한 상황을 구하고 위험을 막을 수 있으면서도 기(氣)를 상하게 하거나 혈(血)을 손상시키지 않으니 이질은 멈추고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처방은 원절신단(援絕神丹)이다. [ 당귀(當歸) · 백작약(白芍藥) 각 2냥, 활석(滑石) 3돈(錢), 지각(枳殼) · 빈랑(檳榔) · 감초(甘草) 각 2돈 ]

(錢), 나복자(蘿蔔子)(같은 것) · 광목향(廣木香) 각 1돈(錢).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증상이 가벼워지고, 2제(劑)를 쓰면 이질이 멈추며, 3제(劑)를 쓰면 완전히 나을 것이다. [ (4권(四卷)) ]

又有一方，名補血蕩邪湯。[白芍藥四兩，當歸三錢，枳角、檳榔、甘草各一錢]。水煎服。[ (後治) ]

또한 보혈탕사탕(補血蕩邪湯)이라는 처방이 있다. [백작약(白芍藥) 4냥, 당귀(當歸) 3돈, 지각(枳殼) · 빈랑(檳榔) · 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후치(後治)>) ]

通治者，因其通，而通之也。如人病下痢者是。痢疾之症，多起暑天之鬱熱，而又感以水濕雨露之氣以成之。紅白相見，如血如膿，甚者如屋漏水，如魚凍水，裏急後重，崩迫疼痛，欲下而不能下而不快，一日下數十行，或一夜行數百行，氣息奄奄，坐而待死，此通之病也。若驟止其邪，則頃刻死生，不止其邪，則危絕如絲，欲補其氣，則邪氣輕加<sup>7</sup>，欲清其火，則下行更甚，此時惟有因勢利道<sup>8</sup>之法，可行於困頓之間。或疑人已氣虛血敗，更加利道<sup>9</sup>，必致歸陰。不知邪氣一刻不去，則正氣一刻不安。古人之痢疾無止法，信不謬也。方用 [ 白芍、當歸各三兩，蘿蔔子一兩，枳殼、檳榔、車前子、甘草各三錢 ]，水煎服。一劑即止，二劑全安，可用飲食矣。[ (通治) ] [ 痘瘍，人蔘敗毒散依本方，加陳皮白芍各一錢。 ]

통치(通治)란, 그 통하는 성질을 바탕으로 통하게 하는 치료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리(下痢)를 앓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질(痢疾)의 증상은 대개 여름날 찌는 듯이 더웠다가 물이나 습기나 비나 이슬의 기운을 받아 주

로 생겨난다. 붉은색과 흰색이 섞여 나오는데, 피나 고름 같기도 하고 심하면 지붕에서 새는 물 같기도 하며 어동수(魚凍水)<sup>10</sup> 같기도 하다. 갑자기 변이 나올 것 같고 변을 보고도 뒤가 무거우며, 격렬한 통증이 있고, 배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불쾌하다. 하루에 수십 번, 혹은 하룻밤에 수백 번 설사한다. 그려다 숨이 끊어질 듯 미약해지고 앓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통하는 성질을 가진 병이다. 만약 갑자기 그 사기(邪氣)를 멈추면 순식간에 죽을 것이고, 사기를 멈추지 않으면 목숨이 실낱같이 위험할 것이다. 기(氣)를 보충하려 하면 사기가 도리어 가중되고, 화(火)를 식히려 하면 설사가 더욱 심해진다. 이때 곤궁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오직 형세를 따라 배출시키는 방법뿐이다. 어떤 이는 이미 기허(氣虛)하고 혈패(血敗)한 상태에서 더욱 배출시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이는 사기(邪氣)가 한순간이라도 제거되지 않으면 정기(正氣)가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인(古人)이 이질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백작약(白芍藥) · 당귀(當歸) 각 3냥, 나복자(蘿菔子) 1냥, 지각(枳殼) · 빈랑(檳榔) · 차전자(車前子) · 감초(甘草) 각 3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즉시 멈추고, 2제(劑)를 쓰면 완전히 편안해져 음식(飲食)을 먹을 수 있게 된다. [ (〈통치(通治)〉) ] [ 역리(疫癆)에는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 본방에 진피(陳皮) · 백작약(白芍藥)을 각 1돈씩 더하여 쓴다. ]

### 加味君子湯 가미군자탕

- [ 白朮、人蔘、赤茯苓、當歸身酒洗、乾薑炒黑、甘草炙各一錢，入乳香末

三分，調服。○勿論赤白痢疾，量人大小，三四貼四五貼。泄瀉甚，倍白朮。累試累驗。]

- [백출(白朮) · 인삼(人蔘) · 적복령(赤茯苓) · 당귀신(當歸身) (술에 씻는다) · 건강(乾薑) (검게 되도록 볶는다) · 감초(甘草) (굽는다) 각 1돈. 여기에 유향(乳香) 가루 3푼을 넣고 조제하여 복용한다. ○ 적리(赤痢)와 백리(白痢)를 막론하고 사람의 체격에 따라 3~4첩 또는 4~5첩을 복용한다. 설사가 심하면 백출(白朮)을 2배로 쓴다. 여러 차례 시험하여 여러 차례 효과를 본 방법이다.]

泄痢易治難治辨。[太陰脾經受濕而爲水泄，久則傳變而爲膿血痢，是脾傳腎，謂之賊邪，故難愈。若先痢而後瀉，是腎傳脾，謂之微邪，故易愈。(易老)  
○飧泄，脈大手足寒，難已，脈小手足溫，易已。(脈經) ○下痢有微熱而渴，脈弱者自愈。○下痢，脈數有微熱汗出，今自愈。(脈經) ○下痢，脈大者爲未止。(脈經) ○下痢，手足溫者易治，手足寒者難治。(直指) ○下痢嘔噦，發呃煩燥，身熱者難治。(醫鑑)]

설사와 이질의 이치증과 난치증을 구분하는 방법.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이 습(濕)을 받으면 수설(水泄)이 되고, 오래되면 전변되어 농혈리(膿血痢)가 된다. 이는 비(脾)의 사기(邪氣)가 신(腎)에 전해진 것으로 적사(賊邪)라고 하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만약 먼저 이질이었다가 나중에 설사가 되는 경우는 신(腎)의 사기가 비(脾)에 전해진 것으로 미사(微邪)라고 하는데, 치료하기 쉽다. (《역로(易老)》) ○ 손설(飧泄)이 있을 때 맥이 대(大)하고 손발이 차가 우면 낫기 어렵고, 맥이 소(小)하고 손발이 따뜻하면 낫기 쉽다. (《맥경(脈經)》)]

經》) ○ 하리(下痢)에 미열(微熱)이 있고 갈증이 나며 맥이 약(弱)한 경우는 저절로 낫는다. ○ 하리(下痢)에 맥이 삭(數)하고 미열(微熱)이 있으며 땀이 나는 경우는 곧 저절로 낫는다. (《맥경(脈經)》) ○ 하리(下痢)에 맥이 대(大)한 경우는 아직 멈추지 않은 것이다. (《맥경(脈經)》) ○ 하리(下痢)에 손발이 따뜻한 경우는 치료하기 쉽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직지(直指)》) ○ 하리(下痢)에 구역질이 나고 땀꾹질을 하며 번조(煩燥)가 있고 몸에 열이 나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의감(醫鑑)》) ]

泄痢吉凶證。 [ 下痢如魚腦髓者，半生半死。 ○身熱脈大者，半生半死。 ○下痢如塵腐色者，死。 ○下純血者，死。 ○下如茅屋漏水者，死。 ○大孔開如竹筍者，死。 ○唇如朱紅者，死。 (已上丹溪) ○內經曰，腸澼便血，身熱則死，身寒則生。 ○內經云，身熱則死，身寒則生。此是大槩言之，必兼證詳之方可，豈無熱生而寒死者乎。 (丹心) ○下痢，手足厥冷，無脈者，灸之。灸之不溫，若脈不還，反微喘者，死。 (仲景) ○下痢脈絕，手足厥冷，晦時脈還，手足溫者，生。脈不還者，死。 (仲景) ○腹鳴而滿，四肢清而泄，其脈大，是逆也，不過十五日死。 (靈樞) ○腹大而脹，四肢末清，脫形泄甚，是逆也，不及一時死。 (靈樞) ○下痢之證，身涼能食，小便通，易安。若體熱多汗，渴甚，小便不利，或手足厥冷，灸之不溫，兼微喘，不食者，死。 (得效) ○凡下痢，譁語直視，及厥躁不得眠，汗不止，無脈，及自痢不禁，身熱脈實者，皆死。 (入門) ○泄瀉久不止，手足寒，脈虛脫，煩躁發呃，氣短，目直視，昏冒不識人，皆死證也。 (回春) ○痢不治證 ○脈大 ○身熱 ○鴨屎 ○發渴 ○咳逆 ○五色 ○噤口 ○紅水 ○唇紅 ○手足冷 ○氣喘 ○痢後，煩渴欲飲，爲心絕。 ○小便絕不通，爲胃絕。 ○下

痢，小便不通，或絕無者，此毒氣併歸一藏，胃乾者，死。（類聚） ○小兒之痢，重傷胃氣，全不飲食，名曰噤口。肛門寬大，深黑可畏，腹肚疼痛，裏急後重，鮮血點滴，名曰刮腸。日夜頻併，飲食直過，名曰滑腸，皆爲惡候。（省翁） ○小兒痢，穀道不閉，黃汁長流者，不治。（得效） ○病人臥，遺屎不覺者，死。（扁鵲）】

설사(泄瀉)에서 예후가 좋은 증상과 나쁜 증상. [ ○ 하리(下痢)가 생선 뇌수와 같이 나오는 경우는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 ○ 몸에 열이 있고 맥이 대(大)한 경우는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 ○ 하리(下痢)의 색이 먼지가 썩어 만 들어진 색깔과 같은 경우는 죽는다. ○ 순전히 피만 설사하는 경우는 죽는다. ○ 설사가 초가집에서 떨어지는 물 같은 경우는 죽는다. ○ 항문이 대나무 통처럼 열린 경우는 죽는다. ○ 입술이 주홍색인 경우는 죽는다. ( 이상 《단계(丹溪)》 ) ○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장벽(腸澼)으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몸이 뜨거우면 죽고 몸이 차가우면 산다." ○ 《내경》에서 "몸이 뜨거우면 죽고 몸이 차가우면 산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니 반드시 증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어찌 몸이 뜨거운데 살거나 몸이 차가운데 죽는 경우가 없겠는가. (《단심(丹心)》) ○ 하리(下痢)에 손발이 차고 맥이 없는 사람은 땀을 띠야 한다. 땀을 띠도 따뜻해지지 않고 맥이 돌아오지 않으며 오히려 미약하게 숨을 헐떡이는 경우는 죽는다. (《증경(仲景)》) ○ 하리(下痢)에 맥이 끊어지고 손발이 차가울 때, 잠시 후에 맥이 돌아오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는 살지만 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 (《증경》) ○ 배에서 꾸륵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배가 그득하고, 팔다리가 차가우면서 설사하는데, 맥이 대(大)한 경우는 역증이다. 15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

는다. (《영추(靈樞)》) ○ 배가 불러올라 창만하고, 팔다리 끝이 차가우며, 살이 빠지고 설사가 심한 경우는 역증이다. 머지않아 죽는다. (《영추》) ○ 하리(下痢)의 증상이 있을 때, 몸이 서늘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소변이 잘 나오면 쉽게 좋아진다. 만약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며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혹은 손발이 찬데 뜰을 떠도 따뜻해지지 않고 미약하게 숨을 헐떡이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죽는다. (《득효(得效)》) ○ 무릇 하리(下痢)에 헛소리를 하고 눈을 곧추뜨는 경우, 또는 손발이 차거나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며 땀이 그치지 않고 맥이 없는 경우, 또는 설사를 참지 못하고 몸에서 열이 나며 맥이 실(實)한 경우는 모두 죽는다. (《입문(入門)》) ○ 설사가 오래도록 그치지 않고, 손발이 차며, 맥이 허탈(虛脫)하고, 번조하여 딸꾹질이 나며, 숨이 짧고, 눈을 곧추뜨며, 정신이 혼미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죽을 증상이다. (《회춘(回春)》) ○ 하리(下痢)의 불치증. ◎ 맥이 대(大)한 경우 ◎ 몸에서 열이 나는 경우 ◎ 대변이 오리뚱과 같은 경우 ◎ 갈증이 나는 경우 ◎ 딸꾹질하는 경우 ◎ 오색리(五色瘡) ◎ 입을 악다문 경우 ◎ 붉은 피가 나오는 경우 ◎ 입술이 붉은 경우 ◎ 손발이 차가운 경우 ◎ 숨을 헐떡이는 경우. ○ 이질을 앓은 뒤에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 하는 것은 심기(心氣)가 끊어진 경우이다. ○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위기(胃氣)가 끊어진 경우이다. ○ 하리(下痢)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독기(毒氣)가 하나의 장(藏)으로 모두 모여 위(胃)가 메마른 경우로, 죽는다. (《유취(類聚)》) ○ 소아의 이질에 위기(胃氣)를 거듭 상하여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경우를 금구리(噤口瘡)라고 한다. 항문이 크게 벌어지고 매우 짙은 검은색을 띠며, 배

가 아프고 갑자기 변의가 몰려오며 배변 후에도 뒤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선혈이 방울방울 나오는 경우를 팔장(刮腸)이라고 한다. 밤낮으로 자주 배변을 하는데 음식이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를 활장(滑腸)이라 한다. 이들은 모두 예후가 나쁘다. (《성옹(省翁)》) ○ 소아의 이질에 항문이 닫히지 않고 황색즙이 계속 흐르는 경우는 치료하지 못한다. ○ 환자가 누워서 대변이 나와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죽는다. (《편작(扁鵲)》) ]

1. 恐 ☎ 終 ※《석실비록》 ←
2. 各三錢 ☎ 水腫之病，亦土不能剋水也。方用牽牛三錢，甘遂三錢 ※《석실비록》 ←
3. 本 ☎ 未 ※《석실비록》 ←
4. 不以和之道 ☎ 不失中和之道 ※《석실비록》 ←
5. 수종(水腫)은 토(土)가 수(水)를 억제하지 못하여 생긴다. 견우(牽牛) · 감수(甘遂) : 역자가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원문 역자 주석 참고 ←
6. 小便不便不瀦不赤 ☎ 小便不瀦不赤 ※《석실비록》 ←
7. 輕加 ☎ ※轉加《석실비록》 ←
8. 利道 ☎ ※利導《석실비록》 ←
9. 利道 ☎ ※利導《석실비록》 ←
10. 어동수(魚凍水) : 생선을 삶거나 끓인 후 식어서 묵처럼 응고되는 국물



## † 頭 머리

頭爲天谷以藏神。 [ 谷者，天谷也。神者，一身之元神也。天之谷，含造化，容虛空。地之谷，容萬物，載山川。人與天地同所稟，亦有谷焉。其谷藏真一，宅元神。是以頭有九宮，上應九天。中間一宮，謂之泥丸，又曰黃庭，又名崑崙，又謂天谷。其名頗多，乃元神所住之宮。其空如谷，而神居之，故謂之谷神。神存則生，神去則死。日則接於物，夜則接於夢，神不能安其居也。黃帝內經曰，天谷元神，守之自真。言人身中，上有天谷泥丸，藏神之府也。中有應谷絳宮，藏氣之府也。下有虛谷關元，藏精之府也。天谷元宮也，乃元神之室，靈性之所存，是神瓣<sup>1</sup>之要也。 ( 正理 ) ]

머리는 천곡(天谷)으로 신(神)을 저장한다. [ 곡(谷)이란 천곡(天谷)을 뜻한다. 신(神)이란 온몸의 원신(元神)이다. 하늘의 골짜기는 조화를 품고 허공을 담는다. 땅의 골짜기는 만물을 담고 산천을 싣는다. 사람은 천지와 같은 기운을 받았기에 사람에게도 골짜기가 있다. 그 골짜기에 진일(眞一)이 저장되고 원신(元神)이 머문다. 이에 머리에는 구궁(九宮)이 있어 구천(九天)에 상응한다. 중간의 한 궁(宮)을 니환(泥丸)이라고 하는데, 황정(黃庭) · 곤륜(崑崙) · 천곡(天谷)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름이 매우 많지만 원신(元神)이 사는 집이다. 그 공간이 골짜기와 같고 신(神)이 그곳에 머무르므로 곡신(谷神)이라 한다. 신(神)이 머무르면 살고, 신(神)이 떠나면 죽는다. 낮에는 사물과 접하고 밤에는 꿈과 접하니, 신(神)이 그 거처에 안주할 수 없다.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말하였다. "천곡(天谷)의 원신(元神)을 지키면 절로 진인(眞人)이 된

다."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쪽에 천곡(天谷)인 니환(泥丸)은 신(神)이 저장된 공간이다. 가운데 응곡(應谷)인 강궁(絳宮)은 기(氣)가 저장된 공간이다. 아래쪽에 허곡(虛谷)인 관원(關元)은 정(精)이 저장된 공간이다. 천곡(天谷)은 원궁(元宮)으로 곧 원신(元神)의 집이요, 영성(靈性)이 존재하는 곳이니, 신(神)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다. (《정리(正理)》) ]

頭有九宮。 [ 頭有九宮，腦有九瓣，曰雙丹宮、明堂宮、泥丸宮、流珠宮、大帝宮、天庭宮、極眞宮、玄丹宮、太皇宮。各有神以主之，謂之元首九宮真人也。 (黃庭) ]

머리의 9가지 궁(宮). [ 머리에는 9가지 궁(宮)이 있고, 뇌(腦)에는 9가지 판(瓣)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쌍단궁(雙丹宮) · 명당궁(明堂宮) · 니환궁(泥丸宮) · 유주궁(流珠宮) · 대제궁(大帝宮) · 천정궁(天庭宮) · 극진궁(極眞宮) · 현단궁(玄丹宮) · 태황궁(太皇宮). 저마다 신(神)이 있어 이를 다스리니, 이를 원수구궁진인(元首九宮真人)이라 한다. (《황정(黃庭)》) ]

腦爲髓海。 [ 腦爲髓之海，有餘則輕勁多力，不足則腦轉耳鳴，脛痙眩冒<sup>2</sup>，目無所見。 (靈樞) ○腦者髓之海，諸髓皆屬於腦，故上至腦下至尾骶，皆精髓升降之道路也。 (入門) ]

뇌(腦)는 수해(髓海)이다. [ 뇌(腦)는 골수의 바다이다. 충분하면 몸이 가볍고 힘이 세며, 부족하면 머리가 빙빙돌고 귀가 울리며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눈 앞이 깜깜하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영추(靈樞)》) ○ 뇌(腦)는 골수의

바다로 모든 골수가 뇌(腦)에 속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뇌(腦)에 이르고 아래로는 미골(尾骶)에 이르는 부위가 모두 정수(精髓)가 오르내리는 길이다.  
(《입문(入門)》)

頭疼而風入太陽經也。用 [ 白芍三錢 , 細辛、白芷、柴胡、半夏、甘草各一錢 ] , 治之。 [ ( 上治 ) ]

머리가 아픈데 눈이 아프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입과 혀에 창(瘡)이 생기거나, 코가 붓는 등의 증상은<sup>3</sup> 두통이 있는 상태에서 풍사(風邪)가 태양경(太陽經)에 침입한 경우이다. [ 백작약(白芍藥) 3돈, 세신(細辛) · 백지(白芷) · 시호(柴胡) · 반하(半夏) · 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로 치료한다.  
(〈상치(上治)〉)

頭疼，今傳一方。 [ 川芎一兩，蔓荊子二錢 ] , 水煎服，立愈。 [ ( 上治 ) ]

이제 두통을 치료하는 처방 하나를 전한다. [ 천궁(川芎) 1냥, 만형자(蔓荊子) 2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하면 즉시 낫는다. [ (〈상치(上治)〉) ]

凡頭疼，因風寒者，藥宜酒煎，因火邪者，藥宜茶清。 [ 李子永識。 ]

[ ○ ( 完治 ) ]

무릇 풍한(風寒)으로 인한 두통이면 약을 술(酒)로 달이는 것이 좋고, 화사(火邪)로 인한 두통이면 약을 차청(茶清)으로 우려내는 것이 좋다. [ 이자영(李子永)의 기록. ] [ ○ (〈완치(完治)〉) ]

如人病頭痛者，人以爲風在頭，不知非風也。亦腎水不足，而邪火冲入於腦，終朝頭暈，似頭痛而非頭痛也。若止治風，則痛更甚，法當大補腎水，而頭痛頭暈自除。方用定風去暈湯。 [熟地黃、葳蕤各一兩，山茱四錢，山藥、川芎、當歸各三錢，五味、麥冬、元蔘各二錢。] 二劑即愈。 [ ( 偏治 ) ]

예를 들어 누군가 두통을 앓는 경우, 사람들은 풍사(風邪)가 머리에 있다고만 여기고 풍(風) 때문이 아닌 경우는 알지 못한다. 신수(腎水)가 부족하여 사화(邪火)가 뇌(腦)로 치고 들어갔을 때도 온종일 어지러운데, 두통 같지만 두통이 아니다. 만약 풍(風)만 치료한다면 통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마땅히 신수(腎水)를 크게 보충해야 두통과 어지러운 증상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처방은 정풍거운탕(定風去暈湯)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 위유(葳蕤) 각 1냥, 산수유(山茱萸) 4돈, 산약(山藥) · 천궁(川芎) · 당귀(當歸) 각 3돈, 오미자(五味子) · 맥문동(麥門冬) · 현삼(玄蔘) 각 2돈. ] 이 약재를 2제(劑) 사용하면 낫는다. [ (〈편치(偏治)〉) ]

雷公曰，頭痛予有神方傳子。方用 [ 川芎、沙蔘各一兩，細辛五錢，蔓荊子二錢 ]，水二椀煎八分，加黃酒半椀調勻，早晨服之。一劑永不再疼。 [ ( 完治 ) ]

뇌공(雷公)이 말했다. "나에게 두통에 쓰는 신묘한 처방이 있으니 그대에게 전하겠소. 처방은 [ 천궁(川芎) · 사삼(沙蔘) 각 1냥, 세신(細辛) 5돈, 만형자(蔓荊子) 2돈입니다. ] 이 약재를 물 2사발에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인 다음 황주(黃酒) 반 사발을 더하고 고루 섞습니다. 이를 아침 일찍 복용합니다. 1제(劑)를 쓰면 영영 다시 아프지 않을 것이오." [ (〈완치(完治)〉) ]

如頭痛者，黃酒一升，[ 川芎三兩，細辛、白芷各一兩 ]，煮酒服。一醉而愈。

惟是其愈之後，必須用 [ 熟地、芍藥、當歸各五錢，山茱、麥冬各三錢，川芎一錢 ]，水煎服。四劑爲妙。 [ ( 完治 ) ]

두통이 있을 때는 다음 처방을 쓴다. 황주(黃酒) 1되, [ 천궁(川芎) 3냥, 세신(細辛) · 백지(白芷) 각 1냥. ] 이 약재를 술에 넣고 끓여 마신다. 1번 취하도록 마시고 나면 낫는다. 다만 나은 후에는 반드시 다음 처방으로 조리한다.  
[ 숙지황(熟地黃) · 작약(芍藥) · 당귀(當歸) 각 5돈(錢), 산수유(山茱萸) · 맥문동(麥門冬) 각 3돈(錢), 천궁(川芎) 1돈(錢).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4제(劑)를 복용하면 더욱 좋다. [ (〈완치(完治)〉) ]

一遇頭疼，止疼湯。 [ 川芎五錢，蔓荊子、白芷、甘草、半夏、細辛各一錢 ] 治之。病去如掃。 [ ( 常治 ) ]

두통이 생기면 지통탕(止疼湯)을 쓴다. [ 천궁(川芎) 5돈, 만형자(蔓荊子) · 백지(白芷) · 감초(甘草) · 반하(半夏) · 세신(細辛) 각 1돈. ] 이렇게 치료하면 쓸어낸 것처럼 병이 사라진다. [ (〈상치(常治)〉) ]

頭疼之症止消，用 [ 蔓麻 ] 子一粒，搗碎，同棗肉些須，同搗勻，丸如黃豆大，外用絲綿裹之，納上鼻孔。少頃必有清涕流出，即將丸藥取出，不可久放其中，頭疼即愈，永不再發。倘久留在中，必致腦髓流出，又成不可藥救之症。切記切記。 [ ( 吸治 ) ]

두통 증상을 멈추고 없애려면 다음 방법을 쓴다. [ 피마자(蓖麻子) ] 1알을 으깨고 대추 살 약간과 함께 골고루 반죽하여 황두(黃豆) 크기로 환약을 만든다. 겉을 솜으로 싸서 콧구멍에 넣는다. 잠시 후 반드시 맑은 콧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곧바로 환약을 꺼내야 하며 오래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두통이 즉시 낫고 영영 재발하지 않는다. 만약 오래 두면 반드시 뇌수(腦髓)가 흘러나와 약으로도 구할 수 없는 증상이 된다.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 (〈흡치(吸治)〉) ]

腦痛，用黃酒一升，[ 白芍三兩，柴胡、郁李仁、麥冬各五錢，辛茅<sup>4</sup>、桔梗各三錢，甘草一錢 ]，水三椀煎湯。入前酒飲之。一醉而愈。量好者，再飲之以酒，必以醉爲度。 [ ( 完治 ) ]

뇌통(腦痛)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황주(黃酒) 1되, [ 백작약(白芍藥) 3냥, 시호(柴胡) · 옥리인(郁李仁) · 맥문동(麥門冬) 각 5돈, 신이(辛夷) · 길경(桔梗) 각 3돈, 감초(甘草) 1돈. ] 이 약재를 물 3사발에 넣고 달인다. 여기에 앞의 황주를 넣고 마신다. 1번 취도록 마시고 나면 낫는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다시 술과 함께 마시되 반드시 취할 정도로 마셔야 한다. [ (〈완치(完治)〉) ]

暈眩似乎小症，然而大病皆起於暈眩。眼目昏暈，一時猝倒，而不可救者，比比也。故世人一犯暈眩之症，治之不可不早。吾今傳一奇方，名防眩湯。 [ 白朮、當歸、熟地、白芍各一兩，川芎、山茱、半夏各五錢，人蔘三錢，天麻一錢，陳皮五分 ]。水煎服。 [ ( 內傷 ) ]

어지럼증은 사소한 증상 같지만, 큰 병이 모두 어지럼증에서 시작된다. 눈앞이 어지럽고 흐릿해져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일단 어지럼증 증상을 앓으면 빨리 치료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이제 신기한 처방 하나를 전하노라. 이름은 방현탕(防眩湯)이다. [ 백출(白朮) · 당귀(當歸) · 숙지황(熟地黃) · 백작약(白芍藥) 각 1냥, 천궁(川芎) · 산수유(山茱萸) · 반하(半夏) 각 5돈, 인삼(人蔘) 3돈, 천마(天麻) 1돈, 진피(陳皮)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내상(內傷)〉) ]

頭痛不治難治症。 [ 眞頭痛者，頭痛甚，腦盡痛，手足寒至節，死不治。 (靈樞) ] ○眞頭痛者，其痛上穿風府，陷入泥丸宮，不可以藥愈，朝發夕死，夕發朝死。蓋頭中人之根，根氣先絕也。 ( 得效 ) ○頭連腦痛甚，手足俱寒者，不治。 ( 得效 ) ○頭沈<sup>5</sup>，痛入泥宮<sup>6</sup>，手足冷，爪甲青者，謂之眞頭痛。其連齒痛甚者，屬小陰<sup>7</sup>厥證，俱不治。 ( 入門 ) ○診頭痛目痛久，視無所見者，死。 ( 綱目 ) ○頭目痛，卒視無見者，亦死。 ( 醫鑑 ) ○泄瀉多而眩暈，時時自冒者，難治。 ( 回春 ) ○凡眩暈言亂，汗多下利，時時自冒者，虛極難治。 ( 入門 ) ]

두통의 불치증과 난치증. @@ [ 진두통(眞頭痛)은 두통이 심하고 뇌(腦)가 모두 아프며 손발이 관절까지 차갑다. 치료할 수 없어 죽는다. (《영추(靈樞)》) ] ○진두통은 그 통증이 위로 풍부(風府)를 뚫고 니환궁(泥丸宮)으로 들어가는데 약으로 낫게 할 수 없다. 아침에 발병하면 저녁에 죽고 저녁에 발병하면 아침에 죽는다. 대개 머리 속은 사람의 근본이니 근본되는 기(氣)가 먼저 끊어지는 것이다. (《득효(得效)》) ○머리에서 뇌(腦)까지 심하게 아프고

손발이 모두 차가운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득효(得效)》) ○맥(脈)이 침(沈)하고 통증이 니환궁(泥丸宮)까지 미치며 손발이 차고 손톱과 발톱이 푸른 경우를 진두통이라 한다. 이 때문에 이(齒)까지 통증이 심한 경우는 소음궐증(少陰厥證)에 속한다. 모두 치료할 수 없다. (《입문(入門)》) ○살펴보아 머리와 눈이 아픈지 오래되어 보이지 못하는 경우는 죽는다. (《강목(綱目)》) ○머리와 눈이 아프다가 갑자기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죽는다. (《의감(醫鑑)》) ○설사(泄瀉)하면서 어지럽고 때때로 이유 없이 정신이 둥롱한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회춘(回春)》) ○무릇 어지럽고 말을 두서없이 하며 땀이 많이 나고 설사하며 때때로 이유 없이 정신이 둥롱한 경우는 허(虛)가 극에 달한 것으로 치료하기 어렵다. (《입문(入門)》) ]

1. 神瓣 『 神 ※《동의보감》 ←

2. 眩胃 『 眩冒《동의보감》 ←

3. 이해를 돋기 위해 역자가 추가하였다. "如頭疼, 目痛, 耳聾口舌生瘡, 鼻腫之類" ※《석실비록》 ←

4. 辛茅 『 辛夷 ※《석실비록》 ←

5. 頭沈 『 脈沈 ※《의학입문》 ←

6. 泥宮 『 泥丸 ※《동의보감》 ←

7. 小陰 『 少陰 ※《동의보감》 ←



## † 面 얼굴

面爲諸陽之會。 [靈樞曰，手之三陽，從手走至頭。 ○手太陽之脈，從缺盆貫頸上頰，至目銳眴。手少陽之脈，從缺盆上耳上角，以屈下頰至頤<sup>1</sup>。手陽明之脈，從缺盆上頸貫頰，交人中，上挾鼻孔。此從下而上于面也。 (銅人) ○靈樞曰，足之三陽從頭走至足。 ○足太陽之脈，起於目內眥，上額交顴上。足少陽之脈，起於目銳眴，上抵頭角。足陽明之脈，起於鼻，交頰中。此從面而走至足也。 (銅人) ○此手足六陽之脈，俱會於面也。 ]

얼굴은 모든 양(陽)이 만나는 곳이다.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수삼양(手三陽)은 손에서 시작하여 머리까지 간다." ○수태양(手太陽)의 맥은 결분(缺盆)에서 시작하여 목을 관통하고 뺨으로 올라가 눈 가장자리에 이른다. 수소양(手少陽)의 맥은 결분(缺盆)에서 시작하여 귀 꼭대기로 올랐다가 구부려져 내려와 뺨을 따라 관골에 이른다. 수양명(手陽明)의 맥은 결분(缺盆)에서 시작하여 목 앞쪽을 따라 올라가 뺨을 관통하고 인중(人中)에서 교차하여 콧구멍 옆으로 올라간다. 이는 손에서 시작하여 얼굴까지 올라가는 경맥이다. (《동인(銅人)》)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족삼양(足三陽)은 머리에서 시작하여 발까지 간다." ○족태양(足太陽)의 맥은 눈 안쪽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이마로 올라가 정수리에서 교차한다. 족소양(足少陽)의 맥은 눈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 머리 모서리에 이른다. 족양명(足陽明)의

맥은 코에서 시작하여 콧마루에서 교차한다. 이는 얼굴에서 시작하여 발까지 내려가는 경맥이다. (《동인(銅人)》) ○이처럼 손과 발에 있는 육양(六陽)의 경맥이 모두 얼굴에서 만난다.]

面病專屬胃。 [ 手足六陽之經，雖皆上至頭，而足陽明胃之脈，起於鼻，交頰中，入齒，挾口環唇，倚頰車，上耳前，過客主人（穴名），維絡于面上。故面病專屬於胃。其或風熱乘之，則令人面腫，或面鼻色紫，或風刺癰瘍，或面熱，或面寒，隨其經證而治之。 (醫鑑) ]

얼굴의 병은 오로지 위(胃)에 속한다. [ 손과 발에 있는 육양(六陽)의 경맥은 비록 모두 머리까지 올라가지만 족양명위경은 그렇지 않다.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맥은 코에서 시작하여 콧마루를 지나 이(齒)로 들어가고 입을 감싸 입술을 둘러싸며 협거(頰車)를 지나 귀 앞으로 올라가 객주인(客主人) (경혈 이름)을 지나 얼굴에 퍼진다. 그러므로 얼굴의 병은 오로지 위(胃)에 속한다. 풍열(風熱)이 이 경맥에 침입하면, 사람의 얼굴이 붓거나, 얼굴과 코의 색이 자주빛이 되거나, 풍자(風刺)나 은진(隱疹)이 생기거나, 얼굴에 열이 나거나, 얼굴이 차가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때는 이 경맥에 나타난 증상에 따라 치료한다. (《의감(醫鑑)》) ]

粉疵<sup>2</sup>之症，乃肺熱而風吹之，多成此疵。雖無關大病，然書生嬌女，各生此病，亦欠手致<sup>3</sup>。我留一方，爲之添容，未爲不可。方用 [ 輕粉、黃芩、白芷、白附子<sup>4</sup>、防風 ] 各一錢。各爲細末，蜜調爲丸。每日洗面之時，多擦數遍，臨睡之時，又重洗面而擦之。不須三日，自然消痕減瘢矣。 [ ( 肌膚治 ) ]

분자(粉刺)의 증상은, 폐(肺)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맞아 주로 이런 뾰루지가 생겨난다. 비록 큰 병과는 관련이 없지만 서생(書生)과 규수들이 각각 이 병을 앓게 되면 아름다운 용모에 흠이 생긴다. 내가 처방 하나를 남기니, 이 방법으로 용모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경분(輕粉) · 황금(黃芩) · 백지(白芷) · 백부자(白附子) · 방풍(防風) ] 각 1돈(錢). 이 약재를 각각 곱게 가루 내고 꿀(蜜)로 개어 환을 빚는다. 매일 얼굴을 씻을 때 이 약으로 여러 번 문지르고, 잠들기 전에 다시 얼굴을 씻고 문지른다. 3일이 되지 않아 자연히 흔적이 사라지고 흉터가 줄어들 것이다. [ (〈기부치(肌膚治)〉) ]

面部凶證。 [ 病人面無光，齒齦黑者死。 ( 扁鵲 ) ○面腫，色蒼黑者死。 ( 扁鵲 ) ○病人榮衛竭絕，面浮腫者死。 ○面黑唇青者死，面青唇黑者亦死。 ( 華佗 ) ○病人黑色出天中天庭者死。 ( 華佗 ) ○人有病，面上忽見紅點者多死。 ( 丹心 ) ]

얼굴의 병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 환자의 얼굴에 윤기가 없고 잇몸이 검은 경우는 죽는다. (《편작(扁鵲)》) ○얼굴이 붓고 안색이 푸르스름하게 검은 경우는 죽는다. (《편작(扁鵲)》) ○환자의 영위(榮衛)가 고갈되어 끊어지고 얼굴이 붓는 경우는 죽는다. ○얼굴이 검고 입술이 푸른 경우는 죽는다. 얼굴이 푸르고 입술이 검은 경우도 죽는다. (《화타(華佗)》) ○환자의 얼굴에서 검은색이 천중(天中)과 천정(天庭)에 나타나는 경우는 죽는다. (《화타(華佗)》) ○사람이 병이 있을 때 얼굴에 갑자기 붉은 점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죽는다. (《단심(丹心)》) ]

1. 頤 颷 ※《동의보감》 ↪
2. 粉疵 粉刺 ※《석실비록》 ↪
3. 手致 豐致 ※《석실비록》 ↪
4. 白付子 白附子 ※《석실비록》 ↪

## † 眼 눈

眼爲臟腑之精。 [ 五臟六府之精氣，皆上注於目而爲之精。精之窠爲眼，骨之精爲瞳子，筋之精爲黑眼，血之精爲絡其窠，氣之精爲白眼，肌肉之精爲約束。裹擗筋骨血氣之精，而與脈系上屬於腦，後出於項中。故邪中於項，因逢其身之虛，其入深則隨眼系以入於腦。入於腦則腦轉，腦轉則引目系急，目系急則目眩以轉矣（即因風眩暈也）。邪中其精，其精所中，不相比也，則精散，精散則視岐（見一物爲兩也）。目者，五藏六府之精也，榮衛魂魄之所常營也，神氣之所生也。故神勞則魂魄散，志意亂。是故瞳子黑眼法於陰，白眼赤脈法於陽也。故陰陽合傳，而爲精明也。目者，心之使也。心者，神之舍也。故神精亂而不轉，卒然見非常之處，精神魂魄散不相得，故曰惑也。 ( 靈樞 ) ]

눈은 장부의 정(精)이다. [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정기(精氣)가 모두 위쪽 눈에 모여 정(精)이 된다. 정(精)의 둥지가 눈이 되니, 골(骨)의 정기는 눈동자가 되고, 근(筋)의 정기는 검은자위가 되며, 혈(血)의 정기는 눈에 퍼진 실핏줄이 되고, 기(氣)의 정기는 흰자위가 되며, 기육(肌肉)의 정기는 눈꺼풀이 된다. 눈에서 근(筋) · 골(骨) · 혈(血) · 기(氣)의 정기가 모여 맥(脈)과 함께 위로 뇌(腦)에 닿았다가 뒤로 뒷목 가운데로 나온다. 그러므로 사기(邪氣)가 뒷목에 침입하여 그 몸이 허(虛)한 틈을 타고 깊이 들어가면 눈에 연결된 부위를 따라 뇌로 들어간다. 뇌에 들어가면 뇌가 돌고, 뇌가 돌면 눈에 연결된 부위를 당겨 켕기게 하며, 눈에 연결된 부위가 켕기면 눈앞이 아찔하고 어지럽게 된다 ( 풍(風) 때문에 현훈(眩暈)이 생기는 경우이다 ). 사기(邪氣)가 눈의 정

(精)을 침범하여 그 정(精)이 침범당한 곳에 틈이 생기면 정(精)이 흘어진다. 정이 흘어지면 시야가 갈라진다 ( 한 물체가 둘로 보이게 된다 ). 눈은 오장 육부의 정(精)이며, 영위(榮衛)와 혼백(魂魄)이 항상 운행하는 곳이고, 신기(神氣)가 생겨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신(神)이 피로하면 혼백이 흘어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런데 눈동자와 검은자위는 음(陰)을 본받았고, 흰자위와 실핏줄은 양(陽)을 본받았다. 그러므로 음양이 서로 전해져 정명(精明)이 된 것이다. 눈은 심(心)이 부리는 곳이고, 심은 신(神)이 머무는 곳이다. 그러므로 신(神)과 정(精)이 어지러워져 제대로 돌지 않으면 갑자기 비정상적인 곳을 보게 된다. 정신과 혼백이 흘어져 서로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를 '혹(惑)'이라고 한다. (《영추(靈樞)》) ]

眼睛屬五臟。 [ 首尾赤皆屬心，滿眼白睛屬肺，其烏睛圓大屬肝，其上下肉胞屬脾，而中間黑瞳一點如漆者，腎實主之。 (直持<sup>1</sup>) ○白睛屬肺，名曰氣輪，赤者屬心，行血脈也。再於黑睛上分，暉微青者屬肝，次黑者屬腎也。中間一點瞳人屬膽也。 (入門) ]

눈은 오장(五臟)에 속한다. [ 안쪽과 바깥쪽 빨간 가장자리 심장(心)에 속하고, 눈 가득 흰자위 폐(肺)에 속하며, 검은자위 등글고 크니 간(肝)에 속하고, 위아래 눈꺼풀 비장(脾)에 속하네. 그리고 가운데 한 점 칠흑같은 눈동자 신장(腎)이 주관하는구나. (《직지(直指)》) ○흰자위는 폐(肺)에 속하며 기륜(氣輪)이라 하고, 붉은 부분은 심장(心)에 속하며 혈맥이 지나는 곳이다. 다시

검은자위를 나누어 보면, 약간 푸른 빛을 띠는 부분은 간(肝)에 속하고, 그 다음 검은 부분은 신장(腎)에 속하며, 가운데 한 점 눈동자는 담(膽)에 속한다.  
(《입문(入門)》)

眼無火不病。 [ 目不因火則不病，何以言之。 白輪變赤，火乘肺也。 肉輪赤腫，火乘脾也。 黑水神光被腎，火乘肝與腎也。 赤脈貫目，火自甚也。 能治火者，一句了。 故內經曰，熱勝則腫。 凡目暴赤腫起，羞明隱澁，淚出不止，暴寒目瞞，皆火熱之所爲也。 治火之法，在藥則鹹寒，吐之下之。 在鍼則神庭、上星、顙會<sup>2</sup>、前頂、百會血之。 脳者可使立退，痛者可使立已，昧者可使立明，腫者可使立消矣。 (子和) ○大凡眼之爲患，多生於熱。 治法以清心涼肝，調血順氣爲先。 (直指) ]

화(火)가 없으면 눈에 병이 없다. [ 눈은 화(火)가 없으면 병들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흰자위가 붉게 변하는 것은 화(火)가 폐(肺)를 침범한 것이다. 눈꺼풀이 붉게 부어오르는 것은 화(火)가 비(脾)를 침범한 것이다. 검은자위의 신광(神光)이 예막으로 가려지는 것은 화(火)가 간(肝)과 신(腎)을 침범한 것이다. 붉은 실핏줄이 눈을 관통하는 것은 화(火)가 스스로 심해진 것이다. 화(火)를 다스릴 수 있다면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내경(內經)》에서 "열(熱)이 왕성하면 눈이 흐려진다."고 하였다. 무릇 눈이 갑자기 붉게 부어오르거나, 눈이 부시고 눈이 빽빽하거나, 눈물이 그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추위에 눈이 흐려지는 것은 모두 화열(火熱) 때문이다. 화(火)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약(藥)으로는, 맛이 짜고 성질이 차가운 약재로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킨다. 침(鍼)으로는, 신정(神庭) · 상성(上星) · 신회

(顚會) · 전정(前頂) · 백회(百會)를 찔러 피를 낸다. 이렇게 하면 예막을 즉시 사라지게 할 수 있고, 통증을 즉시 멎추게 할 수 있으며,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즉시 잘 보이게 할 수 있고, 부은 것은 즉시 가라앉게 할 수 있다. (《자화(子和)》) ○대체로 눈의 병은 대부분 열(熱)에서 생긴다. 치료법은 심(心)을 식히고 간(肝)을 시원하게 하며, 혈(血)을 조절하고 기(氣)를 순조롭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직지(直指)》) ]

如人病目痛而澁，無淚紅赤，人以爲熱，不知非熱也，乃腎水虧，而虛火衝上矣。方用六味地黃湯，加 [ 柴胡一錢，白芍、當歸、甘菊各三錢 ] 治之。一劑輕，二劑全愈。 [ ( 偏治 ) ]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이 아프고 이물감이 있으며 눈물이 없고 충혈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열 때문이라고 여길 뿐 열이 아닌 경우를 알지 못한다. 이는 신수(腎水)가 부족하여 허화(虛火)가 위로 치솟은 것이다. 유히지황탕(六味地黃湯)에 [ 시호(柴胡) 1돈, 백작약(白芍藥) · 당귀(當歸) · 감국(甘菊) 각 3돈 을 ] 더하여 치료한다. 1제(劑)를 쓰면 증상이 가벼워지고, 2제(劑)를 쓰면 완전히 낫는다. [ (〈편치(偏治)〉) ]

目腫而痛，亦是火症。然必看其淚多眵多，紅腫而痛，如有物針觸一般<sup>3</sup>。用 [ 柴胡、炒梔子、白蒺藜各三錢，半夏、甘草各一錢 ]，水煎服。 [ ( 寒治 ) ]

눈이 붓고 아픈 것도 화(火)로 생긴 증상이다. 그러나 반드시 눈물이 많은지, 눈곱이 많은지, 붉게 붓고 아픈 것이 마치 무언가 들어갔거나 침으로 찌르는 듯한지 살펴봐야 한다. [ 시호(柴胡) · 치자(梔子) ( 볶은 것 ) · 백질려(白蒺

藜) 각 3돈, 반하(半夏) · 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한치(寒治)〉) ]

目之紅腫也，乃風火入於肝膽之中，濕氣不散，合而成之也。初起之時，卽用舒肝舒膽之藥，而加之去濕散火之品，自然手到功成。無如人止知散邪，而不知合治之法，所以壅結而不能速效。可不慎哉<sup>4</sup>，或解鬱於房闈，或留情於聲色，或且蠶<sup>5</sup>於風寒，遂變爛眼流淚之症，甚則胬肉扳睛有之。吾今立一方，卽於初起之三五日內，連服二劑卽便立愈。清目散。[ 柴胡、白芍、白蒺藜、半夏各三錢，白朮五錢，甘菊二錢，荊芥<sup>6</sup>、甘草、草決明各一錢 ]，水煎服。一劑輕，二劑愈。有熱者加 [ 桔子三錢 ]，無熱者，不必加入。[ ( 形治 ) ]

눈이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은, 풍(風)과 화(火)가 간(肝)과 담(膽) 속으로 들어가고, 습기(濕氣)가 흘어지지 않은 2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생긴다. 초기에는 즉시 간이나 담을 풀어주는 약에 습(濕)을 제거하고 화(火)를 흘어지게 하는 약재를 더하여 쓰면 저절로 손쉽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단지 병사(病邪)를 흘어지게 하는 것만 알고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체되어 빠른 효과를 볼 수 없다. 별로 조심하지 않고 방사(房事)로 읊체를 풀거나, 혹은 여색에 마음을 쏟거나, 풍한(風寒)에 감촉되면, 결국 눈이 짓무르고 눈물이 흐르는 증상으로 변질되며, 심하면 눈에 군살이 돋아 눈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 내가 이제 처방 하나를 만들었으니, 초기 3~5일 안에 2제(劑)를 연이어 복용하면 곧바로 나을 것이다. 이름은 청목산(淸目散)이다. [ 시호(柴胡) · 백작약(白芍藥) · 백질려(白蒺藜) · 반하(半夏) 각 3돈, 백출(白朮) 5돈, 감국(甘菊) 2돈, 형개(荊芥) · 감초(甘草) · 초결명(草決明) 각 1

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가벼워지고, 2제(劑)를 쓰면 낫는다. 열이 있을 때는 [ 치자(梔子) 3돈 ] 을 더하여 쓰고, 열이 없을 때는 더할 필요가 없다. [(〈형치(形治)〉)]

目痛者，肝經之病，宜治肝矣，而余偏不治肝。方用〔黃連一錢，花椒七粒，明礬三分，荊芥五分，生薑一片〕，水煎半椀，乘熱洗之，一日洗七次，明日即愈。此治火眼之如此者，虛火之眼，又不如是，用〔人乳半鍾，生地二錢，葳蕤仁五分去殼去油一分研碎<sup>7</sup>，明礬半分〕，水半鍾，同人乳煎藥，取汁少許，洗七次，明日即愈。虛火之眼，紅而不痛不澁，無淚無眵，是也。有火者，紅腫如盒桃花<sup>8</sup>，淚出不止，酸痛羞明，多眵，是也。[(上治)] ○雷公目痛方，用〔黃連三分，柴胡、防風各二分，花椒三粒，明礬一分〕，水半鍾，飯鍋蒸，洗眼如<sup>9</sup>。一日洗三次，二日痛即止。[(上治)] ○張公方，[人乳一合，黃連、明礬、人蔘各三分，大棗二介]，水半鍾，同煎二沸，即取洗眼。無論虛眼實眼奇妙。每日洗七次，三日全愈。[(上治)]

눈의 통증은 간경(肝經)의 병이니 간(肝)을 치료해야 할 것 같지만, 나는 오히려 간을 치료하지 않는다. 다음 처방을 쓴다. [황련(黃連) 1돈, 화초(花椒) 7알, 명반(明礬) 3푼, 형개(荊芥) 5푼, 생강(生薑) 1조각.] 이 약재를 물에 넣고 끓여 반 사발을 만들어 뜨거울 때 눈을 씻는다. 하루에 7번 씻으면 다음 날 나을 것이다. 이 처방은 이렇게 화(火) 때문에 생긴 눈병을 치료하지만, 허화(虛火)로 인한 눈병은 이와 다르므로 다음 처방을 쓴다. [사람 젖 반 종지, 생지황(生地黃) 2돈, 위유인(葳蕤仁) 5푼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고 얹은 1푼을 가루낸다), 명반(明礬) 반 푼.] 물 반 종지에 사람 젖을 넣고 약재를 달여 즙

을 조금 낸다. 이것으로 눈을 7번 씻으면 다음 날 나을 것이다. 허화로 인한 눈병은 붉지만 아프지 않고 이물감도 없으며 눈물과 눈곱이 없다. 화기(火氣)가 있는 경우는 앵두처럼 붉게 붓고 눈물이 그치지 않으며 시큰시큰 아프고 눈이 부시며 눈곱이 많다. [ (〈상치(上治)〉) ] ○뇌공(雷公)이 눈 통증을 치료한 방법. [ 황련(黃連) 3푼, 시호(柴胡) · 방풍(防風) 각 2푼, 화초(花椒) 3알, 명반(明礬) 1푼. ] 이 약재를 물 반 종지에 넣어 밥솥에 찐 다음 눈을 씻으면 신묘한 효과가 있다. 하루에 3번씩 눈을 씻으면 이틀 만에 통증이 멎는다. [ (〈상치(上治)〉) ] ○장공(張公)의 처방. [ 사람 젖 1홉, 황련(黃連) · 명반(明礬) · 인삼(人蔘) 각 3푼, 대추(大棗) 2개. ] 이 약재를 물 반 종지에 함께 넣고 2소끔 끓여 즉시 꺼내어 눈을 씻는다. 허증의 눈병이든 실증의 눈병이든 상관없이 기묘한 효과가 있다. 매일 7번씩 씻으면 3일 만에 완전히 낫는다. [ (〈상치(上治)〉) ]

一遇目痛，用兩目定痛湯。 [ 白芍三錢，柴胡、當歸、荊芥、防風、白蒺藜、甘菊花、半夏、梔子各一錢，甘草五分 ]，水煎服。二劑即愈。 [ ( 常治 ) ]

눈이 아플 때는 양목정통탕(兩目定痛湯)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3돈, 시호(柴胡) · 당귀(當歸) · 형개(荊芥) · 방풍(防風) · 백질려(白蒺藜) · 감국화(甘菊花) · 반하(半夏) · 치자(梔子) 각 1돈, 감초(甘草)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2제(劑)를 쓰면 곧 낫는다. [ (〈상치(常治)〉) ]

眼目星久不能去，止可去暫時者，方用 [ 白蒺藜三錢 ]，煎洗之。三日即無星，尤妙。 [ ( 上治 ) ]

눈에 별 같은 것이 오래되어 없어지지 않고 단지 잠시만 사라지는 경우에 다음과 처방을 쓴다. [ 백질려(白蒺藜) 3돈(三錢) ] 을 달여 눈을 씻는다. 3일이면 별 같은 것이 보이지 않으니 매우 효과가 좋다. [ (〈상치(上治)〉) ]

筋肉扳睛，乃眼病失治，而生肉。人不知避忌，將眼皮翻轉，以取涼快，誰知風忽中之，則眼毛倒生而扳睛矣。此等病，最忌動刀，一動刀則不可內治矣。法當用丸散以消之，然非服之半年，不能奏效。方用甘菊花 [ 十兩 ]，須用家園自種者爲妙，否則斷不可用， [ 白芍、葳蕤、同州蒺藜、枸杞子各一斤，天門冬、麥門冬、茯苓各十兩，當歸半斤，柴胡、草決明各四兩，兩丹皮 <sup>10</sup> 三兩 ]，各爲末，蜜丸，每日饑服一兩。一料少愈，二料全愈。最忌旁事，能斷慾者，一料全愈，否則必須二料三料也。 [ (長治) ]

군살이 안구를 가린 것은 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군살이 자란 경우이다. 사람이 금기를 알지 못하여 눈꺼풀을 뒤집고 상쾌해지고자 하였는데, 누가 바람이 갑자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눈썹이 거꾸로 자라서 눈동자를 찌르게 된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런 병에는 칼을 쓰는 것을 가장 피해야 한다. 한번 칼을 쓰면 복용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된다. 마땅히 환약(丸藥)이나 산약(散藥)을 사용하여 이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반년 동안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처방은 감국화(甘菊花) [ 10냥 ] ( 반드시 집 정원에서 직접 기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 백작약(白芍藥) · 위유(葳蕤) · 질려(蒺藜) ( 동주(同州) 생산품 ) · 구기자(枸杞子) 각 1근, 천문동(天門冬) · 맥문동(麥門冬) · 복령(茯苓) 각 10냥, 당귀(當歸) 반 근, 시호(柴胡) · 초결명(草決明) 각 4냥, 단피(丹皮) 3냥. ] 이

약재를 각각 가루 내어 꿀로 환을 빚는다. 매일 빈속에 1냥씩 복용한다. 1료(料)를 쓰면 조금 나아지고, 2료(料)를 쓰면 다 낫는다. 방사를 가장 피해야 하니 정욕을 끊을 수 있는 자는 1료(料)만에 모두 나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2 - 3료(料)를 써야 한다. [ (〈장치(長治)〉) ]

倒治者，乃不可順，因而倒轉治之也。如人病傷筋力，將肝葉倒轉，視各物倒植<sup>11</sup>。人又無病，用諸藥罔效。必須將人倒懸，一人手執木棍，劈頭打去，不必十分用力，輕輕打之，然不可先與之言，必須動怒氣，使肝葉開張，而後擊之。彼必婉轉相避者，數次則肝葉依然相順矣。更有一法，以黃酒一壺，令病人飲之大醉，以竹轎檻之，故意跌翻，亦必愈也。 [ ( 倒治 ) ] ○一人因大醉，極吐熟睡，至次早眼中視物皆倒植。診其脈左關浮促，遂用瓜蒂、藜蘆，平旦吐之，視物如常。蓋傷酒吐時，上焦反覆，致倒膽府，故視物皆倒，法當復吐以正其膽則自愈。 [ ( 入門 ) ]

도치(倒治)란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없어 원인에 따라 거꾸로 뒤집어서 치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근력(筋力)을 다쳐 병이 들면 간엽(肝葉)을 뒤집어 놓아 모든 사물이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환자는 달리 아픈 곳이 없으며, 여러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 반드시 환자를 거꾸로 매달고 한 사람이 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고 머리를 향해 내리친다. 이때 힘을 너무 쓸 필요는 없고 가볍게 때린다. 그러나 미리 말해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화를 돋워 간엽이 퍼지게 한 후에 때려야 한다. 그가 반드시 꿈틀거리며 피하려 할 것이니, 여러 번 하면 간엽이 이로 인해 바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황주(黃酒) 1병을 환자에게 마시게 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 대나무 가마에

태워 일부러 넘어뜨리면 역시 반드시 나을 것이다. [ (〈도치(倒治)〉) ] ○

어떤 사람이 크게 취해 심하게 토하고 깊이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깨어보

니 눈으로 보는 사물이 모두 거꾸로 서 있었다. 그의 맥을 진찰해보니 좌관

(左關)이 부(浮) · 촉(促)하였다. 이에 과체(瓜蒂) · 여로(藜蘆)를 써서 이른 아

침에 토하게 하였더니 사물이 정상으로 보였다. 대개 술에 취해 토할 때 상초

(上焦)가 뒤집혀 담부(膽腑)가 거꾸로 되어 사물이 모두 거꾸로 보인 것이니,

마땅히 다시 토하게 하여 환자의 담(膽)을 바로잡으면 저절로 나을 것이다.

[ (《입문(入門)》) ]

眼病易治難治辨。 [ 外障易治 , 內障難治。 ○暴發者 , 為表 , 易治 , 久病者 ,

爲裏 , 難治。 ( 保命 ) ○眞珠翳 , 狀如碎米者 , 易散 , 梅花翳 , 狀如梅花葉 ,

難消。 ( 直指 ) ○瞳人乾缺 , 痛澁無淚者 , 或白翳藏在黑珠下 , 向日細視方見

者 , 或兩眼相傳疼痛 , 畫輕夜重 , 或內障五色相間 , 頭痛無淚 , 日中如坐暗室

者 , 或雷頭風 , 热毒氣衝入睛中 , 或微或大 , 昏暗不見者 , 皆不治。 ( 入門 ) ]

눈병의 이치증과 난치증. [ 외장(外障)은 치료하기 쉽고, 내장(內障)은 치료

하기 어렵다. ○갑자기 발병한 것은 표증(表證)이므로 치료하기 쉽고, 오래된

병은 이증(裏證)이므로 치료하기 어렵다. (《보명(保命)》) ○진주예(眞珠

翳)는 깨진 쌀 모양으로 쉽게 사라지고, 매화예(梅花翳)는 매화 잎 모양으로

잘 없어지지 않는다. (《직지(直指)》) ○눈동자가 건조하여 아프고 이물감

이 있으며 눈물이 부족한 경우, 흰 예막이 검은자위 아래에 숨어 있어 햇빛에

자세히 비추어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경우, 양쪽 눈이 번갈아가며 아픈데 낮

에 가볍고 밤에 심한 경우, 내장(內障)에 오색이 서로 섞여 있고 두통이 있으

며 눈물이 부족하고 대낮에도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경우, 뇌두풍(雷頭風)으로 열독(熱毒)의 기운이 눈동자로 치고 들어가 작거나 큰 물체가 침침하여 보이지 않는 경우, 이들은 모두 치료할 수 없다. (《입문(入門)》) ]

眉落方。用桑葉七斤，煎湯，每日洗之。一月重生如舊。〔(上治)〕

눈썹이 빠질 때 쓰는 처방. 상엽(桑葉) 7근을 달인 물로 매일 빠진 부위를 씻어준다. 1달이면 예전처럼 다시 난다. [ (〈상치(上治)〉) ]

1. 直持 ☞ 直指 ※《동의보감》↔
2. 顎會 ☞ 頷會 ※《동의보감》↔
3. 一般 : 二般 ※《석실비록》↔
4. 可不慎哉 ☞ 少不慎疾 ※《석실비록》↔
5. 目觸 ☞ 冒觸 ※《석실비록》↔
6. 荊介 ☞ 荊芥 ※《석실비록》↔
7. 去殼去油一分研碎 : 去殼, 取一分研碎 ※《석실비록》↔
8. 含桃花 ☞ 含桃 ※《석실비록》↔
9. 洗眼如 ☞ 洗眼如神 ※《석실비록》↔
10. 兩丹皮 ☞ 丹皮 ※《석실비록》↔

11. 倒植 ↪ 倒置 ※《석실비록》 ←

## † 耳 귀

耳目受陽氣以聰明。 [人之耳目，猶月之質，必受日光所加，始能明，耳目亦必須陽氣所加，始能聰明。是故耳目之陰血虛，則陽氣之加無以受之，而視聽之聰明失。耳目之陽氣虛，則陰血不能自施，而聰明亦失。然則耳目之聰明，必須血氣相須，始能視聽也。 (綱目) ]

귀와 눈은 양기를 받아야 밝아진다. [사람의 귀와 눈은 반드시 태양 빛을 받아야 비로소 밝아질 수 있는 달의 성질과 같아서, 귀와 눈 또한 반드시 양기(陽氣)를 받아야 비로소 밝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귀와 눈의 음혈(陰血)이 부족하면 양기(陽氣)가 더해져도 받아들일 곳이 없어 시각과 청각이 어두워진다. 귀와 눈의 양기(陽氣)가 부족하면 음혈(陰血)이 스스로 작용할 수 없어 역시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귀와 눈이 밝으려면 반드시 음혈(陰血)과 양기(陽氣)가 서로 의지해야 비로소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다. (《강목(綱目)》) ]

耳者腎之竅。 [內經曰，腎主耳。又曰，腎在竅爲耳。 ○腎氣通於耳，腎和則耳能聞五音矣。 ○內經曰，腎藏精。靈樞曰，精脫者耳聾。夫腎爲足少陰之經，乃藏精而氣通于耳。耳者，宗脈之所聚也。若精氣調和，則腎藏強盛，耳聞五音。若勞傷氣血，兼受風邪，損於腎藏而精脫者，則耳聾<sup>1</sup>無聞也。 (寶鑑) ]

귀는 신(腎)의 구멍이다. [《내경(內經)》에서 "신(腎)이 귀를 주관한다."라고 하였고, 또 "신(腎)이 담당하는 구멍은 귀이다."라고 하였다. 신기(腎氣)가 귀와 통하니, 신(腎)이 조화롭다면 귀는 오음(五音)을 잘 들을 수 있다. 《내경(內

經》에서 "신(腎)은 정(精)을 저장한다."라고 하였고, 《영추(靈樞)》에서는 "정(精)이 빠져나가면 귀가 먹는다."라고 하였다. 무릇 신(腎)은 족소음(足少陰)의 경맥이니, 정(精)을 저장하고 그 기(氣)는 귀와 통한다. 귀는 종맥(宗脈)이 모이는 곳이다. 만약 정기(精氣)가 조화롭다면, 신장(腎藏)이 강성하여 귀가 오음(五音)을 잘 들을 수 있다. 만약 지나친 피로로 기혈(氣血)이 손상된 데다 풍사(風邪)를 받은 까닭에 신장(腎藏)이 손상되어 정(精)이 빠져나가면 귀가 먹어 잘 듣지 못한다. (《보감(寶鑑)》) ]

耳聾者，腎經病也。論理該用六味地黃丸，內加 [ 當歸、枸杞子、麥門冬各三兩，甘菊、白芍各二兩，柴胡五錢，五味子三錢 ]，今不用此。鼠膽一枚，[ 龍齒、射香、冰片<sup>2</sup>各一分，乳香、龍腦各半分 ]，各研細末，以人乳爲丸，如梧子大。用絲綿裹之，不可太大，塞入耳之深處，至不可受而止。塞三日取出，卽耳聰，永不再聾，不必三丸。 [ ( 上治 ) ]

귀가 먹은 것은 신경(腎經)의 병이다. 이치로 따진다면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에 [ 당귀(當歸) · 구기자(枸杞子) · 맥문동(麥門冬) 각 3냥, 감국(甘菊) · 백작약(白芍藥) 각 2냥, 시호(柴胡) 5돈, 오미자(五味子) 3돈 ] 을 더해 써야 한다. 그러나 이제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다음 방법을 쓴다. 쥐쓸개 1개, [ 용치(龍齒) · 사향(麝香) · 빙편(冰片) 각 1푼, 유향(乳香) · 용뇌(龍腦) 각 반푼. ] 이 약재를 각각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사람 젖으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명주솜으로 이것을 싸되 너무 크지 않게 한다. 이것

을 귀 깊숙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밀어 넣는다. 3일 동안 귀를 막아 두었다가 꺼내면 곧 귀가 밝아지고 영원히 다시 귀먹지 않는다. 3알까지 쓸 필요도 없다. [ (〈상치(上治)〉) ]

耳聾，用珍珠一粒，外用龍骨末一分，以蜜調之，丸在珠上，外又用丹砂爲衣。綿裹塞耳中卽愈，神方也。一月後取出，再用六味地黃丸一料，不再聾。 [ ( 上治 ) ]

귀가 먹었을 때 다음 방법을 쓴다. 진주 1알을 사용하되, 겉에는 용골(龍骨) 가루 1푼을 꿀(蜜)에 개어 진주 표면에 발라 환을 만든 다음 겉에 다시 단사 (丹砂)로 옷을 입힌다. 이것을 솜으로 싸서 귀 안에 넣으면 곧 낫는다. 신묘한 처방이다. 1달 후에 꺼낸 다음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 1료(料)를 사용하면 다시는 귀먹지 않는다. [ (〈상치(上治)〉) ]

不治證。 [ 久聾，腎虛氣虛，絕不聞者，難治。 ( 入門 ) ]

불치증. [ 오랫동안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신허(腎虛)이거나 기허(氣虛) 때문인데, 전혀 듣지 못하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입문(入門)》) ]

1. 耳聾 ↪ 耳聾 ※《동의보감》↔

2. 冰片 ↪ 冰片 ※《석실비록》↔

## † 鼻 코

鼻曰神廬。 [ 黃庭經曰，神廬之中，當修治。呼吸廬間，入丹田。神廬者，鼻也，乃神氣出入之門也。 (類纂) ]

코를 신려(神廬)라고 한다. [《황정경(黃庭經)》에서 말하였다. "신려(神廬) 속을 단련시켜야만 한다. 호흡이 신려(神廬) 사이를 지나 단전(丹田)으로 들어 가기 때문이다." 신려란 코로서 신기(神氣)가 출입하는 문이다. (《유찬(類纂)》) ]

鼻爲玄牝之門戶。 [ 老子曰，谷神不死，是謂玄牝。玄牝之門，爲天地根。綿綿若存，用之不動<sup>1</sup>。何謂玄牝之門。答曰，鼻通天氣，曰玄門。口通地氣，曰牝戶。口鼻乃玄牝之門戶也。 (正理) ]

코는 현빈(玄牝)의 문호이다. [ 노자(老子)가 말하였다. "곡신(谷神)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玄牝)이라 한다. 현빈의 문은 천지의 근본이 된다. 면면히 이어져 존재하는 듯하여 그것을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다." 무엇을 현빈의 문이라 하는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코는 하늘의 기운과 통하니 현문(玄門)이라 한다. 입은 땅의 기운과 통하니 빈호(牝戶)라 한다. 입과 코가 바로 현빈의 문호이다." (《정리(正理)》) ]

鼻爲肺之竅。 [ 內經曰，西方白色，入通於肺，開竅於鼻。 ○肺在竅爲鼻。 (正理) ○五氣入鼻，藏于心肺，心肺有病，而鼻爲不利也。 (正理) ○難經曰，肺氣通於鼻，肺和則鼻能知香臭矣。 ]

코는 폐(肺)의 구멍이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서방은 백색이며, 오장(五臟) 가운데 폐(肺)와 통하고, 밖으로 열린 구멍은 코이다." ○폐(肺)는 구멍에 있어서 코가 된다. (《정리(正理)》) ○오기(五氣)가 코로 들어가 심폐(心肺)에 저장되는데, 심폐(心肺)에 병이 있으면 코가 좋지 않다. (《정리(正理)》) ○《난경(難經)》에서 말하였다. "폐기(肺氣)는 코와 통하니, 폐(肺)가 조화로우면 코로 어떤 냄새인지 알 수 있다." ]

鼻腫者，乃肺金<sup>2</sup>火盛也。宜用甘桔湯則效，今不用。方用皂角末吹入，打清嚏數十卽愈。蓋鼻因氣壅，今打嚏，則壅塞之氣，盡開散，故不必清肺，而鼻腫自消也。 [ ( 上治 ) ]

코가 붓는 증상은 폐경(肺經)에 화(火)가 치성하여 생긴다. 마땅히 감길탕(甘桔湯)을 쓰면 효과가 있지만 이제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다음 방법을 쓴다. 조각(皂角) 가루를 코에 불어넣어 재채기를 수십 번 하게 하면 낫는다. 대개 코의 병은 기(氣)가 울체되어 생기는데, 이렇게 재채기를 시키면 울체된 기(氣)가 모두 열려 흩어지므로 굳이 폐(肺)를 막게 하지 않아도 코의 부기가 저절로 사라진다. (〈상치(上治)〉)

鼻色占病。 [ 靈樞曰，鼻頭色青爲痛，色黑爲勞，色赤爲風，色黃者便難也，色鮮明者有留飲也。 ○鼻色青，腹中痛苦冷者死。 ( 正傳 ) ○鼻頭微白者，亡血也。赤者，血熱也，酒客多有之。 ( 三因 ) ]

코 색으로 병의 예후를 아는 방법.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코끝 색이 푸르면 통증이 있는 것이고, 검으면 피로가 있는 것이며, 붉으면 풍(風)이 있는 것이고, 노란색이면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며, 색이 밝고 윤이 나면

유음(留飲)이 있는 것이다." ○ 코 색이 푸른데 배가 아프면서 몹시 차가운 경우는 죽는다. (《정전(正傳)》) ○ 코끝이 약간 흰 것은 망혈증이다. 붉은 것은 혈열(血熱)이니, 술꾼에게 많이 있다. (《삼인(三因)》) ]

1. 動 ☞ 勤 ※《동의보감》 ←
2. 肺金 ☞ 肺經 ※《석실비록》 ←

## † 口舌 입과 혀

口曰玉池。 [ 黃庭經曰，玉池清水灌靈根。註曰，玉池者，口也。清水者，津液也。靈根者，舌也。 ]

입을 옥지(玉池)라고 한다. [《황정경(黃庭經)》에서 말하였다. "옥지(玉池)의 맑은 물이 영근(靈根)을 적신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옥지란 입이다. 맑은 물이란 침이다. 영근이란 혀이다." ]

舌屬心。 [ 內經曰，心在竅爲舌。又曰，心氣通於舌，心和則舌能知五味矣。  
○舌者，心之苗也。 (入門) ○舌爲心之官，主嘗五味，以布五藏焉。心之本脈，繫於舌根，脾之絡脈，繫於舌傍，肝脈循陰器，絡於舌本，腎之津液，出於舌端。分布五藏，心實主之。三經爲四氣所中，則舌卷不能言。七情氣鬱，則舌腫不能語。至於心熱，則舌破生瘡，肝壅，則出血如湧，脾閉，則白胎如雪。此舌之爲病也。 (得效) ]

혀는 심(心)에 속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심장이 관장하는 구멍은 혀이다." 또 말하였다. "심기(心氣)가 혀와 통하니, 심장이 조화롭다면 혀로 오미(五味)를 알 수 있다." ○ 혀는 심(心)의 쌩이다. (《입문(入門)》) ○ 혀는 심(心)이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미(五味)를 맛보고 오장(五臟)으로 퍼뜨리는 일을 한다. 심(心)의 본맥(本脈)은 혀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비(脾)의 락맥(絡脈)은 혀 옆에 연결되어 있으며, 간맥(肝脈)은 음기(陰器)를 따라 혀 밑에 얹혀 있고, 신(腎)의 진액(津液)은 혀끝에서 나온다. 이렇게 혀는 오장(五

臟)에 분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심(心)이 이를 주관한다. 3가지 경맥에 풍(風) · 한(寒) · 서(暑) · 습(濕)의 사기(邪氣)가 침범하면 혀가 말려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칠정(七情)으로 기(氣)가 울체되면 혀가 붓고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심(心)에 열(熱)이 있으면 혀가 갈라지고 헐게 되며, 간(肝)의 기운이 막히면 피가 솟구치듯 나오고, 비(脾)의 기운이 막히면 백태(白苔)가 눈처럼 생긴다. 이것이 혀의 병이다. (《득효(得效)》) ]

口唇屬脾。 [ 內經曰，中央黃色，入通於脾，開竅於口，故病在舌本。又曰，脾主口。又曰，脾在竅爲口。 ○難經曰，脾氣通於口，脾和則能知五味矣。 ○心主舌，脾主唇口，心脾二氣恒相通也。 (入門) ○脣屬<sup>1</sup>，風則瞤動，寒則掀縮，熱則乾裂，血虛則無色，氣鬱則瘡腫。脣有病，則隨證以治脾可也。 (入門) ]

입술은 비(脾)에 속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중앙의 황색은 비(脾)와 통하고 입으로 구멍을 낸다. 그러므로 병이 혀뿌리에 있다." 또한 "비(脾)가 입을 주관한다."라고 하였고, "비(脾)가 관장하는 구멍은 입이다."라고 하였다. ○《난경(難經)》에서 말하였다. "비(脾)의 기(氣)는 입으로 통하니, 비(脾)가 조화롭다면 오미(五味)를 알 수 있다." ○ 심(心)은 혀를 주관하고, 비(脾)는 입술과 입을 주관하니, 심(心)과 비(脾)의 2가지 기운은 항상 서로 통한다. (《입문(入門)》) ○ 입술은 비(脾)에 속한다. 풍(風)이 있으면 떨리고, 한(寒)이 있으면 들리거나 오그라들며, 열(熱)이 있으면 말라 갈라지고, 혈(血)이 혀하면 색이 없으며, 기(氣)가 울체되면 창(瘡)이 생긴다. 입술에 병이 있으면 증상에 따라 비(脾)를 치료하면 된다. (《입문(入門)》) ]

口舌生瘡者，乃心經熱也。宜用黃芩、黃連之類，涼散之自愈，今不用。用〔黃柏、殭蠶各一錢，枳殼燒灰、炙甘草末、薄荷末、山豆根各五分，冰片三里〕，各爲末細，滲上，一日滲三次。第一日即少快，明日全愈。神方也。〔（上治）〕 ○跌損唇皮之類，以桑白皮作線縫之，以生肌散〔（方見瘻瘤）〕滲之，自合。〔（上治）〕 〔○方中，再枳殼五錢，生芻三錢。（不內外治）〕

입이나 혀가 헌 것은 심경(心經)의 열(熱) 때문이다. 마땅히 황금(黃芩)·황련(黃連) 등으로 열을 식혀 흡어지게 하면 저절로 낫겠지만 이제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다음 방법을 쓴다. [황백(黃柏)·강잠(殭蠶) 각 1돈, 지각(枳殼) (태운 재)·자감초(炙甘草) (가루 낸다)·박하(薄荷) (가루 낸다)·산두근(山豆根) 각 5푼, 빙편(冰片) 3리.] 이 약재를 각각 매우 곱게 가루 내어 상처 위에 뿌린다. 하루에 3번 뿌린다. 첫날부터 조금 나아지고, 다음날 완전히 낫는다. 신묘한 처방이다.〔（〈상치(上治)〉）〕 ○ 넘어져 입술 피부에 상처가 생긴 경우 등에는 상백피(桑白皮)로 실을 만들어 꿰매고 생기산(生肌散)〔（처방은 〈영류(瘻瘤)〉에 있다）〕을 뿐리면 저절로 아문다.〔（〈상치(上治)〉）〕 〔○처방 중에 다시 지각(枳殼) 5돈(五錢), 생지황(生地黃) 3돈(三錢)을 더한다.（〈불내외치(不內外治)〉）〕

凡人有被人咬落舌尖，或連根咬斷者，或一日，或二日，或半月，俱可接之。速用狗舌一條，觀其人舌之大小，切正如人舌光景，將病人舌根伸出，病人坐在椅上，仰面，頭放在椅背上，以自己手拿住喉嚨，則舌自伸出。急將狗舌蘸藥末，接在人舌上，一交接，永不落矣。末藥方開後，〔龍齒透明者、生地黃各三錢，象皮一錢，土狗三個，去頭翅足，地虱二十介〕。先將人蔘各項俱研末，後用

[ 地虱、土狗 ] 捣爛，入前藥末內搗之，佩身上三日，乾爲末，盛在瓶內。遇有此等病，爲之醫治可也。此藥末接骨最奇，服下神效。骨斷者，服一錢卽愈。神方也。 [ ( 碎治 ) ] ○聞人說咬落舌頭者，以醋漱之，可以重長。師曰，亂道。肉逢酸則縮，豈有反伸出之理。要重生必是仙丹。汝既禱○天我當傳子<sup>2</sup>，

[ 人蔘 ] 一兩煎湯，含漱者半日。以一兩參湯漱完，然後已再用真仙丹。 [ 人蔘末、麥冬末各一錢，龍齒末、血竭末各三分，冰片二分，土狗一個，地虱十個 ]，各火焙爲末，放土地上一刻出火氣。將此末乘人蔘湯漱口完時，卽以此末自己用舌蘸之使令遍，不可將舌卽縮入口中，放在外者半刻，至不能忍，然後縮入可也。三次則舌伸長矣。 [ ( 碎治 ) ]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 혀끝이 떨어지거나, 혹은 혀뿌리까지 물려 끊어진 경우, 하루가 지났든 이틀이 지났든 혹은 보름이 지났든 모두 접합할 수 있다. 신속히 개의 혀 1개를 사용하되, 그 사람의 혀 크기를 관찰하여 사람 혀의 모양과 똑같이 잘라낸다. 환자의 혀뿌리를 내밀게 하는데, 환자를 의자에 앉혀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게 한 뒤, 환자 스스로 손으로 목구멍을 잡으면 혀가 저절로 나온다. 급히 개의 혀에 약 가루를 묻혀 사람의 혀 위에 접합시키는데, 일단 붙이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약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용치(龍齒) ( 투명한 것 ) · 인삼(人蔘) ( 투명한 것 )<sup>3</sup> · 생지황(生地黃) 각 3돈, 빙편 3푼<sup>4</sup>, 상피(象皮) 1돈, 토구(土狗)<sup>5</sup> ( 머리와 날개와 다리를 제거한다. ) 3개, 지술(地蟲)<sup>6</sup> 20개. ] 먼저 인삼 등 각 재료를 모두 가루로 만든다. 그런 뒤 [ 지슬과 토구를 ] 짓찧어 앞의 약 가루에 넣고 함께 찧는다. 이것을 몸에 지니고 3일간 말린 뒤 가루 내 병에 담아둔다. 그러다 이런 병을 만나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이 약 가루는 뼈를 접합

하는 데도 가장 좋다. 복용하면 신묘한 효과가 있다. 뼈가 부러진 경우 1돈을 복용하면 즉시 낫는다. 신묘한 처방이다. [ (〈쇄치(碎治)〉) ] ○ "사람들이 혀를 깨물어 떨어뜨린 경우 식초로 입을 헹구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허튼 소리다. 살은 신맛을 만나면 오 그라드는데, 어찌 도리어 늘어날 이치가 있겠는가? 다시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선단(仙丹)이 필요하다. 네가 하늘에 기도했으니, 내가 마땅히 너에게 전 수하겠다. 인삼(人蔘) 1냥을 달인 물로 반나절 동안 입을 헹군다. 1냥의 인삼 달인 탕으로 헹구기를 마친 후 다시 진선단(眞仙丹)을 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인삼(人蔘) ( 가루 ) · 맥문동 ( 가루 ) 각 1돈, 용치(龍齒) ( 가루 ) · 혈갈(血竭) ( 가루 ) 각 3푼, 빙편(冰片) 2푼, 토구(土狗) 1마리, 지술(地蠶) 10 마리. ] 이들을 각각 불에 바짝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들고, 땅 위에 놓아 한 동 안 불기운을 빼낸다. 이 가루를 인삼 달인 탕으로 입 헹구기를 마쳤을 때 쓰는데, 곧 이 가루를 스스로 혀로 찍어 골고루 바르는 것이다. 혀를 곧바로 입 안으로 오그라뜨리지 말고 밖에 내놓은 채로 반 각(刻) 정도 참을 수 없을 때 까지 두었다가 집어넣어야 좋다. 3번 하면 혀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 (〈쇄 치(碎治)〉) ]

口舌生瘡，乃心火鬱熱，而舌乃心苗，故先見症。法用，[ 黃連二錢，菖蒲一  
錢 ]，水煎服。一劑而愈。神方也。 [ ( 寒治 ) ]

입이나 혀가 헛 것은 곧 심장(心)의 화(火)가 울체되어 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혀는 곧 심장(心)의 싹이므로 먼저 혀에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 황련(黃連) 2돈, 창포(菖蒲)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

제(劑)를 쓰면 낫는다. 신묘한 처방이다. [ (〈한치(寒治)〉) ]

視唇舌占病。 [ 脾肺病久，則虛而唇白。脾者肺之母，母子皆虛，不能相榮，故名曰怯。脾主唇，唇白而光澤者吉，白如枯骨者死。 (錢乙) ○血氣虛怯，爲冷所乘，則唇青。又額黑唇青，爲寒。 (錢乙) ○足太陰氣絕，則唇反。唇反則死，唇者肉之本，唇反者肉先死也。 (靈樞) ○舌卷而短，若唇青卵縮者，必死。肝絕故也。 (綱目) ○傷寒熱病，口如魚口，不能復閉，而氣出多不反者，死。 (扁鵲) ○病人口張者，三日死。 (扁鵲) ○病人唇反，人中滿者，死。 (扁鵲) ○舌本爛熱不止者，逆。 (得效) ○唇口俱腫赤者，是熱極也。唇口俱青黑者，寒極也。 (回春) ]

입술과 혀로 병의 예후를 아는 방법. [ 비(脾)와 폐(肺)의 병이 오래되면 허해져서 입술이 허옇게 된다. 비(脾)는 폐(肺)의 어미이니, 어미와 자식이 모두 허해져서 서로 보살필 수 없으므로 이를 '겁(怯)'이라 한다. 비(脾)는 입술을 주관하는데, 입술이 하얗되 윤기가 있으면 예후가 좋고, 마른 뼈처럼 허옇게 되면 죽는다. (《전을(錢乙)》) ○ 혈기가 매우 허약한데 찬 기운이 침범하면 입술이 푸르게 된다. 또한 이마가 검고 입술이 푸른 것은 한증(寒證)이다. (《전을(錢乙)》) ○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기가 끊어지면 입술이 뒤집힌다. 입술이 뒤집히면 죽는데, 입술은 살의 근본이니 입술이 뒤집힌 것은 살이 먼저 죽은 것이다. (《영추(靈樞)》) ○ 혀가 말리고 짧아지거나 입술이 푸르고 고환이 수축되는 경우는 반드시 죽는다. 간(肝)의 기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강목(綱目)》) ○ 상한(傷寒)이나 열병에, 입이 물고기 입처럼 벌어져 다시 다물지 못하고, 숨을 길게 내쉬지만 들이쉬지 못하는 경우는 죽는다.

(《편작(扁鵲)》) ○ 환자의 입이 벌어진 채로 있으면 3일 안에 죽는다.  
(《편작(扁鵲)》) ○ 환자의 입술이 뒤집히고 인중이 부어오르는 경우는 죽는다. (《편작(扁鵲)》) ○ 혀뿌리가 짓무르고 열이 그치지 않으면 역증(逆證)이다. (《득효(得效)》) ○ 입술과 입이 모두 붉게 부은 것은 열이 극에 달한 경우이다. 입술과 입이 모두 푸르고 검은 것은 한(寒)이 극에 달한 경우이다. (《회춘(回春)》) ]

1. 脣屬 脣屬脾 ※《동의보감》 ←
2. 汝既禱○天我當傳子 ○汝既禱天，我當傳子 ※《석실비록》 ←
3. 인삼(人蔘) ( 투명한 것 ) : 이해를 돋기 위해 역자가 추가하였다. "人蔘亦用透明者三錢" ※《석실비록》 ←
4. 빙편 3푼 : 이해를 돋기 위해 역자가 추가하였다. "冰片三分" ※《석실비록》 ←
5. 토구(土狗) : 땅강아지 ←
6. 지술(地蟲) : 쥐며느리 ←

## † 牙齒 치아

齒者骨之餘。 [齒者，骨之餘，腎主營養，呼吸之門戶也。（得效） ○齒者，骨之所終，髓之所養，腎實主之。故經云，腎衰則齒豁，精盛則齒堅，虛熱則齒動。（直指） ○牙齒骨屬，腎之標也。（入門）]

이(齒)는 뼈의 나머지이다. [이(齒)는 뼈의 나머지이며, 신(腎)이 길러준다. 또 호흡의 문호이다. (《득효(得效)》) ○ 이(齒)는 뼈가 끝나는 곳이며, 골수가 기르는 곳이다. 신(腎)이 실제로 이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경(經)에서 말하였다. "신(腎)이 쇠약해지면 이(齒)가 빠지고, 정(精)이 왕성하면 이(齒)가 단단하며, 허열(虛熱)이 있으면 이(齒)가 흔들린다." (《직지(直指)》) ○ 치아는 뼈에 속하며, 신(腎)의 표(標)이다. (《입문(入門)》) ]

上下齦屬手足陽明。 [牙齒是手足陽明脈之所過，上齒<sup>1</sup>隸於坤土，乃足陽明胃之所貫絡也。止而不動。下齦嚙物，動而不休，手陽明大腸之脈所貫絡也。（東垣）]

위아래 잇몸은 수족양명에 속한다. [치아는 수양명맥(手陽明脈)과 족양명맥(足陽明脈)이 지나가는 곳이다. 윗잇몸은 곤토(坤土)에 속하니, 곧 족양명위맥(足陽明胃脈)이 관통하여 연결되는 곳이다.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아랫잇몸은 물건을 씹을 때 쉬지 않고 움직이니, 수양명대장맥(手陽明大腸脈)이 관통하여 연결되는 곳이다. (《동원(東垣)》) ]

牙齒痛有七。 [ 牙齒之痛，因胃中濕熱上出於牙齦之間，適被風寒或飲冷所鬱，則濕熱不得外達，以作痛也。寒是標，故外用辛溫擦漱之藥，熱是本，故內服辛涼散熱之劑。 (丹心) 通用擦牙方，謝傳笑去散。 (方見下) ○手陽明之支脈入齒，壅則齒浮，虛則宣露，挾風則上攻頭面，疳瘡則變成齲脫。 (直指) ○齒病，有開口呷風則痛甚者，胃中有風邪也。有開口則臭穢不可近者，腸胃中有積熱也。俱宜當歸連翹飲。 (方見下) 有齒根腫而痛者，胃熱也。有痛而動搖者，腎元虛也。有孔而痛者，虫蝕也。 (醫鑑) ○寒者，堅牢而<sup>2</sup>，熱甚則齒動，齒齦袒脫，作痛不已。 (東垣) ○得清涼痛甚者，爲寒，口吸涼風痛止者，爲熱。 (綱目) ○齒痛有風熱、風冷、熱痛、寒痛、毒痰、瘀血、虫蝕痛。 ]

치통(齒痛)에는 7가지가 있다. [ 치아 통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위(胃) 속의 습열(濕熱)이 잇몸 사이로 올라왔는데, 마침 풍한(風寒)을 만나거나 찬 음료를 마신 까닭에 울체되어 습열(濕熱)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통증이 생긴다. 한(寒)이 표(標)가 되므로 겉에서 신온(辛溫)한 성질의 약으로 이를 문지르거나 행구고, 열(熱)이 본(本)이 되므로 속에서 신량(辛涼)한 성질로 열을 흘리는 약을 복용한다. (《단심(丹心)》) 치통에는 찰아방 · 사부소거산 (처방은 뒤에 나온다) 을 두루 쓴다. ○수양명(手陽明)의 지맥(支脈)이 치아로 들어간다. 이곳이 막히면 치아가 들뜨고, 허하면 드러나며, 풍(風)이 끼어들면 위로 머리와 얼굴을 공격하고, 감닉(疳瘡)이 되면 충치가 되어 빠진다. (《직지(直指)》) ○치아 질환 중에, 입을 벌려 바람을 쏘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위(胃) 속에 풍사(風邪)가 있는 것이다. 입을 벌리면 악취가 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장위(腸胃) 속에 적열(積熱)이 있는 것이다. 모두 당귀연교

음(當歸連翹飲) (처방은 뒤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이뿌리가 붓고 아픈 것은 위열(胃熱)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면서 흔들리는 것은 신원(腎元)이 허하기 때문이다. 구멍이 나면서 아픈 것은 벌레가 파먹었기 때문이다. (《의감(醫鑑)》) ○한(寒) 때문일 때는 치아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아프지만, 열이 심할 때는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벗겨져 통증이 그치지 않는다. (《동원(東垣)》) ○시원한 것을 대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한증(寒證)이고, 입으로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시면 통증이 멎는 것은 열증(熱證)이다. (《강목(綱目)》) ○치통에는 풍열통(風熱痛) · 풍한통(風寒痛) · 열통(熱痛) · 한통(寒痛) · 독담통(毒痰痛) · 어혈통(瘀血痛) · 충식통(蟲蝕痛)이 있다. ]

長齒法。方用雄鼠脊骨全副，臥骨<sup>3</sup>不用，尾亦不用，頭亦不用。長齒至聖丹。  
 [ 骨碎 ] 補三錢炒爲末，[ 射香 ] 一分，熟 [ 地黃 ] 身懷之令乾爲末三錢。但熟 [ 地黃 ] 必須自製，切不可經鐵器，一犯則前藥俱不效矣。生 [ 地黃 ] 亦須看一做過，經鐵針穿孔者，即不效。 [ 榆樹皮、細辛各三分 ]，總之羣藥，俱不可經鐵器。 [ 青鹽三錢，當歸、杜沖各一錢 ] 足矣，各爲細末。鼠骨去肉不用，新尾<sup>4</sup>上焙乾爲末，不可過焦，乘其生氣也。用一磁瓶盛之，每日五更時，不可出聲，將此藥輕擦在無牙之處。三十六擦，藥任其自然咽下，不可用水漱口，一月如是。日間午間擦之更住，亦如前數。 [ ( 碎治 ) ]

치아 자라게 하는 방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컷 쥐의 척추뼈 전체를 사용하고 나머지 뼈는 사용하지 않는다. 꼬리와 머리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름은 장치지성단(長齒至聖丹)이다. [ 골쇄보(骨碎補)] (볶아 가루 낸다) 3돈, [ 사향(射香) ] 1푼, [ 숙지황(熟地黃) ] (몸에 품어 말린 후 가루 낸다) 3

돈. 다만 [ 숙지황(熟地黃) ] 은 반드시 직접 만들어야 하며, 절대로 쇠로 된 도구에 닿아서는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앞의 약들이 모두 효과를 보지 못한다. [ 생지황(生地黃) ] 역시 반드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쇠바늘로 구멍을 뚫은 것은 효과가 없다. [ 유수피(榆樹皮) · 세신(細辛) 각 3푼 ], 모든 약재는 절대로 쇠 도구에 닿아서는 안 된다. [ 청염(青鹽) 3돈, 당귀(當歸) · 두충(杜仲) 각 1돈 ] 이면 충분하다. 각각 곱게 가루 낸다. 쥐의 척추뼈 ( 살은 발라내고 쓰지 않는다 ) 는 새로 구운 기와 위에 놓고 불을 찌어 바짝 말려서 가루 내되, 너무 태우지 말고 생기(生氣)를 유지시켜야 한다. 약재 가루를 자기 병에 담아두고, 매일 새벽 5시경에 목소리를 내지 말고 이 약으로 이가 없는 곳을 가볍게 문지른다. 36번 문지르고 약을 자연스럽게 삼키도록 하며, 물로 입을 헹구지 않는다. 이렇게 1달 동안 한다. 낮 정오에 문질러도 괜찮다. 횟수는 앞과 같이 한다. [ (〈쇄치(碎治)〉) ]

固齒方。雄鼠脊骨一副，[ 熟地黃、榆樹皮、骨碎補各三錢，杜沖二錢，當歸、細辛、青鹽各一錢 ]。各爲末，裹在綿紙成條，咬在牙床上，以味盡爲度。一條永不齒落矣。然亦不可經鐵器，經則不效。然汝亦幸虧此藥，所以五十外，不動搖也。汝後不必愁，昨服吾符故也，傳汝救人可耳。此藥可救數百人，大約一人須用三條。 [ ( 碎治 ) ]

이를 단단히 하는 방법. 수컷 쥐의 등뼈 한 줄기, [ 숙지황(熟地黃) · 유수피 (榆樹皮) · 골쇄보(骨碎補) 각 3돈, 두충(杜仲) 2돈, 당귀(當歸) · 세신(細辛) · 청염(青鹽) 각 1돈. ] 각각 가루 내어 면지(綿紙)에 싸서 막대 모양으로 만들고, 잇몸에 물고 있다가 맛이 다 빠지면 그만둔다. 1개 사용하면 영원히 이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쇠로 된 기구에 닿으면 안 되니, 닿으면 효과가 없어진다. 다행히 그대도 이 약 덕분에 쉰 살이 넘어서도 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는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어제 내 부적을 복용했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전하여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 약으로 수백 명을 구할 수 있으니, 한 사람에게 대략 3조각을 써야 한다. [ (〈쇄치(碎治)〉) ]

### 謝傅笑去散 사부소거산

- [ 治牙齒痛。乳香、沒藥、雄黃、胡椒、兩頭尖、烏藥。右等分爲末，擦患處，吐涎即愈。 ( 入門 ) ]
- [ 치아 통증을 치료한다. 유향(乳香) · 몰약(沒藥) · 응황(雄黃) · 후추(胡椒) · 양두첨(兩頭尖) · 오약(烏藥). 위의 재료들을 같은 양으로 가루 낸다. 이것으로 환부를 문지른 뒤 침을 뱉으면 곧 낫는다. (《입문(入門)》) ]

### 當歸連翹飲 당귀연교음

- [ 治齒痛，呷風痛甚，開口臭穢。當歸、生地黃、川芎、連翹、防風、荊芥、白芷、羌活、黃芩、山梔子、枳角、甘草各七分，細辛三分。右剉作一貼，水煎不拘時服。 ( 回春 ) ]
- [ 치통을 치료한다. 바람을 들이마시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입을 열면 악취가 나는 경우이다. 당귀(當歸) · 생지황(生地黃) · 천궁(川芎) · 연교(連翹) · 방풍(防風) · 형개(荊芥) · 백지(白芷) · 강활(羌活) · 황금(黃芩) · 산치자(山梔子) · 지각(枳殼) · 감초(甘草) 각 7푼, 세신(細辛) 3푼.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삼아 물에 달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복용한다. (《회춘(回春)》) ]

視齒色占病。 [ 病人唇腫，齒焦者死，脾腎絕也。 (扁鵲) ○病人齒忽變黑者，十三日死，少陰絕也。 ○病人陰陽俱竭，其齒如熟小豆者，死。 (扁鵲) ]

치아의 색으로 병의 예후를 아는 방법. [ 환자의 입술이 부어오르고 치아가 탄 듯하면 죽는다. 이는 비(脾)와 신(腎)의 기운이 끊어진 것이다. (《편작(扁鵲)》) ○ 환자의 치아가 갑자기 검게 변하면 13일 만에 죽는다. 이는 소음(少陰)의 기운이 끊어진 것이다. ○ 환자의 음양이 모두 고갈되어 환자의 이가 익은 팥처럼 되면 죽는다. (《편작(扁鵲)》) ]

1. 上齒 ☞ 上齦 ※《동의보감》 ←
2. 堅牢而 ☞ 堅牢而痛 ※《동의보감》 ←
3. 臥骨 ☞ 餘骨 ※《석실비록》 ←
4. 新尾 ☞ 新瓦 ※《석실비록》 ←

## † 咽喉 인후

咽與喉各異。 [ 靈樞曰，咽喉者，水穀之道也。喉嚨者，氣之所以上下者也。會厭者，音聲之戶也。懸壅者，音聲之關也。 ○內經曰，喉主天氣，咽主地氣。又曰，地氣通於嗌。註曰，嗌謂咽喉下，接連胸中肺兩葉之間也。嗌卽咽之低處也，咽卽嗌之高處也。 ○喉者，候也。咽者，嚥也。咽接三腕以通胃，故以之嚥物。喉通五臟以系肺，故以之候氣。氣喉穀咽，皎然明白。 ( 得效 ) ]

인(咽)과 후(喉)의 차이.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인후(咽喉)는 수곡(水穀)의 통로이다. 후통(喉嚨)은 기(氣)가 오르내리는 곳이다. 회염(會厭)은 목소리가 나오는 문이다. 현옹(懸壅)은 목소리가 나오는 관문이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후(喉)는 천기(天氣)를 주관하고, 인(咽)은 지기(地氣)를 주관한다." 또 말하였다. "지기(地氣)는 익(嗌)에 통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익(嗌)은 인후(咽喉) 아래에서 가슴 속 양쪽 폐엽(肺葉) 사이에 연결된 곳을 말한다. 익(嗌)은 곧 인(咽)의 아래쪽이고, 인(咽)은 곧 익(嗌)의 위쪽이다." ○ 후(喉)는 '맞이한다'는 뜻이고, 인(咽)은 '삼킨다'는 뜻이다. 인(咽)은 삼완(三腕)에 연결되어 위(胃)와 통하므로 이를 통해 음식을 삼킨다. 후(喉)는 오장(五臟)과 통하여 폐(肺)에 연결되므로, 이를 통해 공기를 맞이한다. 공기는 후(喉)로, 곡식은 인(咽)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고 명백하다. (《득효(得效)》) ]

咽喉會厭與舌其用不同。 [ 咽與喉，會厭與舌，此四者同在一門，而其用各異。喉以納氣，故喉氣通於天，咽以納食，故咽氣通於地。會厭管乎其上，以司開闔，掩其喉則其食下，不掩之則其喉錯。必舌抵上齶，則會厭能開其喉矣。四者

交相爲用，闕一則飲食廢而死矣。〔子和〕

인(咽)·후(喉)·회염(會厭)·혀의 작용은 다르다. [인(咽)과 후(喉), 회염(會厭)과 혀(舌), 이 4가지는 같은 통로에 있으나 그 쓰임이 각각 다르다. 후(喉)는 공기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후(喉)의 기운은 하늘과 통한다. 인(咽)은 음식을 들인다. 그러므로 인(咽)의 기(氣)는 땅과 통한다. 회염(會厭)은 인(咽)과 후(喉)의 위쪽을 관장하여 여닫는 일을 담당한다. 후(喉)를 덮으면 음식이 내려가고, 덮지 않으면 사레든다. 반드시 혀가 윗입천장에 닿아야 회염(會厭)이 후(喉)를 열 수 있다. 이 4가지가 서로 작용하여 쓰이니 하나라도 빠지면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죽고 만다. (《자화(子和)》) ]

咽喉之病皆屬火。〔內經曰，一陰一陽結，謂之喉痺。註曰，一陰謂心主之脈，一陽謂三焦之脈也。三焦心主脈并絡喉，氣熱內結，故爲喉痺。○一陰肝與心包，一陽膽與三焦，四經皆有相火。火者痰之本，痰者火之標也。〕 (入門) ○少陰君火，少陽相火，二脈并絡咽喉。君大勢緩，則熱結而爲疼爲腫。相火勢遠，則腫甚不仁而爲痺。痺甚不通而痰塞以死矣。 (入門) ○咽喉之疾，皆屬火熱。雖有數種之名，輕重之異，乃火之微甚故也。微而輕者，可以緩治。甚而急者，惟用砭針出血，最爲上策也。 (正傳) ○魚骨硬方見下。]

인후의 병은 모두 화(火)에 속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일음(一陰) 일양(一陽)이 맷힌 것을 후비(喉痺)라고 한다." 주석에 말하였다. "일음(一陰)은 심포(心包)의 맥을 말하고, 일양(一陽)은 삼초(三焦)의 맥을 말한다. 삼초와 심포의 맥이 함께 목구멍을 얹어매고 있는데, 기(氣)가 열을 받아 안에 서 맷히므로 후비(喉痺)가 된다." ○일음(一陰)은 간(肝)과 심포(心包)이고, 일

양(一陽)은 담(膽)과 삼초(三焦)인데, 4가지 경맥에는 모두 상화(相火)가 있다. 화(火)는 담(痰)의 근본이고, 담(痰)은 화(火)의 징표이다. (《입문(入門)》) ○소음(少陰)은 군화(君火)이고, 소양(少陽)은 상화(相火)인데, 2가지 경맥(經脈)이 함께 인후를 얹어매고 있다. 군화의 기세는 느슨하므로 열이 맷혀 통증과 부종이 생긴다. 상화의 기세는 급속하므로 심하게 붓고 감각이 없어져 후비(喉痺)가 된다. 후비가 심해지면 숨이 통하지 않고 가래가 가득 차죽게 된다. (《입문(入門)》) ○인후의 질병은 모두 화열(火熱)에 속한다. 비록 여러 가지 이름과 경증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화(火)의 정도 차이 때문이다. 미세하고 가벼운 것은 천천히 치료할 수 있지만, 심하고 급한 것은 오직 침으로 출혈(出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정전(正傳)》) ○물고기 가시가 목에 걸린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루었다.]

凡人有咽喉忽腫作痛，生雙蛾者，飲食不能下，五日不食卽死矣。但此症實火易治，而虛火難醫。實火世人已有妙方，如用 [ 山豆根、芩、連、半夏、柴胡、甘草、桔梗、天花粉 ] 治之，立消。惟虛火乃腎火不藏於命門，浮遊於咽喉之間。其症亦如實火，惟夜重於日，清晨反覺少輕。若實火，清晨反重，夜間反輕。實火口燥舌乾而開裂，虛火口不甚渴，舌滑而不裂也。以此辨症，斷不差錯。此種虛症，若亦以治實火之法治之，是人已下井而又益之石也。故不特不可用寒涼，併不可用發散。蓋虛火必須補也。然徒補腎水，雖水能制火，可以少差，而火勢太盛，未易制伏。又宜於水中補火，則引火歸源，而火勢頓除，有消亡於頃刻矣。方用引火湯。 [ 熟地三兩，元蔴一兩，茯苓五錢，山茱萸、山藥各四錢，白芥子三錢，肉桂二錢，五味子一錢 ] ，水煎服。一劑而痰聲靜，痛頓除，腫亦盡。

消，二劑全愈。 [ (下卷) ] ○我更有法，用 [ 附子一個，破古紙五錢 ]。各研末，調如糊作膏，布攤如膏藥，大如茶鍾，貼脚心中央，以火烘之一時<sup>1</sup>，喉卽寬而開一線路，可以服藥矣。又不可不知此妙法也。 [ (下卷) ]

무릇 어떤 사람의 목구멍이 갑자기 붓고 아프며, 양쪽 편도가 부어올라 음식을 삼킬 수 없어 5일 동안 먹지 못하다 곧 죽게 되었다. 다만 이 증상이 실화(實火) 때문인 경우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허화(虛火) 때문인 경우에는 치료하기 어렵다. 실화가 원인인 경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신묘한 처방이 있다. 예를 들어 [ 산두근(山豆根) · 황금(黃芩) · 황련(黃連) · 반하(半夏) · 시호(柴胡) · 감초(甘草) · 길경(桔梗) · 천화분(天花粉) ] 을 사용하여 치료하면 즉시 낫는다. 허화가 원인인 경우는, 신(腎)의 화(火)가 명문(命門)에 머물지 못하고 목구멍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그 증상은 실화와 비슷하지만, 다만 밤에 더 심해지고 새벽에는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다. 만약 실화라면 새벽에 더 심해지고 밤에는 오히려 가벼워진다. 실화는 입이 마르고 혀가 건조하며 갈라지지만, 허화는 갈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고 혀가 미끄러워 갈라지지 않는다. 이 증상으로 구별하면 결코 오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허증에 만약 실화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이는 사람이 이미 우물에 빠졌는데 또 돌을 더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한량한 약을 써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발산하는 약을 써서도 안 된다. 대개 허화는 반드시 보(補)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신수(腎水)만 보하면, 비록 물이 불을 제어할 수 있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화(火)의 세력이 너무 치성하여 쉽게 제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을 보하면서 화(火)도 보해야만 화(火)가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화(火)의 세력이 단번에 제압되어 순식간에 소멸된다. 처방은 인화탕(引火湯)을 사

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3냥, 현삼(玄蔴) 1냥, 복령(茯苓) 5돈, 산수유(山茱萸) · 산약(山藥) 각 4돈, 백개자(白芥子) 3돈, 육계(肉桂) 2돈, 오미자(五味子)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가래 소리가 잠잠해지고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며 부기도 모두 없어진다. 2제(劑)를 쓰면 완전히 낫는다. [ ( 하권(下卷) ) ] ○나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 부자(附子) 1개, 파고지(破故紙) 5돈. ] 이 약재를 각각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풀로 고약을 만들 듯이 반죽한다. 이를 고약처럼 펴서 찻잔 크기만큼 만들어 발바닥 중앙에 붙인다. 그런 뒤 2시간 정도 불을 쬐어주면 목구멍이 곧 편안해지고 한 줄기 길이 열려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신묘한 방 또한 몰라서는 안 된다. [ ( 하권(下卷) ) ]

陰蛾之症，乃腎水虧乏，火不能藏於下，乃飛越於上，而喉中關狹，火不得直泄，乃結成蛾。似蛾而非蛾也。早晨痛輕，下午痛重，至黃昏而痛甚。得熱則快，得涼則加。其症之重者，滴水不能下喉。若作外感陽症治之，用 [ 山豆根、芩、連、梔子 ] 之類，則痛益甚而關不開，有不盡命而死者矣。我今傳一方，單補陰虛，用引火歸源之法，而痛頓失也。方名化蛾丹。 [ 熟地黃、山茱萸、麥冬各一兩，車前子、五味子各二錢，附子一錢 ] 。水煎服。 [ ( 內傷 ) ]

음아(陰蛾)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생긴다. 신(腎)의 수(水)가 부족하여 화(火)가 아래에 머물지 못하고 위로 치솟아 올라갔지만 목구멍이 좁아져 화(火)가 곧바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결국 아(蛾)를 형성하게 된다. 아(蛾)와 비슷하지만 실제 아(蛾)는 아니다. 아침에 통증이 가볍고 오후에 통증이 심해지다가 해질 무렵에 이르러서는 통증이 매우 심해진다. 덥게 해주면 편안해지고 시

원하게 해주면 악화된다. 증상이 심할 때는 물 한 방울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한다. 만약 외감 양증(陽症)으로 여기고 [ 산두근(山豆根) · 황금(黃芩) · 황련(黃連) · 치자(梔子) ] 등으로 치료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목구멍이 열리지 않아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내 이제 처방 하나를 전한다. 이 처방으로 오로지 음허(陰虛)를 보하면서 화(火)를 근원으로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통증이 곧 사라진다. 처방 이름은 화아단(化蛾丹)이다. [ 숙지황(熟地黃) · 산수유(山茱萸) · 맥문동(麥門冬) 각 1냥, 차전자(車前子) · 오미자(五味子) 각 2돈, 부자(附子)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내상(內傷)〉) ]

有人病雙蛾者，人以爲熱也。喉門腫痛，痰如鉅不絕，茶水一滴不能下以<sup>2</sup>，豈非熱症。然而痛雖甚，晨早少輕，喉雖腫，舌必不燥，痰雖多，必不黃而成塊，此乃假熱之症也。若以寒涼之藥，急救之，下喉非不暫快，少頃而熱轉甚。人以爲真藥<sup>3</sup>之少也，再加寒涼之品服之，更甚。急須刺其少商之穴，出血少許，喉門必有一線之路開矣。急以 [ 熟地黃一兩，茯苓五錢，山茱萸四錢，麥冬、五味子、牛膝各三錢，附子一錢 ] ，煎服，下喉一聲響亮，其火勢熱症，立時消散。 ○喜水而不喜火，喜水者，喜真陰之水也，而非寒涼之水，不喜火者，不喜邪氣之火也，而非辛熱之火。 ○日重夜輕，治之最易。用 [ 山豆根、桔梗各三錢，半夏、甘草各一錢 ] ，治之。一劑立愈，而非逆症可比耳。 [ (逆治) ]

어떤 사람이 쌍아(雙蛾)를 앓았는데, 사람들이 이를 열(熱) 때문이라고 여겼다.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그렇그렁 가래 끓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찻물 한 모금도 목으로 넘기지 못하니 어찌 열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통증이 심하

였지만 아침에는 조금 가벼웠고, 목은 부었지만 혀는 결코 마르지 않았으며, 가래가 많았지만 결코 누렇게 뭉치지 않으니, 이는 가짜 열증이었다. 한량(寒涼)한 약으로 급히 치료하자 목넘김이 잠시 편안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더욱 심해졌다. 사람들은 차가운 성질의 약이 부족해서라고 여기고 다시 한량한 성질의 약을 더해 복용케 했더니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급히 소상혈(少商穴)에 자침하여 약간의 피를 내자 목구멍에 분명 한 줄기 길이 열린 듯했다. 급히 [ 숙지황(熟地黃) 1냥, 복령(茯苓) 5돈, 산수유(山茱萸) 4돈, 맥문동(麥門冬) · 오미자(五味子) · 우슬(牛膝) 각 3돈, 부자(附子) 1돈을 ] 달여 복용시켰다. 이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한번 나고 나서 그 화(火)의 위세와 열증이 즉시 사라졌다. ○"물을 좋아하고 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물을 좋아한다는 것은 진음(眞陰)의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차가운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기(邪氣)의 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신열(辛熱)한 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낮에 심하고 밤에 가벼우면 치료하기 가장 쉽다. [ 산두근(山豆根) · 길경(桔梗) 각 3돈, 반하(半夏) · 감초(甘草) 각 1돈으로 ] 치료한다. 1제(劑)를 쓰면 즉시 나을 것이니, 역증(逆症)과는 비교할 수 없다. [ (〈역치(逆治)〉) ]

陰虛雙蛾之症，余更有治法。用 [ 附子 ] 一錢，鹽水炒成片，用一片含在口中，立時有路，可以用湯藥矣。後以八味丸一兩，白滾水送下，亦立時而愈。 [ ( 逆治 ) ]

음허쌍아(陰虛雙蛾) 증상에 쓸 수 있는 치료법이 나에게도 있다. [ 부자(附子) ] 1돈(錢)을 소금물에 볶아 절편으로 만든다. 그중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으면 즉시 목구멍에 길이 생겨 탕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뒤에 팔미환(八味丸) 1냥(兩)을 끓인 물로 삼키면 또한 즉시 나을 것이다. [ (<역치(逆治)>) ]

骨哽在咽，[ 栗子內薄皮燒存性研末，吹耳<sup>4</sup>喉中，卽下。]

목에 뼈가 걸렸을 때, [ 밤(栗子)의 속껍질을 약성이 남도록 태운 뒤 가루로 갈아서 목구멍에 불어넣으면 즉시 내려간다.]

魚骨哽，[ 以狗肉皮，以細絲結之，出入喉中，如釣魚之形象，其骨不吐則卽下。（洋國法良方）]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 개고기 껍질을 가는 실로 묶어 목구멍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하기를 마치 낚시질처럼 하면, 그 가시가 뱉어지거나 곧 내려갈 것이다. ( 양국법양방(洋國法良方) ) ]

咽喉不治證。[ 凡咽喉閉，毒氣歸心，胸前腫滿，氣煩促，下部洞泄不止者，死。 ( 得效 ) ○凡喉痺初發，胸膈氣促，咽喉腫痛，手足厥冷，氣閉不通，卽死。 ( 入門 ) ○凡咽喉痺，不可純用涼藥草藥，目前取效。上熱未除，中寒復起，毒氣乘入腹，胸前高腫，上喘下泄，手足瓜甲青紫，七日後全不食，口如魚口者，死。 ( 入門 ) ]

인후병의 불치증. [ 무릇 인후가 막히고, 독기(毒氣)가 심(心)으로 돌아가 가슴이 앞으로 부풀어 오르고, 숨이 답답하고 빨라지며, 아래쪽에서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 (《득효(得效)》) ○무릇 후비(喉痺)가 처음 발병할 때, 흉격에서 숨이 빨라지고, 인후가 붓고 아프며, 손발이 차고 싸늘하며, 기운이 막혀 통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 (《입문(入門)》) ○무릇 인후비(咽喉痺)에는 찬 성질의 약만 사용하여 당장 효과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상초의 열기(熱氣)가 제거되지 않고 중초의 한기(寒氣)가 다시 일어나면 독기(毒氣)가 배 속으로 침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가슴이 앞으로 높이 부풀어 오르고, 위로는 숨이 가빠지고 아래로는 설사하며, 손발톱이 청자색으로 변한다. 7일 후에 전혀 먹지 못하고 입이 물고기 입처럼 되면 죽는다. (《입문(入門)》) ]

1. 時唇 『 時辰 ※《석실비록》 ←

2. 下以 『 下咽 ※《석실비록》 ←

3. 眞藥 『 涼藥 ※《석실비록》 ←

4. 吹耳 『 吹入 ※《문맥상》 ←

## † 頸項 목

頸項部位。 [ 前曰頸，後曰項。 ○缺盆之中，任脈也，名曰天突。一次，任脈側之動脈，足陽明也，名曰人迎。二次，手陽明之脈，名曰扶突。三次，手太陽之脈，名曰天窓。四次，足少陽之脈，名曰天容。五次，手少陽之脈，名曰天牖。六次，足太陽之脈，名曰天柱。七次，項中央督脈，名曰風府。 (靈樞) ]

목의 부위。 [ 목 앞을 '경(頸)'이라 하고, 뒤를 '향(項)'이라고 한다. ○결분(缺盆) 중앙으로 임맥(任脈)이 지나는데, 그곳의 경혈 이름은 천돌(天突)이다. 임맥(任脈) 옆 1번째 맥동처는 족양명(足陽明)에 해당하며 경혈 이름은 인영(人迎)이다. 2번째 맥동처는 수양명(手陽明)의 맥이며 경혈 이름은 부돌(扶突)이다. 3번째 맥동처는 수태양(手太陽)의 맥으로 경혈 이름은 천창(天窓)이다. 4번째 맥동처는 족소양(足少陽)의 맥으로 경혈 이름은 천용(天容)이다. 5번째 맥동처는 수소양(手少陽)의 맥으로 경혈 이름은 천유(天牖)이다. 6번째 맥동처는 족태양(足太陽)의 맥으로 경혈 이름은 천주(天柱)이다. 7번째 맥동처는 목덜미 중앙의 독맥(督脈)으로 경혈 이름은 풍부(風府)이다. (《영추(靈樞)》) ]

風府宜護。 [ 內經曰，巨陽者，諸陽之屬也，其脈連於風府，故爲諸陽主氣也。然則固傷寒之所自起也。北人皆以毛裹之，南人怯弱者亦以帛護其項，俗謂三角是也。凡怯弱者，須護其項後可也。 (資生) ]

풍부(風府)는 보호해야 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태양(太陽)에 모든 양(陽)이 모이고, 태양의 맥(脈)은 풍부(風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태양은 모든 양(陽)이 기(氣)를 주관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풍부(風府)는 상한(傷寒)이 시작되는 곳이다. 북쪽 사람들은 모두 털로 그곳을 감싸고, 남쪽의 허약한 사람들도 비단으로 목덜미를 보호하는데 민간에서 '삼각(三角)'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릇 허약한 사람은 반드시 목 뒤를 보호해야 한다. (《자생(資生)》) ]

瘰串，乃鼠食之物，人不知食之，多生此病。然亦有鬱氣者，乃易成而不愈也。  
方用 [ 白朮五兩，紫背天葵、白芍、白芥子、香付子、當歸、茯苓各三兩，蒲公英一兩，柴胡五錢，砂仁、人蔘各二錢 ]，各爲末，米飯爲丸如細米一半大。每日白滾水，送下三錢，日三服。一月卽消，二月全愈。 [ ( 上治 ) ]

나천(瘰串)은, 쥐가 먹은 것을 사람이 모르고 먹어 종종 생긴다. 그러나 올체된 기운이 있는 경우에도 쉽게 생기고 잘 낫지 않는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백출(白朮) 5냥, 자배천규(紫背天葵) · 백작약(白芍藥) · 백개자(白芥子) · 향부자(香附子) · 당귀(當歸) · 복령(茯苓) 각 3냥, 포공영(蒲公英) 1냥, 시호(柴胡) 5돈, 사인(砂仁) · 인삼(人蔘) 각 2돈. ] 이 약재를 각각 가루 내어 쌀밥으로 작은 쌀알의 절반 정도 크기로 환을 빚는다. 매일 끓인 물에 3돈을 타서 하루 3번 복용한다. 1달이면 곧 사라지고, 2달이면 완전히 낫는다. [ (〈상치(上治)〉) ]

瘰串之塊，方用 [ 白芍、茯苓各五錢，柴胡、半夏、香附、連翹、甘草各一錢，陳皮、皮硝各五分，屋上尾葱<sup>1</sup> (乾者三分，生者一錢) ]，水煎服。一劑動，二劑輕，三劑少愈，四劑全愈。弱人加人蔘一錢，不可多加。 [ (軟治) ]

나천(瘰串)이 덩어리를 이루었을 때 다음 처방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 복령(茯苓) 각 5돈, 시호(柴胡) · 반하(半夏) · 향부자(香附子) · 연교(連翹) · 감초(甘草) 각 1돈, 진피(陳皮) · 피초(皮硝)<sup>2</sup> 각 5푼, 옥상와송(屋上瓦松) ( 말린 것은 3푼, 날것은 1돈 쓴다 ).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1제(劑) 사용하면 차도가 있고, 2제(劑) 사용하면 증상이 가벼워지며, 3제(劑) 사용하면 조금 낫고, 4제(劑) 사용하면 완전히 낫는다. 허약한 사람은 인삼(人蔘) 1돈을 더하되 많이 더해서는 안 된다. [ (〈연치(軟治)〉) ]

今傳瘰串之方。 [ 金銀花三兩，白芍、香附各一兩，柴胡、人蔘、白朮各五錢，白芥子二錢 ]，尾蕊<sup>3</sup> [ 乾者三分生者一錢 ]，青苔 [ 乾者三分生者一錢 ]。右末用米醋調，傳痰核之上。如已破者，不可用醋調，只用麻油調敷。

이제 나천(瘰串)을 치료하는 처방을 전한다. [ 금은화(金銀花) 3냥, 백작약(白芍藥) · 향부자(香附子) 각 1냥, 시호(柴胡) · 인삼(人蔘) · 백출(白朮) 각 5돈, 백개자(白芥子) 2돈, ] 와송(瓦松) [ ( 말린 것은 3푼, 생것은 1돈 ) ] , 청태(青苔) [ ( 말린 것은 3푼, 생것은 1돈 ) ].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쌀식초로 개어서 담핵(痰核) 위에 바른다. 만약 이미 터졌을 때는 식초로 개면 안 되고 참기름으로만 개어 발라야 한다.

- 內服方。 [ 白芍、當歸各五錢，白芥子三錢，桔梗二錢，半夏、甘草各一錢，柴胡五分 ]，水煎服。前方外治，此湯內治，尤易見功。 [ ( 上治 ) ]

- 내복 처방. [ 백작약(白芍藥) · 당귀(當歸) 각 5돈(錢), 백개자(白芥子) 3돈, 길경(桔梗) 2돈, 반하(半夏) · 감초(甘草) 각 1돈, 시호(柴胡) 5푼(分).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앞의 처방으로 곁을 치료하고 이 처방으로 안을 치료하면 더욱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다. [ (〈상치(上治)〉) ]

1. 屋上尾葱 『屋上瓦松』※문맥상, 屋上瓦葱 ※《석실비록》 ←

2. 피초(皮硝) : 박초(朴硝) ←

3. 尾葱 『瓦松』※문맥상, 瓦葱 ※《석실비록》 ←

## † 背 等

背脊骨節有數。 [ 脊骨以下至尾骶二十一節，長三尺。 ( 靈樞 ) ○上七頸，每頸一寸四分一釐，共九寸八分七釐。中七頸，每頸一寸六分一釐，共一尺一寸二分七釐。下七頸，每頸一寸二分六釐，共八寸八分二釐。 ( 神應經 ) ○二十一頸長三尺，校之則上七頸，共九寸八分七釐，中七頸下七頸，共二尺二分三釐，合爲三尺。 ( 資生 ) ]

척추뼈 마디의 치수. [ 미저골(尾骶骨)까지의 척추뼈는 21개의 마디가 있다. 그 길이는 3자이다. (《영추(靈樞)》) ○상부의 7추는 추골마다 길이가 1촌 4푼 1리이므로 모두 9촌 8푼 7리이다. 중간의 7추는 추골마다 길이가 1촌 6푼 1리이므로 모두 1자 1촌 2푼 7리이다. 하부의 7추는 추골마다 길이가 1촌 2푼 6리이므로 모두 8촌 8푼 2리이다. (《신응경(神應經)》) ○21추의 길이는 3자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상부의 7추는 모두 9촌 8푼 7리이고, 중간의 7추와 하부의 7추는 모두 2자 2푼 3리이다. 이를 합하면 전체 3자가 된다. (《자생(資生)》) ]

背有三關。 [ 問背後三關。腦後曰玉枕關，夾脊曰轄驢關，水火之際曰尾閨關，乃精氣升降之道路也。 ( 正理 ) ○尾閨穴乃下關也，從下至上十八節乃中關也，泥丸宮爲上關，此三關也。 ( 正理 ) ]

등에 삼관(三關)이 있다. [ 등 뒤의 삼관(三關)은 무엇인가? 뇌 뒤를 옥침관(玉枕關)이라 하고, 척추를 녹로관(轄驢關)이라 하며, 수(水)와 화(火)가 만나는 곳을 미려관(尾閭關)이라 한다. 이 세 관문은 정기(精氣)가 오르내리는 도로이다. (《정리(正理)》) ○ 미려혈(尾閭穴)은 하관(下關)이고, 여기에서 위로 18마디 올라간 곳이 중관(中關)이며, 니환궁(泥丸宮)이 상관(上關)이다. 이들이 삼관(三關)이다. (《정리(正理)》) ]

如人患背疼者，人以爲心病也，而韭<sup>1</sup>也，乃膀胱之氣化不行，故上阻滯，而作痛。法當清其膀胱之火，背痛自止。蓋膀胱乃腎之府，腎虛膀胱亦虛，夾背脊，乃河車之路，膀胱借腎道而行，所以背脊作楚耳。方用 [ 熟地黃一兩，茯苓、薏苡仁、芡實各五錢，車前子、澤瀉各三錢，肉桂三分 ]，水煎服。二劑，膀胱之水道大通，而背脊之疼，亦愈矣。 [ (偏治)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등이 아플 때, 사람들은 심(心)의 병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방광(膀胱)의 기(氣)가 기화되지 못하여 위에서 막혀 통증이 생긴 것이다. 방광(膀胱)의 화를 식혀야만 등의 통증이 저절로 멈춘다. 대개 방광(膀胱)은 신(腎)의 부(府)라서 신이 허하면 방광도 허해진다. 척추 양쪽은 하거(河車)의 통로인데 방광(膀胱)의 기(氣)가 이 신(腎)의 통로를 빌려서 운행하므로 등척추가 아픈 원인이 된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숙지황(熟地黃) 1냥, 복령(茯苓) · 익이인(薏苡仁) · 검실(芡實) 각 5돈, 차전자(車前子) · 택사(澤瀉) 각 3돈, 육계(肉桂)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2제(劑)를 쓰면 방광(膀胱)의 수도가 크게 통하고 나서 등의 통증 역시 낫는다. [ (〈편치(偏治)〉) ]

背脊骨疼痛者，乃腎水衰耗，不能上潤於腦，則河車之路，乾澀而難行，故爾作痛。此等症，非一二劑可以見功。非久服補氣之藥以生陰，非大服補陰之藥以生水，未易奏行<sup>2</sup>也。方名潤河湯。[黃芪、熟地黃各一兩，山茱萸、麥冬各四錢，白朮五錢，茯苓三錢，五味子一錢，防風五分，附子一分]，水煎服。[(長治)]

등뼈 통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신수(腎水)가 쇠약하고 소모되어 위로 뇌를 적셔주지 못하면, 하거(河車)의 통로가 마르고 거칠어져서 운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생긴다. 이런 증상은 1~2제(劑) 약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기(氣)를 보하는 약을 오래 복용하여 음(陰)을 생성하고, 음(陰)을 보하는 약을 많이 복용하여 수(水)를 생성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처방 이름은 윤하탕(潤河湯)이다. [황기(黃芪)·숙지황(熟地黃) 각 1냥, 산수유(山茱萸)·맥문동(麥門冬) 각 4돈, 백朮(白朮) 5돈, 복령(茯苓) 3돈, 오미자(五味子) 1돈, 방풍(防風) 5푼, 부자(附子) 1푼.]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장치(長治)〉)]

1. 非 : 非心 ※《석실비록》 ←

2. 奏行 ☰ 奏功 ※《석실비록》 ←

## † 胸 가슴

胸膈之名有義。 [夫人之胸者，呼吸之所經，飲食之所過，一或失節，則疾病邪氣交至於胸中，乃有凶之兆，故謂之胸也。（入式） ○膈膜在心肺之下，與背脊胸腹周回相着，如幕不漏。蓋膈者，隔也，遮膈濁氣，不使上薰於心肺，故謂之膈也。（入門）]

흉격(胸膈)이라는 명칭의 의미. [ 사람의 가슴은 호흡이 지나가는 곳이자 음식이 지나가는 곳이니, 한 번이라도 절도를 잃으면 질병과 사기(邪氣)가 함께 가슴 속에 이르러 '흉(凶)'한 징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곳을 '흉(胸)'이라고 하였다. (《입식(入式)》) ○ 격막(膈膜)은 심폐(心肺) 아래에 있는데, 물건이 새지 않도록 포장하는 포장지처럼 등·척추·가슴·배를 두루 감싸고 있다. 대개 '격(膈)'이란 차단한다는 뜻이니, 탁한 기운을 차단하여 위로 심폐(心肺)를 훈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격(膈)'이라고 하였다. (《입문(入門)》) ]

胸膈部位。 [膈者，心肺之分野也。（綱目）○胸腹者，藏府之郭也。膻中者，心主之宮城也。（靈樞）○咽之下，胃脘也。貫膈，與肺系相並，在肺系之後，其上卽咽門也。胃脘之下，卽胃之上口也，謂之贲門。其膈膜相貼之間，亦漫脂相包也。（入門）○心包絡在心下橫膈膜之上，豎斜膈膜之下，與橫膜相貼。黃脂漫包者，心也。漫脂之外，細筋膜如絲，與心肺相連，此包絡也。（入門）]

흉격(胸膈) 부위. [ 흉격은 심폐(心肺)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강목(綱目)》) ○ 흉복(胸腹)은 장부(臟腑)를 둘러싼 성곽이고, 전중(膻中)은 군주에 해당하는 심(心)이 있는 궁궐이다. (《영추(靈樞)》) ○ 목구멍 아래가 위완(胃脘)이다. 위완은 격막을 뚫고 폐계(肺系)의 뒤로 나란히 붙어 있다. 위완의 상부는 목구멍(咽門)이고, 위완의 하부는 위(胃)의 위쪽 입구인데, 이것을 분문(賁門)이라고 한다. 위완과 격막이 붙어 있는 곳에는 기름이 넓게 감싸고 있다. (《입문(入門)》) ○ 심포락은 심장 아래, 횡격막의 위에 있는데, 격막 아래쪽에 비스듬히 서 있고 횡격막과 서로 붙어 있다. 누런 기름이 넓게 감싸고 있는 것이 심장이고, 넓은 기름 밖에서 실처럼 가느다란 근막으로 심폐와 이어져 있는 것이 심포락이다. (《입문(入門)》) ]

傷寒太陽，結胸證具，煩躁者主死。言不可下，卽下而亦死也。夫結胸而加煩躁，此胃氣之將絕也。胃氣欲絕，津液何生。津液既渴<sup>1</sup>，心何所養<sup>2</sup>。故結胸而又煩躁，所以症成<sup>3</sup>不可治也。雖然津液之竭，非五藏之自絕，亦固<sup>4</sup>結胸之故耳。是必攻其中堅，使結胸症愈而津液自生，死症可望重甦<sup>5</sup>也。我今傳一奇方，名化結湯。[ 天花粉五錢，天門冬、桑白皮、神麴、麥芽各三錢，枳殼一錢，陳皮五分 ]。水煎服。一劑卽結胸開而津液自生也。[(傷寒)]

상한(傷寒) 태양증(太陽證)에 결흉(結胸) 증상이 있는데 번조(煩躁)까지 있으면 주로 죽는다. 이때 하법을 써서는 안 되며 하법을 쓰면 이 역시 죽는다고 하였다. 결흉(結胸)에 번조(煩躁)가 더해지는 경우는 위기(胃氣)가 장차 끊어지려는 것이다. 위기(胃氣)가 끊어지려는데 진액(津液)이 어찌 생겨나겠는가? 진액(津液)이 이미 없다면 심(心)이 어떻게 길러지겠는가? 그러므로 결

흉(結胸)에 번조(煩躁)까지 있을 때 이 증상을 더러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액(津液)이 마른 것은 오장의 기운이 스스로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결흉(結胸) 때문일 뿐이다. 이때 반드시 그 중에서 견고한 곳을 공격하여 결흉(結胸) 증상을 낫게한 다음 진액(津液)이 저절로 생겨나게 한다면 죽을 증상도 다시 소생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신기한 처방 하나를 전하니 이름은 화결탕(化結湯)이다. [ 천화분(天花粉) 5돈, 천문동(天門冬) · 상백피(桑白皮) · 신곡(神麴) · 맥아(麥芽) 각 3돈, 지각(枳殼) 1돈, 진피(陳皮)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즉시 결흉(結胸)이 사라지고 진액(津液)이 저절로 생겨난다. [ (〈상한(傷寒)〉) ]

結胸之症，乃傷寒之變也，可不以變法治之乎。傷寒火邪正熾，原不可急與飲食，若不知禁忌，與之胃中得食，不啻如饗<sup>6</sup>，故茹而不出，而他臟見胃中有食，羣起而爭，其勢猖狂。急須以瓜蔞一兩碎，入甘草一錢，同煎服。 [ (變治) ]

결흉(結胸)이라는 증상은 상한(傷寒)이 변한 것이니, 어찌 변법(變法)으로 치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한의 화사(火邪)가 바로 치성할 때는 원래 급히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금기를 모르고 음식을 주면, 위(胃)가 음식을 얹어 보배처럼 여기므로 담아두고 내보내지 않게 된다. 그러면 다른 장기들이 이 위장에 음식이 있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다투니 그 형세가 거세다. 급히 과루(瓜蔞) 1냥(부순다), 감초(甘草) 1돈을 함께 달여 복용해야 한다. [ (〈변치(變治)〉) ]

如人病傷寒結胸等症者是。傷寒初愈，五臟六腑，久不見飲食矣。一旦飽食，則各藏羣起而盼〔(音해睨視)〕。方用〔元蔘、麥門冬各一兩〕，水二椀煎服。

〔(解治)〕

해치(解治)는 병사(病邪)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를 분리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sup>7</sup> 예를 들어 상한(傷寒)의 결흉(結胸) 등과 같은 증상이다. 상한이 막나았을 때 오장육부(五臟六腑)는 오랫동안 음식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이때 갑자기 배불리 먹으면 각 장부들이 모두 일어나서 노려본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현삼(玄蔘)·맥문동(麥門冬) 각 1냥을] 물 2사발에 달여서 복용한다. [〔〈해치(解治)〉〕]

大滿之症。此邪壅在<sup>8</sup>上焦而不得散也。方用〔枳殼、梔子、天花粉、陳皮各三錢，厚朴一錢半，半夏、甘草各一錢，瓜蔞仁一介〕，水煎服。〔(霸治)〕

대만(大滿)의 증상. 이것은 사기(邪氣)가 상초(上焦)를 막고 흘어지지 못하여 생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지각(枳殼)·치자(梔子)·천화분(天花粉)·진피(陳皮) 각 3돈, 후박(厚朴) 1돈 반, 반하(半夏)·감초(甘草) 각 1돈, 과루인(瓜蔞仁) 1매.]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패치(霸治)〉〕]

結胸不治證。〔結胸脈浮大者，不可下之，下之即死。〕(仲景) ○結胸證悉具，煩躁者，死。(仲景) ○結胸見陰脈陰證，及喘急逆者，亦死。(入門)〕

결흉(結胸)의 불치증(不治證). [ 결흉에 맥이 부(浮) · 대(大)하면 하법(下法)을 쓸 수 없으니, 하법을 쓰면 곧 죽는다. (《중경(仲景)》) ○ 결흉증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번조(煩躁)까지 있으면 죽는다. (《중경(仲景)》) ○ 결흉에 음맥(陰脈)과 음증(陰證)이 나타나거나, 숨이 차고 구역질하는 경우 또한 죽는다. (《입문(入門)》) ]

痞癬。 [ 胸部鳩尾下左右挾肋，傷酒麵成癖，堅硬如石。不早治則皮肉相離，成脹滿則不治。萹蓄亂搗如泥，熱良水作餅，朝夕換付。若乾則又熱良水更添付之，以差爲度。 ]

비벽(痞癬). [ 가슴 부위 구미(鳩尾) 아래 좌우 늑골을 끼고 생기는데, 술과 밀가루 음식에 상하여 생긴 벽(癖)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다.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와 살이 분리되고 창만(脹滿)이 되어 치료할 수 없다. 편축(萹蓄)을 마구 찧어서 진흙처럼 만든다. 이것을 뜨거운 간수(艮水)<sup>9</sup>로 떡처럼 반죽하여 아침저녁으로 바꾸어 붙인다. 만약 마르면 다시 뜨거운 간수를 더 보태어 붙이되 나을 때까지 한다. ]

1. 渴 ☰ 無 ※《석실비록》 ←

2. 眷 ☰ 養 ※《석실비록》 ←

3. 成 ☰ 或 ※《석실비록》 ←

4. 固 ☰ 因 ※《석실비록》 ←

5. 重甦 : 重蘇 ※《석실비록》 ←

6. 寶 宝 ※《석실비록》 ←

7. 이해를 돋기 위해 역자가 추가하였다. "解者，邪聚於一處，而分解之也。" ※《석실비록》 ←

8. 在：住 ※《석실비록》 ←

9. 간수(艮水) : 소금에서 녹아 나오는 짜고 쓴 물 ←

## † 腹 배

腹有大小。 [ 脘之上曰大腹，臍之下曰小腹。 ○小腹謂臍下兩傍髎骨內也（內經註）。 ○脾胃主中州，大腹小腹是其候也。（類聚）]

윗배와 아랫배. [ 배꼽의 위를 윗배라고 하고, 배꼽의 아래를 아랫배라고 한다. ○아랫배는 배꼽 아래 양옆 골반 속을 말한다. (《내경(內經)》주석) ○ 비위(脾胃)가 중주(中州)를 주관한다. 윗배와 아랫배에서 그 상태를 살필 수 있다. (《유취(類聚)》) ]

腹痛有部分。 [ 大腹屬太陰，臍腹屬少陰，小腹屬厥陰。（入門） ○腹痛有部分，中脘痛，太陰也。理中湯（方見<sup>1</sup>）、加味小建中湯、草豆蔻丸（方見<sup>2</sup>）之類主之。臍腹痛，少陰也。四逆湯、薑附湯，或五積散(三方見<sup>3</sup>)加吳茱萸主之。小腹痛厥陰也。當歸四逆湯（方見<sup>4</sup>）加吳茱萸主之。（東垣） 大腹痛，多食積外邪，臍腹痛，多積熱痰火，小腹痛，多瘀血及痰與尿澁。（入門） ○從心下至小腹皆硬滿而痛者，是邪實也，須以大陷胸湯（方見<sup>5</sup>）下之。若小腹硬滿而痛，小便利，則是蓄血之證，小便不利，則尿澁之證也。（正傳）]

부위에 따른 복통. [ 윗배는 태음(太陰)에 속하고, 배꼽 주변은 소음(少陰)에 속하며, 아랫배는 궤음(厥陰)에 속한다. (《입문(入門)》) ○복통을 부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중완(中脘)이 아픈 것은 태음(太陰)에 속한다. 이중탕(理中湯) (처방은 <한문(寒門)>에 있다) · 가미소건중탕(加味小建中湯) · 초두구환(草豆蔻丸) (처방은 <흉문(胸門)>에 있다) 등으로 치료한다. 배꼽

주변이 아픈 것은 소음(少陰)에 속한다. 사역탕(四逆湯) · 강부탕(薑附湯), 또는 오적산(五積散) ( 3가지 처방은 <한문(寒門)>에 있다 ) 에 오수유(吳茱萸)를 더한 것으로 치료한다. 아랫배가 아픈 것은 궐음(厥陰)에 속한다.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 ( 처방은 <한문(寒門)>에 있다 ) 에 오수유(吳茱萸)를 더하여 치료한다. (《동원(東垣)》) 윗배의 통증은 대부분 식적(食積)과 외사(外邪) 때문이고, 배꼽 주변 복통은 대부분 적열(積熱)과 담화(痰火) 때문이며, 아랫배의 통증은 대부분 어혈(瘀血) 및 담(痰), 그리고 요삽(尿澁) 때문이다. (《입문(入門)》) ○명치로부터 아랫배까지 모두 단단하고 그득하면서 아픈 것은 사기(邪氣)가 실하기 때문이니 반드시 대함흉탕(大陷胸湯) ( 처방은 <한문(寒門)>에 있다 ) 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만약 아랫배가 단단하고 그득하면서 아플 때, 소변이 잘 나오면 이는 축혈(蓄血)의 증상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요삽(尿澁)의 증상이다. (《정전(正傳)》) ]

腹痛有六。 [ 有寒，有熱，有死血，有食積，有痰飲，有虫。 ○氣、血、痰、水、食積、風冷，諸證之痛，每每停聚而不散，惟虫痛，則乍作乍止，來去無定，又有嘔吐清沫之爲可驗焉。 ( 直指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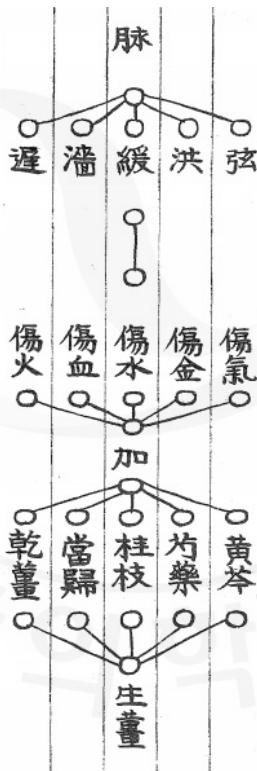
복통에는 6가지가 있다. [ 복통에는 한복통(寒腹痛) · 열복통(熱腹痛) · 사혈복통(死血腹痛) · 식적복통(食積腹痛) · 담음복통(痰飲腹痛) · 쟁복통(蟲腹痛)이 있다. ○ 기(氣) · 혈(血) · 담(痰) · 수(水) · 식적(食積) · 풍랭(風冷) 등 여러 가지 복통은 매번 통증이 몰려들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쟁복통(蟲

腹痛)만은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그치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 또 맑은 거품을 토한다. 이것으로 충복통을 확인할 수 있다.

(《직지(直指)》)

### 芍藥甘草湯 작약감초탕

- [ (方見下) ]
- [ (처방은 뒤에 있다.) ]



- 脈弦傷氣加黃芩。洪傷金加芍藥。緩傷水加桂枝。濇傷血加當歸。遲傷火加乾薑、生薑。

맥이 현(弦)하면 기(氣)를 상한 것이니 황금을 더한다. 흥(洪)하면 금(金)을 상

한 것이니 작약을 더한다. 완(緩)하면 수(水)를 상한 것이니 계지를 더한다. 삽(濬)하면 혈(血)을 상한 것이니 당귀를 더한다. 지(遲)하면 화(火)를 상한 것이니 건강·생강을 더한다.\*

凡人有腹痛不能忍，按之愈痛，口渴飲冷水則痛止，少頃依然大痛，此火結在太小腸，若不急治，亦一時氣絕。方用定痛至神湯。 [ 茯苓一兩，白芍五錢，炒梔子、蒼朮各三錢，大黃、厚朴、甘草各一錢 ]。水煎服。 [ ( 下卷 ) ]

배가 참을 수 없이 아픈데 눌러보면 더욱 아프고, 목이 말라 찬물을 마시면 통증이 멈추지만 잠시 후 다시 크게 아픈 경우, 이것은 화(火)가 대장(大腸)과 소장(小腸)에 뭉친 것이다. 만약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또한 갑자기 숨이 끊어진다. 처방으로는 정통지신탕(定痛至神湯)을 쓴다. [ 복령(茯苓) 1냥, 백작약(白芍藥) 5돈, 치자(炒梔子) ( 볶는다 ) · 창출(蒼朮) 각 3돈, 대황(大黃) · 후박(厚朴) · 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 하권(下卷) ) ]

凡人腹中疼痛而欲死，手按之轉甚者，此乃火挾痰與食而作祟也。若作直中治之，立死矣。方用 [ 白芍藥五錢，赤茯苓、梔子各三錢，枳殼、甘草各一錢，山楂二十粒 ]，水煎服，加 [ 柴胡 ] 一錢。此方有解紛之妙。 [ ( 急治 ) ]

무릇 사람이 배 속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손으로 누르면 더욱 심해지는 경우, 이것은 화(火)가 담(痰) · 음식을 동반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만약 음한(陰寒)이 직중(直中)된 것으로 보고 치료한다면 즉시 죽을 것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백작약(白芍藥) 5돈, 적복령(赤茯苓) · 치자(梔子) 각 3돈, 지각

(枳殼) · 감초(甘草) 각 1돈, 산사(山楂) 20알. ] 이 약재에 [ 시호(柴胡) ] 1  
돈을 더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은 얹힌 것을 풀어내는 오묘한 효과  
가 있다. [ (〈급치(急治)〉) ]

如腹中痛，手按疼甚，或胸中傷食，手不可按者，皆宜墮之也。方用速腐湯，  
[ 白芍、枳殼、麥芽各三錢，白朮二錢，厚朴、甘草各一錢，山楂二十粒 ]，水  
煎服。○至於邪氣挾食，存於大腸，大腸之內火氣炎蒸，夾食作祟，故痛而不可  
手按，是食已離胸膈悶<sup>6</sup>攻之直下。方用大承氣湯，[ 大黃三錢，芒硝、厚朴、柴  
胡、片芩、甘草各一錢 ]，治之。

배 속이 아픈데 손으로 누르면 매우 아프거나, 음식에 상해서 가슴을 손으로  
누를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타치(墮治)의 방법을 써야 한다. 처방으로는 속  
부탕(速腐湯)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 지각(枳殼) · 맥아(麥芽) 각 3돈, 백  
朮(白朮) 2돈, 후박(厚朴) · 감초(甘草) 각 1돈, 산사(山楂) 20알.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사기(邪氣)가 음식과 함께 대장(大腸)에 머물러 있  
는 경우, 대장 안에서 화기(火氣)가 짜올라 음식과 함께 작용하여 해를 끼치  
므로 통증이 있으면서 손으로 누를 수 없다. 이때는 음식이 이미 비위를 지났  
으므로 공격하여 곧바로 내려보낼 수 있다. 처방으로는 대승기탕(大承氣湯)  
을 쓴다. [ 대황(大黃) 3돈, 망초(芒硝) · 후박(厚朴) · 시호(柴胡) · 편금(片  
芩) · 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로 치료한다.

又有一症相商。有人成痞塊之症，一時發作，而腹痛亦不可手按者，亦可用下墮  
之法，蓋乘其邪動而墮之也。方用 [ 白朮二兩，枳實一兩，馬糞炒五錢 ]，酒煎  
服。

또 상의할 증상이 1가지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비고(痞塊)의 증상이 생겨서 한 때 발작하면 복통이 심하여 손으로 누를 수 없을 때도 타치(墮治)의 방법을 쓸 수 있다. 그 사기(邪氣)가 움직이는 틈을 타서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백출(白朮) 2냥, 지실(枳實) 1냥, 마분(馬糞) ( 볶는다 ) 5 돈. ] 이 약재를 술에 달여서 복용한다.

如人腹痛，手不可按，方用 [ 白芍五錢，大黃二錢，乳香末、只實、生甘草各一錢 ]，水煎服。 [ ( 墮治 ) ]

어떤 사람이 배가 아픈데 손으로 누를 수 없을 때 다음 처방을 쓴다. [ 백작 약(白芍藥) 5돈, 대황(大黃) 2돈, 유향(乳香) ( 가루 ) · 지실(枳實) · 생감초 (生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 <타치(墮治)> ) ]

腹痛之最急者，絞腸砂<sup>7</sup> 也。世人懼用官粉藥<sup>8</sup>，殊不知藥能去病，何畏官粉<sup>9</sup>哉。吾有一方最妙，不用官粉<sup>10</sup> 之味，而功力十倍勝之。方用馬糞一兩炒黑，入 [ 黃土 ] 一撮微炒，用 [ 黃酒 ] 乘熱服五錢。一劑卽痛去如失。 [ ( 內傷 ) ]

복통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교장사(絞腸痧)이다. 세상 사람들은 관료약(官料藥)<sup>11</sup> 사용을 두려워하는데<sup>12</sup>, 이는 관료약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어찌 관료약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게 아주 오묘한 처방 하나가 있는데, 관료약을 쓰지 않으면서도 효력이 10배나 뛰어나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검게 볶은 말뚱 1냥에 약간 볶은 [ 황토(黃土) ] 한 줌을 넣고, 뜨거운 [ 황주(黃酒)로 ] 5돈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즉시 사라진 것처럼 아픔이 없어진다. [ ( <내상(內傷)> ) ]

### 理中湯 이중탕

- [ 治太陰腹痛，自利不渴。人蔘、白朮、乾薑炮各二錢，甘草灸一錢，水煎服。 ]
- [ 태음(太陰) 복통에 설사하고 갈증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 인삼(人蔘) · 백출(白朮) · 건강(乾薑) ( 잣불에 묻어 구운 것 ) 각 2돈, 감초(甘草) ( 구운 것 )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 加味少建中湯<sup>13</sup> 가미소건중탕

- [ 治心腹痛不可忍。按輕却痛，按重則愈，皆虛寒證。白芍藥酒炒三錢，桂心一錢半，甘草灸、遠志薑汁炒各一錢。右剉作一貼，薑五片，棗二枚，水煎服。 ( 得效 ) ]
- [ 가슴과 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것을 치료한다. 가볍게 누르면 도리어 아프고 세게 누르면 괜찮은 것은 모두 허한증이다. 백작약(白芍藥) ( 술로 볶은 것 ) 3돈, 계심(桂心) 1돈 반, 감초(甘草) ( 구운 것 ) · 원지(遠志) ( 생강 즙으로 볶은 것 ) 각 1돈. 이 약재를 썰어서 한 첨으로 만들고, 생강 5편, 대추 2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득효(得效)》) ]

### 草豆蔻丸 초두구환

- [ 治秋冬傷寒冷物，胃脘當心而痛。枳實二兩，草豆蔻煨、白朮各一兩，神麴、麥芽并炒、半夏製各五錢，乾生薑、青皮、陳皮各二錢，炒鹽五分。右

末，蒸餅和丸裹豆大，白湯下五七十丸。 ]

- [ 가을이나 겨울에 찬 음식에 상하여 위완에서 가슴까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지실(枳實) 2냥, 초두구(草豆蔻) ( 잣불에 묻어 구운 것 ) · 백출(白朮) 각 1냥,  
신곡(神麯) ( 볶은 것 ) · 맥아 ( 볶은 것 ) · 반하(半夏) ( 법제한 것 ) 각 5돈,  
건생강(乾生薑) · 청피(青皮) · 진피(陳皮) 각 2돈, 볶은 소금 5푼. 이 약재를 가  
루 내고 증편으로 반죽하여 녹두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끓인 물로 50~70  
환을 복용한다. ]

#### 四逆湯 사역탕

- [ 治三陰脈遲，并四肢逆冷。甘草灸六錢，乾薑炮五錢，附子生一枚。右  
剉，分二貼，煎服。 ]
- [ 삼음맥(三陰脈)이 지(遲)하고, 아울러 팔다리가 싸늘한 것을 치료한다. 감초  
(甘草) ( 굽는다 ) 6돈, 건강(乾薑) ( 볶은 것 ) 5돈, 부자(附子) ( 생것 ) 1개.  
이 약재를 썰어서 2첩으로 나누어 달여서 복용한다. ]

#### 薑附湯 강부탕

- [ 治少陰。乾薑炮一兩，附子炮一枚，剉取五錢，水煎服。 ]
- [ 소음병을 치료한다. 건강(乾薑) ( 잣불에 묻어 구운 것 ) 1냥, 부자(附子)  
( 잣불에 묻어 구운 것 ) 1개. 이 약재를 썰어서 5돈을 물에 달여서 복용한  
다. ]

## 五積散 오적산

- [ 治胸腹作痛。蒼朮二錢，麻黃、陳皮各一錢，厚朴、桔梗、枳殼、當歸、乾薑、白芍藥、白伏苓各八分，白芷、川芎、半夏、桂皮各七分，甘草六分，薑三莖，葱三莖。水煎服。 ]
- [ 가슴과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창출(蒼朮) 2돈, 마황(麻黃) · 진피(陳皮) 각 1돈, 후박(厚朴) · 길경(桔梗) · 지각(枳殼) · 당귀(當歸) · 건강(乾薑) · 백작약(白芍藥) · 백복령(白茯苓) 각 8푼, 백지(白芷) · 천궁(川芎) · 반하(半夏) · 계피(桂皮) 각 7푼, 감초(甘草) 6푼, 생강 3쪽, 파 3줄기.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 [ 一方，除白芷、肉桂，餘材慢火<sup>14</sup>炒令色變，攤冷入桂芷，名曰熟料五積散。不炒者，名曰生料五積散。加吳茱萸主之。 ]
- [ 다른 곳에는, 백지(白芷)와 육계(肉桂)를 제외하고 나머지 약재들을 약한 불로 볶아서 색이 변하게 한 다음 펼쳐서 식힌 후에 계피와 백지를 넣는데, 이를 숙료오적산(熟料五積散)이라고 하였다. 볶지 않은 것은 생료오적산(生料五積散)이라고 한다. 오수유(吳茱萸)를 더하여 복통을 치료한다. ]

## 當歸四逆湯 당귀사역탕

- [ 治厥陰脈微欲絕。當歸、白芍各二錢，桂枝一錢半，細莖<sup>15</sup>、通草各一錢。右剗作一貼，棗二枚水煎。加吳茱萸主之。 ]
- [ 절음맥이 미약하여 끊어지려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당귀(當歸) · 백작약(白

芍藥) 각 2돈, 계지(桂枝) 1돈 반, 세신(細辛) · 통초(通草) 각 1돈. 이 약재를 썰어서 한 척으로 만들고, 대추(大棗) 2개와 함께 물에 달인다. 오수유(吳茱萸) 를 더하여 복통을 치료한다. ]

### 芍藥甘草湯 작약감초탕

- [ 白芍藥四錢 , 甘草灸二錢 , 水煎服。一名甲己湯。 ]
- [ 백작약(白芍藥) 4돈, 감초(甘草)( 굽는다 ) 2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갑기탕(甲己湯)이라고도 한다. ]

1. 方見 方見寒門 ※《동의보감》 ←

2. 方見 方見胸部 ※《동의보감》 ←

3. 三方見 三方見寒門 ※《동의보감》 ←

4. 方見 方見寒門 ※《동의보감》 ←

5. 方見 方見寒門 ※《동의보감》 ←

6. 胸膈悶 脾胃 ※《석실비록》 ←

7. 紓腸砂 紓腸痧 ※《석실비록》 ←

8. 官粉藥 官料藥 ※《석실비록》 ←

9. 官粉 官料 ※《석실비록》 ←

10. 官粉 ☞ 官料 ※《석실비록》 ←

11. 관료약(官料藥) : 정부에 납품되던 품질 좋은 규격 약재. "이른바 관료약(官料藥)이라는 것은, 수도로 보내져 약국(藥局)에 납품되던 상품(上品)을 말한다. 所謂官料藥者，乃解京納局之高品。" ※《여산당유변(畧山堂類辯)》〈관료약변(官料藥辯)〉 ←

12. 당시 항간에 학질에는 관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학질에 관료약을 써서는 안된다는 금기가 있었다. 故世人又有瘧疾不可服官料藥之戒" ※《왕맹영의안(王孟英醫案)》 "환자의 어머니는 학질에 관료약을 복용하면 안된다고 하셨다. 乃母，曰瘧不可服官料藥" ※《왕맹영의안(王孟英醫案)》 ←

13. 加味少建中湯 ☞ 加味小建中湯 ※《동의보감》 ←

14. 慢火 ☞ 慢火 ※《동의보감》 ←

15. 細莘 ☞ 細辛 ※《동의보감》 ←

## † 腰 허리

腰爲腎府。 [ 腰者，腎之府，轉搖不能，腎將憊矣。 (內經) ○腰者，腎之外候，一身所恃，以轉移開闔者也。然諸經，貫於腎，絡於腰脊，外感內傷種種不同，必腎虛而後，邪能湊之。故不可純用涼藥，亦不可純用蔘芪補氣也。 (入門) ]

허리는 신(腎)의 집이다. [ 허리는 신의 집이다. 허리를 돌리고 움직이지 못하면 신(腎)이 장차 쇠약해질 것이다. (《내경(內經)》) ○허리는 신(腎)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온몸은 허리에 의지해 회전하고 움직이며 굽혔다 편다 한다. 그런데 모든 경맥이 신(腎)을 관통하고 허리와 척추에 연락되니, 외감이든 내상이든 종류가 다르지만 반드시 신(腎)이 허한 후에야 사기(邪氣)가 침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전히 차가운 약만 쓸 수도 없고, 또한 순전히 인삼(人蔘)·황기(黃芪)로 기(氣)만 보할 수도 없다. (《입문(入門)》) ]

腰痛有十二<sup>1</sup>。 [ 有腎虛，有痰飲，有食積，有剉閃，有瘀血，有風，有寒，有濕，有濕熱，有氣，凡十種也。 ]

요통에는 10가지가 있다. [ 신허요통(腎虛腰痛)·담음요통(痰飲腰痛)·식적요통(食積腰痛)·좌섬요통(剉閃腰痛)·어혈요통(瘀血腰痛)·풍요통(風腰痛)·한요통(寒腰痛)·습요통(濕腰痛)·습열요통(濕熱腰痛)·기요통(氣腰痛)，이렇게 모두 10가지이다. ]



〈腰痛圖 腰痛圖〉

- 腎虛腰痛，青娥元。痰飲腰痛，芎夏湯。食積腰痛，二四湯，痛甚，速效散。剉閃腰痛，獨活湯。瘀血腰痛，破血散瘀湯。風腰痛，五積散，痛勢甚者，加味龍虎散，風熱，敗毒散。寒腰痛，五積散。濕腰痛，尤附湯。濕熱腰痛，實者，二炒蒼柏散，虛者，七味蒼柏散。氣腰痛，七氣湯，沈香降氣湯。水濕腰痛，尤附湯。風寒腰痛，五積散。腎着湯。

신허요통 청아원. 담음요통 궁하탕. 식적요통 이사탕, 통증이 심할 때는 속효산. 좌섬요통 독활탕. 어혈요통 파혈산동탕. 풍요통 오적산, 통증이 심할 때는 가미용호산, 풍열이 있을 때는 패독산. 한요통 오적산. 습요통 출부탕. 습열요통에서 실증에는 이초창백산, 허증에는 칠미창백산. 기요통 칠기탕 침향강기탕. 수습요통 출부탕. 풍한요통 오적산. 신착탕.\*

腎經之病，如腰痛之症，方用 [ 熟地、白朮各三兩，胡桃二兩，杜沖一兩鹽水炒，破古紙五錢鹽水炒 ]，各爲末，蜜丸，每日饑而服之，白滾湯送下。兩服完自愈。 [ ( 正治 ) ]

요통(腰痛)과 같은 신경(腎經)의 병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 백출(白朮) 각 3냥, 호두(胡桃) 2냥, 두충(杜仲) ( 소금물에 볶는다 ) 1냥, 파고지(破故紙) ( 소금물에 볶는다 ) 5돈. ] 이 약재를 각각 가루 내어 꿀로 환을 빚는다. 매일 배가 고플 때 복용하되 끓인 물로 삼킨다. 2번 복용하면 저절로 낫는다. [ (〈정치(正治)〉) ]

尙有腰痛之症，亦宜立而飲藥。蓋腰屬腎，腎虛而後腰痛，痛久則腎宮益虛。總然<sup>2</sup>有補腎之藥，不肯直入腎宮。方用 [ 熟地、白朮各一兩，薏仁、山茱萸各四錢，杜沖五錢，麥冬二錢，五味子一錢 ]，酒煎服。 [ ( 立治 ) ]

요통 증상이 있을 때도 역시 서서 약을 마시는 것이 좋다. 대개 허리는 신(腎)에 속하고, 신(腎)이 허한 뒤에 허리가 아프며, 아픔이 오래되면 신궁(腎宮)이 더욱 허해진다. 설령 신(腎)을 보하는 약이 있다 하더라도 약효가 곧바로 신궁(腎宮)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숙지황(熟地黃) ·

백출(白朮) 각 1냥, 의이인(薏苡仁) · 산수유(山茱萸) 각 4돈, 두충(杜仲) 5돈,  
맥문동(麥門冬) 2돈, 오미자(五味子) 1돈. ] 이 약재를 술로 달여서 복용한다.

[ (〈입치(立治)〉) ]

兩足痛，腰以下痛，用 [ 黃酒二升，黃芪半斤，薏仁五兩，杜沖二兩，防風、茯苓各五錢，車前子三錢，肉桂一錢 ]，水十椀煎二沸，取汁二椀，入酒內。一醉而愈。 ○雷公曰，治腰痛如神，方用 [ 白朮、薏仁各三兩，芡實二兩 ]，水煎服。一劑即愈。 [ (完治) ]

양쪽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래가 아플 때는 다음 처방을 쓴다. [ 황주(黃酒) 2 되, 황기(黃芪) 반 근, 의이인(薏苡仁) 5냥, 두충(杜仲) 2냥, 방풍(防風) · 복령(茯苓) 각 5돈, 차전자(車前子) 3돈, 육계(肉桂) 1돈. ] 이 약재를 물 10사발로 2소끔 끓여 2사발을 얹은 뒤 황주에 넣어 복용한다. 1번 취하도록 마시고 나면 낫는다. ○ 뇌공(雷公)이 말하였다. "신묘하게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백출(白朮) · 의이인(薏苡仁) 각 3냥, 검실(芡實) 2냥.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복용하면 즉시 낫는다." [ (〈완치(完治)〉) ]

腰痛與頭痛，上下相殊也。然而腎氣上通於腦，而腦氣上達<sup>3</sup>於腎，上下雖殊，氣實相通。法當用溫補之藥，以大益其腎中之陰，則上下之氣，自通。方用上下兼痛丹。 [ 熟地一兩，杜仲、麥冬各五錢，五味子二錢 ]，水煎服即愈。 [ (分治) ]

요통과 두통은 통증의 위치가 상하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신기(腎氣)는 위로 뇌와 통하고 뇌기(腦氣)는 아래로 신(腎)에 이르니, 상하가 비록 다르지만 기운은 실제로 서로 통한다. 마땅히 온보하는 약을 써서 그 신(腎) 중의 음(陰)을 크게 복돋우면 상하의 기가 저절로 통하게 된다. 처방으로는 상하겸통단(上下兼痛丹)을 쓴다. [숙지황(熟地黃) 1냥, 두충(杜仲) · 맥문동(麥門冬) 각 5돈, 오미자(五味子) 2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하면 곧 낫는다.

[ (〈분치(分治)〉) ]

腰不能俯者，水濕，腰不能直者，非水濕，乃風寒也。用逍遙散，加 [防己] 一錢。初起時一劑可愈，久則非一劑可愈也。當改用利腰丹，[白朮二兩，杜沖一兩]，酒煎服，可愈。[ (長治) ]

허리를 굽힐 수 없는 것은 수습(水濕) 때문이고, 허리를 곧게 펼 수 없는 것은 수습(水濕)이 아니라 풍한(風寒) 때문이다. 소요산(逍遙散)에 [방기(防己)] 1돈을 더하여 쓴다. 초기에는 1제(劑)로 나을 수 있지만 오래되면 1제(劑)로는 나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래되었을 때는 이요단(利腰丹)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백출(白朮) 2냥, 두충(杜沖) 1냥.] 이 약재를 술에 달여서 복용하면 나을 수 있다. [ (〈장치(長治)〉) ]

如人患腰痛者，人以爲腎之病也，不知非腎，乃脾濕之故，重如帶三千文。法當去腰之濕，則腰痛自愈。方用利腰散。[白朮四兩，薏仁三兩]，水六椀煎湯，一椀一氣飲之。一服即病如失。[ (偏治) ]

누군가 요통을 앓으면 사람들은 신(腎)의 병이라고만 여길 뿐, 신(腎) 때문이 아니라 비습(脾濕) 때문에 3천 문(文)의 돈을 띠에 찬 것처럼 허리가 무거운 경우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허리의 습(濕)을 제거해야만 요통이 저절로 낫는다. 처방으로는 이요산(利腰散)을 쓴다. [ 백출(白朮) 4냥, 의이인(薏苡仁) 3냥. ] 이 약재를 물 6사발에 달여서 탕을 만들어 1사발을 단번에 마신다. 1번 복용하면 곧 사라진 듯 병이 낫는다. [ (〈편치(偏治)〉) ]

凡腰痛而不能下俯者是也。方用 [ 白朮五錢 , 山藥三錢 , 防己二錢 , 柴胡、澤瀉、猪苓、白芥子各一錢 , 甘草五分 , 肉桂三分 ] , 水煎服。 [ (長治) ]

무릇 허리가 아프면서 몸을 아래로 굽힐 수 없는 것이 이것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백출(白朮) 5돈, 산약(山藥) 3돈, 방기(防己) 2돈, 시호(柴胡) · 택사(澤瀉) · 저령(猪苓) · 백개자(白芥子) 각 1돈, 감초(甘草) 5푼, 육계(肉桂)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장치(長治)〉) ]

腰足痛，明是腎虛而氣衰，不能運動，更加之濕，自必作楚。妙在不補腎而單益氣，氣足則血生，血生則邪退。有助之 [ 薏苡、車前子、茯苓之類 ] 去濕，濕去則血更活矣。況更助之 [ 杜沖 ] 之健腎， [ 肉桂 ] 之溫腎， [ 防風 ] 之蕩風乎。相畏而相使，相佐而相成，必然之理也。 [ (完治) ]<sup>4</sup>

요족통(腰足痛)은, 신(腎)이 허하고 기(氣)가 쇠약해진 까닭에 허리와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여기에 습(濕)이 더해져 시큰한 아픔이 생겨난 것임에 분명하다. 오묘한 점은 신(腎)을 보하지 않고 기(氣)를 북돋기만 해도, 기(氣)가 충족되면 혈(血)이 생겨나고, 혈(血)이 생겨나면 병사(病邪)가 물러난다는 사실이다. [ 의이인(薏苡仁) · 차전자(車前子) · 복령(茯苓) ] 같은 약재로 거들어

습(濕)을 제거하니, 습(濕)이 제거되면 혈(血)이 더욱 활발해진다. 하물며 [ 두충(杜仲) ] 으로 신(腎)을 건강하게 하고, [ 육계(肉桂) ] 로 신(腎)을 따뜻하게 하며, [ 방풍(防風) ] 으로 풍(風)을 몰아내면서 더 거든다면 어떻겠는가?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부리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루는 것이 필연적인 이치이다. [ (〈완치(完治)〉) ]

### 青娥丸 청아환

- [ 治腎虛腰痛。杜沖薑汁炒、破古紙炒各四兩，胡桃肉三十箇。爲末，生薑二兩半取汁，入煉蜜丸梧子大。空心，溫酒或鹽湯吞下百丸。 (丹心) ]
- [ 신허요통(腎虛腰痛)을 치료한다. 두충(杜仲) (생강즙에 적셔 볶은 것) · 파고지(破故紙) (볶은 것) 각 4냥, 호두살 30개. 이 약재를 가루 낸다. 생강(生薑) 2냥 반에서 짜낸 생강즙에 연밀(煉蜜)을 넣은 것으로 오동자(梧桐子) 크기 만하게 환을 빚는다. 빈속에 따뜻한 술이나 소금물로 100환을 삼킨다. (《단심(丹心)》) ]

### 芎夏湯 궁하탕

- [ 治脈滑者伏者，痰飲流注經絡。川芎、半夏、赤茯苓各一錢，陳皮、青皮、枳殼各五分，白朮、甘草炙各二分半，薑五片。加南星、蒼朮、黃柏。 (丹心) ]
- [ 맥이 활(滑)하거나 복(伏)한 경우를 치료한다. 이는 담음(痰飲)이 경락(經絡)에 유주(流注)하는 경우이다. 천궁(川芎) · 반하(半夏) · 적복령(赤茯苓) 각 1

돈, 진피(陳皮) · 청피(青皮) · 지각(枳殼) 각 5푼, 백출(白朮) · 감초(甘草) ( 구운 것 ) 각 2푼 반, 생강(薑) 5편. 여기에 남성(南星) · 창출(蒼朮) · 황백(黃柏) 을 더한다. (《단심(丹心)》) ]

## 二四湯 이사탕

- [ 治食積腰痛。二陳湯合四物湯，加麥芽、神麴、葛花、砂仁、杜沖、黃柏、官桂、枳殼、桔梗，煎服。 ]
- [ 식적요통(食積腰痛)을 치료한다. 이진탕(二陳湯)과 사물탕(四物湯)을 합방하고, 여기에 맥아(麥芽) · 신곡(神麴) · 갈화(葛花) · 사인(砂仁) · 두충(杜沖) · 황백(黃柏) · 관계(官桂) · 지각(枳殼) · 길경(桔梗)을 더한 뒤 달여서 복용한다. ]

## 速效散 속효산

- [ 治腰痛不可忍。川棟肉，以巴豆肉五粒同炒赤，去巴豆，茴香鹽炒，破古紙炒各一兩。右爲末，每一錢，空心以熱酒調下。 ( 入門 ) ]
- [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을 치료한다. 천련육(川棟肉) ( 파두육 (巴豆肉) 5알과 함께 붉게 되도록 볶은 다음 파두는 버린다 ) · 회향(茴香) ( 소금물에 적셔 볶는다 ) · 파고지(破古紙) ( 볶는다 ) 각 1냥. 이 약재를 가루 내어 매번 1돈씩 빈속에 뜨거운 술에 타서 복용한다. (《입문(入門)》) ]

## 獨活湯 독활탕

- [ 治勞役腰痛如折，謂之醫腰痛<sup>5</sup>。當歸、連翹各一錢半，薑活<sup>6</sup>、獨活、防風、澤瀉、肉桂各一錢，防己、黃柏、大黃、甘草各五分，桃仁留尖九粒。右剉作一貼，酒水各半，空心煎服。 ( 東垣 ) ]
- [ 힘든 일을 하여 허리가 부러질 듯 아픈 것을 치료한다. 이를 둔요통(臀腰痛)이라고 한다. 당귀(當歸) · 연교(連翹) 각 1돈 반, 강활(羌活) · 독활(獨活) · 방풍(防風) · 택사(澤瀉) · 육계(肉桂) 각 1돈, 방기(防己) · 황백(黃柏) · 대황(大黃) · 감초(甘草) 각 5푼, 도인(桃仁) ( 뾰족한 끝을 남겨둔다 ) 9알. 이 약재를 썰어서 1첩으로 삼고, 술과 물을 각각 반씩 섞은 것으로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동원(東垣)》) ]

### 破血散瘀湯<sup>7</sup> 파혈산동탕

- [ 治血瀝則腰痛，轉側如錐之所刺。水蛭炒二錢令烟盡另細研，連翹、當歸、柴胡各二錢，蘇木一錢半，羌活、防風、桂心各一錢，射香五分另研。右剉分二貼，每服，酒二盞水一盞，煎至一盞，去滓，調水蛭、射香末，空心服。兩服即愈。 ( 東垣 ) ]
- [ 어혈로 인한 요통은 몸을 옆으로 돌리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수질(水蛭) 2돈 (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볶아서 따로 곱게 간다 ), 연교(連翹) · 당귀(當歸) · 시호(柴胡) 각 2돈, 소목(蘇木) 1돈 반, 강활(羌活) · 방풍(防風) · 계심(桂心) 각 1돈, 사향(麝香) 5푼 ( 따로 갈아둔다 ). 이 약재를 썰어서 2첩으로 나눈다. 매번 복용할 때, 술 2잔과 물 1잔에 약재를 넣고 1잔이 될 때 까지 달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하고, 수질(水蛭)과 사향(麝香) 가루를 타서 빈 속에 복용한다. 2번 복용하면 곧 낫는다. (《동원(東垣)》) ]

## 五積散 오적산

- [ 治腰痛無常<sup>8</sup> , 引兩足強急。蒼朮二錢 , 麻黃、陳皮各一錢 , 厚朴、桔梗、枳角、當歸、乾薑、白芍藥、白茯苓各八分 , 川芎、白芷、半夏、桂心各七分 , 甘草六分。加防風、全蝎。薑三葱二 , 煎服。 ]
- [ 허리 통증이 정해진 곳이 없고 양쪽 다리까지 당기며 뻣뻣한 것을 치료한다.  
창출(蒼朮) 2돈, 마황(麻黃) · 진피(陳皮) 각 1돈, 후박(厚朴) · 길경(桔梗) · 지각(枳殼) · 당귀(當歸) · 건강(乾薑) · 백작약(白芍藥) · 백복령(白茯苓) 각 8푼,  
천궁(川芎) · 백지(白芷) · 반하(半夏) · 계심(桂心) 각 7푼, 감초(甘草) 6푼. 방풍(防風) · 전갈(全蝎)을 더한다. 생강 3쪽, 총백 2개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

## 加味龍虎散 가미용호산

- [ 治風寒腰痛 , 筋骨拳攣。蒼朮一兩 , 全蝎五錢 , 草烏、附子并炮製各二錢 , 天麻三錢。右末 , 每一錢 , 空心豆淋酒調下。 ( 得效 ) ]
- [ 풍한(風寒)으로 인해 허리가 아프고 근골이 당기는 것을 치료한다. 창출(蒼朮) 1냥, 전갈(全蝎) 5돈, 초오(草烏) · 부자(附子) ( 2가지 모두 습지에 싸서 굽는다 ) 각 2돈, 천마(天麻) 3돈. 이 약재를 가루 낸다. 복용할 때 1돈씩 빈속에 두림주(豆淋酒)에 타서 복용한다. (《득효(得效)》) ]

## 敗毒散 패독산

- [ 治風熱腰痛。柴胡、前胡、羌活、獨活、桔梗、枳殼、川芎、赤茯苓、甘草各一錢，加續斷、天麻、木瓜、薄荷，煎服。 ( 得效 ) ]
- [ 풍열요통(風熱腰痛)을 치료한다. 시호(柴胡) · 전호(前胡) · 강활(羌活) · 독활(獨活) · 길경(桔梗) · 지각(枳殼) · 천궁(川芎) · 적복령(赤茯苓) · 감초(甘草) 각 1돈. 여기에 속단(續斷) · 천마(天麻) · 목과(木瓜) · 박하(薄荷)를 더하여 쓴다. 물에 달여 복용한다. (《득효(得效)》) ]

### 五積散 오적산

- [ ( 方見腹部 ) ] 。治 [ 寒傷腎經，腰痛，不能轉側，見熱則減，遇寒則發，脈沈弦急。加吳茱萸、杜沖、桃仁。痛甚，加黑丑頭末一錢調服。 ( 入門 ) ○痛甚，服加味龍虎散。 ( 方見下 ) ]
- [ 처방은 <복부(腹部)>에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 한사(寒邪)가 신경(腎經)을 손상시킨 까닭에 허리가 아파 몸을 옆으로 돌리지 못하는데, 뜨겁게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차갑게 하면 통증이 나타나며, 맥이 침(沈) · 현(弦) · 급(急)하다. 오적산(五積散)에 오수유(吳茱萸) · 두충(杜仲) · 도인(桃仁)을 더하여 쓴다. 통증이 심하면 흑축(黑丑) 두말(頭末)<sup>9</sup> 1돈(一錢)을 넣어 섞어 먹는다. (《입문(入門)》) ○통증이 심할 때는 가미용호산(加味龍虎散)을 쓴다. (처방은 뒤에 있다) ]

### 朮附湯 출부탕

- [ 治濕傷腎經，久處卑濕，雨露浸淫，重痛如石，冷如冰。白朮、附子炮各

二錢，杜沖炒一錢。右剗作一貼，薑三片，水煎服。（濟生） ○五積散

（方見上），加桃仁、吳茱萸，最效。】

- [ 습(濕)이 신경(腎經)을 상하여 생긴 요통을 치료한다. 낮고 습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비와 이슬이 스며들어 돌을 매단 듯 무겁고 아프며 얼음을 댄 듯 차갑다. 백출(白朮) · 부자(附子) ( 습지에 싸서 굽는다 ) 각 2돈, 두충(杜仲) ( 볶는다 ) 1돈. 이 약재를 썰어서 1첩으로 만들고 생강 3쪽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제생(濟生)》) ○ 오적산(五積散) ( 처방은 앞에 있다 ) 에 도인(桃仁) · 오수유(吳茱萸)를 더하면 가장 효과가 좋다. ]

### 二炒蒼柏散 이초창백산

- [ 治平日膏粱厚味之人腰痛，皆是濕熱陰虛。遇天陰，或久坐而發。脈緩或沈。蒼朮泔浸一日夜鹽炒，黃柏酒浸一日夜焦炒，各四兩。右剗，五錢，水煎服，或水丸服。（得效） ]
- [ 평소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허리가 아픈 것은 모두 습열(濕熱)과 음허(陰虛)로 인한 것이다. 날씨가 흐리거나 오래 앓아 있으면 통증이 발생한다. 맥은 완(緩)하거나 침(沈)하다. 이런 경우를 치료한다. 창출(蒼朮) ( 쌀뜨물에 하룻밤 담갔다가 소금물에 적셔 볶는다 ) · 황백(黃柏) ( 술에 하룻밤 담갔다가 태우듯 볶는다 ) 각 4냥. 이 약재를 썰어 5돈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또는 물로 환을 빚어 복용한다. (《득효(得效)》) ]

### 七味蒼柏散 칠미창백산

- [ 治濕熱腰痛虛者，蒼朮、黃柏、杜沖、破古紙、川芎、當歸、白朮各一錢，煎服。 ( 入門 ) ]
- [ 습열로 인한 요통 가운데 허증을 치료한다. 창출(蒼朮) · 황백(黃柏) · 두충(杜仲) · 파고지(破故紙) · 천궁(川芎) · 당귀(當歸) · 백출(白朮) 각 1돈. 이 약재를 달여서 복용한다. (《입문(入門)》) ]

### 七氣湯 칠기탕

- [ ( 方見氣門 ) ] 。治 [ 凡人失志，則心血不旺，不養筋脈，氣滯腰痛，不能久立遠行。倍加茯苓，加沈香、乳香各少許。煎服。 ( 入門 ) ]
- [ ( 처방은 <기문(氣門)>에 있다 ) ] 다음과 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 무릇 사람이 마음을 상하면 심혈(心血)이 왕성하지 못하여 근맥(筋脈)을 기르지 못하고, 기(氣)가 정체되어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거나 멀리 걷지 못한다. 칠기탕(七氣湯)에 복령(茯苓)을 배로 늘리고 침향(沈香) · 유향(乳香)을 조금씩 더 하여 달여서 복용한다. (《입문(入門)》) ]

### 沈香降氣湯 침향강기탕

- [ 治憂思傷脾則腰痛，忿怒傷肝則亦作腰痛。便香付四兩，甘草灸一兩二錢，砂仁五錢，沈香四錢。右細末，每二錢。合調氣散。藿香、甘草各八錢，白豆蔻、丁香、白檀、唐木香各二錢。右末，每二錢。薑三棗二，以蘇鹽湯點服，不拘時。 ( 丹心 ) ]
- [ 근심 걱정으로 비(脾)를 상하면 허리가 아프다. 분노로 간(肝)을 상해도 허

리가 아프다. 이를 치료할 때는 침향강기탕(沈香降氣湯)과 조기산(調氣散)을 합방하고,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달여 복용한다. 침향강기탕(沈香降氣湯)은 다음과 같다. 변향부(便香附) 4냥, 감초(甘草) ( 굽는다 ) 1냥 2돈, 사인(砂仁) 5돈, 침향(沈香) 4돈. 이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2돈씩 자소엽과 소금을 넣고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조기산(調氣散)은 다음과 같다. 광향(藿香) · 감초(甘草) 각 8돈, 백두구(白豆蔻) · 정향(丁香) · 백단(白檀) · 당목향(唐木香) 각 2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2돈씩 때를 가리지 않고 소금물에 타서 복용한다. (《단심(丹心)》) <sup>10</sup> ]

### 腎着湯 신착탕

- [ 治病人身體重 , 腰重 <sup>11</sup> 冷如坐水。形如水狀 , 反不渴 , 小便自利 , 飲食如故。腰以下冷痛 , 腰重如帶五千錢。白朮二錢半 , 乾薑炮 , 赤茯苓各一錢半 , 甘草五分。水煎服。 ( 丹心 ) ]
- [ 몸이 무겁고 물에 앓아 있는 것처럼 허리가 차가운 것을 치료한다. 몸에 부종이 있는 것 같으나 도리어 갈증이 없고 소변이 저절로 나오며 평소처럼 음식을 먹는다. 허리 아래가 차갑고 아프며, 오천 돈의 무게를 매단 것처럼 허리가 무겁다. 백출(白朮) 2돈 반, 건강(乾薑) ( 습지에 싸서 굽는다 ), 적복령(赤茯苓) 각 1돈 반, 감초(甘草) 5푼.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단심(丹心)》) ]

<sup>1</sup>. 腰痛有十二 ☞ 腰痛有十 ※《동의보감》 ←

2. 總然 『縱然』 縱然 ※《석실비록》 ←
3. 上達 『下達』 下達 ※《석실비록》 ←
4. 《석실비록》에는 앞의 "兩足痛, 腰以下痛, ...." 조문 뒤에 나온다. 따라서 이 단락의 약재 설명은 앞의 조문 처방에 대한 것이다. ←
5. 謂之屬腰痛 : 《동의보감》에는 없는 구절이다. ←
6. 薑活 『羌活』 羌活 ※《동의보감》 ←
7. 破血散瘀湯 『破血散瘀湯』 破血散瘀湯 ※《동의보감》 ←
8. 無常 『無常所』 無常所 ※《동의보감》 ←
9. 두말(頭末) : 가루 낸 다음 체로 쳐서 처음 나온 가루 ←
10. 원문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보감》을 근거로 보완하여 번역하였다. ←
11. 腰重 『腰中』 腰中 ※《석실비록》 ←

## † 脇 옆구리

脇腋屬肝膽。 [ 肝膽之脈布脇肋，肋者脇骨也。 ( 銅人 ) ○肝有邪，其氣流于兩脇。 ( 靈樞 ) ○脇痛者，厥陰肝經爲病也。 脇○肩下曰腋，腋下曰脇 ( 醫鑑 )，之下曰季肋 ( 續目 )<sup>1</sup> ]

옆구리와 겨드랑이는 간담에 속한다. [ 간(肝)과 담(膽)의 경맥은 옆구리와 늑골에 분포한다. 늑골이란 옆구리뼈이다. (《동인》) ○간(肝)에 사기(邪氣)가 있으면 그 사기가 양쪽 옆구리로 흘러간다. (《영추》) ○협통(脇痛)은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이 병든 것이다. (《의감》) ○어깨 아래를 겨드랑이라 하고, 겨드랑이 아래를 옆구리라 한다. 옆구리 아래를 계늑(季肋)이라 한다. (《강목》)<sup>2</sup> ]

脇痛有五。 [ 脇痛者，肝火盛木氣實也。 ( 醫鑑 ) ○肝苦急，是其氣有餘，急食辛以散之，宜用川芎、蒼朮、青皮。 ( 丹心 ) ○肝火盛，兩脇痛，不得伸舒，先以琥珀膏 ( 方見下 ) 貼痛處，却以生薑湯吞下蜜丸當歸龍薈丸 ( 方見下 )，最妙。此藥蜜丸，乃治脇痛。 ( 丹心 ) ○凡脇痛皆肝木有餘，小柴胡湯 ( 方見咳嗽 ) 加青皮、川芎、芍藥、草龍膽，甚者入青黛、射香調服。 ( 正傳 ) ○凡脇痛，有氣鬱，有死血，瘀飲<sup>3</sup>，有食積，有風寒。 ○肝熱鬱，則脇必痛。 ( 入門 ) ]

협통(脇痛)에는 5가지가 있다. [ 협통은 간화(肝火)가 왕성하고 목기(木氣)가 실한 것이다. (《의감(醫鑑)》) ○간(肝)은 급한 것을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은 간기(肝氣)가 남아도는 상태이다. 급히 매운맛을 먹어서 발산시켜야 하므로 마땅히 천궁(川芎) · 창출(蒼朾) · 청피(青皮)를 써야 한다. (《단심(丹心)》) ○간화(肝火)가 왕성하여 양쪽 옆구리가 아파서 잘 펴지 못할 때는 먼저 호박고(琥珀膏) (처방은 뒤에 있다) 를 아픈 곳에 붙이고, 그 다음에 꿀로 환을 빚은 당귀용회환(當歸龍薈丸) (처방은 뒤에 있다) 을 생강탕(生薑湯)으로 삼키면 가장 좋다. 이 약을 꿀로 환을 빚으면 협통을 치료한다. (《단심(丹心)》) ○무릇 협통은 모두 간목(肝木)의 기운이 남아도는 것이니, 소시호탕(小柴胡湯) (처방은 <해수(咳嗽)>에 있다) 에 청피(青皮) · 천궁(川芎) · 작약(芍藥) · 초룡담(草龍膽)을 더하고, 심한 경우에는 청대(青黛) · 사향(麝香)을 타서 복용한다. (《정전(正傳)》) ○무릇 협통에는 기울협통(氣鬱脇痛) · 사혈협통(死血脇痛) · 담음협통(痰飲脇痛) · 식적협통(食積脇痛) · 풍한협통(風寒脇痛)이 있다. ○간(肝)에 열이 울체되면 옆구리가 반드시 아프다. (《입문(入門)》) ]

脇痛之症，乃肝病也。肝宜順而不宜逆，逆則痛，痛而不止則死矣。故治脇痛必須平肝，平肝必須補腎。腎水足而後肝氣有養，不必治脇痛，脇痛自愈也。方用肝腎兼資湯。 [ 白芍二兩，熟地黃、當歸各一兩，山茱萸五錢，白芥子、甘草各三錢，炒梔子一錢 ]。水煎服。 [ (內傷) ]

협통(脇痛)은 간(肝)의 병이다. 간(肝)은 순조로워야 하고 거슬러서는 안 되는데, 거스르면 아프고 아픔이 그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옆구리 통증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간(肝)을 평정해야 하고, 간을 평정하게 하려면 반드시 신(腎)을 보해야 한다. 신수(腎水)가 충족된 뒤에 간기(肝氣)가 길러지므로 굳이 협통을 치료하지 않아도 협통이 저절로 낫는다. 처방은 간신겸자탕(肝腎兼資湯)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2냥, 숙지황(熟地黃) · 당귀(當歸) 각 1냥, 산수유(山茱萸) 5돈, 백개자(白芥子) · 감초(甘草) 각 3돈, 치자(梔子) ( 볶는다 )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내상(內傷)〉) ]

### 琥珀膏 호박고

- [ 治同上。大黃、朴硝各一兩爲末，大蒜搗爲膏，和勻作片貼之。 ( 丹心 ) ○一方，加射香五分，名硝黃膏。 ( 入門 ) ]
- [ 적괴(積塊)를 치료한다. 대황(大黃) · 박초(朴硝) 각 1냥. 이 약재를 가루 낸다. 마늘을 찧어서 고약처럼 만든 것과 고르게 섞어 납작하게 만들어 붙인다. (《단심》) ○ 어떤 책에는 사향(麝香) 5푼을 더하여 초황고(硝黃膏)라고 이름 붙였다. (《입문(入門)》) ]

### 當歸龍膽丸 당귀용회환

- [ 治肝藏實熱脇痛。當歸、草龍膽、山梔子、黃連、黃柏、黃芩各一兩，大黃、蘆薈、青黛各五錢，木香二錢半，射香半錢。右爲末，蜜丸小豆大，薑湯下二三十丸。 ( 約目 ) ]

- [ 간장(肝臟)의 실열(實熱)로 옆구리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당귀(當歸) · 초용담(草龍膽) · 치자(山梔子) · 황련(黃連) · 황백(黃柏) · 황금(黃芩) 각 1냥, 대황(大黃) · 노회(蘆薈) · 청대(青黛) 각 5돈, 목향(木香) 2돈 반, 사향(麝香) 반 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소두(小豆)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생강 달인 물로 20~30환을 복용한다. (《강목(綱目)》) ]

### 小柴胡湯 소시호탕

- [ ( 方見咳嗽 ) ]
- [ ( 처방은 <해수(咳嗽)>에 있다. ) ]

1. 원문에 오류가 있다. 《동의보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肩下曰腋 ,腋下曰脇 ,脇之下曰季肋。 ( 綱目 )" [←](#)

2. 원문에 오류가 있어 《본의보감》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의 역자 주석 참고. [←](#)

3. 痰飲 [←](#) 有痰飲 ※《동의보감》 [←](#)

## † 皮 피부

皮有部分。 [ 凡十二經絡者，皮之部也。視其部中浮絡，其色多青則痛，多黑則痺，黃赤則爲熱，多白則寒，五色皆見則寒熱也。絡盛則入客於經，陽主外，陰主內。 (內經) ○皮者，脈之部也。十二經皆有部分，不與而生大病也。不與者，不與他脈同色也。 (內經) ]

피부의 구획. [ 무릇 십이경락(十二經絡)은 피부의 구획이다. 그 부분의 부락(浮絡)을 살펴보아, 그 색에 푸른색이 많으면 통증이 있는 것이고, 검은색이 많으면 비증(痺症)이 있는 것이며, 황적색이면 열이 있는 것이고, 흰색이 많으면 한(寒)이 있는 것이며, 오색이 모두 나타나면 한(寒)과 열(熱)이 모두 있는 것이다. 사기(邪氣)가 낙맥(絡脈)에서 왕성하면 경맥(經脈)으로 침입한다. 양(陽)은 밖을 주관하고 음(陰)은 안을 주관한다. (《내경(內經)》) ○ 피부는 맥(脈)의 구획과 같다. 십이경맥(十二經脈)은 모두 구획이 있어서, 같지 않으면 큰 병이 생긴다. 같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맥의 구획과 색이 같지 않는 뜻이다. (《내경(內經)》) ]

皮毛屬肺。 [ 內經曰，肺之合皮也，其榮毛也。又云，肺主皮毛。又云，在藏爲肺，在體爲皮毛。 ○邪在肺，則病皮膚痛。 (靈樞) ○皮膚亦曰腠理，津液滲泄之所曰腠，文理縫會之中曰理。 (內經) ○腠理亦曰玄府，玄府者汗孔也。汗液色玄，從空而出，以汗聚於裏，故謂之玄府。府，聚也。 (內經) ]

피모(皮毛)는 폐(肺)에 속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폐(肺)는 피부와 상합(相合)하고, 그 상태는 터럭에 나타난다." 또 말하였다. "폐(肺)는 피모(皮毛)를 주관한다." 또 말하였다. "오장에서는 폐(肺)이고, 몸에서는 피모(皮毛)이다." ○사기(邪氣)가 폐(肺)에 있으면 피부가 아프다. (《영추(靈樞)》)  
○피부를 주리(腠理)라고도 하는데, 땀이 스며 나오는 곳을 '주(腠)'라 하고, 살결 무늬가 만나는 곳을 '리(理)'라고 한다. (《내경(內經)》) ○주리(腠理)를 현부(玄府)라고도 하는데, 현부(玄府)는 땀구멍이다. 땀은 색이 검고, 빈 곳에서 나오는데, 땀이 속에서 모이는 곳이므로 현부(玄府)라고 하였다. '부(府)'는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내경(內經)》) ]

風寒之邪先入皮毛。 [百病之始生也，必先於皮毛。邪中之則腠理開，開則入客於絡脈，留而不去，傳入於經，留而不去，傳入於府，廩於腸胃。邪之始入於皮也，泝然起毫毛，開腠理。其入於絡也，則絡脈盛色變。其入客於經也，則感虛乃陷下。其留於筋骨之間，寒多則筋攣骨痛，熱多則筋弛骨消，肉爛膿破<sup>1</sup>，毛直而敗。 (內經) ]

풍한(風寒)의 사기(邪氣)는 먼저 피모(皮毛)에 들어간다. [모든 병은 반드시 먼저 피모(皮毛)에서 시작된다. 사기가 피부에 침입하면 주리(腠理)가 열리고, 열리면 들어가서 낙맥(絡脈)에 머물게 되며,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면 경맥으로 전해지고,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면 부(府)로 전해져서 장위(腸胃)에 저장된다. 사기(邪氣)가 처음 피부에 들어갈 때는 오싹하고 털이 일어나며 주리(腠理)가 열린다. 사기가 낙맥(絡脈)에 들어가면 낙맥(絡脈)이 도드라지고 색깔이 변한다. 사기가 경맥(經脈)에 들어가 머물면 허한 틈을 타고 아래로

파고든다. 사기가 근골 사이에 머물 때 한(塞)이 많으면 힘줄이 당기고 뼈가 아프다. 이때 열이 많으면 힘줄이 늘어지고 뼈가 삐이며, 살이 타는 듯하고 군육(膚肉)이 무너지며 털이 서면서 빠진다. (《내경(內經)》) ]

傷寒發癩，死症也。然而斑<sup>2</sup>亦不同，有遍身發斑者，有止心窩內發斑者。遍身發斑者，症似重而反輕，心窩發斑者，症似輕而轉重。蓋遍身發斑，內熱已盡發於外，心窩發斑，熱存於心中而不得出，必須用化斑之藥，以解其熱毒之在中也。我有一方最神，名起斑湯。 [ 玄蔴三兩，當歸一兩，天花粉五錢，升麻、荊芥、黃連、茯神各三錢，甘草一錢 ]。水煎服。 [ ( 傷寒 ) ]

상한발반(傷寒發斑)은 죽을 증상이다. 그러나 반점의 양상이 같지 않으니, 온몸에 반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오직 명치 안에만 반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온몸에 반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상이 중한 것 같으나 도리어 가볍고, 명치에 반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상이 가벼운 것 같으나 도리어 중하다. 대개 온몸에 반점이 발생하는 것은 내열이 이미 다 밖으로 발산된 것이다. 명치에 반점이 발생하는 것은 열이 심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는 것 이니, 반드시 화반(化斑)하는 약을 써서 속에 있는 열독(熱毒)을 해소해야 한다. 내게 처방 하나가 있으니 가장 신효하다. 이름은 기반탕(起斑湯)이다.  
[ 현삼(玄蔴) 3냥, 당귀(當歸) 1냥, 천화분(天花粉) 5돈, 승마(升麻) · 형개(荊芥) · 황련(黃連) · 복신(茯神) 각 3돈, 감초(甘草)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상한(傷寒)〉) ]

陽症甚多，不能槩舉，姑舉一二症大者言之。傷寒內發癥，身熱，心如火，口渴呼水，氣喘舌燥，揚首<sup>3</sup>出身者是。或中暑熱之氣，大渴飲水，數桶不止，汗如雨下，大喊狂呼，日重夜輕，是也。此皆陽火燒焚於胃口，烟騰勢急，威猛不可止遏，皆陽症也。此時杯水，實不足以勝之，非大劑寒涼，安能撲滅。卽以用寒涼撲滅之矣，而餘烟斷火微焰猶存，必得大雨滂沱，屋棟溝渠，無非膏澤，則火氣消亡，門庭可整。此陽症之治，難於陰症也。方用滂沱湯。〔元蔘、麥冬各三兩，片芩、生地各一兩，桑白皮五錢，防風、天花粉、青黛、甘草各三錢，升麻二錢，蘇葉一錢〕。一劑卽消太平，二劑全愈。〔(陽治)〕

양증(陽症)은 매우 많아서 모두 거론할 수 없으니, 우선 한두 가지 큰 증상을 들어 말하겠다. 《상한(傷寒)》으로 몸 한쪽에 반점이 생기고 몸에서 열이 나며 심(心)이 불타오르는 듯하고, 갈증이 나서 물을 찾으며, 숨이 차고 혀가 마르며, 손으로 더듬고 옷을 벗으려 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는 더위에 적중된 까닭에, 물을 여러 통 마셔도 그치지 않을 만큼 갈증이 심하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큰 소리로 꾸짖거나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낮에는 심하고 밤에는 가벼운 것이다. 이는 모두 양화(陽火)가 위구(胃口)를 태우고 불살라 연기가 급한 기세로 올라가지만 맹렬함을 막을 수 없는 경우로, 모두 양증이다. 이때 한 잔의 물로는 실로 이를 이기기에 부족하니, 한량(寒涼)한 성질의 약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어찌 진압하여 끌 수 있겠는가. 즉시 한량한 성질의 약으로 진압하여 끈다 하더라도 남은 연기와 꺼진 불의 미세한 불꽃이 오히려 남아 있으니, 반드시 큰 비가 쏟아져서 집의 들보에서 도랑처럼 물이 흘러 모두 푹 젖은 뒤에야 불 기운이 소멸하고 뜰이 정돈될 것이다. 이것이 양증의 치료가 음증보다 어려운 이유이다. 처방으로는 방탕탕(滂沱湯)을 쓴다. [현삼(元

蓼) · 맥문동(麥門冬) 각 3냥, 편금(片芩) · 생지(生地) 각 1냥, 상백피(桑白皮)  
5돈, 방풍(防風) · 천화분(天花粉) · 청대(青黛) · 감초(甘草) 각 3돈, 승마(升  
麻) 2돈, 소엽(蘇葉) 1돈. ] 1제(劑)를 쓰면 즉시 증상이 소멸하여 태평해지  
고, 2제(劑)를 쓰면 완전히 낫는다. [ (〈양치(陽治)〉) ]

## 斑疹 반진

人有一時身熱，即便身冷，而滿體生斑如疹者，乃火從外泄，而不得盡泄於皮  
膚，故鬱而生斑。人盡以爲熱也，用寒涼瀉火之藥不效，有斑不得消而死者，亦  
可傷也。亦用消斑神效湯。 [ 玄蓼、麥冬各一兩，丹皮五錢，白芥子、升麻、沙  
蓼各三錢，白芷一錢 ]。水煎服。一劑斑勢減，再劑斑紋散，三劑斑影盡消矣。

[ ( 下卷 ) ]

사람이 한때 몸에 열이 나다가 곧바로 몸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발진과 같  
은 반점이 생기는 것은, 화(火)가 밖으로 빠져나가려다가 피부에서 완전히 빠  
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울체되어 반점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열  
증으로 여겨서 한량(寒涼)한 성질로 사화(瀉火)시키는 약재를 사용하지만 효  
과가 없고 반점이 사라지지 않아 죽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다. 이때도 소반신효탕(消斑神效湯)을 사용한다. [ 현삼(玄蓼) · 맥문동(麥門  
冬) 각 1냥, 단피(丹皮) 5돈, 백개자(白芥子) · 승마(升麻) · 사삼(沙蓼) 각 3돈,  
백지(白芷)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반점의  
기세가 줄어들고, 2제(劑)를 쓰면 반점 무늬가 흩어지며, 3제(劑)를 쓰면 반점  
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다. [ ( 하권(下卷) ) ]

癰疹吉凶證。 [ **毒癰**<sup>4</sup> 出五死一生，黑癰出十死一生，皆用化癰湯兼與紫雪。 ( 方見火門 ) ○ ( 綱目 ) ○ 凡癰疹，赤色身煖，自胸腹散四肢者，吉。黑色身涼，自四肢入胸腹者，死。 ( 入門 ) ○ 陽毒發癰，紅潤稀疎起發，五六日自愈。若陰脈見，而黑癰稠密成片，身涼，六七日死。 ( 入門 ) ○ 先紅後黯，如果實者亦死。 ( 入門 ) ○ 發癰大便自利者，不治。發斑先赤後黯，面色黧晦，不治。 ( 得效 ) ○ 發赤癰者，半生半死，發黑癰者，九死一生。 ( 正傳 ) ○ 發癰紅赤爲胃熱，若紫不赤爲熱甚，紫黑爲胃爛，故赤癰爲輕，黑癰爲重。大抵鮮紅明朗者吉，紫黑者難治，雜黑癰爛者死。 ( 回春 ) ○ 凡丹毒先從四肢起，而後入腹者，死。 ( 正傳 ) ○ 丹毒滿身遍黑，入腹入陰，難治。 ( 得效 ) ]

반진의 예후가 좋은 증상과 나쁜 증상. [ 붉은 반진이 나타나면 5명 중 1명이 살고, 검은 반진이 나타나면 10명 중 1명이 산다. 모두 화반탕(化癰湯)을 쓰되 자설(紫雪)과 함께 준다. ( 처방은 <화문(火門)>에 있다 ) ○ ( 《강목(綱目)》 ) ○ 무릇 반진이 붉은색이고 몸이 따뜻하며 반진이 가슴과 배에서 사지로 퍼지는 경우는 예후가 좋다. 반진이 검은색이고 몸이 차가우며 반진이 사지에서 흉복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죽는다. ( 《입문(入門)》 ) ○ 양독(陽毒)으로 생긴 발반이 붉고 윤기가 돌며 성기게 일어나면 5~6일이 지나 저절로 낫는다. 만약 음맥(陰脈)이 나타나고 검은색 반진이 춤춤하게 덩어리를 이루며 몸이 차가우면 6 - 7일 만에 죽는다. ( 《입문(入門)》 ) ○ 반진이 처음에는 붉다가 나중에 어두워져서 열매처럼 생기는 경우도 죽는다. ( 《입문(入門)》 ) ○ 반진이 돋을 때 대변이 저절로 나오면 치료하지 못한다. 반진이 돋을 때 처음에는 붉다가 나중에 어두워지고 안색이 검고 어두우면 치료하지 못한다. ( 《득효(得效)》 ) ○ 붉은색 반진이 돋아나면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 검은색

반진이 돌아나면 아홉은 죽고 하나만 산다. (《정전(正傳)》) ○반진이 붉은 색을 띠는 것은 위열(胃熱)이 있는 경우이다. 만약 붉은색이 아니라 자색을 띠는 것은 열이 심한 경우이다. 자흑색을 띠는 것은 위(胃)가 짓무른 경우이다. 그러므로 붉은색 반진은 병이 가볍고 검은색 반진은 병이 중하다. 대체로 선홍색을 띠고 밝은 반진은 예후가 좋고, 자흑색을 띠는 반진은 치료하기 어렵우며, 검은 반진이 섞여 있고 짓무른 경우는 죽는다. (《회춘(回春)》) ○ 무릇 단독(丹毒)이 먼저 사지에서 생겼다가 나중에 배에 나타나는 경우는 죽는다. (《정전(正傳)》) ○단독(丹毒)이 온몸에 가득 퍼져 검게 되었다가 배와 음부에 나타나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득효(得效)》) ]

## 疥 گ

[夫疥者，微芒之疾也。發之令人搔手不閑，但不知其何以生者。疥曰，吾不根而生，無母而成，乃稟陰陽氣育，濕熱化形，常列於王候掌上，何妨庶士之身，可使文人怕筆，繡女停針，毋分貴賤，一例施行。醫問曰，不生於身，獨攻於手者，又何也。疥曰，手掌乃手太陰濕土所主，手心入<sup>5</sup>少陽相火所司，土能生我，火能化我，此生皆賴濕土陽火所化，故生者必自出於手掌。醫曰，然哉！但其形知動而不知靜，能進而不能退，自非清氣所化也。又脾主消納，胃主傳化，人之飲食，未有不從厚味者，厚味之中，濕熱并化，致生此瘡。又清氣隨脈循行，濁氣留滯不散，停留肌膚，積日不解，隨後生熱發痒。故痒熱之中，濕火混化爲虫，形隨濕化，動隨火化，此無情而之有情也。既化之後，潛隱皮膚，展轉攻行，發痒鑽刺，化化生生，傳遍肢體，近則變爲疥癬，久則變成頑風，多致皮膚

枯槁，浸淫血脉，搔痒無度，得湯方解。外以綉毬丸搽擦，堪爲止痒殺虫，內服消風散，亦可散風涼血。必得兼戎口味，辛熱莫啜，忌洗熱湯，其煩自脫。此爲小恙，不當陳說，閑中之言。]

[ 무릇 개(疥)란 미세한 가시 같은 질병이다. 발병하면 쉴 틈 없이 손으로 긁어대는데, 다만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알지 못한다. 개(疥)가 말하였다.

"나는 뿌리 없이 생기고 어미 없이 자라나니, 곧 음양의 기운을 받아 길러지고 습열(濕熱)이 변하여 형체를 이룬다. 왕과 제후의 손바닥 위에도 항상 있으니 어찌 서민의 몸을 해치지 않겠는가. 문인으로 하여금 붓을 두려워하게 하고 수놓는 여인으로 하여금 바늘을 멈추게 할 수 있으니,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나타난다." 의원이 물었다. "몸에는 생기지 않고 오직 손에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疥)가 말하였다. "손바닥은 곧 수태음(手太陰)의 습토(濕土)가 주관하는 곳이고, 또 손바닥 중심은 소양(少陽) 상화(相火)가 관장하는 곳이다. 토(土)는 나를 낳을 수 있고 화(火)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 내가 태어나는 것은 모두 습토(濕土)와 양화(陽火)의 변화에 의존한다. 그 러므로 생기는 곳은 반드시 손바닥이다." 의원이 말하였다. "그렇구나! 다만 그 형태가 움직임은 알되 고요함은 모르고 나아갈 수는 있되 물러날 수는 없으니, 진실로 청기(淸氣)가 변한 것은 아니다. 또한 비(脾)는 소화하여 흡수하는 일을 주관하고 위(胃)는 소화시켜 전해주는 일을 주관한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중에 습(濕)과 열(熱)이 모두 변화하여 이 피부병을 낳는다. 또한 청기(淸氣)는 맥을 따라 순환하지만, 탁기는 머물러 정체되어 흘어지지 않고 기육에 머물러 여러 날 풀리지 않다가 뒤이어 열이 생기고 가려움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렵고 열이 나

는 중에서 습(濕)과 화(火)가 뒤섞여 벌레가 되는데, 형태는 습(濕)을 따라 변화하고 움직임은 화(火)를 따라 변화하니, 이는 무정물이 유정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미 변화한 후에는 피부(皮膚)에 잠복하여 반복해서 공격하니, 가려움을 발생시키며 찌르고 뚫으니,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생기고 또 생기면서 사지(肢體)에 두루 전해진다. 얼마 되지 않으면 개선(疥癬)으로 변하고 오래되면 완고한 풍(風)이 된다. 많은 경우 피부(皮膚)를 마르고 거칠게 하며 혈맥(血脈)에 스며들어 한없이 가려워 긁게 하니, 탕약을 얻어야 비로소 풀린다. 외용약으로 수구환(綉毬丸)을 바르고 문지르면 가려움을 멈추고 벌레를 죽일 수 있고, 내복약으로 소풍산(消風散)을 복용하면 또한 풍(風)을 흩어뜨리고 혈(血)을 차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입맛을 절제하고 맵고 뜨거운 것을 입에 대지 말며 뜨거운 물로 씻지 않으면 그 괴로움이 저절로 벗겨진다. 이는 작은 병이라 자세히 설명할 것까지는 없지만 한가한 틈에 말해둔다. ]

人生瘡生疥者，是不可在浴堂內，去浴必須在自家屋內。用〔蒼耳草半斤，苦蔘四兩，黃芪三兩，荊芥、甘草、防風、金銀花各一兩〕，水煮一大椀，乘熱薰之。外用席二條，裹在身上，用衣蓋之，使氣不散。俟稍涼浴之，必至湯寒而後已。一日再浴，將渣再煎，如前浴之。三日瘡疥，必自全愈也。 ○薰不可爲訓，恐引毒入藏府也。薰者，乃用<sup>6</sup>裹在紙內，或在火爐，同入<sup>7</sup>，薰於被內者是。切不可用之，不若洗浴之爲妙。〔（浴治）〕

창(瘡)이나 개(疥)가 생긴 사람은 목욕탕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목욕할 때는 반드시 자기 집 안에서 해야 한다. [ 창이초(蒼耳草) 반 근, 고삼(苦蔴) 4냥, 황기(黃芪) 3냥, 형개(荊芥) · 감초(甘草) · 방풍(防風) · 금은화(金銀花) 각 1냥. ] 이 약재를 물에 끓여서 큰 사발 하나 분량으로 만들어 뜨거울 때 훈증 한다. 자리 2개를 사용하여 몸을 둘러싸고 옷으로 덮어서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조금 식기를 기다렸다가 목욕하되 반드시 탕이 차가워질 때까지 한다. 하루에 2번 목욕하고 찌꺼기를 다시 달여서 앞서와 같이 목욕한다. 이렇게 3일이면 창(瘡)이나 개(疥)가 분명 저절로 완전히 낫는다. ○ 훈증법은 치료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독을 장부(臟腑) 안으로 끌어들일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훈증법이라는 것은 약을 종이로 싸거나 화로 속에 넣고, 환자를 함께 두어 옷 속으로 약기운이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절대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씻어서 목욕하는 방법의 오묘한 효과보다 못하다.

[ (〈욕치(浴治)〉) ]

感輕之症，病未深入榮衛，故從皮毛上治之也。如病疥瘡，是此等症，不必用湯藥。疥瘡用 [ 輕粉一錢，油胡桃末三錢，不去油，豬板油三錢，白薇二錢，防風末、蘇葉各一錢 ]。搗成圓如彈子大，搽瘡處。一日即愈。 [ ( 皮治 ) ]

증상이 가벼울 때는 병이 아직 영위(榮衛)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모(皮毛)에서부터 치료한다. 예를 들어 개창(疥瘡)과 같은 병이 이런 종류로, 반드시 탕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개창(疥瘡)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 경분(輕粉) 1돈, 호두 ( 기름이 나와 검게 된 호두.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가루

낸다 ) 3돈, 저판유(猪板油) 3돈, 백미(白薇) 2돈, 방풍(防風) ( 가루 ) · 소엽  
(蘇葉) 각 1돈. ] 이 약재를 찧어서 탄자 크기만 하게 환을 빚어 환부에 바른  
다. 하루 만에 곧 낫는다. [ (〈피치(皮治)〉) ]

硫黃膏。 [ 硫黃、白付子<sup>8</sup>、巴豆去皮油、石雄黃、黃丹 ]。右細末，各等分，胡  
麻油入蠟作膏，調末藥塗二三日。不近面上與下部近陰處。若搽則痛甚，卽洗滑  
石湯或白薇益元散。 [ 洗之累驗。 ]

유황고(硫黃膏). [ 유황(硫黃) · 백부자(白附子) · 파두(巴豆) ( 껌질을 제거하  
고 기름을 뺀다 ) · 석웅황(石雄黃) · 황단(黃丹). ] 이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각각 같은 양씩 쓴다. 참기름 넣은 밀랍으로 고약을 만든 뒤 가루약을 섞어 2  
- 3일 동안 바른다. 얼굴과 아래쪽 음부 근처에는 바르지 않는다. 만약 바르  
고 나서 통증이 심하면 즉시 활석탕(滑石湯)이나 백미익원산(白薇益元散)으  
로 씻는다. [ 이렇게 씻고 여러 차례 효험을 보았다. ]

## 癰 선

皮上住頑癰，終歲經年，服藥無效，擦治無功。用刀削去其頑癰一塊之皮，用前  
生肌癰瘤藥<sup>9</sup>敷五錢摻之，必癰不可當。削亦不十分疼<sup>10</sup>，當用麻藥與飲，使人  
不知，然後用刀。摻麻藥方開後。 [ 羊躑躅三錢，茉莉花根、當歸各一錢，石菖  
蒲三分 ]，水煎服。一椀卽人如睡寢。在<sup>11</sup>人刀割，不痛不痒。換皮後三日，以  
[ 人蔘、茯苓各五錢，甘草三錢，半夏、白薇各一錢，石菖蒲、陳皮各五分 ]，  
煎服卽醒。 [ ( 碎治 ) ]

피부 위에 완고한 선(癬)이 자리 잡아 여러 해 동안 약을 먹거나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치료한다. 칼을 사용하여 그 완고한 선(癬)의 피부 한 덩어리를 깎아낸다. 그리고 앞서 말한 '살을 돋게 하는 약' 5돈을 뿌려준다. 약을 바르면 필시 견딜 수 없도록 가렵게 된다. 피부를 깎아낼 때도 분명 매우 아프다. 그러므로 마땅히 마취약을 마시게 하여 환자가 알지 못하게 한 후에 칼로 깎아내야 한다. 마취약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양척축(羊躑躅) 3돈, 말리화근(茉莉花根) 1돈, 당귀(當歸) 1돈, 석창포(石菖蒲)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사발을 복용하면 즉시 사람이 잠든 것과 같아진다. 사람을 시켜 칼로 깎아내도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피부가 새로 돋고 3일 뒤에 다음 약재를 달여서 복용하면 즉시 깨어난다. [ 인삼(人蔘) · 복령(茯苓) 각 5돈, 감초(甘草) 3돈, 반하(半夏) · 백미(白薇) 각 1돈, 석창포(石菖蒲) · 진피(陳皮) 각 5푼. ] [ (〈쇄치(碎治)〉) ]

## 火丹、砂疹 화단

火氣熱甚，蘊蓄日久，則熱勢益盛，往往爲火丹之症，或發砂疹是也。若不急爲達之，則火勢燎原，立刻灰盡。方用 [ 元蔘八兩，葛根、黃芪各三兩，青蒿二兩，升麻三錢 ]，水煎服。 [ ( 達治 ) ]

화기(火氣)로 심해진 열이 오랫동안 쌓이고 축적되면 열(熱)의 기세가 더욱 왕성해져서 종종 화단(火丹)의 증상이 되거나 사진(砂疹)이 발생한다. 만약 급히 발산시키지 않으면 화(火)의 기세가 들불처럼 번져 즉시 재가 되어버린

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현삼(玄蔴) 8냥, 갈근(葛根) · 황기(黃芪) 각 3냥, 청호(青蒿) 2냥, 승마(升麻) 3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달치(達治)〉) ]<sup>12</sup>

目中不會多見，此方實奇而當。予更增一方，亦可少佐高深。固本散。[ 白芍、元蔴、麥冬、荊芥、生地、炒梔子各三錢，柴胡、丹皮、天花粉各二錢，防風一錢 ]，水煎服。[ (達治) ]

달치(達治) 방법을 직접 본 적이 많지 않으나, 이 처방은 실로 기이하면서도 적절하다. 나 역시 처방 하나를 덧붙이니, 이 또한 심오한 이치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고본산(固本散). [ 백작약(白芍藥) · 현삼(玄參) · 맥문동(麥門冬) · 형개(荊芥) · 생지황(生地黃) · 치자(梔子) (볶는다) 각 3돈, 시호(柴胡) · 단피(丹皮) · 천화분(天花粉) 각 2돈, 방풍(防風)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달치(達治)〉) ]

治火丹神效。[ 絲瓜子、玄蔴各一兩，當歸五錢，柴胡、升麻各一錢 ]，水煎服。一劑卽消。[ (達治) ]

화단(火丹)을 치료하는 데 신효한 처방. [ 사과자(絲瓜子) · 현삼(玄蔴) 각 1냥, 당귀(當歸) 5돈, 시호(柴胡) · 승마(升麻)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증상이 사라진다. [ (〈달치(達治)〉) ]

## 紫白癩風 자전풍 · 백전풍

凡人生紫癩風白癩風者，乃暑熱之時，人不知而用日晒之手巾，擦其身中之汗，便成此病，最無害而最難愈。方用 [ 黃芪三兩，蒼耳子一兩，防風三錢 ]，各爲末，水打成丸。米湯每日早晨送下三錢。一料服完必愈。〔(皮治)〕 ○沐髮，米泔水洗之，則生紫白癩風。〔(本草)〕

무릇 사람이 자전풍(紫癩風)이나 백전풍(白癩風)에 걸리는 이유는, 더위가 심한 때에 환자가 모르고 햇볕에 말린 수건을 사용하여 몸의 땀을 닦았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 가장 해롭지 않으나 가장 낫기 어렵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황기(黃芪) 3냥, 창이자(蒼耳子) 1냥, 방풍(防風) 3돈. ] 이 약재를 각각 가루 내어 물로 반죽하여 환을 빚는다. 매일 이른 아침에 3돈씩 미음으로 복용한다. 1료(料)를 복용하면 반드시 낫는다. [ (〈피치(皮治)〉) ] ○ 머리를 감을 때 쌀뜨물로 씻으면 자전풍이나 백전풍이 생긴다. [ (《본초(本草)》) ]

黃水瘡。凡毒水流入何處，卽生大水疱瘡，卽爲黃水瘡，手少動之卽破。此熱毒鬱於皮毛也，當以湯洗之卽愈。方用 [ 雄黃、防風各五錢 ]。二味用水十椀，煎數沸，去渣取汁，洗瘡上卽愈。〔(皮治)〕

황수창(黃水瘡). 무릇 독수가 어느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즉시 큰 수포창이 생기니, 이것이 바로 황수창이다.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즉시 터진다. 이는 열독(熱毒)이 피모(皮毛)에 옮체된 것이니, 마땅히 탕액으로 씻으면 바로 낫는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응황(雄黃) · 방풍(防風) 각 5돈. ] 이 2가지 약재를 물 10사발에 넣고 몇 소끔 끓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즙을 취하여 창상을 씻으면 바로 낫는다. [ (〈피치(皮治)〉) ]

癰瘡，以暑氣傷熱而生也。有雪水洗之更佳，隨洗隨減。如不能得，有一方最妙，用〔黃瓜〕切成片，擦之即愈。〔(皮治)〕

비창(癰瘡)은 더운 날씨에 열(熱)에 상하여 생긴다. 눈 녹은 물로 씻으면 더욱 좋은데, 씻는 대로 곧 사라진다. 만약 눈 녹은 물을 구할 수 없다면 다음 처방이 가장 신묘하다. [황과(黃瓜)를] 썰어 조각낸다. 이것으로 문지르면 곧 낫는다. [〔〈피치(皮治)〉〕]

## 麻木 馬목

動治者，因其不同<sup>13</sup>而故動之也。如兩足<sup>14</sup>麻木，不能履地，兩手不能執物者是也。法當用竹筒一大筒，去其中間之節，以圓木一根穿入之，以圓木兩頭縛在桌脚下。病人脚心先蹈竹筒而圓轉之如蹈車者，一日不計其數而蹈之，然後以湯藥與之。方用活潑湯。〔薏苡仁、白朮各五錢，黃芪、茯苓、白芍各三錢，人蔘、當歸、半夏各一錢，陳皮五分，肉桂三分〕，水煎服。此方俱是補藥之中，妙有行濕之味。蓋此等病，必濕氣浸之，始成偏癱，久則不仁之症成也，成則雙足自然麻木。乘其尚有可動之機，因而活動之，從來足必動，而治血始活。因濕浸之，遂不能伸縮如意，所以必使之動，而後可以藥愈也。否則，徒飲煎湯<sup>15</sup>耳。只兩手之動，又不如是，必使兩人反轉病人之手在背後，以木梃轉捶之，捶至兩臂酸麻，而後可以湯藥與之可愈。方用轉動湯。〔黃芪五錢，茯苓三錢，人蔘、防風、半夏、羌活各一錢〕，水煎服。〔(動治)〕

동치(動治)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치료 방법이다. 양쪽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고 양쪽 팔이 마비되어 물건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치료해야 한다. 대나무 통 하나를 구하여 그 중간의 마디를 제거하고 둑근 나무 1개를 그 안에 꿰어 넣는다. 그 다음 둑근 나무의 양쪽 끝을 턱자 다리 아래에 묶는다. 환자가 발바닥으로 먼저 대나무 통을 밟고 둑글게 굴리기를 수레를 밟는 것처럼 하되 하루에 그 횟수를 헤아리지 말고 밟게 한 후 탕약을 복용하게 한다. 처방은 활발탕(活潑湯)을 사용한다. [ 의이인(薏苡仁) · 백출(白朮) 각 5돈, 황기(黃芪) · 복령(茯苓) · 백작약(白芍藥) 각 3돈, 인삼(人蔘) · 당귀(當歸) · 반하(半夏) 각 1돈, 진피(陳皮) 5푼, 육계(肉桂)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의 약재는 모두 보약이고 오묘하게도 그 속에 습(濕)을 운행시키는 약재를 두었다. 대개 이런 병은 반드시 습기가 침범하여 생긴다. 처음에는 몸 한쪽이 마비되고, 오래되면 감각이 둔해지며, 결국에는 양쪽 발이 자연히 마비된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움직여 주어야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반드시 움직여지고 혈(血)이 다스려져 비로소 잘 순환하게 된다. 습(濕)이 침범하여 마침내 뜻대로 굽히고 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움직여 준 뒤에야 약으로 낫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탕약만 마시게 될 뿐이다. 다만 두 팔을 움직이게 할 때는 이와 같지 않다. 반드시 두 사람에게 환자의 손을 반대로 돌려 등 뒤에 두게 하고, 나무 몽둥이로 팔 여기저기를 돌아가며 두드린다. 두 팔이 시큰거리고 저릴 때까지 두드린 후에야 탕

약을 복용하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다. 처방은 전동탕(轉動湯)을 사용한다.

[ 황기(黃芪) 5돈, 복령(茯苓) 3돈, 인삼(人蔘) · 방풍(防風) · 반하(半夏) · 강

활(羌活)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동치(動治)〉) ]

二症尤當。使人抱起坐了，以一人有力者，將其手延拳回者不已，後服前藥更妙。 [ (動治) ] [ (手部參看) ]

다음 방법도 위 2가지 증상에 합당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환자를 안아서 일으켜 앓게 하고, 힘 쓰는 사람 1명이 환자의 손을 펴다 줬었다 하기를 그치지 않게 한 후에 앞의 약을 복용하면 더욱 요묘하다. [ (〈동치(動治)〉) ]

[ (〈수부(手部)〉를 참고하여 보라) ]

1. 腺破 ☞ 腺破 ※《동의보감》 ←

2. 斑 : 원서에는 '斑'을 모두 '班'으로 표기하였다.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고 원문을 '斑'으로 수정하였다. ←

3. 揚首 ☞ 揚手 ※《석실비록》 ←

4. 青癩 ☞ 赤癩 ※《동의보감》 ←

5. 入 ☞ 又 ※《외과정종》 ←

6. 用 ☞ 用藥 ※《석실비록》 ←

7. 入 ☞ 人 ※《석실비록》 ←

8. 白付子 ☞ 白附子 ※문맥상 ←

9. 生肌癰瘍藥 『生肌藥』※《석실비록》 ←

10. 削亦不十分疼 『削亦十分疼』※문맥상 ←

11. 在 『任』※《석실비록》 ←

12. 《석실비록》에는 이 문장에 앞서 다음과 같이 달치(達治)를 설명하였다.

"달치(達治)는 화(火)가 가슴 속에 울체되어 흘어지지 않을 때 이를 쫓아 밖으로 발산시키는 방법이다. 鬱於胸中而不得散, 因而達之外也" ←

13. 同 『動』※《석실비록》 ←

14. 兩足 『雙腳』※《석실비록》 ←

15. 煎湯 : 前湯 ※《석실비록》 ←

## † 筋 근

筋屬肝。 [內經曰，肝主筋。 ○又曰，肝主身之筋膜。（得效） ○肝在體爲筋，筋者肝之合也。又曰，肝病驚駭筋攣。（得效）]

근은 간에 속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간(肝)은 근(筋)을 주관한다." ○또 말하였다. "간이 몸의 근막(筋膜)을 주관한다." (《득효(得效)》) ○ 몸에서 간에 해당하는 것은 근으로, 근은 간의 짹이다. 또 말하였다. "간이 병 들면 놀라고 근에 경련이 일어난다." (《득효(得效)》) ]

宗筋。 [內經曰，主束骨而利機關也。註曰，宗筋謂陰毛中橫骨上下之豎筋也。上絡胸腹，下貫髓尻。又經於背腹上頭項，故云宗筋也。]

종근(宗筋).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종근(宗筋)은 뼈를 묶어주고 관절을 원활하게 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종근이란 음모 가운데 횡골(橫骨)의 위아래로 뻗어 있는 근육을 말한다. 위로는 가슴과 배에 연결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엉치를 관통한다. 또 등과 배를 거쳐 머리와 목에 이른다. 그러므로 종근이라고 한다." ]

筋急筋緩。 [內經曰，濕熱不攘，大筋綰短，小筋弛長。綰短爲拘，弛長爲痿。註曰，大筋受熱則縮而短，小筋得濕則引而長。縮短故拘攣而不伸，引長故痿弱而無力。 ○靈樞曰，筋之病，寒則反折筋急，熱則筋弛縱不收，陰痿不用。寒

急用燔鍼，熱弛無用燔鍼。 ○脈不榮則筋急。仲景云，血虛則筋急。此皆血脈不榮於筋而成攣，故丹溪治攣，用四物湯（方見下）加減，本事方治筋急，用養血地黃元，蓋本乎此也。（綱目）】

근(筋)의 긴장과 이완.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습열(濕熱)을 물리치지 못하면 큰 근(筋)은 오그라들어 짧아지고, 작은 근(筋)은 늘어져서 길어진다. 오그라들어 짧아지는 것을 '구(拘)'라고 하고, 늘어져서 길어지는 것을 '위(痿)'라고 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큰 근(筋)이 열을 받으면 수축하여 짧아지고, 작은 근(筋)이 습(濕)을 받으면 늘어나서 길어진다. 수축하여 짧아지므로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고, 늘어나서 길어지므로 늘어져서 힘이 없다." ○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근(筋)이 병들었을 때, 한(寒) 때문이면 몸을 뒤로 젖히고 근이 팽팽해지며, 열(熱) 때문이면 근이 이완되어 수축되지 않고 음위(陰痿)가 생겨 쓸 수 없다. 한(寒) 때문에 팽팽해졌을 때는 번침(燔鍼)을 쓰고, 열(熱) 때문에 이완되었을 때는 번침을 쓰지 않는다." ○ 맥(脈)이 충분히 길려주지 못하면 근(筋)이 팽팽해진다. 중경(仲景)은 "혈(血)이 허하면 근이 팽팽해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혈맥(血脈)이 근을 충분히 길려주지 못하여 오그라든 것이다. 그러므로 단계(丹溪)가 구련(拘攣)을 치료할 때 사물탕(四物湯) (처방은 아래 있다)을 가감하여 사용하였고, 《본사방(本事方)》에서 근급(筋急)을 치료할 때 양혈지황원(養血地黃元)을 사용하였으니 여기에 근거한 것 같다. (《강목(綱目)》) ]

筋脈者，一身之筋，通體之脈也，不可有病。病則筋縮而身痛，脈濇而體重矣。然筋之舒，在於血和，而脈之平，在於氣足。故治筋必須治血，而治脈必須補氣。人若筋急拳縮<sup>1</sup>，僵僂而不能俯仰<sup>2</sup>，立而不能直<sup>3</sup>者，皆筋病也。方用 [當歸一兩，白芍、薏苡仁、生地、元參各五錢，柴胡一錢]，水煎服。 [ (筋治) ]

근맥(筋脈)이란 온몸의 근(筋)과 전신의 맥(脈)으로, 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병이 들면 근(筋)이 수축되어 몸이 아프고 맥(脈)이 잘 흐르지 못해 몸이 무거워진다. 그런데 혈(血)이 조화로워야 근(筋)이 펴질 수 있고, 기(氣)가 충분해야 맥(脈)이 평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筋)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혈(血)을 치료해야 하고, 맥(脈)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기(氣)를 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약 근육이 팽팽해져 오그라들면, 몸이 굽어져 설 수 없고 몸을 굽히거나 젖힐 때 곧게 되지 않으니 이는 모두 근(筋)의 병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당귀(當歸) 1냥, 백작약(白芍藥) · 익이인(薏苡仁) · 생지황(生地黃) · 현삼(玄蔴) 각 5돈, 시호(柴胡)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근치(筋治)〉) ]

筋脈之治，予尙有一奇方傳世。用 [熟地二兩，芍藥一兩，白朮五錢，當歸三錢，柴胡、肉桂、白芥子各一錢]，水煎服。 [ (筋治) ]

나도 근맥(筋脈)을 치료할 때 쓰는 신기한 처방 하나를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 전한다. [ 숙지황(熟地黃) 2냥, 작약(芍藥) 1냥, 백출(白朮) 5돈, 당귀(當歸) 3돈, 시호(柴胡) · 육계(肉桂) · 백개자(白芥子)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근치(筋治)〉) ]

血脉不足之症，任督陰陽歸<sup>4</sup>經絡不足，或毛髮之乾枯，鬚髮之雕落<sup>5</sup>，或色澤之不潤，或相貌之憔悴是也。此等之症，人以爲氣之衰也，誰知血之竭乎。法當補其血，而血不可驟補也，須緩緩補之。加味四物湯。〔熟地黃四錢，白芍、何首烏各三錢，當歸、川芎各一錢，白菓五個，桑葉七撮<sup>6</sup>〕，水煎服。〔(脈治)〕

혈맥부족(血脉不足)의 증상은 임맥(任脈)·독맥(督脈)·음맥(陰脈)·양맥(陽脈)의 각 경락이 부족하여 생기는데, 모발이 마르고 가늘어지며 수염이나 머리카락이 시들어 떨어지거나, 얼굴 색이 윤택하지 않거나, 얼굴이 초췌한 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을 사람들은 기가 쇠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니, 누가 혈(血)이 고갈되었기 때문임을 알겠는가. 치법은 마땅히 그 혈을 보해야 하는데, 혈은 갑자기 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천천히 보해야 한다.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을 쓴다. [숙지황(熟地黃) 4돈, 백작약(白芍藥)·하수오(何首烏) 각 3돈, 당귀(當歸)·천궁(川芎) 각 1돈, 백과(白果) 5개, 상엽(桑葉) 7장.]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맥치(脈治)〉〕]

脈治法。〔當歸、熟地各一兩，白芍、生地、麥冬、天冬各三錢，枸杞子二錢，旱蓮草一錢，萬年青、花椒各三分。〕

맥치법(脈治法)。〔당귀(當歸)·숙지황(熟地黃) 각 1냥, 백작약(白芍藥)·생지황(生地黃)·맥문동(麥門冬)·천문동(天門冬) 각 3돈, 구기자(枸杞子) 2돈, 한련초(旱蓮草) 1돈, 만년청(萬年青)·화초(花椒) 각 3푼.〕

清治者，不可用涼藥，又不可用溫補，乃改用清平之劑，故曰清治。此等病，必是肺氣之燥。肺金之氣一燥，即有意外之虞，若不急治，必變成肺痿、肺癰等症。蓋燥極成火，自宜用涼藥矣。此不可涼藥者何。肺居上流，用涼藥以寒肺，

或藥不能遞入於肺中，勢必趨於脾胃，肺之熱未除，而胃口反成虛冷之症，必致下瀉，瀉久而胃口無生氣矣。胃既無生氣，又何能生肺金而養肺氣哉。故不若用清平之味，平補胃口，而上清肺金之氣之爲得也。方用清肺益金湯。[麥冬五錢，元參三錢，桔梗、天冬、紫菀、款冬花、貝母、蘇子、甘草各一錢]，水煎服。[(清治)]

청치(清治)란 서늘한 성질의 약을 쓸 수도 없고 또한 따뜻하게 보하는 성질의 약을 쓸 수도 없어서, 이에 무난한 성질의 처방으로 바꾸어 쓰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므로 '청치'라고 한다. 이런 병에는 분명 폐기(肺氣)가 조(燥)한 경우가 있다. 폐금(肺金)의 기운이 한번 건조하게 되면 곧 뜻밖의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만약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폐위(肺痿)·폐옹(肺癰) 등의 증상으로 변하게 된다. 대개 조(燥)가 극에 달하면 화(火)가 되므로 서늘한 성질의 약을 써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서늘한 성질의 약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폐(肺)는 물길로 비유하면 상류(上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서늘한 약으로 폐(肺)를 차게 하면, 더러 약이 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기세가 반드시 비위(脾胃)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 폐의 열은 제거되지 않고 위구(胃口)가 도리어 허냉(虛冷)하게 되어 반드시 설사하게 된다. 설사가 오래되면 위구(胃口)에서 기(氣)가 생겨나지 않는다. 위(胃)에서 이미 기(氣)가 생겨나지 못하면 어떻게 토기(土氣)가 폐금(肺金)을 살려 폐기(肺氣)를 기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무난한 성질의 약재로 위구(胃口)를 적당히 보하고 위로 폐금의 기운을 맑게 하는 방법이 더 낫다. 처방으로는 청폐익금탕(淸肺

益金湯)을 쓴다. [ 맥문동(麥門冬) 5돈, 현삼(元蔴) 3돈, 길경(桔梗) · 천동(天冬) · 자완(紫菀) · 관동화(款冬花) · 패모(貝母) · 소자(蘇子) · 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청치(清治)〉) ]

### 四物湯 사물탕

- [ ( 方見胞門 ) ]
- [ ( 처방은 《포문(胞門)》에 있다. ) ]

### 養血地黃元 양혈지황원

- [ ( 方見綱目 ) ]
- [ ( 처방은 《강목(綱目)》에 있다. ) ]

1. 拳縮 『 蟒縮 ※《석실비록》 ←
2. 僵僂而不能俯仰 『 僵僂而不能立 ※《석실비록》 ←
3. 立而不能直 『 俯仰而不能直 ※《석실비록》 ←
4. 歸 『 各 ※《석실비록》 ←
5. 離落 『 凋落 ※《석실비록》 ←
6. 水 『 片 ※《석실비록》 ←



## † 手 팔

手領肩臑肘臂腕。 [ 項傍缺盆之上曰肩。 ○肩下臂上，通名曰臑。 ○臑下臂上接處曰肘，肘卽臂節也。 ○肘下掌上曰臂，臂有二骨。 ○臂下掌上節處曰腕。 又曰，掌後曰腕。 ( 銅人 ) ○肢脰者，人之管以趨上者也。 ( 靈樞 ) ]

팔은 어깨 · 팔죽지 · 팔꿈치 · 팔뚝 · 손목을 아우른다. [ 목덜미 옆, 결분(缺盆)의 위를 어깨(肩)라고 한다. ○ 어깨 아래에서 팔뚝 위를 통칭하여 팔죽지(臑)라고 한다. ○ 팔죽지 아래부분과 팔뚝 윗부분이 만나는 곳을 팔꿈치(肘)라고 한다. 팔꿈치는 팔의 관절이다. ○ 팔꿈치 아래에서 손바닥 위까지를 팔뚝(臂)이라 한다. 팔뚝에는 뼈가 2개 있다. ○ 팔뚝 아래부분과 손바닥 윗부분의 마디를 손목(腕)이라 한다. 또, "손바닥 위를 손목이라 한다"고도 하였다. (《동인》) ○ 팔과 다리는 사람을 달리고 움직이게 한다. (《영추(靈樞)》) ]

手掌以候胃。 [ 靈樞曰，掌中熱者腹中熱，掌中寒者腹中寒。 ○胃中寒則手魚際之絡多青，胃中有熱則魚際之絡赤。 其暴黑者，久留痺也。 其有赤有黑有青者，寒熱氣也。 ( 靈樞 ) ○傷寒，手心熱者邪在裏也，手背熱者邪在表也。 手足溫者陽證也，手足冷者陰證也。 ( 回春 ) ]

손바닥으로 위(胃)를 살핀다.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손바닥 가운데가 뜨거우면 배 속이 뜨겁고, 손바닥 가운데가 차가우면 배 속이 차다." ○ 위(胃) 속이 차가우면 손 어제(魚際) 부위의 락맥(絡脈)이 대부분 푸르고, 위(胃)

속이 뜨거우면 어제(魚際) 부위의 락맥(絡脈)이 붉다. 그곳이 갑자기 검어지면 사기(邪氣)가 오래 머물러 비증(痺證)이 생긴 것이다. 그곳이 붉기도 하고, 검기도 하며, 푸르기도 한 것은 한기(寒氣)와 열기(熱氣) 때문이다. (《영추(靈樞)》) ○ 상한(傷寒)에서 손바닥 가운데가 뜨거운 것은 사기(邪氣)가 속에 있는 것이고, 손등이 뜨거운 것은 사기가 곁에 있는 것이다. 손발이 따뜻한 것은 양증(陽證)이고, 손발이 찬 것은 음증(陰證)이다. (《회춘(回春)》) ]

兩臂痛與兩肩膊痛，用 [ 黃酒二升，當歸三兩，白芍二兩，柴胡、陳皮各五錢，羌活、半夏、白芥子、秦艽各三錢，附子一錢 ]。水煎取汁，入黃酒內。一醉爲度。 [ ( 完治 ) ]

양쪽 팔뚝이 아플 때, 그리고 양쪽 어깨와 팔죽지가 아플 때 다음 처방을 쓴다. [ 황주(黃酒) 2승, 당귀(當歸) 3냥, 백작약(白芍藥) 2냥, 시호(柴胡) · 진피(陳皮) 각 5돈, 강활(羌活) · 반하(半夏) · 백개자(白芥子) · 진교(秦艽) 각 3돈, 부자(附子)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취한 즙을 황주 속에 넣는다. 1번 취할 정도로 마신다. [ (〈완치(完治)〉) ]

手足疼痛者，以一人抱住身子，以兩人兩腿夾住，左右各足一條，輕輕搘<sup>1</sup>之千數，覺兩足少快，然後以手執其三里之間，少爲推伸之<sup>2</sup>者七次，放足。執其兩手，捻之者千下而後已，左右手各如是。一日之間，而手足之疼痛可已。 [ ( 摩治 ) ]

팔이나 다리가 아플 때 다음 방법을 쓴다. 한 사람이 몸을 안고, 두 사람이 두 다리를 각각 한 다리씩 좌우에서 붙잡는다. 그리고 천 번 정도 가볍게 두드린다. 두 다리가 조금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면, 그 후에 손으로 환자의 삼리(三

里) 사이를 잡고 조금씩 밀어서 펴주기를 7번 한 다음 다리를 놓는다. 환자의 두 팔을 잡고 천 번 정도 비벼준 뒤에 그만두는데, 좌우 팔을 각각 이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 사이에 팔과 다리의 통증을 그치게 할 수 있다.

[ (〈마치(摩治)〉) ]

如人手足痛者，人以爲脾經之熱，不知非脾也，乃肝木之鬱結也。散其鬱氣，則手足之痛自去。方用逍遙散加 [ 桐子三錢，白芥子、半夏各二錢 ]，水煎服。二劑卽痛如失。 [ ( 偏治 ) ]

누군가 팔이나 다리가 아픈 경우, 사람들은 비경(脾經)의 열 때문이라고만 여기고 비(脾) 때문이 아닌 경우는 알지 못한다. 이는 간목(肝木)의 울결(鬱結) 때문에도 생긴다. 그 울기(鬱氣)를 흩어주면 팔이나 다리의 통증이 저절로 사라진다. 처방은 소요산(逍遙散)에 [ 치자(梔子) 3돈, 백개자(白芥子) · 반하(半夏) 각 2돈을 ] 더하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2제(劑)를 복용하면 즉시 통증이 사라진다. [ (〈편치(偏治)〉) ]

如手之麻木，乃氣虛而風濕中之，必須用手經之藥，引入手中，而去風去濕之藥，始能有效，否則亦甚無益。倘舍外形之可據，而求內象之無端，無怪其不相入也。方用逐風湯。 [ 白朮、黃芪各五錢，人蔘二錢，甘草一錢，防風、陳皮、桂枝各五分 ]，水煎服。 [ ( 形治 ) ]

손이 뻣뻣한(麻木) 증상은 기(氣)가 허한 상태에서 풍습(風濕)이 침입하여 생긴다. 반드시 수경(手經)에 해당하는 약을 사용하여 손 속으로 약기운을 끌어들이고, 풍(風)과 습(濕)을 제거하는 약을 써야 비로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무익하다. 만약 근거할 만한 외형(外形)을 버리고 단서

없는 내상(內象)을 구한다면, 증상과 치법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sup>3</sup> 처방으로는 축풍탕(逐風湯)을 사용한다. [ 백출(白朮) · 황  
 기(黃芪) 각 5돈, 인삼(人蔘) 2돈, 감초(甘草) 1돈, 방풍(防風) · 진피(陳皮) ·  
 계지(桂枝) 각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형치(形治)〉) ]

如雙脚麻木，不能履地。 [ ( 方見皮部 ) ]

양쪽 다리가 마비되어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경우. [ ( 처방은 <피부(皮  
 部)>에 있다. ) ]

手瓜占病。 [ 內經曰，肝之合筋也，其榮爪也。 ○肝熱者色蒼而爪枯。 ( 內  
 經 ) ○病人爪甲白者不治。 ○病人爪甲青者死。 ○病人手足爪甲下肉黑者  
 八日死。 ○病人手掌腫無文者死。 ( 扁鵲 ) ]

손톱으로 병의 예후를 아는 방법. [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간(肝)은 근  
 (筋)과 짹이 되고, 간의 상태는 손톱에 나타난다." ○간에 열이 있는 자는 안  
 색이 푸르고 손톱이 마른다. (《내경(內經)》) ○환자의 손톱이 희면 치료하  
 지 못한다. ○환자의 손톱이 푸르면 죽는다. ○환자의 손발톱 아래 살이 검으  
 면 8일 후에 죽는다. ○환자의 손바닥이 부어서 손금이 사라지면 죽는다.  
 (《편작(扁鵲)》) ]

<sup>1</sup>. 捶 :捶 ※《석실비록》 ↪

<sup>2</sup>. 推伸之 :伸之 ※《석실비록》 ↪

<sup>3</sup>. 《석실비록》에는 현재 조문 앞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더 있다. 이해를 돋기

위해 덧붙인다. "형치(形治)란, 사지(四肢)와 두면(頭面)에 형체를 근거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눈이 아픈 것을 보면 눈을 치료하고, 머리가 아픈 것을 보면 머리를 치료하며, 팔이 아픈 것을 보면 팔을 치료하고, 다리가 아픈 것을 보면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 병이 형상으로 드러나는데, 어찌 굳이 무형(無形)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형치에서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느 경락의 병인지 살피고, 어느 경락의 약을 쓰면 자연히 효과가 나타난다. 形治者，四肢頭面有形可據而治之也。如見其目痛則治目，見其頭痛則治頭，見其手痛則治手，見其腳痛則治腳也。其病見之形象，何必求之於無形，此形治之宜審也。審何經之病，用何經之藥，自然效應。" ←

## † 足 다리

足領髀股膝膕腨脛腕。 [ 膝上曰髀，膝上骨曰體骨，髀骨與骭骨接處曰髀樞（穴名也），髀內曰股，髀外曰腿，腿下脛上接處曰膝，膝之蓋骨曰膕，膕下曰脛，一名骭，膝下之骨曰骻骨，骻骨之外骨曰輔骨，脛之後魚腹曰腨，一云足肚曰腨，脛下跗上接處曰腕<sup>1</sup>，腕骨<sup>2</sup>曰踝。（銅人） ○足通謂之脚，脚者却也，以其坐時却在後也。（回春）]

다리는 넓적다리·허벅지·무릎·종지뼈·장딴지·정강이·발목을 아우른다. 무릎 위를 '비(髀)'라 하고, 무릎 위의 뼈를 '비골(髀骨)'이라 한다. 비골과 관골(骭骨)이 만나는 곳을 '비추(髀樞)'(경혈 이름)라고 한다. 넓적다리 안쪽을 '고(股)'라 하고, 넓적다리 바깥쪽을 '퇴(腿)'라 한다. 대퇴의 아랫부분과 정강이 윗부분이 만나는 곳을 '슬(膝)'이라 한다. 무릎을 덮고 있는 뼈를 '빈(膕)'이라 한다. 무릎 아래를 '경(脛)'이라 하는데, '한(骭)'이라고도 한다. 무릎 아래에 있는 뼈를 '행골(骻骨)'이라 하고, 행골의 바깥에 있는 뼈를 '보골(輔骨)'이라 한다. 정강이 뒤에 물고기 배처럼 불룩한 것을 '천(腨)'이라 한다. 족두(足肚)를 천(腨)이라고 하기도 한다. 정강이 아랫부분과 발등이 만나는 곳을 '완(腕)'이라 하고, 발목 뼈를 '과(踝)'라고 한다. (《동인(銅人)》) ○ 다리를 통틀어 '각(脚)'이라 하는데, 각(脚)은 '각(却)'의 뜻으로, 앓을 때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이다. (《회춘(回春)》)

脚氣病因。[ 脚氣之疾，實水濕之所爲也。其爲病，有證無名，脚氣之稱，自蘇敬始，關中河朔無有也。惟南方地下水寒，其清濕之氣中於人，必自足始。故經曰，清濕襲虛，則病起於下，是也。 (綱目) ○南方者，其地下水土弱，霧露之所聚也。江東嶺南春夏之交，山林蒸鬱，風濕毒氣爲甚。足或感之，遂成瘴毒腳氣。 (東垣) ○水性潤下，氣不能喞，故下疰於足脛，積久而作腫痛，此飲食下流之所致也。內經曰，太陰之勝，火氣內鬱，流散於外，足脛跗腫，飲發於中，跗腫於下。加之房事不節，陰盛陽虛，遂成痼疾。 (東垣) ○內經曰，傷於濕者下先受之。蓋足居于下而多受其濕，濕鬱生熱，濕熱相搏，其病乃作。東南卑濕之地，比比皆是，西北高燥之地，鮮有之。古方名爲緩風，宋元以來呼爲脚氣。雖有外感內傷之殊，其濕熱之患則一也。 (正傳) ]

각기(脚氣)의 병인. 각기는 사실 수습(水濕)이 원인이다. [ 이 병에는 증상은 있으나 이름이 없었다. '각기'라는 명칭은 소경(蘇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황하 이북 지방에는 이 병이 없었다. 오직 남방에서만 지대가 낮고 물이 차가워서 그 차고 습한 기운이 사람에게 침입하여 생겨나니, 반드시 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경(經)에서 "차고 습한 기운이 허한 틈을 타고 침입하면 아래에서 병이 일어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강목(綱目)》) ○ 남방은 지대가 낮아 수질과 토질이 쇠약하고 안개와 이슬이 잘 모인다. 강동(江東)이나 영남(嶺南) 지방에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 산림의 증기(蒸氣)가 쌓여 풍습(風濕)으로 만들어진 독기(毒氣)가 심하다. 이것이 발에 침입하면 결국 장독각기(瘴毒腳氣)가 된다. (《동원(東垣)》) ○ 물의 성질은 적시며 내려가는 것인데 기(氣)가 훈훈하게 데우지 못하면 물의 기운이 정강이로 내려가 오래 쌓여 붓고 아프게 된다. 이것은 음식이 흘러내렸기 때문이다.<sup>3</sup> 《내경(內經)》

에서 말하였다. "태음이 왕성하여 화기(火氣)가 안에 쌓였다가 밖으로 흘어지면서 정강이가 붓고, 수음(水飲)이 속에서 발생하면 아랫 부분이 붓는다."<sup>4</sup> 여기에 더하여 방사(房事)가 절제되지 않으면 음(陰)은 치성한데 양(陽)은 허약하여 마침내 고질병이 된다. (《동원(東垣)》) ○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습에 상하면 아랫 부분이 먼저 사기(邪氣)를 받는다." 대개 발은 아랫 부분에 있어서 습을 많이 받는다. 습이 쌓이면 열을 생겨나니, 습과 열이 맞부딪쳐 병이 발생한다. 동남지방은 지대가 낮고 습한 지역이므로 이 병이 흔하고, 서북지방은 지대가 높고 건조한 지역이므로 이 병이 드물다. 고방(古方)에서 는 '완풍(緩風)'이라고 불렀고, 송원(宋元) 아래로는 '각기'라고 불렀다. 비록 외감(外感)과 내상(內傷)의 차이가 있으나, 습열 때문이라는 점은 같다. (《정전(正傳)》) ]

兩腿酸痛，又不如是治法。此濕氣入於骨中，而皮外無濕也。此病不止骨內而受濕氣，或披櫛<sup>5</sup>中得之也。方用壯骨去濕丹。 [ 薏苡仁二兩，芡實一兩，茯苓三錢，牛膝二錢，肉桂、萆薢各一錢 ]，水煎服。 [ ( 長治 ) ]

양쪽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플 때는 또한 이러한 치료법을 쓸 수 없다. 이것은 습기(濕氣)가 뼈 속으로 들어갔으나 피부 밖에는 습(濕)이 없는 것이다. 이 병은 뼈 안에서 습기(濕氣)를 받아서 뿐만 아니라, 이불 속에서 얹었을 수도 있다. 처방으로는 장골거습단(壯骨去濕丹)을 쓴다. [ 의이인(薏苡仁) 2냥, 검실(芡實) 1냥, 복령(茯苓) 3돈, 우슬(牛膝) 2돈, 육계(肉桂) · 비해(萆薢)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장치(長治)〉) ]

如人病在兩足之弱，步履不能，人以爲腎水之虧，不知非腎也，蓋氣虛不能運用耳。方用補中益氣湯，加 [ 黃芪一兩，石斛五錢，牛膝、人蔘各三錢 ] 治之。二劑足生力，四劑可以步履矣。 [ ( 偏治 ) ]

어떤 사람이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신수(腎水)가 부족하다고만 여기고 신(腎) 때문이 아닌 경우를 알지 못한다. 대개 기(氣)가 허하여 다리를 쓸 수 없을 뿐이다. 처방으로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 황기(黃芪) 1냥, 석곡(石斛) 5돈, 우슬(牛膝) · 인삼(人蔘) 각 3돈을 ] 더하여 치료한다. 이렇게 2제(劑)를 쓰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4제(劑)를 쓰면 걸을 수 있게 된다. [ (〈편치(偏治)〉) ]

脚痛之症，最多而最難治。蓋脚乃人身之下流，水濕之氣一犯，則停蓄不肯去，須提其氣，而水濕之氣，始可散也。今人動以五苓散治濕，亦是正經，然終不能上升而盡去其濕也。予今立一方，可以通治濕氣之侵脚者。方用升氣去濕湯。

[ 黃芪一兩，白芍、薏仁、芡實各五錢，人蔘、白朮各三錢，半夏二錢，防風、肉桂、柴胡各一錢，陳皮五分 ]，水煎服。 [ ( 形治 ) ]

다리가 아픈 증상은 아주 흔하지만 매우 치료하기 어렵다. 대개 다리는 인체의 하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수습(水濕)의 기운이 일단 침범하면 이곳에 정체되어 떠나려 하지 않으니, 반드시 그 기운을 끌어올려야 수습의 기운이 비로소 흩어질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곧잘 오령산(五苓散)으로 습을 치료하는데, 이 역시 정석이지만 끝내 위로 올려서 그 습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내가 이제 처방 하나를 만들었으니, 습기가 다리를 침범했을 때 두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처방은 승기거습당(升氣去濕湯)을 쓴다. [ 황기(黃芪) 1냥,

백작약(白芍藥) · 익이인(薏苡仁) · 검실(芡實) 각 5돈, 인삼(人蔘) · 백출(白朮) 각 3돈, 반하(半夏) 2돈, 방풍(防風) · 육계(肉桂) · 시호(柴胡) 각 1돈, 진피(陳皮)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형치(形治)〉) ]

如氣血全虧，一身多病，或頭痛未已，而身骨痛，或腹痛未已，而四肢盡痛是也。雖此等病，乃痿症居多，自宜專治陽明胃火。然胃火既盛，一身上下四肢，盡行消瘦，又不可專治胃經一門也。方用 [ 麥冬、熟地各一兩，薏仁、元蔘各五錢，茯苓、當歸、黃芪、白芍、白芥子各三錢，人蔘、甘菊各一錢，陳皮、神麴各五分 ]，水三大碗，煎一椀服。 [ (大治) ]

기혈(氣血)이 모두 허하여 온몸에 다양한 병이 있는 경우, 또는 머리가 아픈 것이 그치지 않고 몸의 뼈가 아픈 경우, 또는 배가 아픈 것이 그치지 않고 팔다리가 모두 아픈 경우가 이것이다.<sup>6</sup> 비록 이러한 병들이 있지만 위증(痿症)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마땅히 양명(陽明) 위(胃)의 화(火)를 전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위(胃)의 화(火)가 이미 치성하면 온몸의 위아래와 팔다리가 모두 수척해지므로, 또한 위경(胃經) 한 곳만 전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맥문동(麥門冬) · 숙지(熟地) 각 1냥, 익이인(薏苡仁) · 현삼(玄蔘) 각 5돈, 복령(茯苓) · 당귀(當歸) · 황기(黃芪) · 백작약(白芍藥) · 백개자(白芥子) 각 3돈, 인삼(人蔘) · 감국(甘菊) 각 1돈, 진피(陳皮) · 신곡(神麴) 각 5푼. ] 이 약재를 물 3큰사발로 1사발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대치(大治)〉) ]

凡人有兩足無力，不能起立，而口又健飯，如少忍饑餓，卽頭面皆熱，有咳嗽不已者，此亦痿症，乃陽明胃火，上沖於肺金，而肺金爲火所逼，不能傳清肅之氣於下焦，而腎水鑠乾<sup>7</sup>，骨中髓少，故不能起立。而胃火又焚燒，故能食善饑，久則水盡髓乾而死矣。可不急瀉其胃中之火哉。然而瀉火不補水，則胃火無所制，未易息也。惟用<sup>8</sup>起痿至神丹。[熟地、山藥、元蔘、甘菊各一兩，當歸、白芍各五錢，人蔘、白芥子各三錢，神麴二錢]。水煎服。一劑火減，二劑火退，十劑而痿有起色，三十劑可全愈也。[(內傷)]

무릇 사람이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식사를 잘 하지만 조금만 배고픔을 참으면 곧 머리와 얼굴에서 모두 열이 나며, 기침이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 역시 위증(痿症)이다. 이는 양명(陽明) 위(胃)의 화(火)가 위로 폐금(肺金)을 치받은 까닭에 생긴다. 이렇게 폐금이 화(火)에 팍박당하면 청숙(淸肅)한 기운을 하초(下焦)로 전달하지 못하고 신수(腎水)가 메말라 빠 속의 골수가 적어지므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胃)의 화(火)가 또한 불타올라 잘 먹고 쉽게 배고파하지만, 오래되면 물이 다하고 골수가 말라서 죽게 된다. 어찌 급히 그 위(胃) 속의 화(火)를 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화를 사하기만 하고 수(水)를 보하지 않으면 위화(胃火)를 제어할 것이 없어서 쉽게 꺼지지 않는다. 처방으로는 기위지신단(起痿至神丹)을 사용한다. 숙지황(熟地黃)·산약(山藥)·현삼(玄蔘)·감국(甘菊) 각 1냥, 당귀(當歸)·백작약(白芍藥) 각 5돈, 인삼(人蔘)·백개자(白芥子) 각 3돈, 신곡(神麴) 2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화(火)가 줄어

들고, 2제(劑)를 쓰면 화(火)가 물러가며, 10제(劑)를 쓰면 위증(痿症)이 회복의 기색을 보이고, 30제(劑)를 쓰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 [ (〈내상(內傷)〉) ]

痿症中有不是陽明之痿，不可不辨其症。亦不能起床，亦能善飯，亦骨無力不能起立，人以爲此痿症也，而不知非痿症也。此腎寒極，而火沸騰，似痿而非痿也。初起之時，未嘗不是陽明火熾而來，用寒涼折服之，則胃火息矣，而腎水煎乾。夜必咳嗽吐痰，而日間轉覺少輕。呻吟床席<sup>9</sup>，飲食少進<sup>10</sup>，更覺難堪。方用 [ 熟地二兩，元蔘、麥冬各一兩 ]，水煎服。若有肝火者，加 [ 白芍 ] 五錢，水煎服。四劑可以起床。後用六味<sup>11</sup>，大劑煎飲，加 [ 麥冬、熟地各一兩，山茱萸四錢，山藥、丹皮各三錢，澤瀉、茯苓各二錢，五味子一錢<sup>12</sup> ]，水煎服。

[ ( 偏治 ) ]

위증(痿症) 가운데 양명(陽明)의 위증이 아닌 것이 있으니, 그 증상을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고, 또 음식을 잘 먹으며, 또 뼈에 힘이 없어 설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위증이라고 여기지만, 위증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신(腎)에 한(寒)이 극심하여 화(火)가 끓어 오르는 것으로, 위증과 비슷하지만 위증이 아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는 역시 양명(陽明)의 화(火)가 치성하여 생긴다. 그런데 이때 한량한 약으로 병세를 꺾어 복종시키면 위(胃)의 화(火)는 식지만 신(腎)의 수(水)가 말라버린다. 밤만 되면 기침하며 가래를 뱉고, 낮에는 도리어 조금 가벼워진다. 침상에서 신음하며 음식을 조금 먹으니 더욱 견디기 어렵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숙지황(熟地黃) 2냥, 현삼(玄蔘) · 맥문동(麥門冬) 각 1냥.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

다. 만약 간(肝)에 화(火)가 있으면 [ 백작약(白芍藥) ] 5돈을 더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4제(劑)를 쓰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뒤에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을 대제(大劑)로 달여 마시되, [ 맥문동(麥門冬) 1냥, 오미자 1돈을 더하여 쓴다. 육미지황탕은 다음과 같다. <sup>13</sup> 숙지황(熟地黃) 1냥, 산수유(山茱萸) 4돈, 산약(山藥) · 단피(丹皮) 각 3돈, 택사(澤瀉) · 복령(茯苓) 각 2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편치(偏治)〉) ]

痿症久不效者，陽明火燒溢 <sup>14</sup> 腎水也。然能不死長存者何。蓋腎水雖涸，而肺金終得胃氣以生之。肺金有氣，必下生腎水，腎雖乾枯，終有露氣，夜間 <sup>15</sup> 腎經，常有生機，故存而不死也。方用 [ 熟地二觔 <sup>16</sup> ，麥冬半斤，元蔘七兩，五味子一兩 ]。水二十椀，煎六椀。早晨服三椀，下午服二椀，半夜服一椀，一連二日，必能起坐。後改用 [ 熟地八兩，麥冬四兩，元蔘三兩，牛膝一兩，山茱四錢，五味子三錢 ]。水十椀，煎三椀 <sup>17</sup> 。早晨一椀，晚服一椀。十日卽能行步，一月卽平復如舊矣。蓋大滋其肺腎之水，則陽明之火不消而自消矣。 [ ( 遠治 ) ]

위증(痿症)을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양명(陽明)의 화(火)가 신(腎)의 수(水)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 신수(腎水)가 비록 말랐지만 폐금(肺金)이 끝까지 위기(胃氣)를 얻어 신(腎)을 살리기 때문이다. 폐금(肺金)에 기운이 있으면 반드시 아래로 신수(腎水)를 살리니, 신(腎)이 비록 메말랐지만 끝까지 이슬 같은 기운이 밤사이에 신경(腎經)을 적시어 늘 기능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숙지황(熟地黃) 1근, 맥문동(麥門冬) 반근, 현삼(玄蔴) 7냥, 오미자(五味子) 1냥. ] 이 약재를 물 20사발에 넣고 6사

발이 되도록 달인다. 이른 아침에 3사발, 오후에 2사발, 한밤중에 1사발 복용 한다. 이를 연속하면 반드시 일어나 앓을 수 있다. 그런 뒤에 다음 처방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8냥, 맥문동(麥門冬) 4냥, 현삼(玄蔴) 3냥, 우슬(牛膝) 1냥, 산수유(山茱萸) 4돈, 오미자(五味子) 3돈. ] 이 약재를 물 10사발에 넣고 2사발이 되도록 달인다. 이른 아침에 1사발, 저녁에 1사발을 복용한다. 10일 이면 걸어 다닐 수 있고, 1달이면 예전과 같이 회복된다. 대개 그 폐(肺)와 신(腎)의 수(水)를 크게 더해주면 양명(陽明)의 화(火)가 꺼지지 않았어도 저절로 꺼지게 된다. [ (〈원치(遠治)〉) ]

痿瘻之症，乃陽明火症，腎水不足以滋之，則骨空不能立。方用生陰壯骨丹。

[ 元蔴、麥門冬、熟地黃各三兩，山茱萸二兩 ] , 水煎服。 ○孫眞君曰，痿症奇方， [ 薏苡仁、熟地黃各三兩，麥門冬一兩，牛膝五錢，五味子一錢 ] , 水煎服。 [ (臥治) ]

위폐(痿瘻)는 양명(陽明)의 화(火) 때문에 생겨나는 병증으로, 신수(腎水)가 자양하기에 부족하면 뼈 속이 비어 서지 못하게 된다. 처방으로는 생음장골단(生陰壯骨丹)을 쓴다. [ 현삼(玄蔴) · 맥문동(麥門冬) · 숙지황(熟地黃) 각 3냥, 산수유(山茱萸) 2냥.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손진군(孫眞君)이 말하였다. "위증(痿症)에 쓰는 신기한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익이인(薏苡仁) · 숙지황(熟地黃) 각 3냥, 맥문동(麥門冬) 1냥, 우슬(牛膝) 5돈, 오미자(五味子)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와치(臥治)〉) ]

痿病，必久臥床席，不能<sup>18</sup>起，其故何也。蓋諸痿之症，盡屬陽明胃火，胃火  
鑠盡腎水，則骨中空虛，無滋潤，則不能起立矣。然則止治陽明，而骨中之髓，  
何日<sup>19</sup>滿，欲其雙足有力難矣。方用 [熟地黃二兩，元蔘、麥門冬各一兩，牛  
膝二錢]，水煎服。 [ (長治) ]

위병(痿病)이 생기면 반드시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고 쉽게 일어날 수 없게  
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대개 온갖 위병의 증상은 모두 양명(陽明) 위화  
(胃火)에 속하는데, 위화가 신수(腎水)를 다 녹여 없애버리면 뼈 속이 공허해  
지고 적셔주지 못하므로 일어설 수 없게 된다. 그러하니 양명만 치료한다면  
뼈 속의 골수가 언제 충만해질 것인가. 양 다리에 힘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숙지황(熟地黃) 2냥, 현삼(元蔘) · 맥  
문동(麥門冬) 각 1냥, 우슬(牛膝) 2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장치(長治)〉) ]

痿症人<sup>20</sup>不死，雖是肺經之潤，亦有腎經之有根也。倘腎水無根，總肺金全有夜  
氣之生<sup>21</sup>，從何處生起。吾見立槁而已矣。惟其有根，所以不死。故用大劑補腎  
之品，因之而病愈。亦因其有根，可救而救之也。 [ (遠治) ]

위증(痿症) 환자가 오래도록 죽지 않는 이유는, 폐경(肺經)이 적셔주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신경(腎經)에 뿌리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신수(腎水)에  
뿌리가 없다면 설령 밤 동안 길러진 기운이 폐금(肺金)에 생긴다 하더라도 어  
디에서 생겨나겠는가? 내가 보기에 곧바로 마를 뿐이다. 오직 뿌리가 있기 때

문에 죽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신(腎)을 보하는 약재를 많이 사용하면 이로 인해 병이 낫는다. 이 역시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경우를 치료하는 것이다. [ (〈원치(遠治)〉) ]

癥症方，亦不同。[ 麥冬四兩，熟地、沙蔴各三兩，山茱、元蔴各一兩，五味子五錢 ]。水煎服。十日即可起床。予曾親試之，神效。[ (遠治) ]

위증(癥症)의 처방도 다르지 않다. [ 맥문동(麥門冬) 4냥, 숙지황(熟地黃) · 사삼(沙蔴) 각 3냥, 산수유(山茱萸) · 현삼(元蔴) 각 1냥, 오미자(五味子) 5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10일을 쓰고 나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직접 시험했었을 때 신기한 효과가 있었다. [ (〈원치(遠治)〉) ]

癥症不起牀席，已成癥人者，因內火熾盛，以熬<sup>22</sup>腎水也。苟不補腎，惟圖降火，亦無生機。雖治癥，獨取陽明，是胃火不可不降，而腎水尤不可不補也。我今傳一奇方，補水於火中，降火於水內，合胃與腎而兩治之，自然骨髓增添，燔熱盡散，不治癥而癥自愈。方名降補丹。[ 熟地黃、元蔴、麥門冬各一兩，甘菊、生地黃、沙蔴、地骨皮各五錢，人蔴三錢，車前子二錢 ]。水煎服。[ (內傷) ]

위증(癥症)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이미 폐인이 된 환자는, 치성해진 내화(內火)가 신수(腎水)를 졸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만약 신(腎)을 보하지 않고 오직 화(火)를 내리는 것만 도모한다면 또한 회복되지 않는다. 비록 위증을 치료할 때 양명(陽明)만을 취하지만, 이때는 위화(胃火)를 내리지 않을 수 없고 신수(腎水)도 보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제 신기한 처방 하나를 전

한다. 이 처방은 화(火) 속에서 수(水)를 보하고, 수(水) 안에서 화(火)를 내려서, 위(胃)와 신(腎)을 합하여 둘 다 치료한다. 그러면 자연히 골수가 증가하고 번열(燔熱)이 다 흡어져서 위증을 치료하지 않아도 병이 저절로 낫는다. 처방 이름은 강보단(降補丹)이다. [ 숙지황(熟地黃) · 현삼(元蔴) · 맥문동(麥門冬) 각 1냥, 감국(甘菊) · 생지황(生地黃) · 사삼(沙蔴) · 지골피(地骨皮) 각 5돈, 인삼(人蔴) 3돈, 차전자(車前子) 2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내상(內傷)〉) ]

人有痿症，終年不能起床，面色光鮮，足弱無力，而不能舉步者，人以爲兩足之無力也，不知乃陽明火盛。不必立治兩足，止平其胃火，則火息而足自堅凝。若不平胃火，而徒用補陰之劑，則飲食愈多，而兩足益弱。法當用 [ 元蔴、甘菊各三兩，麥冬、人蔴、熟地各一兩，菟絲子一錢 ]。水數椀，煎湯四椀，恣其吞飲，則胃火漸平，而兩足自然生力。此不治足而正所以治足也。 [ ( 偏治 ) ]

어떤 사람이 위증(痿症)을 앓아 1년 내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고, 안색은 윤택하고 선명하나 다리가 약하고 힘이 없어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 은 양쪽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양명(陽明)의 화(火) 가 치성하기 때문임을 알지 못한다. 반드시 양쪽 다리를 치료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위화(胃火)만 평정하면 화(火)가 가라앉고 다리가 저절로 튼튼해진다. 만약 위화를 평정하지 않고 헛되이 음(陰)을 보하는 처방을 사용하면, 음식은 더 잘 먹게 되지만 양쪽 다리는 더욱 약해진다. 다음 처방을 써야 한다. [ 현삼(玄蔴) · 감국(甘菊) 각 3냥, 맥문동(麥門冬) · 인삼(人蔴) · 숙지(熟地) 각 1냥, 토사자(菟絲子) 1돈. ] 이 약재를 물 몇 사발에 넣고 4사발이 되도록

달여서 마음껏 마시게 하면, 위화가 점차 평정되고 양쪽 다리에 자연히 힘이 생긴다. 이는 다리를 치료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다리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 (〈편치(偏治)〉) ]

痙病，乃寒濕之氣，集于雙足之間，骨中寒痛而不可止，亦終歲經年，不能身離床褥，僵僂之狀可掬，其故何也。蓋諸痙盡皆水濕也。水氣久不出，則一身關節，無非水氣之瀕空，土無權政矣，又何以分消而利道哉。然則止治其水，而濕氣可以盡去，乃治水亦終歲經年，仍然不驗者爲何。徒治水而不治土也。方用

[ 薏仁二兩，茯苓、牛膝、萆薢各一兩，白朮五錢，芡實、杜沖各三錢，肉桂一錢 ]，水煎服。 ○雷公曰，痙病方。 [ 生黃芪十兩，薏仁、山藥各八兩，杜沖、白朮各四兩，牛膝三兩，車前子、肉桂各一兩 ]，各爲末蜜丸。每日飯前酒送下一兩。一料必全愈。用補於利之中也。一又方治瘻，用 [ 熟地二兩，元蔴、麥冬各一兩，甘菊、牛膝各五錢，天門冬三錢 ]，水煎服。 [ ( 長治 ) ]

경병(痙病)은 한습(寒濕)의 기운이 양쪽 다리 사이에 모인 것으로, 뼈 속이 차갑고 아픈 증상이 그치지 않으며, 또한 여러 해 동안 침상을 떠나지 못하고 구부정한 모습이 확연하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 모든 경병은 모두 수습(水濕) 때문이다. 수기(水氣)가 오래도록 나가지 않으면 온몸의 관절에 모두 수기가 가득 차게 되고 토(土)가 권한을 잃게 되니, 또 어떻게 소화 시켜서 수습을 배출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수(水)만 치료하면 습기(濕氣)가 모두 제거되어야 하는데, 수(水)를 치료해도 여러 해 동안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단지 수(水)만 치료하고 토(土)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의이인(薏苡仁) 2냥, 복령(茯

芾) · 우슬(牛膝) · 비해(萆薢) 각 1냥, 백출(白朮) 5돈, 검실(芡實) · 두충(杜仲) 각 3돈, 육계(肉桂)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뇌공(雷公)이 말하였다. 경병(瘻病)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생황기(生黃芪) 10냥, 의인(薏仁) · 산약(山藥) 각 8냥, 두충 · 백출 각 4냥, 우슬 3냥, 차전자(車前子) · 육계 각 1냥. ] 이 약재를 각각 가루 내어 꿀로 환을 만든다. 매일 식전에 술로 1냥씩 복용한다. 1료(料)를 쓰면 반드시 완전히 낫는다. 이수(利水)하는 가운데 보하는 방법을 쓴 처방이다. 위병(痿病)을 치료하는 또 다른 처방. [ 숙지황(熟地黃) 2냥, 현삼(玄參) · 맥문동(麥門冬) 각 1냥, 감국(甘菊) · 우슬 각 5돈, 천문동(天門冬) 3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장치(長治)〉) ]

瘻，其症必脚縮筋促，足不能起立，或痛或不痛，終年難以下床，不得不臥以治之。方用風濕兩祛湯，[ 薏仁、芡實、山藥、茯苓、白朮各五錢，肉桂一錢 ]，水煎服。 [ (臥治) ]

경병(瘻病)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다리가 오그라들고 근육이 당겨서 다리로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1년 내내 침상에서 내려오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치료해야 한다. 처방으로는 풍습양거탕(風濕兩祛湯)을 사용한다. [ 의인(薏仁) · 검실(芡實) · 산약(山藥) · 복령(茯苓) · 백출(白朮) 각 5돈(錢), 육계(肉桂)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와치(臥治)〉) ]

脚氣危證。 [ 凡脚氣，覺病候有異，即須急治之。稍緩則氣上肩息，胸脇逆滿，急者死不旋踵，寢者數日必死，不可不急治也。但見心下急，氣喘不停，或自汗出，或乍熱乍寒，其脈促短而數，嘔吐不止者死。 ( 千金 ) ○上氣脈數，不得

臥者，亦死。（千金） ○脚氣之病，其小腹頑庫不仁者，多不腫。小腹頑後不過三五日，卽令人嘔吐，名曰脚氣入心，死在朝夕。（千金） ○脚氣，脈浮大而緊駛，此最惡脈也。若細而駛，同是惡脈。（千金） ○脚氣入心，則恍惚譖妄，嘔吐不食，左寸脈乍大乍小，乍有乍無者，死。宜杉節湯、三腕散，或三和散（方見氣門）加烏藥救之。（綱目） ○入腎則腰脚腫，小便不通，氣上喘急，目與額皆黑，左尺脈絕者，死。宜八味元去山藥救之。蓋少陰腎經，腳氣入腹，上氣喘急，此證最急，以腎乘心，水剋火，死不旋踵<sup>23</sup>，此藥救之。又四物湯加炒黃柏煎服，外以附子末，津唾調，付涌泉穴，以艾灸之，引熱下行。（丹心） ○脚氣入腹，喘急欲死，宜木萸湯、杉節湯、三將軍元、烏藥平氣湯救之。（入門）]

각기(脚氣) 위증(危證). [ 무릇 각기(脚氣)에서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면 급히 치료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기운이 차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쉬고,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해진다. 병세가 빠른 경우는 금방 죽게 되고, 완만한 경우도 며칠 내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급히 치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명치가 불편하고, 계속 숨이 차거나, 혹은 자한(自汗)이 나거나, 혹은 갑자기 열이 났다가 오한이 들었다가 하며, 그 맥이 촉단(促短)하면서 삭(數)하고, 구토(嘔吐)가 그치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 (《천금》) ○ 숨이 차오르고 맥이 삭(數)하며 눕지 못하는 경우도 죽는다. (《천금》) ○ 각기(脚氣)가 있을 때, 환자의 아랫배가 저리고 감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붓지 않는다. 아랫배에 감각이 없은 지 3 - 5일이 지나지 않아 환자가 구토하는 것을 '각기(脚氣)가 심(心)에 들어갔다(脚氣入心)'라고 하는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천금》) ○ 각기(脚氣)가 있을 때, 맥이 부(浮) · 대(大)하면서 긴(緊)하고

빠른 것이 가장 나쁜 맥이다. 만약 세(細)하면서 빠른 것도 같은 나쁜 맥이다.

(《천금》) ○ 각기(脚氣)가 심(心)에 들어가면, 제정신을 잃고 혀소리를 하며, 구토하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때 좌촌맥이 갑자기 컸다 작아졌다 하거나 갑자기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죽는다. 삼절탕(杉節湯) · 삼완산(三腕散)을 쓰거나, 삼화산(三和散) (처방은 <기문(氣門)>에 있다) 에 오약(烏藥)을 더 하여 치료해야 한다. (《강목(綱目)》) ○ 각기(脚氣)가 신(腎)에 들어가면, 허리와 다리가 붓고 소변이 통하지 않으며, 숨이 차올라 숨을 헐떡이고, 눈과 이마가 모두 검게 된다. 이때 좌척맥이 끊어지면 죽는다. 마땅히 팔미원(八味元)에서 산약(山藥)을 빼고 치료한다. 대개 소음(少陰) 신경(腎經)의 각기(脚氣)가 복부에 들어가 숨이 차올라 숨을 헐떡이는 증상이 가장 위급한데, 신(腎)이 심(心)을 억누르고 물이 불을 억제했으므로 곧 죽는다. 다음 방법으로 치료한다. 사물탕(四物湯)에 황백(黃柏) (볶는다) 을 더하여 달여 복용한다. 그리고 외치법으로서 부자(附子) 가루를 침으로 개어 용천혈(涌泉穴)에 붙인 다음 쑥으로 뜰을 떠서 열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단심(丹心)》) ○ 각기(脚氣)가 복부에 들어가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을 때는 목유탕(木萸湯) · 삼절탕(杉節湯) · 삼장군원(三將軍元) · 오약평기탕(烏藥平氣湯)으로 치료해야 한다. (《입문(入門)》) ]

### 木萸湯 목유탕

- [ 治脚氣入腹 , 喘悶欲死。木瓜 、 檳榔各二錢半 , 吳茱萸一錢半。右剉 , 作一貼 , 水煎服。 ( 入門 ) ]
- [ 각기(脚氣)가 배로 들어가 숨이 차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목과(木瓜) · 빈랑(檳榔) 각 2돈 반, 오수유(吳茱萸) 1돈 반. 이 약재를 썰어서 1첩으로 만든다. 물에 달여 복용한다. (《입문(入門)》) ]

### 杉節湯 삼절탕

- [ 治脚氣入腹衝心 , 危急欲絕 , 以此救之。杉木節四兩 , 大腹皮一兩 , 檳榔七箇 , 青橘葉四十九片 , 無則用皮。右剉 , 作一貼 , 以順流水煎服。 ( 正傳 ) ○柳子厚謫南方 , 得脚氣衝心痞絕 , 脇下有塊大如石 , 不省人。有人傳此方 , 服之 , 半食頃 , 大下三次 , 氣通塊散而甦。其法童便三升 , 煮取一升 , 分二服。 ( 緝目 ) ]
- [ 각기(脚氣)가 배로 들어가 심(心)을 치받았기 때문에 위급하여 죽을 것 같을 때 이 처방으로 치료한다. 삼목절(杉木節) 4냥, 대복피(大腹皮) 1냥, 빈랑(檳榔) 7개, 청귤엽(青橘葉) 49장 ( 청귤엽이 없으면 청피(青皮)를 쓴다 ). 이 약재를 썰어서 1첩으로 만든다. 순류수로 달여서 복용한다. (《정전(正傳)》) ○ 유자후(柳子厚)가 남방으로 좌천되었을 때 각기(脚氣)가 심(心)을 치받아 죽을 것 같았다. 옆구리 아래에 돌맹이만 한 종괴가 생겼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이 처방을 전해주어 복용하였더니 밥 한 끼를 먹을 시간의 절반쯤 지나 크게 3번 설사한 뒤에 숨이 통하고 종괴가 흩어진 다음 살아났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삼절탕을 동변(童便) 3되에 넣고 1되가 되도록 달여 2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강목(綱目)》) ]

### 三將軍元 삼장군원

- [ 治脚氣衝心，大便不通。吳茱萸、木瓜、大黃各等分。右末，米糊和丸梧子大。枳殼湯下五七十丸。 ( 得效 ) ]
- [ 각기(脚氣)가 심(心)을 치받아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오수유(吳茱萸) · 목과(木瓜) · 대황(大黃) 각 등분.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쌀풀로 반죽하여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지각(枳殼) 달인 물로 50환에서 70환을 복용한다. (《득효(得效)》) ]

### 烏藥平氣湯 오약평기탕

- [ 治脚氣上攻，昏眩喘促。烏藥一錢，茯神、人蔘、白朮、川芎、當歸、木瓜、白芷、五味子、紫蘇葉各七分，甘草三分。右剉，作一貼，薑五、棗二煎服。 ( 三因 ) ]
- [ 각기(脚氣)가 위로 치받아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가쁜 것을 치료한다. 오약(烏藥) 1돈, 복신(茯神) · 인삼(人蔘) · 백출(白朮) · 천궁(川芎) · 당귀(當歸) · 목과(木瓜) · 백지(白芷) · 오미자(五味子) · 자소엽(紫蘇葉) 각각 7푼, 감초(甘草) 3푼. 이 약재를 썰어서 한 척으로 만들고, 생강 5편, 대추 2개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삼인(三因)》) ]

脚病凶證。 [ 脚氣衝心，恍惚氣急，脈乍大乍小者，死。 ( 入門 ) ○骨痿不能起於床者，死。 ( 入門 ) ○病人足跗上腫，膝大如斗者十日死。 ( 扁鵲 ) ]

각병에 예후가 나쁜 증상. [ 각기(脚氣)가 심(心)을 치받아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차며 맥(脈)이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경우는 죽는다. (《입문(入門)》) ○골위(骨痿)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다. (《입문(入門)》) ]

○환자의 발등이 부어오르고 무릎이 말박만큼 크게 커진 경우는 10일 만에 죽는다. (《편작(扁鵲)》) ]

1. 腕 ☞ 腕 ※《동의보감》 ←

2. 腕骨 ☞ 腕骨 ※《동의보감》 ←

3. 《동의보감》에서 《의학정전(醫學正傳)》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듯하다. "경전에 말하였다. '이로 인해 크게 마시면 기가 거슬러 오른다.' 무릇 유제품과 독한 술은 습열(濕熱)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음료에 속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나치게 영양을 공급하면 또다시 그 습(濕)을 자라게 된다. 수(水)의 성질은 순조롭게 아래로 흐르는데 기(氣)가 따뜻하게 데우지 못하면 발과 정강이로 내려가 오래 쌓여 붓고 아프게 된다. 이것은 음식이 흘러 내려갔기 때문이다. 經曰, 因而大飲則氣逆。夫乳酪醇酒者, 濕熱之物, 飲之屬也。加以奉養太過, 又滋其濕。水性順下, 氣不能响, 故下注於足脛, 積久而爲腫滿疼痛。此飲食下流之所致也。" ※《의학정전(醫學正傳)》 ←

4. 《황제내경소문》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태음이 성하면, 화기가 안에서 쌓이니 창양(瘡瘍)이 속에서 생기면서 화기가 밖으로 흘어져 나온다. …… 정강이가 붓고, 수음(水飲)이 속에서 생기며, 얼굴이 붓는다. 太陰之勝, 火氣內鬱, 瘡瘍於中, 流散於外, ……, 足脛膿腫, 飲發於中, 腹腫於上"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지진요대론편(至真要大論篇)> ←

5. 被褥 ☞ 被褥 ※《석실비록》 ←

6. 《석실비록》에는 이 문장 앞에 다음 문장이 있다. "대치법(大治法)은 온몸에 병이 있을 때 상하좌우를 아울러 모두 치료한다. 大治法, 周身有病, 統上下左右盡治之也" ※《석실비록》 ←
7. 鐸乾 𩔗 燥乾 ※《석실비록》 ←
8. 惟用 𩔗 方用《석실비록》 ←
9. 床席 : 床蓆 ※《석실비록》 ←
10. 少進 : 少遲 ※《석실비록》 ←
11. 六味 : 六味湯 ※《석실비록》 ←
12. "大劑煎飲, 加麥冬一兩, 五味子一錢。熟地各一兩, 山茱萸四錢, 山藥三錢, 丹皮三錢, 澤瀉二錢, 茯苓二錢。" ※《석실비록》 ←
13. 《석실비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의 역자 주석 참고 ←
14. 燒溢 𩔗 燒盡 ※《석실비록》 ←
15. 間 𩔗 潤 ※《석실비록》 ←
16. 一觔 𩔗 一斤 ※《석실비록》 ←
17. 三椀 𩔗 二碗 ※《석실비록》 ←
18. 輻 𩔗 輻 ※《석실비록》 ←
19. 痛滿 𩔗 充滿 ※《석실비록》 ←

20. 人 久 ※《석실비록》 ←

21. 總肺金全有夜氣之生 縱肺金有夜氣之生 ※《석실비록》 ←

22. 煙 : 煙乾 ※《석실비록》 ←

23. 死不旋踵 死不旋踵 ※《동의보감》 ←

## † 毛髮 머리카락

髮屬腎。 [ 內經曰，腎主髮。又曰，腎之合骨也，其榮髮也。 ]

머리카락은 신(腎)에 속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신(腎)이 머리카락을 주관한다." 또 말하였다. "신(腎)은 뼈와 상합하고, 그 상태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 ]

髮者血之餘。 [ 血盛則髮潤，血衰則髮衰，血熱則髮黃，血敗則髮白。 (入門) ]

머리카락은 혈(血)의 나머지이다. [ 혈이 성하면 머리카락이 윤택하고, 혈이 쇠하면 머리카락이 쇠한다. 혈(血)에 열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누렇고, 혈(血)이 손상되면 머리카락이 희다. (《입문(入門)》) ]

十二經毛髮多少。 [ 靈樞曰，美眉者，太陽多血，通鬚極鬚者，少陽多血，美鬚者，陽明多血。 ○足陽明之上，血氣盛則鬚美長，血氣少則無鬚，兩吻多畫。 ○足陽明之下，血氣盛則下毛美長至胸，血氣皆少則無毛，雖有則稀枯瘁。 ○足少陽之上，血氣盛則通鬚美長，血氣皆少則無鬚。 ○足少陽之下，血氣盛則脰毛美長，血氣皆少則脰無毛。 ○足太陽之上，血氣盛則美眉，眉有毫毛（毛之長者曰毫），血多氣少則惡眉。 ○手陽明之上，血氣盛則鬚美，血氣皆少則無鬚。 ○手陽明之下，血氣盛則腋下毛美。 ○手少陽之上，血氣盛則眉美以長。 ○手太陽之上，血氣盛則頷多鬚。 (靈樞) ]

십이경의 턱력 양.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눈썹이 수려하면 태양경에 혈(血)이 많고, 구레나룻이 턱수염까지 이르면 소양경에 혈(血)이 많고, 턱수염이 수려하면 양명경에 혈(血)이 많다" ○족양명경의 상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구레나룻이 곱고 길며, 혈기가 적으면 구레나룻이 없고 양 입가에 주름이 많다. ○족양명경의 하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음모가 곱고 길어 가슴까지 이른다. 혈기가 모두 적으면 음모가 없고, 있더라도 드물게 나고 말라 있다. ○족소양경의 상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구레나룻이 곱고 길며, 혈기가 모두 적으면 구레나룻이 없다. ○족소양경의 하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정강이 털이 곱고 길며, 혈기가 모두 적으면 정강이 털이 없다. ○족태양경의 상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눈썹이 수려하고 눈썹에 긴 털 (털 중에 긴 것을 翳(毫)라고 한다) 이 있으며, 혈이 많고 기가 적으면 눈썹이 윤택하지 않다. ○수양명경의 상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콧수염이 수려하고, 혈기가 모두 적으면 콧수염이 없다. ○수양명경의 하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겨드랑이 털이 곱다. ○수소양경의 상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눈썹이 곱고 길다. ○수태양경의 상부에 혈기(血氣)가 왕성하면 턱에 수염이 많다. (《영추(靈樞)》) ]

鬚眉髮各有所屬。 [ 髮屬心，故上生稟火氣也。眉屬肝，故橫生稟木氣也。鬚屬腎，故下生稟水氣也。 ○人之髮眉鬚，雖皆毛類，而所主五臟各異。故有老而鬚白，眉髮不白者，或髮白而眉鬚不白者，藏氣有所偏故也。男子腎氣外行，上爲鬚，下爲勢，故女子竇人無勢，則亦無鬚，而眉髮無異於男子，則知不屬腎也，明矣。 ( 醫鑑 ) ]

머리카락、눈썹、구레나룻이 각각 속한 곳. [ 머리카락은 심에 속하기 때문에 위로 자란다. 화기(火氣)를 받았기 때문이다. 눈썹은 간에 속하기 때문에 옆으로 자란다. 목기(木氣)를 받았기 때문이다. 턱수염은 신(腎)에 속하기 때문에 아래로 자란다. 수기(水氣)를 받았기 때문이다. ○ 사람의 머리카락、눈썹、턱수염은 비록 모두 털 종류이지만 주관하는 오장(五臟)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늙어서 턱수염은 희고 눈썹과 머리카락은 희지 않거나, 머리카락은 희고 눈썹과 턱수염은 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장의 기운이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신기(腎氣)가 겉으로 나와서 올라가면 턱수염이 되고 내려가면 고환이 된다. 여자와 환관은 고환이 없으므로 턱수염은 없지만 눈썹과 머리카락은 남자와 다를 게 없으니 눈썹과 머리카락이 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의감(醫鑑)》) ]

鬚白當留一方，以救天下白鬚老子。鬚白，乃腎水枯，任督血乾也。二者得一，皆能白鬚，他日湯<sup>1</sup>最妙，余不用。用桑椹半斤，取汁一椀，以[骨碎]補爲末一兩浸之，晒乾，無日則火焙乾，再浸，以汁乾爲度。再用[何首烏]，生者爲末二兩，[用赤不用白]，熟地焙乾爲末[二兩]，青鹽[一兩]，沒石子雌雄各四對，[長者雄，圓者雌]，當歸[一兩]，各爲細末。每日擦牙者六七<sup>2</sup>，擦左右各如數，一月之間，即黑如漆。蓋桑椹<sup>3</sup>專能補陰黑鬚，而又佐之[熟地黃、何首烏]，豈有不黑之理，但若<sup>4</sup>不能引入鬚根耳。今妙在[骨碎、沒石]，直透齒肉之內，既入齒肉，有不引鬚根者乎。○今併傳之。[桑椹一斤]，蒸熟晒乾，不蒸熟則此物最不肯乾。但不可經鐵器，飯鍋蒸則無害。大約熟地一經飯鍋，雖鐵器無碍。生[赤何首烏]一斤，切片，飯鍋蒸熟晒乾九次爲妙，[南燭葉]一斤，亦飯鍋蒸熟晒乾，若不蒸自乾則無用。陳氏烏鬚丸。[熟地黃、白朮各一

斤，麥門冬半斤，花椒去殼皮二兩（以四兩取米二兩），白菓一兩]。久服長生不老。春夏服他日丸<sup>5</sup>，秋冬服此丸，保汝升躋有路，斑白無迹。無桑椹時，可桑葉以代之，須用 [一斤]。雖椹勝於葉，而葉之功亦不亞於椹也。 ○秦真人入萬年青 [（藥名）]，亦妥當附入。 [（上治）]

수염이 희어질 때 쓰는 처방 하나로 세상에 흰 수염 가진 노인들을 구제하노라. 수염이 희어진 것은 신(腎)의 수(水)가 마르거나 임독맥의 혈(血)이 말랐기 때문이다.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모두 수염이 희게 된다. 지황탕(地黃湯)이 가장 오묘하므로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 상심(桑椹) 반 근에서 즙한 사발을 얻는다. [골쇄보(骨碎補)] 1냥을 가루 내 여기에 담근 뒤 볶에 말린다. 핫볕이 없으면 불에 찌어 말린다. 그런 다음 다시 담그는데, 즙이 마를 때까지 한다. 다시 [하수오(何首烏)] (생것을 가루 낸다.) [ (적하수오를 쓰며 백하수오는 쓰지 않는다) ] 2냥, 숙지황(熟地黃) (불에 찌어 말려 가루 낸다) [2냥], 청염(青鹽) [1냥], 물석자(沒石子) 암수 각각 4쌍 [ (긴 것이 수컷, 둉근 것이 암컷) ], 당귀(當歸) [1냥]. 이 약재를 각각 곱게 가루 낸다. 매일 이것으로 이를 49번 문지르는데, 좌우 각각 그 수대로 하면, 1달 사이에 즉시 옷칠같이 수염이 검게 된다. 대개 상심(桑椹)은 전적으로 음을 보하고 수염을 검게 할 수 있다. 이를 [숙지황(熟地黃) · 하수오(何首烏)로] 도우니 어찌 검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안타깝게도 수염 뿐리까지 약효를 끌어들일 수 없을 뿐이다. 이 처방에서 오묘한 점은 [골쇄보(骨碎補) · 물석자(沒石子)로] 잇몸 속까지 직접 투과시키는 데 있다. 이미 잇몸에 들어갔으니 수염 뿐리까지 끌어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제 아울러 아래 처방을 전한다. [상심(桑椹) 1근] (쪄서 익혀 볶에 말린다. 쪘서

익하지 않으면 이 약재는 정말 마르지 않는다. 다만 철기에 닿아서는 안 되지만, 밥솥에 찌고 나면 해가 없다. 숙지황(熟地黃)도 일단 밥솥으로 찌고 나면 비록 철기에 닿아도 대체로 무방하다.) , [ 적하수오(赤何首烏) ] 1근 ( 날것을 썬다. 이를 밥솥에 쪄서 익히고 볶에 말리기를 9번 하면 효과가 신묘하다 ) , [ 남촉엽(南燭葉) ] 1근 ( 이 역시 밥솥에 쪄서 익히고 볶에 말린다. 만약 찌지 않고 저절로 말리면 쓸모가 없다 ) . 진씨오수환(陳氏烏鬚丸). [ 숙지황(熟地黃) · 백출(白朮) 각 1근, 맥문동(麥門冬) 반 근, 화초(花椒) ( 껌질을 제거한다. 4냥으로 알맹이 2냥을 취한다 ) 2냥, 백과(白菓) 1냥. ] 이 처방을 오래 복용하면 늙지 않고 오래 산다. 봄여름에 지황환(地黃丸)을 복용하고 가을겨울에 이 처방을 복용하면, 그대의 앞날이 순탄하고 머리가 희어지지 않을 것이다. 상심(桑椹)이 없을 때는 상엽(桑葉)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반드시 [ 1근을 ] 써야 한다. 비록 상심(桑椹)이 상엽(桑葉)보다 낫지만, 상엽의 효과도 상심에 뒤지지 않는다. ○ 진진인(秦眞人)이 만년청(萬年青) [ ( 약재 이름 ) ] 을 넣어 만든 처방도 역시 덧붙여 넣어야만 한다. [ (〈상치(上治)〉) ]

予有烏鬚二方。一丸方，[ 熟地黃、山藥各二斤，白朮、麥門冬、桑葉各一斤，山茱萸、黑脂麻<sup>6</sup>各半斤，巴戟天、白菓各四兩，萬年青六片 ]。爲末蜜丸。每日早晚各服五錢。一前方<sup>7</sup>，[ 萬年青半斤，熟地黃、生赤何首烏、桑葉、山藥各一兩，黑芝麻五錢炒研碎，人蔘三錢，白果二錢，花椒一錢 ]。水煎，加酒一茶鍾，再加 [ 桔梗五分 ]。早服頭煎，晚服二煎，夜服三煎。四劑即黑如漆。二方同用，永不再白。倘氣血虛者，服十劑必效。 [ ( 上治 ) ]

나에게는 머리를 검게 하는 2가지 처방이 있다. 첫째는 환약(丸藥)이다. [ 숙지황(熟地黃) · 산약(山藥) 각 2근, 백출(白朮) · 맥문동(麥門冬) · 상엽(桑葉) 각 1근, 산수유(山茱萸) · 흑지마(黑芝麻) 각 반 근, 파극천(巴戟天) · 백과(白果) 각 4냥, 만년청(萬年青) 6편. ]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환을 빚는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5돈씩 복용한다. 둘째는 전탕(煎湯)이다. [ 만년청(萬年青) 반 근, 숙지황(熟地黃) · 적하수오(赤何首烏) (생깃) · 상엽(桑葉) · 산약(山藥) 각 1냥, 흑지마(黑芝麻) 5돈 (볶고 부수어 가루 낸다), 인삼(人蔘) 3돈, 백과(白果) 2돈, 화초(花椒)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이되 술 1찻잔을 넣고 또 길경(桔梗) 5푼을 넣는다. 아침에는 첫 번째 달인 것을 복용하고, 저녁에는 재탕한 것을 복용하며, 밤에는 삼탕한 것을 복용한다. 4제(劑)를 쓰면 옻칠처럼 검게 된다. 2가지 처방을 함께 사용하면 영원히 다시 희어지지 않는다. 만약 기혈이 허한 경우, 10제(劑)를 복용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 (〈상치(上治)〉) ]

### 烏鬚至神丹 오수지신단

- 又方名黑鬚仙丹。 [ 熟地黃、萬年青、山藥各二斤，桑椹一斤，黑脂麻<sup>8</sup>八兩，南燭皮四兩，巨勝子、旱蓮草各三兩，花椒、白果各一兩 ]。用蜜爲丸。早晚酒送下各五錢。忌萊菔而已。 ○張公傳。 [ 熟地二斤，山藥一斤，山茱、薏仁、白朮各八兩，黑芝麻、烏頭皮各四兩，赤何首烏、白果、巨勝子、胡桃各三兩，五味子二兩，川椒一兩，加丹蔘三兩 ]，無亦可。煉蜜爲丸，服五錢。 ○岐公旱蓮草可加三錢。 [ ( 上治 ) ]
- 흑빈선단(黑鬚仙丹)이라고도 한다. [ 숙지황(熟地黃) · 만년청(萬年青) · 산약

(山藥) 각 2근, 상심(桑椹) 1근, 흑지마(黑芝麻) 8냥, 남촉피(南燭皮) 4냥, 거승자(巨勝子) · 한련초(旱蓮草) 각 3냥, 화초(花椒) · 백과(白果) 각 1냥. ] 끌로 환을 빚는다. 아침저녁으로 술에 타서 각 5돈씩 복용한다. 무를 멀리해야 할 뿐이다. ○ 장공(張公)이 전한 처방. [ 숙지황(熟地黃) 2근, 산약(山藥) 1근, 산수유(山茱萸) · 익이인(薏苡仁) · 백출(白朮) 각 8냥, 흑지마(黑芝麻) · 오두피(烏頭皮) 각 4냥, 적하수오(赤何首烏) · 백과(白果) · 거승자(巨勝子) · 호도(胡桃) 각 3냥, 오미자(五味子) 2냥, 천초(川椒) 1냥. 여기에 단삼(丹蔘) 3냥을 더 하는데, ] 없어도 괜찮다. 연밀(煉蜜)로 환을 빚어 5돈씩 복용한다. ○ 기공(岐公)은 한련초(旱蓮草)를 3돈 더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상치(上治)〉) ]

烏鬚之方，世間甚多，皆不能取效於旦夕。我之奇方，不須十天，保汝重爲烏黑。 [ 熟地黃、何首烏 ] 各三兩，生不用熟用<sup>9</sup>，用赤不用白，用圓不用長， [ 白果三十箇，山藥三兩，桑葉二兩，黑芝麻一兩炒，萬年青二片，桔梗三錢 ]。各爲末。不可經鐵器，爲丸，每日早飯後服一兩，十日包鬚烏黑。天師<sup>10</sup>加 [ 川椒 ] 一錢。此方奇絕，不畏<sup>11</sup>洩天機耶。

수염을 검게 하는 처방은 세상에 매우 많지만, 모두 하루아침에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나의 신기한 처방은 열흘도 필요하지 않으니, 반드시 너의 수염이 다시 검게 될 것을 보장한다. [ 숙지황(熟地黃) · 하수오(何首烏) ] 각 3냥 ( 생것을 쓰고 익힌 것은 쓰지 말며, 붉은 것을 쓰고 흰 것을 쓰지 말며, 둥근 것을 쓰고 긴 것을 쓰지 말라 ), [ 백과(白果) 30개, 산약(山藥) 3냥, 상엽(桑葉) 2냥, 흑지마(黑芝麻) 1냥 ( 볶는다 ), 만년청(萬年青) 2쪽, 길경(桔梗) 3돈. ] 각각 가루 낸다. 철기에 달으면 안 된다. 환을 만들어 매일 아침 식사 후

에 1냥씩 복용하면 열흘 만에 반드시 수염이 검게 된다. 기천사(岐天師)가 말하였다. "여기에 천초(川椒) 1돈을 더하여 쓴다. 신기하고 뛰어난 처방이다. 화군(華君)은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보다."<sup>12</sup>

髮占凶證。[ 病人髮直如麻者，十五日死。○病人髮如乾麻，善怒者，死。○病  
人髮與眉衝起者，死。（扁鵲）]

머리카락으로 예후가 나쁜 증상을 아는 방법. [ 환자의 머리카락이 삼대처럼  
곧게 서면 15일 만에 죽는다. ○ 환자의 머리카락이 마른 삼대와 같고 자주  
성을 내면 죽는다. ○ 환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이 일어서면 죽는다. (《편작(扁  
鵲)》) ]

1. 他日湯 ☞ 地黃湯 ※《석실비록》 ←

2. 六七 ☞ 七七 ※《석실비록》 ←

3. 桑堪 ☞ 桑椹 ※《석실비록》 ←

4. 若 ☞ 苦 ※《석실비록》 ←

5. 他日丸 ☞ 地黃丸 ※《석실비록》 ←

6. 黑脂麻 ☞ 黑芝麻 ※《석실비록》 ←

7. 前方 ☞ 煎方 ※《석실비록》 ←

8. 黑脂麻 ☞ 黑芝麻 ※《석실비록》 ←

9. 生不用熟用 ☞ 用生不用熟 ※《석실비록》 ←
10. 天師 ☞ 岐天師 ※《석실비록》 ←
11. 不畏 ☞ 華君不畏 ※《석실비록》 ←
12. 앞의 문장은 화군(華君)의 말이고, 뒤의 문장은 그에 대한 기천사(岐天師)  
의 말이다. ←

## † 前陰 전음

前陰屬宗筋。 [ 內經曰，前陰者，宗筋之所聚，太陰陽明之所合也。註曰，宗筋挾臍，下合於陰器，太陰脾脈、陽明胃脈，皆輔近宗筋，故云合也。 ○宗筋，謂陰毛中橫骨上下之豎筋也。 (內經) ]

전음(宗筋)은 종근에 속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전음(前陰)은 종근(宗筋)이 모이는 곳이며, 태음(太陰)과 양명(陽明)이 합하는 곳이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종근은 배꼽을 끼고 아래로 내려가 음기(陰器)와 합한다. 태음(太陰) 비맥(脾脈)과 양명(陽明) 위맥(胃脈)이 모두 종근을 가까이 보좌하므로 '합한다'고 하였다." ○종근이란 음모 가운데에서 횡골(橫骨)의 위아래로 뻗어 있는 근육을 말한다. (《내경(內經)》) ]

前陰諸疾。 [ 前陰諸疾，皆由足厥陰與督脈。脈經曰，足厥陰之脈入毛中，過陰器，抵小腹，是肝脈所過也。又曰，督脈者起於小腹，以下骨中央，女子入繫挺孔<sup>1</sup>，循陰器，男子循莖下至篡，與女子等。是督脈所過也。 ○足厥陰之脈病，爲丈夫瀆疝狐疝，婦人小腹腫。 (靈樞) ○督脈，起於下極之愈<sup>2</sup>，並於脊裏，上至風府。任脈，起於中極之下，以上毛際，循腹裏，至咽喉。任脈爲病，男子內結七疝，女子帶下瘕聚。 (靈樞) ○陰腫、陰瘻、陰痒、陰挺、陰縮、木腎、陰蝕瘡、腎藏風，皆前陰之疾也。 ]

여러 가지 전음병. [ 여러 가지 전음의 병은 모두 족궐음(足厥陰)과 독맥(督脈)에서 생겨난다. 《맥경(脈經)》에서 말하였다. "족궐음(足厥陰)의 맥은 음모 속으로 들어가 음기(陰器)를 지나 아랫배에 이른다." 이것은 간맥(肝脈)이 지나는 곳이다. 또 말하였다. "독맥(督脈)은 아랫배에서 일어나 치골 중앙으로 내려간다. 여자는 요도구로 들어가 음기를 둘러싸고, 남자는 음경을 따라 회음부에 이르니, 여자와 같다." 이것은 독맥(督脈)이 지나는 곳이다. ○족궐음 맥(足厥陰脈)에 병이 들면 남자의 경우 퇴산(瘻瘕) · 호산(狐疝)이 생기고, 부인의 경우 아랫배가 붓는다. (《영추(靈樞)》) ○독맥(督脈)은 회음부에서 일어나 척추 속을 따라 위로 풍부(風府)에 이른다. 임맥(任脈)은 중극(中極) 아래에서 일어나 음모의 발제로 올라가고 뱃속을 따라 인후(咽喉)에 이른다. 임맥(任脈)에 병이 들면 남자의 경우 내결(內結) · 칠산(七疝)이 되고, 여자의 경우 대하(帶下) · 가취(瘕聚)가 된다. (《영추(靈樞)》) ○음종(陰腫) · 음위(陰痿) · 음양(陰痒) · 음정(陰挺) · 음축(陰縮) · 목신(木腎) · 음식창(陰蝕瘡) · 신장풍(腎藏風)은 모두 전음의 질병이다. ]

疝病之因。 [ 內經曰，病在小腹，腹痛，不得大小便，病名曰疝，得之寒。 ○疝者，寒氣結聚之所爲也。 (內經) ○疝者，睾丸連小腹，急痛也 (睾陰丸也)。有痛在睾丸者，有在五樞穴邊者，皆足厥陰之經也。或有形，或無形，或有聲如蛙，有形如瓜。自素問以下，皆以爲寒，理固然也。予思之，此病始於濕熱在經，鬱而至久，又感寒氣外束，所以作痛。若只作寒論，恐爲未備。人有踢氷涉水，終身不病此者，無熱故也。蓋大怒則火起於肝，醉飽則火起於胃，房勞

則火起於腎。火積之久，母能令子虛，濕氣便盛。厥陰屬木，係於肝，爲將軍之官，其性急速，火性又暴，爲寒所束，宜其痛之太暴也。有以烏頭梔子作湯服之，其效亦敏。然濕熱又須分多少而治，濕者腫多，癩病是也。（丹心）】

산병(疝病)의 원인.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병이 아랫배에 있어 배가 아프고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병을 '산(疝)'이라 한다. 찬 기운으로 생긴다." ○ 산(疝)은 한기(寒氣)가 뭉쳐져 생긴다. (《내경(內經)》) ○ 산(疝)이란 고환 ( '고(睾)'는 불알이다 ) 에서 아랫배까지 당기고 아픈 것이다. 통증이 고환에 있는 경우가 있고, 오추혈(五樞穴) 주변에 있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병이다. 형태가 있는 경우, 형태가 없는 경우, 개구리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경우, 오이 모양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소문(素問)》 아래로 모두 한(寒) 때문으로 보았으니 이치가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 이 병은 습열(濕熱)이 경맥에 있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울체되어 오래된 상태에서 다시 한기(寒氣)가 이를 밖에서 옮아매서 아픈 것이다. 만약 오직 한(寒)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아마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얼음을 밟고 물을 건너도 평생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열(熱)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크게 분노하면 화(火)가 간(肝)에서 일어나고, 취하고 배부르면 화(火)가 위(胃)에서 일어나며, 방로(房勞)하면 화(火)가 신(腎)에서 일어난다. 화(火)가 오래 쌓이면, 어미가 자식을 허약하게 할 수 있으니 습기(濕氣)가 곧 치성해진다. 궤음(厥陰)은 목(木)에 속하고, 간(肝)에 연결된다. 간(肝)은 장군(將軍)과 같은 역할을 하여 그 성질이 급하고 화(火)의 성질도 사나우므로, 한(寒)에 속박당하면 분명히 그 통증이 매우 사나울 것이다. 오두(烏頭) · 치자(梔子)로탕약을 만들어 복용하면 그 효과가

빠르다. 그러나 습열(濕熱)은 또한 모름지기 많고 적음을 나누어 치료해야 한다. 습(濕)이 많으면 붓는 경우가 많으니, 퇴산(癧疝)이 이것이다. (《단심(丹心)》) ]

男子與女子之治，原無分別，然而亦有殊處。男子與婦人殊者，疝病、陽強不倒、痿而不舉。疝病不同，然而與婦人異者，止狐疝不同耳，餘俱相同。狐疝者，日間縮在囊之上，夜間睡<sup>3</sup>在囊之下也。此乃寒濕，又感陰陽不正之氣，乘於交感之際，或在神道之傍，或在風濕之際，感而成之也。方用扶正去疝湯，杜冲 [五錢] 搗汁，以涼水浣之，取汁一碗，加 [人蔘一兩，肉桂、桂枝、小茴香、橘核各一錢]，水煎服。一服卽伸出，二服卽消，三服全愈。神方也。 [ (男治) ]

남자와 여자의 치료에는 원래 구별이 없으나 다른 점도 있다. 남자와 부인이 다른 것은 산병(疝病) · 발기지속증 · 발기부전증 등이다. 산병이 같지 않다고 하나 부인과 차이 나는 점은 단지 호산(狐疝)이 같지 않다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같다. 호산이란, 낮에는 음낭이 위로 오그라들고 밤에는 음낭이 아래로 늘어지는 병이다. 이는 부적절한 상황에서 성교할 때 한습(寒濕)이 침입하여 생긴다. 혹은 묘지 주변에 있을 때, 혹은 바람불고 습한 날씨일 때 한습을 받아 이 병이 된다. 처방으로는 부정거산탕(扶正去疝湯)을 쓴다. 두충(杜冲) [5돈을] 즙이 나도록 찢은 다음 찬물로 씻어서 즙 1사발을 취한다. 여기에 [인삼(人蔘) 1냥, 육계(肉桂) · 계지(桂枝) · 소회향(小茴香) · 굴핵(橘核) 각

1돈을 ] 넣어 물에 달여 복용한다. 1번 복용하면 음낭이 나오고, 2번 복용하면 증상이 사라지며, 3번 복용하면 완전히 낫는다. 신묘한 처방이다. [ (〈남치(男治)〉) ]

狐病方<sup>4</sup>。用逐狐丹，[ 沙蔘一兩，王不留行、白芍藥各三錢，柴胡二錢 ]，水煎服。一劑即出而不縮。[ (男治) ]

호산(狐疝)을 치료하는 방법. 축호단(逐狐丹)을 사용한다. [ 사삼(沙蔘) 1냥, 왕불류행(王不留行) · 백작약(白芍藥) 각 3돈, 시호(柴胡) 2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음낭이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남치(男治)〉) ]

治疝方。[ 沙蔘一兩，白芍藥五錢，橘核、肉桂、柴胡各一錢，吳茱萸、陳皮各五分 ]。水煎服。一劑即定痛，二劑即全愈。疝氣一症，大約皆肝木之病，所以治其肝，自隨手而奏功也。[ (男治) ]

산기(疝氣)를 치료하는 처방. [ 사삼(沙蔘) 1냥, 백작약(白芍藥) 5돈, 굴핵(橘核) · 육계(肉桂) · 시호(柴胡) 각 1돈, 오수유(吳茱萸) · 진피(陳皮) 각 5푼. ]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통증이 멎고, 2제(劑)를 쓰면 완전히 낫는다. 산기(疝氣)라는 증상은 대략 모두 간목(肝木)의 병이므로 그 간(肝)을 치료하면 자연히 손쉽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남치(男治)〉) ]

至於痿而不振者，乃過於琢削，日泄其腎中之水，而腎中之火亦日消亡。方用起陽至神丹。[ 熟地黃一兩，白朮五錢，山茱萸四錢，人蔘、枸杞子各三錢，白茯神、肉桂各二錢，遠志、巴戟、肉茯蓉、杜沖各一錢 ]，水煎服。一劑起，二劑

強，三劑妙。老人倍加。此方用熱藥於補水之中，則火起而不愁炎燒之禍。

[ (男治) ]

음경이 위축되어 발기되지 않는 경우는, 지나친 성생활로 날마다 신(腎) 속의 수(水)를 누설시킨 까닭에 신(腎) 속의 화(火) 또한 날마다 소멸하여 없어졌기 때문이다. 처방으로는 기양지신단(起陽至神丹)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1냥, 백출(白朮) 5돈, 산수유(山茱萸) 4돈, 인삼(人蔘) · 구기자(枸杞子) 각 3돈, 백복신(白茯神) · 육계(肉桂) 각 2돈, 원지(遠志) · 파극(巴戟) · 육종용(肉蓯蓉) · 두충(杜沖)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발기되고, 2제(劑)를 쓰면 음경이 단단해지며, 3제(劑)를 쓰면 오묘한 효과를 본다. 노인은 배로 더한다. 이 처방은 수(水)를 보하는 약재 속에 뜨거운 성질의 약재를 섞어 사용하므로, 화(火)가 일어나도 불태워버리는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남치(男治)〉) ]

陽倒不舉方。用強陽至神丹，[ 黃芪二斤，熟地黃一斤，白朮八兩，巴戟天、當歸各六兩，覆盆子、肉桂、柏子仁去油、麥門冬各三兩 ]，各爲末，蜜丸。每日白滾湯送下一兩，自然陽旺不倒矣。

발기부전증을 치료하는 방법. 강양지신단(强陽至神丹)을 사용한다. [ 황기(黃芪) 2근, 숙지황(熟地黃) 1근, 백출(白朮) 8냥, 파극천(巴戟天) · 당귀(當歸) 각 6냥, 복분자(覆盆子) · 육계(肉桂) · 백자인(柏子仁) ( 기름을 제거한다 ) · 맥문동(麥門冬) 각 3냥. ] 이 약재를 각각 가루 내어 꿀로 환을 빚는다. 매일 끓인 물로 1냥씩 복용하면 자연히 양기가 왕성해져 발기가 유지된다.

強陽不倒。此虛火炎上，而肺金之氣不能下行故爾。若用 [ 知母、黃柏 ] 二味，煎湯飲之，立時消散。然而自倒之後，終歲經年，不能重振，亦是苦也。方用倒陽湯，[ 元蔴、麥門冬各三兩，肉桂三分 ]，水煎服。[ (男治) ]

발기지속증. 이는 허화(虛火)가 위로 타오르고 폐금(肺金)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 지모(知母) · 황백(黃柏) ] 2가지 약재를 달여서 마시면 즉시 해소된다. 그러나 스스로 해소된 뒤에 여러 해 동안 다시 발기되지 않는 것도 괴로운 일이다. 처방으로는 도양탕(倒陽湯)을 쓴다. [ 현삼(玄蔴) · 맥문동(麥門冬) 각 3냥, 육계(肉桂)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남치(男治)〉) ]

疝病危證。[ 疝病之證，或因風寒外襲，或因怒氣上衝，小腹作痛，上連脇肋。甚則搐入反張，咬牙戰掉，冷汗交流，須臾不救。 (丹心) ○疝病虛甚，上爲嘔吐，下有遺精者，危。 (入門) ○惟是逆氣長噓，中脘停酸，躁悶擾擾，甚而至於嘔吐，最爲惡候。蓋脾土不濟，腎水上乘，必爲酸汁，或爲痰涎，遂成暴吐，大小二便關格閉滯，而腎汁胃汁，皆其口出也。如此者，大抵不救矣。 (直指) ]

산병에서 위험한 증상. [ 산병(疝病)의 증상은, 풍한(風寒)이 외부에서 침습하였거나 또는 분노가 위로 치받았거나 하여, 아랫배에 생긴 통증이 위로는 옆구리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심하면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뒤로 젓하고 이를 악물며 전율하고 식은땀을 흘리니, 잠깐 사이에 구할 수 없게 된다. (《단심(丹心)》) ○산병에 매우 허하여 위로는 구토하고 아래로는 유정(遺精)이 있는 경우는 위험하다. (《입문(入門)》) ○숨이 차올라 길게 한숨을 내쉬고,

중완(中腕)에 신물이 고이며, 초조하고 답답하며, 심하면 구토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경우이다. 대개 비토(脾土)가 역할을 못해 신수(腎水)가 위로 범람 하면 반드시 신물이 되거나 가래침이 생긴다. 그러다 마침내 격렬히 구토하고, 대소변이 막히면서 신즙(腎汁)과 위즙(胃汁)이 모두 입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하지 못한다. (《직지(直指)》) ]

陰囊病死候。 [ 靈樞曰，悲哀動中則傷魂，魂傷則陰縮而攣。○傷寒及熱病，肝氣絕，則舌卷，卵上縮而終矣。蓋肝者，筋之合也，筋者，聚於陰器而脈絡於舌本，故如是也。 (靈樞) ○病人陰囊莖俱腫者，死。 (扁鵲) ]

음낭병으로 죽는 징후.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슬픔이 마음을 동요시키면 혼(魂)을 상하게 하고, 혼이 상하면 음낭이 오그라들고 경련이 생긴다." ○ 상한(傷寒)이나 열병에 간기(肝氣)가 끊어지면 혀가 말리고 음낭이 위로 오그라들면서 죽는다. 대개 간(肝)은 근(筋)과 상합한다. 근은 음기(陰器)에 모이고 맥은 혀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영추(靈樞)》) ○ 환자의 음낭과 음경이 모두 붓는 경우는 죽는다. (《편작(扁鵲)》) ]

## 婦人前陰 부인의 전음

婦人羞隱之處，不便明言，然大約非寒則熱耳。今有一試<sup>5</sup>，先用加味四物湯。  
[熟地黃五錢，當歸、白芍各三錢，川芎、柴胡、白芥子、甘草各一錢，乾薑炮  
、片芩各三分]，水煎服。未好，則是熱病作祟，方中大加梔子三錢治之，必奏  
功。 [ (女治) ]

부인의 은밀한 부위는 명확히 말하기 불편하지만, 대략 한증(寒證) 아니면 열증(熱證)일 뿐이다. 여기 써 볼 만한 방법 하나가 있으니, 먼저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5돈, 당귀(當歸) · 백작약(白芍藥) 각 3돈, 천궁(川芎) · 시호(柴胡) · 백개자(白芥子) · 감초(甘草) 각 1돈, 건강(乾薑) ( 잣불에 묻어 굽는다 ) · 편금(片芩) 각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낫지 않으면 이는 열병이 원인이니, 처방 속에 치자(梔子) 3돈을 크게 더하여 치료하면 반드시 효과를 거둘 것이다. [ (〈여치(女治)〉) ]

婦人陰內生虫，乃濕熱也，用鷄肝入末藥引之亦妙。不若 [ 夫子 ] 之方更新<sup>6</sup>也。  
方用 [ 蚯蚓 ] 三四條，炙乾爲末，用蔥數條，火上炙乾爲末，用蜜一椀，煮成膏，將藥搗於其中。納陰戶，虫盡死矣，自然隨溺而下，神方也。世人未知，幸爲留意。 [ ( 女治 ) ]

부인의 음부 안에 벌레가 생기는 것은 습열(濕熱) 때문이다. 닭간을 쓰거나 가루약을 넣어 벌레를 끌어내는 것도 오묘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 그 분의 ] 처방만큼 신묘하지는 않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지렁이 3 - 4마리를 굽고 말려 가루로 만든다. 파 몇 줄기를 불 위에서 굽고 말려 가루로 만든다. 꿀 1사발을 졸여 고(膏)를 만든 다음, 약을 그 안에 넣고 찧는다. 이것을 음부에 넣으면 벌레가 모두 죽어서 자연히 소변과 함께 나온다. 신묘한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니, 주의하면 좋겠다. [ (〈여치(女治)〉) ]

婦人陰門邊生瘡，作痒作痛不止者，以此方煎水洗之，立效。用 [ 蛇床子一兩，川椒、白礬各三錢 ] ，水十椀，煎五椀，乘熱薰之，溫則洗之。一次卽止痒，二次卽止痛，三次卽全愈。分作五日洗之，每日止消洗一次。神效之極，幸珍之。

[ ( 女治 ) ]

부인의 음문 주변에 창(瘡)이 생겨서 가려움이나 통증이 그치지 않는 경우,  
이 처방을 물에 달여서 씻으면 즉시 효과가 있다. [ 사상자(蛇床子) 1냥, 천초  
(川椒) · 백반(白礪) 각 3돈. ] 이 약재를 물 10사발에 넣고 5사발이 되도록  
달인다. 뜨거울 때 훈증하고 미지근해지면 씻는다. 1번 하면 가려움이 멈추  
고, 2번 하면 통증이 멈추며, 3번 하면 완전히 낫는다. 5일에 나누어 씻되 매  
일 1번만 씻는다. 지극히 신비한 효과가 있으니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 ( <여치(女治)> ) ]

人生暗疾而不可視之症，最難治而最易治也。大約暗疾，婦人居其九，或生於兒  
門之中，或生於乳上，或生於臍間，或生於糞門之傍，或生於金蓮之上，止可陳  
說，然猶有羞愧而不宜盡言者，止可意會而默思之也。患在身體之外者，必係瘡  
瘍，前法治之，不再論也。惟是兒門之內，不可不立一方，以傳行醫之暗治。大  
約兒門內之病，非癢則痛。吾言一方，俱可兼治，取效甚速。用默治湯。[ 當歸  
一兩，白芍藥、茯苓各五錢，山梔子三錢，柴胡一錢，苦棟皮五分 ]，水煎服。  
有痰，加 [ 白芥子一錢 ]，有火，加 [ 黃芩一錢 ]，有寒，加 [ 肉桂一錢 ]。

○ [ ( 暗治 ) ]

은밀한 곳에 질병이 생겨 살펴보기 어려운 증상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우면서  
도 가장 치료하기 쉽다. 대략 은밀한 질병은 부인이 그 9할을 차지하는데, 혹  
질 입구에 생기거나, 혹은 유방 위에 생기거나, 혹은 배꼽 사이에 생기거나,  
혹은 항문 주변에 생기거나, 혹은 발 위에 생기는 경우이다. 다만 증상을 설명  
할 수 있어도 오히려 부끄러워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마음으로 해

아려 묵묵히 생각할 뿐이다. 환부가 몸의 바깥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창양에 해당하여 앞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오직 질 속에 생긴 병에 대해서는 처방 하나를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의원이 은밀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전한다. 대략 질 속의 병은 가렵지 않으면 아픈 것이다. 내가 말하는 처방은 이를 모두 겸하여 치료할 수 있고 효과도 매우 빠르다. 묵치탕(默治湯)을 쓴다. [ 당귀(當歸) 1냥, 백작약(白芍藥) · 복령(茯苓) 각 5돈, 산치자(山梔子) 3돈, 시호(柴胡) 1돈, 고련피(苦棟皮)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담(痰)이 있으면 [ 백개자(白芥子) 1돈을 ] 더하고, 화(火)가 있으면 [ 황금(黃芩) 1돈을 ] 더하며, 한(寒)이 있으면 [ 육계(肉桂) 1돈을 ] 더한다. ○ [ (〈암치(暗治)〉) ]

產門內生虫方。用 [ 鷄肝 ] 一部，以針刺無數孔，納入產門，則虫俱入 [ 鷄肝 ] 之內矣。三付全愈，不必添入藥味也。止要刺孔甚多，則虫有入路。三付後，用祛濕化痰湯。[ 白芍藥、當歸、白朮各五錢，炒梔子、澤瀉、茯苓、甘草各三錢，陳皮五分 ]，水煎服。四劑不再發。○又方。產門外生瘡久不愈，神效。  
 [ 黃柏 ] 炒爲末，[ 海兒茶、白薇炒 ] 爲末，[ 蚯蚓 ] 糞炒、[ 鉛粉 ] 炒、[ 乳香出油、朝腦<sup>7</sup> 各三錢，輕粉、冰片各五分，射香三分 ]，各爲末調勻。以藥末繆口上。二日卽愈，神效之極。兼可治各色之瘡，無不神效。[ ( 暗治 ) ]

질 안에 벌레가 생긴 것을 치료하는 방법. 바늘로 [ 닭간 ] 1개에 무수히 많은 구멍을 뚫은 뒤 이것을 산문에 넣으면 벌레들이 모두 [ 닭간 ] 속으로 들어간다. 3번 시행하면 완전히 낫는데, 약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구멍을 매우 많이 뚫어야 벌레가 들어갈 길이 있다. 3번 시행한 후에는 거슴화담

탕(祛濕化痰湯)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 당귀(當歸) · 백출(白朮) 각 5돈, 치자(梔子) ( 볶는다 ) · 택사(澤瀉) · 복령(茯苓) · 감초(甘草) 각 3돈, 진피(陳皮)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4제(劑)를 쓰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 또 다른 처방. 산문(產門) 바깥쪽에 창(瘡)이 생겨 오래도록 낫지 않을 때 신묘한 효과가 있다. [ 황백(黃柏) ] ( 볶아서 가루 낸다 ) · [ 해아다(海兒茶) · 백미(白薇) ] ( 볶아서 가루 낸다 ) · [ 구인분(蚯蚓糞) ] ( 볶는다 ) · [ 연분(鉛粉) ] ( 볶는다 ) · [ 유향(乳香) ( 기름을 뺀다 ) · 장뇌(樟腦) 각 3돈, 경분(輕粉) · 빙편(冰片) 각 5푼, 사향(麝香) 3푼. ] 이 약재를 각각 가루 내어 고르게 섞는다. 약 가루를 창(瘡)에 뿌린다. 이틀이면 곧 낫는데, 지극히 효과가 좋다. 아울러 각종 창(瘡)을 치료할 수 있는데, 모두 신효하다.  
[ (〈암치(暗治)〉) ]

○ 産門生合不開。古文錢磨利，割開，以陳石灰傳之，卽愈。 [ ( 通變方 ) ]

○ 산문(產門)이 유착되어 열리지 않는 경우. 고문전(古文錢)을 날카롭게 갈아서 유착된 곳을 가른 다음 진석회(陳石灰)를 발라주면 낫는다. [ (《통변방(通變方)》) ]<sup>8</sup>

女人穿竅。<sup>9</sup> 女人無竅者，以鉛作鋌，逐日紝之，久久自開。此皆昔人未知者也。  
[ ( 綱目 ) ]

부인의 무공성 처녀막 뚫기. 처녀막이 폐쇄된 석녀(实女)의 경우, 납으로 막대기를 만들어 매일 찔러 넣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 저절로 열린다. 이는 모두 옛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방법이다. [ (《강목(綱目)》) ]<sup>10</sup>

1. 挺孔 『挺孔 ※문맥상 ←』
2. 愈 『愈 ※《동의보감》 ←』
3. 睡 『垂 ※《석실비록》 ←』
4. 狐病方 『狐疝方 ※《석실비록》 ←』
5. 試 『試 方 ※《석실비록》 ←』
6. 新 『神 ※《석실비록》 ←』
7. 朝腦 『潮腦 ※《석실비록》 ←』
8. 《본초강목》에 보인다. ←
9. 女人 『實女 ※《본초강목》 ←』
10. 《본초강목》에 보인다. ←

## † 後陰 후음

痔疾之因。 [ 小腸有熱必痔，大腸有熱必便血。 ( 仲景 ) ○內經曰，因而飽食，筋脈橫解，腸澼爲痔。又曰，飲食不節，起居不時者，陰受之。陰受之則入五藏，入五臟則填滿閉塞，下爲飧泄，久爲腸澼。 ○腸澼者，大便下血，即腸風藏毒也。澼者，腸間積水也。 ( 類聚 ) ○蓋飽食則不能運，食積停聚大腸，脾土一虛，肺金失養，則肝木寡畏，風邪乘虛下流，輕則腸風下血，重則變爲痔漏。或醉飽入房，精氣脫泄，熱毒乘虛下注。或淫極入房，致傷膀胱與腎肝筋脈。蓋膀胱筋脈，抵腰絡腎，貫臀走肝，環前後二陰，故痔乃筋脈病也。 ( 入門 ) ○痔非外邪，乃藏內濕熱風燥四氣相合而成。其腸頭成塊者，濕也。腸頭墜腫者，濕兼熱也。出膿血水者，熱勝血也。作大痛者，火熱也。痒者，風熱也。大便秘者，燥熱也。小便澀者，肝藏濕熱也。 ( 入門 ) ]

치질의 원인. [ 소장(小腸)에 열이 있으면 반드시 치질이 생기고, 대장(大腸)에 열이 있으면 반드시 변혈(便血)이 생긴다. (《중경(仲景)》)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배불리 먹은 후에 근맥(筋脈)이 제멋대로 풀어져 생긴 장벽(腸澼)이 치질이 된다." 또 말하였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생활에 절도가 없으면 음(陰)이 병사(病邪)를 받는다. 음이 병사를 받으면 오장(五臟)으로 들어가고, 오장(五臟)으로 들어가면 배가 불러올라 막히고 밑으로는 소화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온다. 이것이 오래되면 장벽(腸澼)이 된다." ○장벽(腸澼)이란, 대변으로 피가 나오는 것으로 장풍(腸風)이나 장독(藏毒)이다. '벽(澼)'이란 장(腸) 사이에 물이 고이는 것이다. (《유취(類聚)》) ○대

저 너무 많이 먹으면 비가 제대로 운화시키지 못하여 식적(食積)이 대장(大腸)에 모인다. 비토(脾土)가 일단 허해지면 폐금(肺金)을 기르지 못하여 간목(肝木)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풍사(風邪)가 허한 틈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증상이 가벼우면 장풍(腸風) · 하혈(下血)이 되고, 위증하면 치루(痔漏)로 변하게 된다. 또는 취하거나 과식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여 정기가 빠져나가면 열독이 허한 틈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린다. 또 음란한 마음으로 지나치게 성행위를 하면 방광(膀胱) · 신(腎) · 간(肝)의 근맥을 상하게 된다. 방광의 근맥은 허리에 이르고 신(腎)에 이어지며, 엉덩이를 관통해 간(肝)으로 달려갔다가 전음과 후음을 감싼다. 그러므로 치(痔)는 근맥의 병이다. (《입문(入門)》) ○ 치(痔)는 외부의 사기(邪氣)가 아니라 오장 속에 있던 습(濕) · 열(熱) · 풍(風) · 조(燥) 4가지 기운이 서로 합쳐져 만들어진다. 항문에 덩어리가 생긴 것은 습(濕)이 있는 경우이다. 항문이 튀어나와 붓는 것은 습(濕)에 열(熱)까지 겹친 경우이다. 피고름이 나오는 것은 열(熱)이 혈(血)을 침범한 경우이다. 매우 아픈 것은 화열(火熱) 때문이다. 가려운 것은 풍열(風熱) 때문이다. 변비가 있는 것은 조열(燥熱) 때문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간장(肝臟)의 습열(濕熱) 때문이다. (《입문(入門)》) ]

**痔有內外。** [ 脈痔、腸痔、氣痔、血痔、酒痔屬內，牡痔、牝痔、漏痔屬外。 ]

치질에는 내치(內痔)와 외치(外痔)가 있다. [ 맥치(脈痔) · 장치(腸痔) · 기치(氣痔) · 혈치(血痔) · 주치(酒痔)는 내치(內痔)에 속하고, 모치(牡痔) · 빈치(牝痔) · 누치(漏痔)는 외치(外痔)에 속한다. ]

脈痔。 [ 腸口顆顆發癟，且痛且痒，宜槐角元、釣腸丸、神應黑玉丹、神應散。

一名舉痔。 ]

맥치(脈痔)。 [ 항문에 알알이 치핵이 발생하여 아프면서 가렵다. 괴각원(槐角元) · 조장환(釣腸丸) · 신응흑옥단(神應黑玉丹) · 신응산(神應散)을 써야 한다. 거치(舉痔)라고도 한다. ]

### 槐角元 괴각원

- [ 槐角四兩，地榆、黃芩、防風、當歸、枳殼各二兩。右細末，酒糊丸梧子大，空心，米飲下五七十丸。 (局方) ○并治外痔、內痔、脫肛、脈痔、瘻痔、虫痔 ]
- [ 괴각(槐角) 4냥, 지유(地榆) · 황금(黃芩) · 방풍(防風) · 당귀(當歸) · 지각(枳殼) 각 2냥. 이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술을 넣고 쑨 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 만하게 환을 만든다. 빈속에 미음으로 50~70환을 복용한다. (《국방(局方)》) ○ 아울러 외치(外痔) · 내치(內痔) · 탈항(脫肛) · 맥치(脈痔) · 누치(瘻痔) · 충치(虫痔)를 치료한다. ]

### 釣腸丸 조장환

- [ 治諸痔，及久漏<sup>1</sup>脫肛，下膿血。黃茋、猬皮各一箇，胡桃肉七箇，俱燒存性，鷄冠花二兩半，白附子、南星、半夏（三味并生）、枳殼、訶子皮各一兩，綠礬、白礬並煅，生附子各五錢。右細末，醋糊和丸梧子大，空心，溫酒下三五十丸。 (得效) ]

- [ 여러 가지 치질, 그리고 오래된 누치나 탈항으로 피고름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황과루(黃瓜薹) · 위피(猾皮) 각 1개, 호두살 7개 ( 이 3가지 약재는 약성이 남을 만큼만 태운다 ), 계관화(鷄冠花) 2냥 반, 백부자(白附子) · 남성(南星) · 반하(半夏) ( 3가지는 모두 생것 ) · 지각(枳殼) · 가자피(訶子皮) 각 1냥, 녹반(綠礬) · 백반(白礬) ( 모두 불에 달군다 ) · 부자(附子) ( 생것 ) 각 5돈. 이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식초를 넣고 쑨 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빈속에 따뜻한 술로 30~50환을 복용한다. (《득효(得效)》) ]

### 神應玉石丹<sup>2</sup> 신응흑옥단

- [ 治五痔及諸痔。猾皮四兩，猪懸蹄二十五隻，牛角腮三兩，亂髮、敗棕各二兩，槐角一兩半，苦棟根皮一兩二錢半，雷丸、脂麻各一兩。右剉碎，盛磁缸內，火煅<sup>3</sup>爲末，乳香五錢，射香二分<sup>4</sup>和勻，酒糊和丸梧子大。先嚼胡桃肉一枚，以溫酒吞下三五十丸，空心，晚食前。三日除根。 ( 得效 ) ]
- [ 5가지 치질과 여러 가지 치질을 치료한다. 위피(猾皮) 4냥, 돼지 발굽 25개, 소 뿔심 3냥, 난발(亂髮) · 패종(敗棕) 각 2냥, 괴각(槐角) 1냥 반, 고련근피(苦棟根皮) 1냥 2돈 반, 뇌환(雷丸) · 지마(脂麻) 각 1냥. 이 약재를 잘게 썰어서 사기 항아리 속에 넣고 약성이 남도록 불로 달군 뒤 가루로 만든다. 유향(乳香) 5돈, 사향(麝香) 2푼을 넣고 고르게 섞은 후, 술을 넣고 만든 풀로 반죽하여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먼저 호두살 1개를 씹은 다음 따뜻한 술로 30 - 50알을 복용한다. 공복이나 저녁 식사 전에 복용한다. 3일 만에 뿌리까지 제거된다. (《득효(得效)》) ]

### 神應散 신응산

- [ 治五痔。黃牛角腮一枚搥碎，蛇脫皮一條，豬牙皂角七箇，穿山甲七片，猾皮一兩。右各細剉，入缸內，固濟黃泥，大煅通紅，候冷，細研爲末。臨臥時，細嚼胡桃仁一箇如糊，用好酒一盞，送下便睡。至五更時，以溫酒調下藥末三錢，至辰時更進一服。雖久病，不過三服立效。 ( 綱目 ) ]
- [ 오치(五痔)를 치료한다. 황소의 뿔심 1개 ( 망치로 짚는다 ), 뱀허물 1개, 저아조각(猪牙皂角) 7개, 천산갑(穿山甲) 7개, 위피(猾皮) 1냥. 이 약재를 각각 잘게 썰어서 항아리 안에 넣고 황토로 단단히 밀봉한다. 이것을 전체가 붉게 달아오르도록 불에 달구었다가 식힌 다음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잠자리에 들 때 호두殼 1개를 풀처럼 될 때까지 꼭꼭 씹은 뒤 좋은 술 1잔으로 삼키고 바로 잠을 잔다. 새벽 오경(五更)에 따뜻한 술에 약 가루 3돈(錢)을 타서 마시고, 진시(辰時)에 다시 한 번 더 복용한다. 비록 오래된 병이라도 3번 복용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강목(綱目)》) ]

腸痔。 [ 肛內結核，寒熱往來，登溷脫肛，卽下不脫肛條<sup>5</sup> 同治。 ( 三因 ) ]

장치(腸痔). [ 항문 안에 멍울이 생기고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며 변소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면 항문이 빠져나온다. 아래 탈항(脫肛) 조목 내용대로 치료한다. (《삼인(三因)》) ]

### 蔘芪湯 삼기탕

- [ 肺與大腸爲表裏，腎主大便，肺腎虛。肛門虛寒脫出。人蔘、黃芪蜜炒、當歸、白朮、生地黃、白芍藥酒炒、白茯苓各一錢，升麻、桔梗、陳皮、乾

薑炮各五分，甘草灸三分，煎服。（回春）】

- [ 폐(肺)와 대장(大腸)은 표리(表裏) 관계이고, 신(腎)은 대변을 주관한다. 폐(肺)와 신(腎)이 허(虛)하면 탈항이 생긴다. 삼기탕은 항문이 허한(虛寒)하여 빠져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인삼(人蔘) · 황기(黃芪) ( 꿀을 발라 볶는다 ) · 당귀(當歸) · 백출(白朮) · 생지황(生地黃) · 백작약(白芍藥) ( 술에 적셔 볶는다 ) · 백복령(白茯苓) 각 1돈, 승마(升麻) · 길경(桔梗) · 진피(陳皮) · 건강(乾薑) ( 잣불에 묻어 굽는다 ) 각 5푼, 감초(甘草) ( 굽는다 ) 3푼. 이 약재를 달여서 복용한다. (《회춘(回春)》) ]

### 補中益氣湯 보중익기탕

- [ 黃芪一錢半，人蔘、白朮、甘草各一錢，當歸，陳皮各五分，升麻、柴胡并酒洗各三分，加訶子皮、櫻根皮少許，煎服。（內傷）】
- [ 황기(黃芪) 1돈 반, 인삼(人蔘) · 백출(白朮) · 감초(甘草) 각 1돈, 당귀(當歸) · 진피(陳皮) 각 5푼, 승마(升麻) · 시호(柴胡) ( 2가지 모두 술로 씻는다 ) 각 3푼. 여기에 가자피(訶子皮) · 저근피(櫻根皮) 조금을 더하여 달여서 복용 한다. (〈내상(內傷)〉) ]

### 猾皮散 위피산

- [ 治因泄痢或努力脫肛。猾皮、鼈甲各一箇燒存性，磁石煅醋淬七次五錢，桂心三錢。右末，每二錢，空心，米飲下，仍用草鞋底灸熱按入。忌房事。（入門）]

- [ 설사나 이질 혹은 힘을 쓰다가 탈항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위피(猾皮) · 별갑(鼈甲) 각 1개 ( 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 자석(磁石) ( 불에 달구고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한다 ) 5돈, 계심(桂心) 3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매번 2 돈씩 빈속에 미음으로 복용한다. 그리고 짚신 밑바닥을 뜨겁게 데워 빠진 항문을 밀어 넣는다. 성생활을 피한다. (《입문(入門)》) ]

洗藥。 [ 一女子脫肛，以糯米濃煎汁洗肛，却取塙燒紅沃醋，青布鋪其上，令濕<sup>6</sup>坐布上，肛自吸入。 ]

씻는 약. [ 어떤 여자가 탈항을 앓았는데, 찹쌀(糯米)을 진하게 달인 물로 항문을 씻고, 빨갛게 달군 벽돌에 식초를 부은 다음 푸른 베를 깔고 따뜻할 때 그 위에 앓게 하였더니 항문이 저절로 들어갔다. ]

氣痔。 [ 加味香蘇散。因憂恐恚怒，適臨乎前，立見腫痛，氣散則愈。治氣痔。  
陳皮、枳殼、川芎、槐花各一錢，紫蘇梗、檳榔、木香、桃仁、香附子、甘草各  
五分。右剗作一貼，薑三棗二同煎服。一名橘皮湯。 (綱目) ]

기치(氣痔). [ 가미향소산(加味香蘇散)을 쓴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성  
낼 일이 있을 때 곧바로 붓고 아프며, 감정이 사라지면 낫는다. 가미향소산은  
기치(氣痔)를 치료한다. 진피(陳皮) · 지각(枳殼) · 천궁(川芎) · 괴화(槐花) 각  
1돈, 자소경(紫蘇梗) · 빈랑(檳榔) · 목향(木香) · 도인(桃仁) · 향부자(香附  
子) · 감초(甘草) 각 5푼. 이 약재를 잘게 썰어서 1첩으로 만들고, 생강 3쪽 대  
추 2개와 함께 달여서 복용한다. 굴피탕(橘皮湯)이라고도 한다. (《강목(綱  
目)》) ]

血痔。 [ 每遇大便，清血隨下而不止。與下腸風藏毒同治。腸澼<sup>7</sup>。 ]

혈치(血痔)。 [ 대변을 볼 때마다 맑은 피가 나오면서 멈추지 않는다. 아래 장 풍(腸風)이나 장독(藏毒)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장澼(腸澼)도 참고하라. ]

### 散毒散<sup>8</sup> 인삼패독산

- [ 治腸風下血，必在糞前，名外痔<sup>9</sup>，色毒<sup>10</sup>而鮮，治以散風行濕。人蔘、柴胡、前胡、薑活<sup>11</sup>、獨活、川芎、赤茯苓、桔梗、枳角、甘草各一錢，薑三，薄荷少許，煎服。 ]
- [ 장풍(腸風)을 치료한다. 장풍으로 나는 피는 반드시 대변이 나오기 전에 나 오므로 외치(外痔)라고 하며, 색이 맑고 선명하다. 장풍은 풍(風)을 흩어지게 하고 습(濕)을 운행시켜서 치료한다. 인삼(人蔘) · 시호(柴胡) · 전호(前胡) · 강 활(羌活) · 독활(獨活) · 천궁(川芎) · 적복령(赤茯苓) · 길경(桔梗) · 지각(枳殼) · 감초(甘草) 각 1돈, 생강(生薑) 3쪽, 박하(薄荷) 조금. 이 약재를 달여서 복용한다. ]

### 香連丸 향련환

- [ 治腸毒下血，必在糞後，名內痔，色黯而濁，名遠血，治以清熱涼血。黃連一兩，吳茱萸五錢水浸一宿同炒，去茱萸、木香二錢半。右爲末醋糊丸梧子大，空心米飲下二三十丸。 ( 直指 ) ]
- [ 장독(腸毒)을 치료한다. 장독으로 나오는 피는 반드시 대변이 나온 뒤에 나

오므로 내치(內痔)라고 하고, 색이 어둡고 탁하여 원혈(遠血)이라고 한다. 장독은 열을 내리고 혈(血)을 식혀 치료한다. 황련(黃連) 1냥, 오수유(吳茱萸) 5돈 ( 2가지를 물에 하룻밤 담갔다가 함께 볶은 뒤 오수유를 제거한다 ), 목향(木香) 2돈 반.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식초를 넣고 쑨 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 만하게 환을 빚는다. 빈속에 미음으로 20 - 30알을 복용한다. (《직지(直指)》) ]

### 黃連湯 황련탕

- [ 治大便下血 , 腹不痛。黃連、當歸各二錢 , 甘草一錢 , 水煎服。 (易老) ]
- [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만 배가 아프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 황련(黃連) · 당귀(當歸) 각 2돈, 감초(甘草)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역로(易老)》) ]

### 芍藥黃連湯 작약황련탕

- [ 治大便下血 , 腹痛。白芍藥、黃連、當歸各二錢半 , 甘草灸一錢 , 大黃五分 , 桂心二分半。水煎服。 ( 易老 ) ]
- [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서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백작약(白芍藥) · 황련(黃連) · 당귀(當歸) 각 2돈 반, 감초(甘草) ( 굽는다 ) 1돈, 대황(大黃) 5푼, 계심(桂心) 2푼 반.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역로(易老)》) ]

腸風下血，先清其表，後攻其裏，其血自止。如脈洪大，四物湯〔（當歸、川芎、白芍藥、熟地）合黃連解毒湯（黃連、黃芩、黃柏、梔子各一錢二分半），水煎服。〕

장풍(腸風)으로 피가 나올 때, 먼저 환자의 표증(表證)을 풀고 다음으로 이증(裏證)을 치료하면 그 피가 저절로 멈춘다. 만약 맥이 흥대(洪大)하면 사물탕(四物湯)〔（당귀(當歸)·천궁(川芎)·백작약(白芍藥)·숙지황(熟地黃)）과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황련(黃連)·황금(黃芩)·황백(黃柏)·치자(梔子) 각 1돈 2푼 반）을 합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 解毒湯 해독탕

- 〔治臟毒。黃芩、黃連、黃柏、梔子、連翹、槐花炒各一錢，細辛、甘草各五分。水煎服。一名八寶湯。（回春）〕
- 〔장독(臟毒)을 치료한다. 황금(黃芩)·황련(黃連)·황백(黃柏)·치자(梔子)·연교(連翹)·고화(槐花)（볶는다）각 1돈, 세신(細辛)·감초(甘草) 각 5푼.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팔보탕(八寶湯)이라고도 한다.（《회춘(回春)》）〕

### 槐花散 고화산

- 〔治臟毒。當歸、地榆各一錢，槐花炒、枳角、阿膠珠各八分，生地黃、白芍藥、黃芩、升麻各七分，防風、側柏葉各五分。空心、水煎服。（回春）〕

- [ 장독(臟毒)을 치료한다. 당귀(當歸) · 지유(地榆) 각 1돈, 괴화(槐花) ( 볶는다 ) · 지각(枳殼) · 아교주(阿膠珠) 각 8푼, 생지황(生地黃) · 백작약(白芍藥) · 황금(黃芩) · 승마(升麻) 각 7푼, 방풍(防風) · 측백엽(側柏葉) 각 5푼. 빈 속에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회춘(回春)》) ]

### 枳殼散 지각산

- [ 治臟毒。枳殼二兩，黃連、白芍藥各一兩，槐花炒、地榆各五錢，甘草二錢半。右剉，每一兩，空心，水煎服。 ( 醫鑑 ) ]
- [ 장독(臟毒)을 치료한다. 지각(枳殼) 2냥, 황련(黃連) · 백작약(白芍藥) 각 1냥, 괴화(槐花) ( 볶는다 ) · 지유(地榆) 각 5돈, 감초(甘草) 2돈 반. 이 약재를 썰어서 1냥씩 빈속에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의감(醫鑑)》) ]

### 當歸和血散 당귀화혈산

- [ 治腸風射血，一名血箭，及濕毒下血。當歸、升麻各一錢半，槐花炒、青皮、荊芥、白朮、熟地黃各七分，川芎五分。右末，每二錢，空心，米飲調下。一名槐花散。 ( 拔萃 ) ]
- [ 장풍(腸風)으로 발사되듯 피가 나오는 것을 '혈전(血箭)'이라고 한다. 이것과 습독(濕毒)으로 하혈(下血)하는 것을 치료한다. 당귀(當歸) · 승마(升麻) 각 1돈 반, 괴화(槐花) ( 볶는다 ) · 청피(青皮) · 형개(荊芥) · 백출(白朮) · 숙지황(熟地黃) 각 7푼, 천궁(川芎) 5푼. 이 약재를 가루 내어 매번 2돈씩 빈속에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괴화산(槐花散)이라고도 한다. (《발췌(拔萃)》) ]

### 升陽除濕和血湯 승양제습화혈탕

- [ 治腸澼下血作派，其唧出有力而遠射，四散如篩，腹中大痛。白芍藥一錢半，黃芪、甘草炙各一錢，陳皮、升麻各七分，生地黃、牡丹皮、生甘草各五分，當歸、熟地黃、秦艽、肉桂各三分。空心，水煎服。 ( 東垣 ) ]
- [ 장벽(腸澼)으로 피가 분수처럼 뿐어져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이때 피는 힘차게 나와서 멀리까지 가고, 체로 친 듯 사방으로 흘어진다. 배 속은 매우 아프다. 백작약(白芍藥) 1돈 반, 황기(黃芪) · 감초(甘草) ( 굽는다 ) 각 1돈, 진피(陳皮) · 승마(升麻) 각 7푼, 생지황(生地黃) · 목단피(牡丹皮) · 감초(甘草) ( 생것 ) 각 5푼, 당귀(當歸) · 숙지황(熟地黃) · 진교(秦艽) · 육계(肉桂) 각 3푼. 이 약재를 빙속에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동원(東垣)》) ]

### 升陽補胃湯 승양보위탕

- [ 治腸澼下血，唧出遠，散如篩，色紫黑，腰腹沈重，名曰濕毒腸澼。白芍藥一錢半，升麻、羌活、黃芪各一錢，生地黃、熟地黃、獨活、柴胡、防風、牡丹皮、甘草炙各五分，當歸、葛根各三分，肉桂二分。水煎服。 ( 東垣 ) ]
- [ 장벽(腸澼)으로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이때 피는 힘차게 멀리까지 뿐어지고, 체로 친 듯 흘어져 나오며, 색깔은 자흑색이다. 허리와 배는 침증하다. 습독장벽(濕毒腸澼)이라고 한다. 백작약(白芍藥) 1돈 반, 승마(升麻) · 강활(羌活) · 황기(黃芪) 각 1돈, 생지황(生地黃) · 숙지황(熟地黃) · 독활(獨活) · 시호(柴胡) · 방풍(防風) · 목단피(牡丹皮) · 감초(甘草) ( 굽는다 ) 각 5푼, 당귀(當

歸) · 갈근(葛根) 각 3푼, 육계(肉桂) 2푼.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동원(東垣)》) ]

### 益智和中湯 익지화증탕

- [ 治腸澼下血 , 色紫黑 , 腹痛惡寒 , 右關脈按之無力 , 喜熟湯<sup>12</sup> 熨之 , 內寒明矣。白芍藥一錢半 , 當歸、黃芪、升麻、甘草炙各一錢 , 牡丹皮、柴胡、葛根、益智仁、半夏各五分 , 桂枝四分 , 肉桂、乾薑炮各二分。水煎服。  
( 東垣 ) ]
- [ 장벽(腸澼)으로 자흑색 피가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배가 아프고 오한이 든다. 오른쪽 관맥(關脈)을 눌러보면 무력하고 뜨거운 찜질을 좋아하니, 내한(內寒)이 분명하다. 백작약(白芍藥) 1돈 반, 당귀(當歸) · 황기(黃芪) · 승마(升麻) · 감초(甘草) ( 굽는다 ) 각 1돈, 목단피(牡丹皮) · 시호(柴胡) · 갈근(葛根) · 익지인(益智仁) · 반하(半夏) 각 5푼, 계지(桂枝) 4푼, 육계(肉桂) · 건강(乾薑) ( 잣불에 묻어 굽는다 ) 각 2푼.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동원(東垣)》) ]

### 葛根湯 갈근탕

- [ 每遇飲酒 , 輒發腫痛 , 或下血 , 名酒痔。治葛根、枳殼、半夏、赤茯苓、生地黃、杏仁各一錢 , 條芩、甘草各五分 , 黑豆百粒 , 生薑三片 , 白梅一個。水煎服。 ( 入門 ) ]
- [ 술을 마실 때마다 곧바로 붓고 아프며 더러 피가 나오는 것을 주치(酒痔)라

고 한다. 갈근탕으로 치료한다. 갈근(葛根) · 지각(枳殼) · 반하(半夏) · 적복령(赤茯苓) · 생지황(生地黃) · 행인(杏仁) 각 1돈, 조금(條芩) · 감초(甘草) 각 5푼, 흑두(黑豆) 100알, 생강(生薑) 3쪽, 백매(白梅) 1개.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입문(入門)》)

瘻痔、牡痔、牝痔、外痔，[并參看]。

누치(瘻痔) · 모지(牡痔) · 빈치(牝痔) · 외치(外痔) [ 4가지를 모두 참고하여 보라 ].

### 涼血飲 양혈음

- [ 痔核已破者，謂之痔瘻。治因風熱燥，歸于大腸，故涼血爲主。人蔘、黃芪、黃連、生地黃、川芎、當歸、槐角、條芩、枳殼、升麻各一錢，水煎空心服，或丸服。 (丹心) ]
- [ 치핵이 이미 터진 것을 치루(痔瘻)라고 한다. 양혈음으로 치료한다. 풍(風) · 열(熱) · 조(燥)가 대장(大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므로 혈(血)을 식히는 치료를 위주로 한다. 인삼(人蔘) · 황기(黃芪) · 황련(黃連) · 생지황(生地黃) · 천궁(川芎) · 당귀(當歸) · 괴각(槐角) · 조금(條芩) · 지각(枳殼) · 승마(升麻) 각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환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단심(丹心)) ]

### 黑玉丹 흑옥단

- [ 治痔瘻及五痔，皆因酒色過度，即成此疾。人多以外治付洗，不知病在腸

中有虫矣，不去根，其病不除。與上神應黑玉丹同。（入門）】

- [ 치루(痔瘻) 및 오치(五痔)를 치료한다. 이것은 모두 주색이 과도하여 생긴다. 사람들이 대부분 외치법으로 씻어내는 방법에만 의존하고, 장(腸) 속에 벌레가 있어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병의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처방은 앞의 신응흑옥단(神應黑玉丹)과 같다. (《입문(入門)》) ]

### 秘傳痔瘻方 비전치루방

- [ 貢衆，去毛一斤切片，燒酒二斤煮乾，川草薢，醋二斤煮炒，條芩、槐角子各半斤酒炒，鉛粉一兩酒一斤同炒。初起如珠子，或下血不止，用此五味自消矣。如穿藏成瘻<sup>13</sup>者，加當歸尾、枳殼炒各二兩，蟬退、蒼耳子各半斤，乳香、沒藥、海兒茶、血竭各一兩，明雄黃五錢。共爲細末，醋打麵糊丸梧子大，每三錢，食遠，日二次。（醫貫）]
- [ 관중(貢衆) (털을 제거한 것 1근을 얇게 썰어서 소주 2근에 넣고 졸인 다음 말린다), 천비해(川萆薢) (식초 2근으로 졸인 다음 볶는다), 조금(條芩) · 과각자(槐角子) 각 반 근 (각각 술로 볶는다), 연분(鉛粉) 1냥 (술 1근으로 함께 볶는다). 초기에 구슬 같은 것이 생기거나 하혈(下血)이 멎지 않을 때 이 5 가지 약재를 사용하면 저절로 사라진다. 만약 장에 구멍이 뚫려서 치루(痔瘻)가 된 경우에는 다음 약재를 더하여 치료한다. 당귀미(當歸尾) · 지각(枳殼) (볶는다) 각 2냥, 선태(蟬蛻) · 창이자(蒼耳子) 각 반 근, 유향(乳香) · 몰약(沒藥) · 해아다(海兒茶) · 혈갈(血竭) 각 1냥, 명웅황(明雄黃) 5돈. 모든 약재를 함께 곱게 가루 낸다. 식초를 넣고 반죽한 밀가루 풀로 오동자(梧桐子) 크

기만하게 환을 빚는다. 매번 3돈씩 식사 후 한참 지나 복용한다. 하루에 2번 복용한다. (《의관(醫貫)》) ]

### 內痔散<sup>14</sup> 환치산

- [ 凡醫內痔不得出，用此藥填入肛門，其痔即出。草烏生用、猾皮燒存性各一錢，枯礬五錢，食鹽炒三錢，射香五分，冰片二分。右細末，先用溫湯洗淨虹門<sup>15</sup>，隨用津唾調藥三錢填入肛門，片時痔即出，去藥上護痔膏。 ]
- [ 나오지 않는 내치(內痔)를 치료할 때, 이 약을 항문에 넣으면 내치가 나온다. 초오(草烏) (생것) · 위피(猾皮) (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각 1돈, 고반(枯礬) 5돈, 식염(食鹽) (볶는다) 3돈, 사향(麝香) 5푼, 빙편(冰片) 2푼. 이 약재를 곱게 가루 낸다. 먼저 따뜻한 물로 항문을 깨끗이 씻고, 이어서 약 3돈을 침으로 개어서 항문에 채워 넣으면 잠시 후 내치가 나온다. 약을 제거하고 호치고(護痔膏)를 발라준다. ]

### 護痔膏 호치고

- [ 用喚痔散痔出之後，圍護四邊好肉。白芨、石膏煅、黃連各三錢，射香二分。共細末，鷄蛋清調成膏，護住四邊好肉，上用枯痔散。 ]
- [ 환치산(喚痔散)을 사용하여 내치(內痔)를 나오게 한 후, 주변의 멀쩡한 살을 둘러서 보호한다. 백급(白芨) · 석고(石膏) (굽는다) · 황련(黃連) 각 3돈, 사향(麝香) 2푼. 이 약재를 모두 곱게 가루 낸 다음, 계란 흰자위에 개어서 고약을 만들어 주변의 멀쩡한 살을 둘러 보호한다. 그 위에 고치산(枯痔散)을 쓴

다.]

### 枯痔散 고치산

- [枯礪二兩，金頂磧<sup>16</sup>一兩，天靈蓋四錢，煅紅，清泉水淬七次。共細末，入少<sup>17</sup>新鐵鍋內，上龜磁碗蜜蓋<sup>18</sup>，鹽泥封固，炭火煅至二炷香，待冷取蓋<sup>19</sup>，將藥研末搽痔上。每日辰午申三時，用溫湯洗淨，上藥三次，上至七八日，其痔枯黑堅硬，住藥裂縫，待其自落，換洗起痔湯。]
- [고반(枯礪) 2냥, 비상(砒霜) 1냥, 천령개(天靈蓋) 4돈 (붉게 달구었다가 샘 물에 담금질하기를 7차례 한다).<sup>20</sup> 이 약재를 모두 곱게 가루 내 새로 만든 작은 철솥 안에 넣는다. 거친 자기 그릇으로 입구를 꽉 막고 소금 진흙을 발라 단단히 밀봉한다. 이것을 향 2개가 다 탈 동안 숯불로 구웠다가 식힌 다음 뚜껑을 연다. 그 속의 약을 갈아서 가루 내 치질 위에 바른다. 매일 진시(辰時) · 오시(午時) · 신시(申時) 3차례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른다. 이렇게 7~8일 시행하는 동안 그 치질이 말라서 검고 단단해지고 바른 약이 갈라지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기치탕(起痔湯)으로 바꾸어 씻어준다.]

### 起痔湯 기치탕

- [治諸痔上枯藥之後，堅硬裂縫，宜此藥洗之。○黃連、黃柏、黃芩、大黃、防風、荊芥、梔子、槐角、苦參、甘草各一兩，朴硝五錢。已上藥分作三次，水煎洗，待痔落之後，換搽生肌散。]
- [치질 위에 붙여 치질을 마르게 하는 약을 쓴 뒤에 치질이 단단해지고 바른

약이 갈라지면 이 약으로 씻어주어야 한다. ○ 황련(黃連) · 황백(黃柏) · 황금(黃芩) · 대황(大黃) · 방풍(防風) · 형개(荊芥) · 치자(梔子) · 괴각(槐角) · 고삼(苦參) · 감초(甘草) 각 1냥, 박초(朴硝) 5돈. 이 약재를 3번에 나누어 물에 달여서 씻는다. 치질이 떨어진 후에는 생기산(生肌散)으로 바꾸어 발라준다. ]

### 生肌散 생기산

- [ 治痔上臺<sup>21</sup> 之後脫落，孔竅不收者，宜用此搽。乳香、沒藥各一兩，射香八錢，赤石脂煅七錢，輕粉五錢，黃丹水飛妙、熊膽各四錢，海螵硝水煮五錢，龍骨煅、血竭<sup>22</sup> 各三錢，珍珠煅二錢，冰片一錢。共爲細末，磁罐收貯。早晚日二次，蓋膏漸斂而平。 ]
- [ 치질 위에 붙여 치질을 마르게 하는 약을 쓴 뒤에 치질이 떨어져 나가 생긴 구멍이 아물지 않을 때 이 약을 발라주어야 한다. 유향(乳香) · 몰약(沒藥) 각 1냥, 사향(麝香) 8돈, 적석지(赤石脂) ( 굽는다 ) 7돈, 경분(輕粉) 5돈, 황단(黃丹) ( 수비(水飛)한다 ) · 응담(熊膽) 각 4돈, 해표초(海螵蛸) ( 물에 삶는다 ) 5돈, 용골(龍骨) ( 굽는다 ) · 혈갈(血竭) 각 3돈, 진주(珍珠) ( 굽는다 ) 2돈, 빙편(冰片) 1돈. 이 약재를 모두 곱게 가루 내어 자기 항아리에 담아 보관한다. 아침저녁 하루 2번 바르면 고(膏)가 점차 아물어 살이 회복된다. ]

三品一條瘡<sup>23</sup> 。 [ 治十八種痔漏。凡用藥線插入痔孔內，早晚二次。初時每次挿藥三條，四日後每次挿藥五六條。上至七八日藥力滿足，痔變紫黑，方住挿藥，候痔四邊裂縫流濃。至十四日期滿痔落，用甘草湯洗淨，換搽鳳雛膏或玉紅膏，

俱可生肥<sup>24</sup>收斂。虛弱者，兼服養血健脾之藥，最爲穩當。大抵醫人能取治25  
者，皆此方也，不可輕其藥而棄之也。 ]

삼품일조창(三品一條槍). [ 18종의 치루(痔漏)를 치료한다. 무릇 약선(藥線)을 치질 구멍 안에 아침저녁 2차례 삽입한다. 처음에는 매번 3줄기를 삽입하고, 4일 후에는 매번 5 - 6줄기를 삽입한다. 7 - 8일이 되어 약력이 충분해지면 치질이 자흑색으로 변하니, 이때 약 삽입을 중단하고 치질 주변이 갈라져 고름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린다. 14일 기한이 차서 치질이 떨어지면 감초탕(甘草湯)으로 깨끗이 씻고 봉추고(鳳雛膏)나 옥홍고(玉紅膏)로 바꾸어 발라 주면 모두 새살이 돋고 기름지게 하여 수렴시킬 수 있다. 허약한 환자에게는 혈(血)을 기르고 비(脾)를 튼튼히 하는 약을 함께 복용시켜야 가장 좋다. 대저 의원이 치루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방법 때문이니, 이 약을 가볍게 여기고 버려서는 안 된다. ]

### 生肌鳳雛膏 생기봉추고

- [ 用鷄蛋煮熟，去白用黃十餘箇，銅杓內熬油，傾入盞內，約油三錢，加輕粉細末一錢，乳香、血竭、龍骨煅各五分，俱入油內和勻。每日早午晚，鷄翎蘸塗患孔內，膏蓋避風，深者半月，以宜26完口。 ]
- [ 달걀을 삶아서 익힌 후 흰자위를 제거하고 노른자 십여 개를 구리 국자 안에 넣고 졸여 기름을 낸 뒤 잔 안에 부어 넣는다. 기름이 대략 3돈 정도 되면, 경분(輕粉) ( 곱게 가루 낸다 ) 1돈, 유향(乳香) · 혈갈(血竭) · 용골(龍骨) ( 굽는다 ) 각 5푼을 더하는데, 모두 기름에 넣고 고르게 섞는다. 매일 약침 점심 저

녁에 닦 깃털로 찍어서 환부 구멍 안에 발라주고, 고약으로 덮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한다. 깊은 것도 보름 만에 완전히 아물 것이다.]

### 玉紅膏 옥홍고

- [當歸身二兩，甘草一兩二錢，白芷五錢，血竭、輕粉各四錢，紫草、白蠟各二錢，麻油一斤。先用當歸、甘草、紫草、白芷四味，入油內浸三日，大杓內謾火<sup>27</sup>熬藥微枯色，細絹濾清。將油復入杓內煎滾，下整血竭化盡，次下白蠟微火亦化。先用茶鍾四枚，預頓水中，將膏分作四處，傾入鍾內，候片時方下研極細輕粉，每鍾內投和一錢攬勻，候一伏時取起。不得加減，致取不效。（已上八方外科）]
- [당귀신(當歸身) 2냥, 감초(甘草) 1냥 2돈, 백지(白芷) 5돈, 혈갈(血竭) · 경분(輕粉) 각 4돈, 자초(紫草) · 백랍(白蠟) 각 2돈, 참기름 1근. 먼저 당귀 · 감초 · 자초 · 백지 4가지 약재를 3일간 기름에 담가둔다. 이를 큰 국자에 넣고 약한 불로 약재가 약간 마를 때까지 줄인 뒤 고운 비단으로 걸러서 맑은 것을 얻는다. 기름을 다시 국자에 넣고 끓인 후 혈갈을 통째로 넣고 완전히 녹인다. 다음에 백랍을 넣고 약한 불로 역시 녹인다. 먼저 찻잔 4개를 미리 물에 담가 두고, 고약을 4등분하여 각 잔에 부어 넣는다. 잠시 기다렸다가 아주 곱게 간 경분을 각 잔마다 1돈씩 넣고 고르게 잘 섞는다. 하루 낮과 밤 정도 기다린 후 꺼낸다. 약재를 더하거나 빼면 효과를 얻지 못한다. (이상 8가지 처방은 《외과정종(外科正宗)》에 있다)]

脫肛。 [ 卽腸痔。 肛門翻出也。 肺與大腸爲表裏，腎主大便，肺腎虛者，多有此證。 參芪湯升之。 ]

탈항(脫肛). [ 곧, 장치(腸痔)이다. 항문이 뒤집혀 나온 것이다. 폐(肺)와 대장(大腸)은 표리(表裏) 관계이고, 신(腎)은 대변을 주관한다. 폐(肺)와 신(腎)이 허(虛)하면 탈항이 잘 생긴다. 삼기탕(參芪湯)으로 올려준다. ]

### 參芪湯 삼기탕

- [ 治肛門虛寒脫出。 人參、黃芪蜜炒、當歸、白朮、生地黃、白芍藥酒炒、白茯苓各一錢，升麻、吉梗、陳皮、乾薑炒各五分，甘草三分。右剉作一貼，水煎服。 (回春) ]
- [ 항문이 허한(虛寒)하여 빠져나온 것을 치료한다. 인삼(人蔘) · 황기(黃芪) (꿀을 발라 볶는다) · 당귀(當歸) · 백출(白朮) · 생지황(生地黃) · 백작약(白芍藥) (술에 적셔 볶는다) · 백복령(白茯苓) 각 1돈, 승마(升麻) · 길경(桔梗) · 진피(陳皮) · 건강(乾薑) (볶는다) 각 5푼, 감초(甘草) 3푼. 이 약재를 썰어서 1첩으로 만들어 물에 달여 복용한다. (《회춘(回春)》) ]

### 猾皮散 위피산

- [ 治因泄痢或努力脫肛。 獥皮、鼈甲各一箇燒存性，磁石煅醋淬七次五錢，桂心三錢。右末，每二錢，空心，米飲下。仍用草鞋底灸熱按入，忌房事。 (入門) ]
- [ 설사나 이질 혹은 힘을 쓰다가 탈항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위피(猾皮) ·

별갑(鼈甲) 각 1개 ( 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 자석(磁石) ( 불에 달구고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한다 ) 5돈, 계심(桂心) 3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매번 2돈씩 빈속에 미음으로 복용한다. 그리고 짚신 밑바닥을 뜨겁게 데워 빠진 항문을 밀어 넣는다. 성생활을 피한다. (《입문(入門)》) ]

肛門痒痛。 [ 肛門作痒，乃腸中有虫也。肛痒宜黑玉丹。 ( 方見上 ) ]

항문이 가렵고 아픈 경우. [ 항문이 가려운 것은 장(腸) 속에 벌레가 있기 때문이다. 항문이 가려울 때는 흑옥단(黑玉丹)을 써야 한다. ( 처방은 앞에 있다 ) ]

### 秦艽羌活湯 진교강활탕

- [ 治癆瘻<sup>28</sup> 成塊下墜，不任其痒。羌活一錢五分，秦艽、黃芪各一錢，防風七分，升麻、麻黃、柴胡、甘草炙各五分，藁本三分，細辛、紅花各二分。右剉作一貼，空心水煎服。 ( 東垣 ) ]
- [ 치루(痔漏)에 덩어리가 생겨 아래로 처지고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강활(羌活) 1돈 5푼, 진교(秦艽) · 황기(黃芪) 각 1돈, 방풍(防風) 7푼, 승마(升麻) · 마황(麻黃) · 시호(柴胡) · 감초(甘草) ( 굽는다 ) 각 5푼, 고본(藁本) 3푼, 세신(細辛) · 흥화(紅花) 각 2푼. 이 약재를 썰어서 1첩으로 만들 어 빈속에 물에 달여 복용한다. (《동원(東垣)》) ]

### 七聖丸 칠성환

- [ 治肛門痛不可忍。訣<sup>29</sup> 曰，積氣生於脾藏傍，大腸痛疼陣難當。此藥主

之。郁李仁泥一兩半，羌活一兩，大黃煨八錢，檳榔、桂心、唐木香、川芎各五錢，爲末，蜜丸梧子大，白湯下三五十丸，微利卽愈。切不可快利，其痛滋甚。（正傳） ○一名止痛丸】

- [ 항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것을 치료한다. 《맥결(脈訣)》에서 말하였다. "적기(積氣)가 비장(脾臟) 옆에 생기면, 대장(大腸)이 아파 견디기 어렵다." 이럴 때 이 약으로 치료한다. 육리인(郁李仁) (질게 간다) 1냥 반, 강활(羌活) 1냥, 대황(大黃) (잿불에 묻어 굽는다) 8돈, 빈랑(檳榔) · 계심(桂心) · 당목향(唐木香) · 천궁(川芎) 각 5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 만하게 환을 빚어 끓인 물로 30 - 50알씩 복용한다. 약간 설사가 나면 낫는다. 절대로 심하게 설사시키면 안 된다.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정전(正傳)》) ○ 지통환(止痛丸)이라고도 한다.]

### 清心丸 청심환

- [ 治痔痒痛。內經曰，諸痛瘡痒，皆屬心火。此諸痔受病之源也。此藥主之。黃連一兩，茯神、赤伏苓各五錢。右爲末，蜜丸梧子大，空心米飲下百丸。 (丹心) ]
- [ 치질로 가렵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모든 통증과 부스럼과 가려움은 모두 심화(心火)에 속한다." 이것이 여러 가지 치질이 생기는 이유이다. 이 처방으로 치료한다. 황련(黃連) 1냥, 복신(茯神) · 적복령(赤茯苓) 각 5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빈속에 미음으로 100알씩 복용한다. (《단심(丹心)》) ]

### 三神丸 삼신환

- [ 治僧徒流<sup>30</sup>，久坐因飽食，發爲諸痔。枳角、皇<sup>31</sup>蝦、五倍子炒各等分。  
爲末，蜜丸梧子大，空心，溫水下五七十丸。 ( 東垣 ) ]
  - [ 승려나 도사가 오래 앉아 있거나 배불리 먹어서 생긴 여러 가지 치질을 치료 한다. 지각(枳殼) · 조각(皂角) ( 달군다 ) · 오배자(五倍子) ( 볶는다 ) 모두 같은 양.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을 빚는다. 빈 속에 따뜻한 물로 50 - 70알씩 복용한다. (《동원(東垣)》) ]
- 痔病凶證。 [ 久痔與陰相通者，死。 ( 甲乙 ) ○痔漏成穴，大小便相通者，亦死。 ( 甲乙 ) ]

치질에 예후가 나쁜 경우. [ 오랜 치질로 항문이 요도와 통하면 죽는다. (《갑을(甲乙)》) ○치루(痔漏)로 생긴 구멍으로 대소변이 서로 통할 때도 죽는다. (《갑을(甲乙)》) ]

1. 久漏 ↪ 久瘻 ※《동의보감》 ←
2. 神應玉石丹 ↪ 神應黑玉丹 ※《동의보감》 ←
3. 火蝦 ↪ 火蝦存性 ※《동의보감》 ←
4. 二分：二錢 ※《동의보감》 ←
5. 下不脫肛條 ↪ 下脫肛條 ※《동의보감》 ←
6. 濕 ↪ 溫 ※《동의보감》 ←

7. 腸澼 : 《동의보감》에는 없다. ←
8. 散毒散 ↪ 人參敗毒散 ※《동의보감》 ←
9. 外痔 : 近血 ※《동의보감》 ←
10. 青 ↪ 淸 ※《동의보감》 ←
11. 薑活 ↪ 羌活 ※문맥상 ←
12. 熟湯 ↪ 热物 ※《동의보감》 ←
13. 痔 ↪ 漏 ※문맥상 ←
14. 內痔散 ↪ 嘸痔散 ※《외과정종》 ←
15. 虹門 ↪ 肛門 ※문맥상 ←
16. 金頂磚 ↪ 硷霜 ※《외과정종》 ←
17. 少 ↪ 小 ※《외과정종》 ←
18. 蜜蓋 ↪ 密蓋 ※《외과정종》 ←
19. 蓋 ↪ 開 ※《외과정종》 ←
20. 《외과정종》에는 다음 2가지 약재가 더 있다. "蟾酥二錢, 輕粉四錢" ←
21. 膏 ↪ 枯藥 ※《외과정종》 ←
22. 血竭 ↪ 血竭 ※문맥상 ←
23. 三品一條瘡 ↪ 三品一條槍 ※《외과정종》 ←

24. 生肥 ☞ 生肌 ※《외과정종》 ←
25. 取治 ☞ 取痔 ※《외과정종》 ←
26. 以宜 ☞ 可以 ※《외과정종》 ←
27. 謾火 ☞ 慢火 ※《외과정종》 ←
28. 痘瘻 ☞ 痘漏 ※《동의보감》 ←
29. 誤 ☞ 脈訣 ※《동의보감》 ←
30. 僧徒流 ☞ 僧道流 ※《동의보감》 ←
31. 皂 ☞ 皂角 ※《동의보감》 ←

## 해제

### 개요

《일금방(一金方)》은 조선 후기 김홍제(金弘濟)가 저술한 종합 의서이다. 1928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자

저자 김홍제(金弘濟, 1887~?)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다. 책의 간기에 저자 의 주소가 "咸南咸興郡上岐川面上中里"로 기재되어 있고, 조정윤(趙鼎允)이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을 치료해 준 일화를 소개한 점으로 보아, 김홍제가 함경남도에서 의술을 펼치며 살았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 구성

이 책은 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은 대체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의 목차를 따르고 있다. 권1은 내경편(內景篇)으로, 정(精)、기(氣)、신(神)、혈(血)、진액(津液)、담음(痰飲)、오장육부(五臟六腑)(간장(肝臟)、심장(心臟)、비장(脾臟)、폐장(肺臟)、신장(腎臟)、담부(膽腑)、위부(胃腑)、소장부(小腸腑)、대장부(大腸腑)、방광부(膀胱腑)、삼초부(三焦腑))、포락(胞絡)、충(蟲)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2는 외형편(外形篇)으로, 소변(小便)、대변(大便)、리(痢)、두(頭)、면(面)、안(眼)、이

(耳)、비(鼻)、구설(口舌)、아치(牙齒)、인후(咽喉)、경항(頸項)、배(背)、흉(胸)、복(腹)、요(腰)、협(脇)、피(皮)、근(筋)、수(手)、족(足)、모발(毛髮)、전음(前陰)、부인전음(婦人前陰)、후음(後陰)의 내용을 포함한다.

권3에는 운기(運氣)、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의 내용이 담겨 있다. 권4와 권5는 잡병편(雜病篇)에 해당하는데, 권4에는 화(火)、울(鬱)、내상(內傷)、허로(虛勞)、곽란(癰亂)、구토(嘔吐)、반위(反胃)、해수(咳嗽)、해천(咳喘)、적취(積聚)、부종(浮腫)、창만(脹滿)、소갈(消渴)、황달(黃疸)의 내용을, 권5에는 해학(痃瘧)、온역(溫疫)、장려(瘴癘)、옹저(癰疽)、영류(癰瘤)、저창(疽瘡)、창양(瘡瘍)、궐론(厥論)、제중(諸中)、오절(五絕)、구급(救急)、제상(諸傷)、해독(解毒)、기질(奇疾)、팔절풍(八節風)、오색사병(五色死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권6에는 부인문(婦人門)과 소아문(小兒門)이 있다.

권7은 본초(本草), 권8은 경락(經絡)과 침구(鍼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금방》은 《동의보감》의 목차를 대체로 따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변(小便)、대변(大便)의 내용이 《동의보감》에서는 내경편에 있지만 《일금방》에서는 외형편에 위치한다. 또한 운기(運氣)、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의 내용을 《동의보감》에서는 잡병편에 포함시켰으나, 《일금방》에서는 잡병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형편과 잡병편 사이에 두었다. 부인문(婦人門)과 소아문(小兒門) 역시 잡병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잡병편 뒤에 따로 두었다.

목차상 빠지거나 더해진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 존재하는 내경편의 신형(身形)、몽(夢)、성음(聲音)、언어(言語), 외형편의 유(乳)、제(臍)、육(肉)、맥(脈)、골(骨), 잡병편의 심병(審病)、변증(辨證)、진맥(診脈)、용약(用藥)、한

(汗)、토(吐)、하(下)、사수(邪祟) 등이 《일금방》에는 빠져있다. 반면 잡병편의 장려(瘴癘)、저창(疽瘡)、궐론(厥論)、제중(諸中)、오절(五絕)、기질(奇疾)、팔절풍(八節風)、오색사병(五色死病) 등의 내용은 《동의보감》에 없지만 《일금방》에서 추가되었다.

## 의의

《일금방》은 조선의 대표 의서인 《동의보감》과 당시 새롭게 수입된 의서 《석실비록》(石室秘錄)을 융합하여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 의서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일금방》 역시 구성과 내용에서 《동의보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중국 청대(清代) 진사택(陳士鐸)이 1687년 저술한 《석실비록》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석실비록》은 내용과 구성 면에서 독특하다. 본문은 중국 전통 의학의 성현으로 알려진 기백(岐伯)、장기(張機)、화타(華佗)、뇌공(雷公)이 등장해 가르침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내치(內治)、외치(外治)、급치(急治)、완치(緩治)、정치(正治)、반치(反治) 등 128가지 치료법을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질병과 치법을 설명하였다. 이는 《동의보감》과 매우 대조적인데, 《동의보감》은 편찬자의 견해를 절제하고 기존 의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인체 구성 요소와 질병을 중심으로 의학 이론과 치법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책을 한데 모아 만들어진 의서가 바로 《일금방》이다.

《일금방》은 조선 후기 의학자들이 《석실비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다. 《동의보감》에 익숙해져 있던 의학자들이 《석실비록》이라는 새로운 의학 지식을 수용하여 기존 지식과 융합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는 조선 후기 의학자들이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접하고 나서 《본초유함(本草類函)》(1833)·《본초부방편람(本草附方便覽)》(1855)·《본초방(本草方)》(1860?) 등 다양한 의서를 저술하며 기존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통합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만 조선에서 《석실비록》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장서각에 《석실비록》의 조선 필사본(장서각 K3-347)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 필자 미상의 조선 원고본 의서 《석실방약유취(石室方藥類聚)》가 《석실비록》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조선 후기에 《석실비록》이 유입되었으며 일부 의학자들이 이를 관심 있게 보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 판본

번역 모본으로 삼은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朝68-14)이다. 이 판본은 1928년 간본으로,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모두 이와 같은 간본이며 다른 종류의 간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간본 권두 서문 말미에는 "昭和二年陰丁卯十一月 漢陽趙鼎允謹序"라고 적혀 있다. 또 권말 간기(刊記)에는 "昭和二年十二月二十日印刷", "昭和三年一月九日發行"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통해 1927년 말에 집필이 완료되어 이듬해 1928년

초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말 간기에는 또 저작자는 김홍제, 발행자는 조정윤(趙鼎允), 인쇄자는 장순완(張順完), 인쇄소는 흥문당(興文堂) 인쇄소, 발행소는 조정윤방(趙鼎允方)으로 명시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김중권. 《一金方》(한古朝68-14)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 안상우. [고의서산책 644] 石室秘方에 대한 새로운 임상적용. 민족의학신문. 2014.
- 안상우. [고의서산책 645] 寶鑑法例 의거한 論病藥方. 민족의학신문. 2014.
- 오준호. 19-20세기 조선 의가들의 《본초강목》 재구성하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7.
- 정지훈. 《一金方》에 보이는 溫補學說 -精, 氣, 神, 血門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2;15(1):213-222.
- 차웅석. 석실비록(石室秘錄)(장서각 K3-347) 상세정보. 디지털장서각.
- 이정현. 한의학 고서 목록.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죄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글자는 다르나 당시 통용되었던 글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예시) 敗=歛, 蔡=芪, 墓=裹, 邶=郤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 서적의 작은 글씨
  - **임의 제목** :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삽입한 제목



## 출판사항

서명 : 국역 일금방 2 一金方 二

원저자 : 김홍제 金弘濟

국역 : 오준호

해제 : 오준호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5년 11월 10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오준호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5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비매품

- ISBN 978-89-5970-597-9 (PDF)
- ISBN 978-89-5970-611-2 (세트)